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4

#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책임 연구자 : 배 주 미

공동 연구자 : 김 동 민

정 슬 기

강 태 훈

박 현 진

**청소년상담연구 154**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인 쇄 : 2010년 12월  
발 행 : 2010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2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아름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464-0 93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10년 전국청소년 위기실태조사 / 책임연구자: 배주미 ; 공동연구  
자: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 cm. --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4)

참고문헌 수록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  
ISBN 978-89-8234-464-0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문제 [靑少年問題]

334.3-KDC5  
362.7-DDC21

CIP2010004474

## 간행사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며, 저연령화 되고 있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급증, 다문화 가정의 증가, 치열한 입시경쟁 등의 사회적 환경은 이들 청소년의 문제를 더욱 촉발시키고,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위기상황 및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10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대상인 위기 청소년의 문제 영역별 수치를 밝혀 효율적 청소년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대상별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 설문지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좀 더 정확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전국규모의 표본설계를 통해 기존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합을 통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협조 아래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 모집단과 유사하도록 는 16개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일반학생의 위гы요소(위기환경)에 따른 고위험군은 전체 2.0%, 잠재적 위험군은 13.4%, 일반군은 84.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위гы요소(위기환경)에 따른 고위험군이 17.6%, 잠재적 위험군이 22.3%, 일반군집단이 55.1%로 일반학생에 비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청소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부처간 효율적 연계 체계 구축과 통합적 서비스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대책마련과, 취약계층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되었습니다.

연구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배주미 박사, 김동민 박사, 정슬기 박사, 강태  
훈 박사, 박현진 박사께 수고의 치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현장전문가와 자문위원, 16개 시도센터 담당자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  
다.

2010년 12월

원장 차 정 섭



## 초 록

본 연구는 이전에 실시된 위기청소년 실태에 대한 선행조사를 기초로 기존 실태조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도구를 개발, 전국규모의 표본설계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위기청소년의 규모 추정 및 지역 및 문제 영역에 대한 위기수준을 추정하고자 한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전국 청소년 실태조사를 참조하였으며, 예비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합을 통해 위기실태조사 설문문항을 선정하고 표본설계를 실시한 후,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협조 아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16개 시·도의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실태조사 문항 구성 과정에서는 200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문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위기 평정척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본 후 설문문항의 영역을 도출하였고, 영역별 하위문항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검증을 통해 도출된 1차 문항을 268명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와 전문가 합의를 바탕으로 본 검사에 포함될 최종 문항 100문항(보호요인 문항 10문항 추가)을 선정하였는데, 이들 최종 문항은 크게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로 나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위기요소는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의 현황을 질문하는 문항들이며, 위기결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위험요인 실행 여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전국 규모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청소년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표본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태조사 담당자 회의 및 조사절차와 코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Modified Angoff 방법을 통해 위기수준에 대한 기준점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14인이 모여 전체 피험자를 위험군, 잠재군 그리고 일반군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 분할기준점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요소 총점수를 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일반군 3군으로 분류하였고, 위기결과 항목의 해당여부에 따라 총 6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를 2가지를 통합하여 고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1수준, 잠재적 위험군이

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2수준, 일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3수준, 위기결과는 없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4수준, 위기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잠재적 위험군인 5수준, 위기결과도 없고 일반군인 6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최종 89,827명의 일반청소년과 3,776명의 취약위기청소년이 설문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역별로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였고, 결과 분석은 일반학생 전체 5,238,590명과 취약위기청소년 59,683명의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제시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일반학생의 위기요소(위기환경)에 따른 고위험군은 전체 2.0%, 잠재적 위험군은 13.4%, 일반군은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위기결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모두 8.5%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경험한 1수준 청소년들은 1.2%, 잠재적 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경험한 2수준 청소년은 3.1%, 일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경험한 3수준 청소년은 4.2%였으며, 고위험군이나 위기결과는 경험하지 않은 4수준은 전체 일반학생의 0.8%, 잠재적 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는 없는 5수준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10.3%, 위기결과가 없는 일반군 청소년은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위기요소(위기환경)에 따른 고위험군이 17.6%, 잠재적 위험군이 22.3%, 일반군집단이 55.1%로 일반청소년집단에 비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청소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둘째, 부처간 효율적 연계 체계 구축과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강조되었다. 셋째,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입대책 마련과, 넷째, 가정경제적 어려움,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 취약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중적, 적극적 개입을 통한 위기청소년 예방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5만명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개입할 수 있는 체계마련과 인적인프라 구축이 제시되었고, 여섯째, 심각한 수준의 자살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및 집중적 개입대책 마련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일곱째, 성매매, 성폭력 피해, 성폭력 가해와 관련된 전문적 개입기관 마련과 인력 확충 시급하였다. 여덟째, 심각한 신체폭행, 절도, 강탈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필요하였다. 아홉째, 높은 중복위기와 청소년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위기문제 전문가의 강화와 확충이 요망되었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위기청소년의 정의	4
2. 위기청소년의 유형	6
3. 위기실태조사 선행연구	18
III. 연구방법	26
1. 연구 절차	26
2. 실태조사 개발 및 타당화 작업	27
3. 실태조사 실시	40
IV. 연구결과	57
1. 조사대상	57
2. 위기요소 문항내적합치도	71
3. 위기수준(6수준) 분포	72
4. 배경변인별 위기수준 분포	76
5.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105
6.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265
7. 위기결과 유형별 빈도 분포	275
V. 요약 및 논의	409
참고문헌	432
부    록	437





## 표

표 1. 연령별 위험요인 .....	7
표 2.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들 .....	8
표 3. 위기수준의 기준 .....	15
표 4. 청소년 위기 유형(구분용 외, 2005) .....	16
표 5. 청소년 위기 유형(World Bank 보고서, 2008) .....	17
표 6. 세 선행연구 실태조사 내용 비교 .....	20
표 7.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	21
표 8.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 .....	22
표 9. 소년위험 평가도구 .....	24
표 10. 위기요인 문항 .....	28
표 11. 위기결과 문항 .....	28
표 12. 전문가 의견 내용 .....	29
표 13. 전문가 검증 평균과 표준편차 .....	32
표 14. 조사대상 분포 .....	34
표 15. 위험요인의 점수 분포 .....	34
표 16. 위험요인의 내적합치도 .....	35
표 17. 상관분석 .....	35
표 18. 요인별 문항 .....	36
표 19. 요인분석 결과 .....	37
표 20. 문항 변경 전후 .....	38
표 21. 위기요소 하위문항 .....	40
표 22. 조사대상 일반청소년 수 .....	46
표 23. 조사대상 취약·위기 청소년 수 .....	46
표 24. 위기수준 반영에 대한 전문가 평정 결과와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가중치 .....	48
표 25. 전국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	52
표 26. 위기요소와 위기결과에 따른 6수준 분류 .....	52



표 27. 6수준 분류 및 설명	53
표 28.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	53
표 29. 위기요소 cut-off 점수	54
표 30. 일반학생 시도별 분포	57
표 31. 일반학생 시도별 분포(지역별 가중치 적용)	58
표 3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분포	59
표 33.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분포(지역별 가중치 적용)	59
표 34. 일반학생 성별 분포	60
표 35. 일반학생 성별 분포(가중치 적용)	60
표 36.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분포	60
표 37.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분포(가중치 적용)	61
표 38. 일반학생 학교별 분포	61
표 39. 일반학생 학교별 분포(가중치 적용)	61
표 4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 및 기관별 분포	62
표 41. 취약·위기청소년 기관별 분포	62
표 4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 및 기관별 분포(가중치 적용)	63
표 43. 취약·위기청소년 기관별 분포(가중치 적용)	63
표 44. 일반학생 학년별 분포	64
표 45. 일반학생 학년별 분포(가중치 적용)	64
표 46.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분포	65
표 47.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분포(가중치 적용)	65
표 48. 일반학생 거주형태별 분포	66
표 49. 일반학생 거주형태별 분포(가중치 적용)	66
표 50. 취약·위기청소년 거주형태별 분포	67
표 51. 취약·위기청소년 거주형태별 분포(가중치 적용)	67
표 52.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분포	68
표 53.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분포(가중치 적용)	68
표 54.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분포	69



표 55. 취약 · 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분포(가중치적용)	69
표 56.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70
표 5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가중치 적용)	70
표 58.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71
표 59.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가중치 적용)	71
표 60. 위기요소 문항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	71
표 61. 일반청소년 전체 위기요소 분포	72
표 62. 일반학생 전체 위기결과 분포	73
표 6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별 분포	74
표 64.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 분포	74
표 65.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결과 분포	75
표 66.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별 분포	76
표 67.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요소 분포	77
표 68.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결과 분포	78
표 69.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수준 분포	79
표 70.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요소 분포	80
표 71.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결과 분포	81
표 72.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수준 분포	82
표 73. 일반학생 성별 위기요소 분포	83
표 74. 일반학생 성별 위기결과 분포	83
표 75. 일반학생 성별 위기수준 분포	84
표 7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요소 분포	84
표 77.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위기결과 분포	84
표 78.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분포	85
표 79. 일반학생 학교별 전체 위기요소 분포	85
표 80. 일반학생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	86
표 81. 일반학생 학교별 위기수준 분포	86
표 82. 취약 · 위기청소년 학교별 전체 위기요소 분포	87



표 83.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 .....	88
표 8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위기수준 분포 .....	89
표 85.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요소 분포 .....	90
표 86.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 .....	91
표 87.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수준 분포 .....	92
표 8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요소 분포 .....	93
표 89.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 .....	94
표 9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수준 분포 .....	95
표 91.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요소 분포 .....	96
표 92.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결과 분포 .....	97
표 93.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 .....	98
표 94.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요소 분포 .....	99
표 95.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결과 분포 .....	100
표 96.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 .....	101
표 9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요소 분포 .....	102
표 98.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 .....	102
표 9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수준 분포 .....	103
표 100.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요소 분포 .....	104
표 101.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 .....	104
표 10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수준 분포 .....	105
표 10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06
표 104.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06
표 105.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07
표 106.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07
표 107.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08
표 108.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09
표 109.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0
표 110.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0



표 111. 일반학생의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0
표 11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2
표 113.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3
표 114.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4
표 115.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5
표 116.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	115
표 117.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16
표 118.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16
표 119.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17
표 120.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17
표 121. 일반학생 시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18
표 12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19
표 123. 일반학생 성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0
표 124.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0
표 125. 일반학생 학교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1
표 126.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40
표 127. 일반학생 학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3
표 12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4
표 12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5
표 130.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25
표 131.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26
표 132.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26
표 133.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27
표 134.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27
표 135. 일반학생 시도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	128
표 136.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	129
표 137. 일반학생 성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	130
표 138.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	130



표 139. 일반학생 학교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	131
표 14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	132
표 141. 일반학생 학년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	133
표 142.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	134
표 143.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	135
표 14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	135
표 145.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36
표 146.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36
표 147.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37
표 148.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37
표 149. 일반학생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38
표 150.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39
표 151. 일반학생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0
표 15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0
표 153. 일반학생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1
표 15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2
표 155. 일반학생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3
표 156.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4
표 15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5
표 158.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	146
표 159.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46
표 160.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47
표 161.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47
표 162.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48
표 163.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49
표 164.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0
표 165.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1
표 166.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1



표 16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2
표 168.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3
표 169.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4
표 17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5
표 171.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6
표 17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56
표 17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57
표 174.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57
표 175.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58
표 176.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58
표 177.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59
표 178.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0
표 179.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1
표 180.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1
표 181.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2
표 18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3
표 18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4
표 184.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5
표 185.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6
표 186.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	166
표 187.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67
표 188.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67
표 189.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68
표 190.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68
표 191.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69
표 19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0
표 193. 일반학생 성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1
표 194.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1



표 195.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2
표 196.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3
표 197.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4
표 19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5
표 19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6
표 200.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	176
표 201.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77
표 202.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77
표 203.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78
표 204.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78
표 205.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79
표 206.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0
표 207.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1
표 208.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1
표 209.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2
표 21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3
표 211.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4
표 212.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5
표 213.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6
표 21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	186
표 215.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87
표 216.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87
표 217.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88
표 218.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88
표 219.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89
표 220.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0
표 221.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1
표 22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1





표 223.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2
표 22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3
표 225.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4
표 226.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5
표 22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6
표 228.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96
표 229.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97
표 230.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97
표 231.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98
표 232.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198
표 233. 일반학생의 시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199
표 234.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0
표 235. 일반학생 성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1
표 236.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1
표 237.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2
표 238.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3
표 239.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4
표 24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5
표 241.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6
표 24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206
표 24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07
표 244.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07
표 245.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08
표 246.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08
표 247.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09
표 248.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0
표 249. 일반학생 성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1
표 250.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1



표 251.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2
표 25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3
표 253.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4
표 254.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5
표 255.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6
표 256.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	216
표 257.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17
표 258.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17
표 259.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18
표 260.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18
표 261. 일반학생 시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19
표 26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0
표 263. 일반학생 성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1
표 264.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1
표 265. 일반학생 학교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2
표 266.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3
표 267. 일반학생 학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4
표 26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5
표 26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6
표 270.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226
표 271.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27
표 272.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27
표 273.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28
표 274.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28
표 275.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29
표 276.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0
표 277.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1
표 278.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1



표 279.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2
표 28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3
표 281.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4
표 282.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5
표 283.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6
표 28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6
표 285.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37
표 286.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37
표 287.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38
표 288.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38
표 289.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39
표 290.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0
표 291.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1
표 292.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1
표 293.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2
표 29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3
표 295.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4
표 296.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5
표 29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6
표 298.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246
표 299.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47
표 300.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47
표 301.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48
표 302.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48
표 303. 일반학생 시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49
표 304.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0
표 305. 일반학생 성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1
표 306.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1



표 307. 일반학생 학교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2
표 308.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3
표 309. 일반학생 학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4
표 31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5
표 311.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6
표 31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256
표 313.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57
표 314.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57
표 315.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현재 가출 상태 .....	258
표 316.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현재 가출 상태 .....	259
표 317.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현재 가출 상태 .....	260
표 31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현재 가출 상태 .....	261
표 319.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현재 가출 상태 .....	261
표 320.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62
표 321.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262
표 32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	263
표 323.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	264
표 32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	264
표 325.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67
표 326. 일반학생 성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68
표 327. 일반학생 학교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68
표 328.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69
표 32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70
표 330.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71
표 331.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72
표 33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72
표 333.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73
표 33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274



표 335.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	276
표 336.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	277
표 337.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	277
표 338.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	278
표 33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	279
표 340.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	280
표 341.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	281
표 342.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	282
표 343.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	283
표 34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	284
표 345.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	285
표 346.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	286
표 347.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	287
표 348.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	288
표 34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빈도 분포 .....	289
표 350.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	290
표 351.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	291
표 352.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	292
표 353.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	293
표 35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	294
표 355. 일반학생 시도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	295
표 356. 일반학생 성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	296
표 357. 일반학생 학교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	297
표 358. 일반학생 학년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	298
표 35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	299
표 360. 일반학생 시도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	300
표 361. 일반학생 성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	301
표 362. 일반학생 학교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	301



표 363. 일반학생 학년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	302
표 36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	303
표 365. 일반학생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	304
표 366. 일반학생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	305
표 367. 일반학생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	306
표 368. 일반학생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	307
표 36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	308
표 370. 일반학생 시도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09
표 371. 일반학생 성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0
표 372. 일반학생 학교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1
표 373. 일반학생 학년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2
표 37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3
표 37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4
표 376.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5
표 37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6
표 37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7
표 37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8
표 38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19
표 381.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0
표 38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1
표 38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2
표 384.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3
표 38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4
표 386.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5
표 38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6
표 38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7
표 38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28
표 39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	329



표 391. 일반학생 성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	330
표 39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	331
표 39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	332
표 39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	333
표 39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	334
표 396. 일반학생 성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	335
표 39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	336
표 39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	337
표 39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	338
표 40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	339
표 401. 일반학생 성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	340
표 40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따돌린 경험등 빈도 분포 .....	341
표 40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	342
표 40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	343
표 40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	344
표 406. 일반학생 성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	345
표 40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	346
표 40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	347
표 40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	348
표 41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	349
표 411. 일반학생 성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	350
표 41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	351
표 41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	352
표 41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	353
표 415.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	354
표 416.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	355
표 417.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	356
표 418.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	357



표 41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	358
표 420.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	359
표 421.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	360
표 422.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	361
표 423.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	362
표 42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	363
표 425.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	364
표 426. 일반학생 성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	365
표 427.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	366
표 428.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	367
표 42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	368
표 430.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	369
표 431. 일반학생 성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	370
표 432.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	371
표 433.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	372
표 43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	373
표 435.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	374
표 436. 일반학생 성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	375
표 437.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	376
표 438.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	377
표 43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	378
표 440. 일반학생 시도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	379
표 441. 일반학생 성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	380
표 442. 일반학생 학교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	381
표 443. 일반학생 학년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	382
표 44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	383
표 445. 일반학생 시도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	384
표 446. 일반학생 성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	385





표 447. 일반학생 학교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	386
표 448. 일반학생 학년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	387
표 44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	388
표 450.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89
표 451.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90
표 452.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91
표 453.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91
표 45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	393
표 455.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	394
표 456.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	395
표 457.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	396
표 458.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	397
표 45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	398
표 460.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	399
표 461.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	400
표 462.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	401
표 463.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	402
표 46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	403
표 465. 일반학생 시도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	404
표 466. 일반학생 성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	405
표 467. 일반학생 학교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	406
표 468. 일반학생 학년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	407
표 46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	408



## | 그림

그림 1. 위기의 진행 과정 .....	13
그림 2. 영국 커넥션즈의 청소년 위기 수준 .....	14
그림 3. 위기연속선 .....	16
그림 4. 연구절차 .....	26
그림 5. 스크리 도표 .....	36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극심한 빈곤, 가족해체, 학교부적응, 비행 등이 지적되고 있다(윤철경 등, 2006에서 재인용).

실제 이러한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추세로, 그 이전에는 이를 다루는 분야에 따라 비행, 가출, 성문제, 정신과적 문제나 혹은 학교에서의 부적응, 학교중단 등 각각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문제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입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즉, 학교중단 및 학교부적응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다양한 비행문제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중심으로 법무부처에서 다루거나, 빈곤 및 가족해체와 관련하여서는 복지관련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관련 부처에서 개입하는 등 청소년이 지닌 문제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관심을 두고 대처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가 단일적인 양상을 띠기보다는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문제에 대한 조사나 대처보다는 다소 통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 하에 OECD(1996)에서는 학교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과 성인생활의 전환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며, 그 결과 적극적인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들로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을 갖거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 호주와 이스라엘 등의 청소년 정책과 서비스에서는 유사한 정의를 통해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위원회(2005)를 중심으로 개인·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2006)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였으며, 윤철경 등(2006)도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들 위기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그 조사대상의 수와 체계성 면에 있어 처음 시도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나타내었다. 이에 200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다시 전국수준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조사의 경우 또한 체계적 계획 하에 이루어진 조사라기보다는 지역의 자발적인 조사결과를 묶어 분석하였다는 한계로 인해 그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를 통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파악은 이들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이들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통합적인 서비스 내용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부예산의 규모가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10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이전의 선행조사를 기초로 이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고 실정에 맞는 표본설계를 통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자체가 복지, 법 및 정신건강의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위기청소년의 문제와 영역'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이들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조사도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각 영역의 청소년의 인구학적 분포에 근거하여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를 실시 한 후, 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좀 더 정확한 청소년 위기 실태자료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계획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시사된다.

## 2. 연구 과제

첫째, 위기청소년의 개념에 대해 점검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도구를 개발한다.

둘째, 전국규모의 표본설계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체적인 위기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 지역 및 문제 영역에 대한 위기수준을 추정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위기청소년의 정의

위기(at-risk)라는 말은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에서는 정서적·적응적 문제를 가진 개인 중심으로 위기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교육학에서는 교육시스템에서 탈락한 청소년 혹은 학교 졸업 후 성공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그 대상으로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McWhirter 등은 위기를 ‘현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을 때 미래에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McWhirter, McWhirter, McWhirter, & Mcwhirter,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언급되어 왔다. OECD(1996)는 학교부적응·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과 성인생활의 전환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며, 그 결과 적극적인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들로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을 갖거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서는(Cunningham, Cohan, Naudea, & McGinnis, 2008) 위기청소년을 12~24세 연령층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내의 생산시민(노동인구)으로서의 성공적인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 사회, 가족 환경에 처한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 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을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 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나 임신학생, 국제난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청소년, 약물복용 청소년, 무단결석자, 퇴학자, 학습부진아, 학습장애 청소년,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낮은 자존감과 동기 등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지칭하였다(윤철경, 2005, 재인용).

그 외에 이스라엘은 복지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가정생활과 환경, 행동 또는 적응

장애가 그들의 복리와 건강한 발달에 위협을 주는 0-18세 사이의 청소년(Lahav, 2005, 송원영, 2005 재인용), 호주는 자신이나 사회를 위해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McGuirk, 2001)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비행행동이나 불법행동을 저질러 유죄선고를 받지 않았지만 비행행동을 저지를 잠재성과 연관이 있는 위험요인(빈곤, 약물이나 알코올사용, 갱개입, 지지적인 또는 안정적 가족환경의 결여)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청소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4가지 주된 위험한 요인(risk factors) 즉, 학교성적의 실패, 유해약물의 사용, 사법체계의 연루 및 십대 임신에 처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보고 있다(윤철경, 2005, 재인용).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이내의 일로, 청소년위원회(2005)에서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구분용 등(2005)은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으로 정의 내렸다. 청소년복지지원법(2005)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윤철경 등(2005)은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로서,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가정에서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크며,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 기술을 제공받고, 학교의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문제에 의한 실패,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빈곤상태에서의 삶을 사는 청소년들로 정의 내렸다. 김은경 등(2006)은 현재는 파괴적 행동을 보이지는 않지만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신체장애,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라고 하였으며, 유성경(2000)은 만성적인 가정불화, 부모의 이혼, 자녀에 대한 낮은 관여 등의 가족 요인, 또래의 비행 여부, 또래와의 관계 문제 등의 또래요인, 물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범죄 관련 환경, 낮은 사

회적 유대감 등의 지역사회요인이 관여되며, 청소년 개인의 정신 건강 및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청소년 등이라고 하였다.

## 2. 위기청소년의 유형

### 가. 청소년 위험요인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위기에 이르는 요인을 위험요인(risk factor)으로 설명하였다. 위험요인이란 청소년들이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써(Garmezy, 1983) 보통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 사회(지역)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Cumingham 등, 2008), 개인적 수준의 요인은 인지적, 심리적, 아주 어린 유아기에 대부분이 결정되는 행동 본능과 연관되어 있으며, 몇몇 개인적 위험 요인들은 그것이 유전적, 생물적 요인(인종, 성별, 민족, 신체적 기능 등)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및 그 환경과 유전적 특징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분노의 정도나 폭력성 등은 아동기와 청년기에서 각각 다르며, 그가 가정 및 사회에서 노출되어 온 폭력의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다. 비지지적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또한 그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학교를 그만 두거나 위험한 성행위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미시적 수준의 요인은 개인의 기본적 상호작용 기능을 비롯하여 가족, 또래, 교내, 선생님, 이웃, 경찰 등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관들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가정 내 강간과 폭력을 포함하며, 부모로부터의 강간 또는 신체적 체벌 등의 일반적인 위험요인빈곤 등도 이에 포함된다. 지역사회는 또한 학교의 유용성과 우수성, 인근지역의 안전성, 경찰의 존재여부 및 한 젊은이가 다른 젊은 또래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등과 같은 몇몇 요인을 통해서 젊은이의 일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같이, 학교와 학교 소속관계는 젊은이들의 삶에서, 특히 일반 행동에 받을 들여놓기가 가장 일반 중학교 시절의 삶에서 보호의 중심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수준의 요인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 국민 소득 수준, 각종 미디어, 법률, 문화 등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 단체나 체계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의 폭력에 기여하는 거시적 수준의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무기의 유용성, 힘이 없는 법적 시



시스템이 유지되게 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정책들을 포함된다. 이것들은 또한 남성중심의 주도권이나 부모중심의 주도권과 같은 사회적 표준을 포함하며,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폭력이 용인되는 것과 같은 문화적 표준 역시 포함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Lipsey와 Derzon(1998)은 연령에 따라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다소 다름을 주장하면서, 아동기 위험요인(6-11세)과 초기청소년기 위험요인(12-14세)이 15-25세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1). 즉, 아동기 때에 1순위 위험요인은 일반비행과 약물사용인데 비해, 초기 청소년기 때의 1순위 위험요인은 학교와의 유대와 반사회적 친구였으며, 2순위 위험요인의 경우도 아동기 때는 성별, 가족경제적 수준, 반사회적 부모 등이지만 소년기 때는 일반비행이었다.

〈표 1〉 연령별 위험요인

아동기 위험요인(6-11세)		조기소년기 위험요인(12-14세)
일반비행, 약물사용	1순위 위험요인	학교와의 유대, 반사회적 친구
성별, 가족 경제적 수준, 반사회적 부모	2순위 위험요인	일반비행
공격성, 민족	3순위 위험요인	공격성, 학교 태도/성적, 심리상태, 부모-자녀관계, 성별, 신체적 폭력
심리상태,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문제행동 학교 태도와 성적, 의료/신체적 특성, 지적 능력, 기타 가족특성	4순위 위험요인	반사회적 부모, 대인범죄, 문제행동, 지적 능력
결손가정, 학대부모, 반사회적 친구	5순위 위험요인	결손가정, 가족 경제수준, 학대부모, 기타 가족특성, 약물사용, 민족

이와 같이 연령을 포함한 개인적 위험요인, 가족위험요인, 학교 및 또래위험요인과 사회적 위험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결과 청소년의 위기문제와 상황을 유발하게 되지만, 대략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는 각 영역의 위험요인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들

구분	위험요인	
	하위요인	구체적 내용
개인	비행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인 행동</li> <li>• 약물사용과 남용, 흡연, 음주</li> <li>• 공격성, 충동조절</li> <li>• 가출</li> <li>• 범죄활동 및 비행행동, 문제행동의 조기시작</li> <li>• 반사회적 인지 경향</li> </ul>
	정신건강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 및 불안</li> <li>• 자살생각 및 시도, 충동조절</li> <li>• 인터넷 중독 게임 과다</li> </ul>
	성격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자존감, 자신감 약화</li> <li>• 친구에 대한 열등감</li> <li>• 미래에 대한 불안감</li> </ul>
가족	구조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 및 재혼 가정</li> <li>• 외국인 노동자 및 북한탈출 가족의 자녀</li> <li>• 소년소녀 가장 및 부모의 결여</li> <li>• 사회복지 수혜자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가계주</li> </ul>
	학대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li> <li>• 정서적 및 실제적 방임</li> </ul>
	부모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li> <li>•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li> </ul>
	가족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및 형제의 학교중퇴 경력</li> </ul>
	부모의 양육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교육적지지 및 개입 결여, 부모감독의 결여</li> <li>•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li> <li>• 지나치게 강압적인 부모양육 태도</li> <li>• 거부적인 부모양육 태도</li> </ul>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불화, 가족간의 낮은 유대감</li> </ul>	
학교 및 또래	학업중단 및 학업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li> <li>• 잦은 결석과 지각</li> <li>• 학업부진 및 낮은 성적</li> <li>• 개별교습의 실패</li> <li>• 학교전학</li> </ul>
	교사 및 교과과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부적절한 준비 및 관련 교과과정의 부족</li> <li>• 적절치 않은 지도 방식</li> <li>•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치</li> <li>• 교사들의 낙인/무관심, 관심 및 지지 부족</li> </ul>
	학교또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li> <li>• 또래의 비행여부</li> <li>• 또래의 위험행동 수용</li> <li>• 집단따돌림</li> </ul>
사회 (지역)	일자리 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용한 일자리의 질과 양</li> <li>• 임금수준 및 실업률</li> </ul>
	폭력 및 범죄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피해, 학대피해, 성범죄피해, 범죄피해 수준</li> </ul>
	유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음란 사이트 이용</li> <li>• 주변유해 환경 노출</li> </ul>
	소외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된 지역사회</li> </ul>

첫째,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은 개인의 지적 능력 수준에서 공격적 행동 및 우울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 변인은 그 자체로서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후의 발달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개인 수준의 위험요인으로는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존감 및 학습동기, 비행 등(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영국의 Connexions 프로그램에서는 약물, 성, 가출, 폭력 등의 품행문제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 낮은 자존감 및 동기 부족과 같은 심리적 문제 그리고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과 같은 학습문제 등을 개인의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LeBuffe와 Naglieri(2003)은 취학 전 아동의 위험요인을 주의력결핍, 공격성 문제, 부정적 정서표현의 어려움, 우울 및 정서적 철회의 문제 등의 4가지로 규정하고, 이들이 환경적 변인과 상호작용한 결과 청소년기의 취약성을 만든다는 하였으며, 청소년기의 위험요인으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우울, 불안 등의 문제, 낮은 자존감(자기개념) 및 학습동기, 비행 및 품행 등은 실제로는 아동기의 위험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였다.

둘째, 위기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가족요인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Johnson(1997)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요인을 4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의 수퍼비전 부족,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 중퇴한 형제, 이주가정, 가정폭력을 들었다. 또한 Stinson(2009)은 부모 관여(involve) 혹은 상호작용의 부족, 충분하지 않은 부모의 수퍼비전과 모니터링을 가족 요인으로 지목했다.

Blum(1998)은 성격(dispositional), 가족, 환경 요인의 3가지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어 위기청소년을 설명하였는데, 이 중 가족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감, 가족유대(cohesion), 가족구조, 형제 친밀감을 제시하였다. 또한 Racheli 외(2005)는 이스라엘인 거주형(residential)치료센터에 있는 112명의 청소년의 적응(adjustment)과 내·외적 자원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112명 모두 가족 내에서 학대와 방임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위기행동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노숙과 가출에 초점을 둔 연구 중 Tyler 외(2000)는 노숙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거부적 부모(parental rejection)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하였고, 많은 청소년이 이러한 요인을 가출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Janus et al., 1995). 노숙청소년과 가출청소년의 해리성 증상의 정조(prevalence)와 가족위험요인에 대해 연구한 Tyler 외(2004)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해리성 증상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방임, 성적·신체적 학대, 가족정신건강문제의 가족력은 해리성 증상과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Wilinson(1974)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 가정환경을 들었고, 특히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결손 등의 구조적인 측면과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거리, 양육태도 등 기능적 측면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쉽거나 교육청에 위탁된 청소년이 중고등학생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다(박영신, 김의철, 2001). 또한 재학청소년의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위기수준을 분석해보았는데 부모가 함께 살고 있거나 돌아가신 경우가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보다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지승희 외, 2006).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관계 등 기능적 측면 또한 청소년의 위기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진과 박성수(1991)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는 평소에 훈육방식이 너무 강압적이고 처벌적이며 문제행동이라고 규정짓는 행동이 지나치게 많거나 허용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향이 있어 자녀에 대한 설득력이 점차 약해지고 그 결과 자녀에 대한 훈육이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1999)의 연구에서는 재학생보다 비행청소년이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양육하고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일탈행동이 증가하였다.

한편 위기청소년의 가족적 위기상황 또는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는데 류진아(2007)는 위기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크게 개인적·정서적 문제, 가족관련 문제, 학교관련 문제 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 가족관련 문제는 빈곤, 가정폭력, 가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가정문제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비행 및 위기상황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철경(2005)은 한국 청소년의 가족적 위기상황으로 빈곤, 이혼 자녀, 소년소녀가장, 학대아동,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또래, 교사, 학교 환경, 학업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시기의 또래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경우 범죄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한종철, 김인경, 2000), 집단괴롭힘

으로 또래들로부터 소외와 폭력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우울, 불안, 심지어 자살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이혜경,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은 또래비행청소년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행이 더 급증하게 되고 만성적인 비행에 빠지기 쉽다(Coie & Miller-Johnson, 2001).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한 또래가 비행을 할 경우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원, 2003; Smith & Brame, 1994). 실제로 낮은 통제력에 비해 비행친구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7; Paternoster & Brame, 1997).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불안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져(Hatfield & Sprecher, 1986), 일상생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래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32.8%가 '학교를 혐오'하고 있으며 62.2%는 '공부가 하기 싫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는 비율이 일반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을 나타냈다(이혜경, 2003).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교사들과 관계가 좋지 않는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Mayer, 1997).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학교애착과 학교몰입을 방해하여 청소년 학업과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하고, 수업시간이나 과제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학업성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정익중, 2009).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독립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허남순 외, 2005). 교칙위반을 하여 근신, 정학을 받거나 지각, 무단결석을 하는 등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도 학업중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oldberg, 1999). 학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학생일수록 비행과 폭력 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었다(Jang, 1991, 김동일, 최수미, 2009 재인용). 입시위주의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나 약물, 가출, 폭력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양돈규, 2000). 낮은 학업성취는 비슷하게 낮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비행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이미 시작한 비행을 더욱 강 비킬 수 있다(정익중, 2009).

넷째,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는 청소년이 따를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Sampson & Wilson,

1994).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게 되면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악화 등으로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더 많다(Hagan, 1994). 가정 내 많은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지역사회 한 사람이라도 적절한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면 청소년 문제는 극복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에서조차도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문제들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Moffitt, 1993).

## 나. 위기 수준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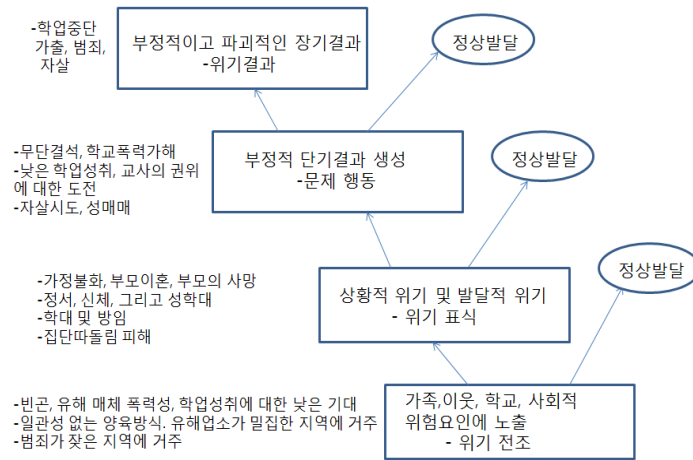
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분류하는 연구들에는 위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와 위기수준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연속선상에서의 위기 수준은 위기정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더해가는 단계적인 측면에서 고려되며, 위기의 유형은 위기 하위영역의 조합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위기청소년에서 대한 위기 수준분류와 유형 분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Burt 등의 분류

Burt 등(Burt, Resenick, & Matheson, 1992)은 많은 청소년들이 어린 나이에 학업 중단, 알콜과 같은 약물사용, 범죄 행동 등의 고위험 수준의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법과 서비스를 증가를 목적으로 위기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4가지 위기 수준(위기 전조, 위기 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으로 나누었다.

- 위기 전조(risk antecedents) :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빈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 환경 등
- 위기 표식(risk markers) :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적 및 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환경, 가정 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자연적 재해, 정체성 위기, 고용주의 착취 및 임금체불, 친구들과의 불화 등
- 문제행동(risk behaviors) : 위기 전조 및 위기 표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나타내 보이기 쉬운 부정적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및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등

- 위기 결과(risk outcomes) :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성장에 명백히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



〈그림 1〉 위기의 진행 과정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urt 등은 각 위기 수준을 일련의 과정으로써 위기 전조의 낮은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위기수준이 가장 심각한 위기결과와 수준으로 나누었다. 각 단계마다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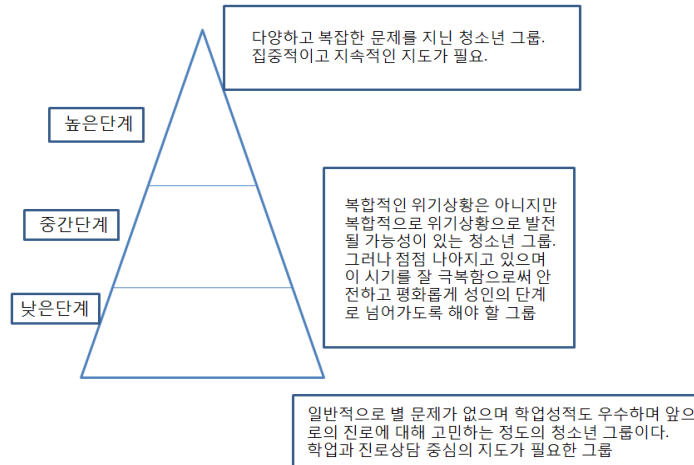
## 2) 영국의 커넥션즈 분류

영국의 커넥션즈 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지역의 협력단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커넥션즈 사업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수준을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 3단계로 구분하였다(윤철경 외, 2005).

- 낮은 단계 : 별 문제가 없으며 학업성적도 우수한 청소년그룹이며 학업과 진로 상담 정도가 필요한 수준
- 중간 단계 : 복합적인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적인 위기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안전하고 평

화롭게 성인기로 넘어가도록 해야 할 집단

- 높은 단계 : 이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청소년 집단이며,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



〈그림 2〉 영국 커넥션즈의 청소년 위기 수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넥션즈 사업에서 위기 수준의 단계별 분류는 위기연속선 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각 단계에 맞는 학교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고, 또한 예방적 개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 3) 지승희 등의 위기 수준 분류

지승희 등(2006)은 전국의 1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상담자에게 문제행동, 환경영역, 정신건강 영역에 해당되는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위험성 수준 및 위기수준을 평정하도록 한 다음, 평정 내용 일치도가 70% 미만인 영역에 대해 전문가 합의를 통해 〈표 3〉과 같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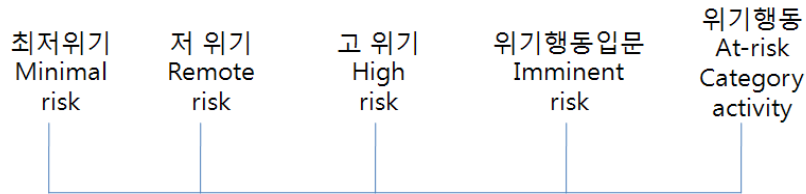
〈표 3〉 위기수준의 기준

수준	위험성	문제행동 영역	환경적 영역	정신건강 영역
1수준 (고위험군)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자살시도, 집단 폭행, 반 전체에서 왕따, 성매매 등	부모의 유기, 부모의 학대, 패륜 행위,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 환경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건강 문제
2수준 (위험군)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자살에 대한 잘못된 생각, 친구들에게 왕따 당함, 무단결석 등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 의식주는 해결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심리적 문제를 개인 스스로 통제 못하는 상태
3수준 (잠재적 위험군)	위기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	흡연 및 음주 등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유해환경 노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
4수준 (정상군)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			

#### 4) McWhiter 등의 위기 수준 분류

McWhiter 등(McWhiter, et al., 2007)는 2000년대에 들어 미국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빠른 증가와 폭력 및 범죄 등이 늘어가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최저위기에서부터 위기행동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 최저위기(minimal risk) :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학교나 가족적 환경, 사회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
- 저위기(remote risk) : 최저위기에 비해 약간은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고, 약간은 부족한 가정, 학교, 사회관계를 갖고 있으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음
- 고위기(high risk) :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 하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며,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 기술 부족 등 개인적 위기징후로 발전되는 단계
- 위기행동 임문(imminent risk) : 청소년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
- 위기행동(at-risk category activity) : 임문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



〈그림 3〉 위기연속선

### 5) 구분용 등의 위기 유형 분류

구분용 등(2005)은 위기청소년의 경우 한 가지 위기로인을 갖고 있기보다 동시에 몇 가지 위기로인들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표 4〉와 같이 조합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I은 하나의 위기로인들이 청소년들의 상황 내에 있으며, 유형 II는 서로 다른 위기로인 두 가지가 청소년들의 상황 내에 있는 것이고, 유형 III은 서로 다른 위기로인 세 가지가 청소년들의 상황 내에 있는 것이고, 유형 IV는 서로 다른 위기로인 네 가지가 청소년들의 상황 내에 있는 것이다.

〈표 4〉 청소년 위기 유형(구분용 외, 2005)

유 형	
유형 I	개인
	가족
	교육
	사회
유형 II	개인 × 가족
	개인 × 교육
	개인 × 사회
	가족 × 교육
	가족 × 사회
	교육 × 사회
유형 III	개인 × 가족 × 교육
	개인 × 가족 × 사회
	개인 × 교육 × 사회
	가족 × 교육 × 사회
유형 IV	개인 × 가족 × 교육 × 사회

보통 위기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단일 요인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문제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또래와의 문제는 가출이나 자살 시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형 분류는 단순한 분류가 아닌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본용 등(2005)은 주장하였다.

### 6) World Bank 보고서(2008)의 위기 유형 분류

World Bank 보고서(2008)에 따르면, 위험 행동은 젊은이의 인간적 자산의 개발과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구성되며, 위험 행동 유형은 결석, 학업 능력 저하, 인간적 성장을 막는 손상된 환경에서의 업무(너무 일찍 노동을 시작하는 것, 개인의 의견을 거스르는 불법행위 등), 비보호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성행위, 범죄나 폭력 행위, 연루, 약물 중독,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 강간 등의 것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위험 행동은 학교 중퇴, 미혼모 임신,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 나아가 감옥에 투옥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위험 행동에 호감을 느껴 위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대처방법을 준비하는 일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도 좀 더 유익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위기청소년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표 5〉 청소년 위기 유형(World Bank 보고서, 2008)

유형	구분
1 유형	그들의 삶에서 위험요인을 직면했으나 아직 위험행동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학교중퇴나 실업과 같이 혜택 받지 못하는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
2 유형	위험행동을 저질렀으나 아직 여러 부정적인 결과로 인한 고통을 겪지는 않는 사람. 예를 들어, 결석을 자주 하지만 아직 퇴학을 당하지는 않았거나, 성행위를 하고 있지만 성병에 걸리지는 않은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처벌받지는 않은 사람
3 유형	위험행동 후의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학교에서 퇴학당했거나, 계획하지 않은 임신, HIV/AIDS 등을 앓는 사람. 또한 투옥 되었거나 약물에 중독된 사람

### 7) 위기 수준 및 유형 분류에서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 수준은 한 연속선상에서 분류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유형화 되어 나타낼 수 있다. 학자들마다 위기 수준의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위기의 수준을 정상생활 수준에서부터 고위험 수준으로까지 분류하였으며, 위기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지도 개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최저 위기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위험 수준 또한 어디서부터 고위험 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준 분류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연구의 경우, 저위험에서 고위험 수준 분류를 전체 점수를 표준화 하여 표준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기수준을 연속선상에서 분류하는 것과는 달리, 구본용 등(2005)의 연구에서는 위기로인을 개인, 가족, 교육, 사회 4가지로 나눠 각 요인들의 조합 수에 따라 유형 I에서부터 유형 IV까지 분류하였다. 한 가지 요인만이 위기로 나온 유형 I보다 4가지 모든 요인들이 위기로인 유형 IV가 위기수준의 관점에서는 고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연속선상에서 위기 수준을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유형화하여 분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로 위기 수준을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위기 요인별로 위기 유형을 분류하여 청소년들이 얼마나 중복 위기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위기실태조사 선행연구

현재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위기 실태조사들을 개관해 보고, 선행연구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가.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구본용 외, 2005)로써 위기(가능) 청소년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팀 문항개발, 전문가 자문, 예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거쳐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위험요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지역사회로 구분하였고, 더 구체적으로 위기 및 문제행동으로 가출, 약물사용, 신체적·성적학대, 학업중단, 성매매, 인

터넷 중독, 범법행위, 자살 등을 척도에 넣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중·고등학생 984명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어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수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일반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예: 쉼터거주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등)의 현황을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윤은희(2007)가 청소년이 위험요소를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로 분류하여 위기청소년 위험요소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 나.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윤철경 외, 2006)는 위기청소년 상담사례(상담기록지)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위기요인, 지역별 위기청소년의 특징을 밝혔다.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으로 인지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화한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 위기 조사영역으로는 개인적 특징 및 개인위기 영역, 가정환경 및 가족위기 영역, 개인위기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보호요인 조사영역으로는 개인 보호영역, 환경 내 보호영역으로 나누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을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지원체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37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청소년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만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전국 단위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 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지승희 외, 2006)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와 위기수준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설문지를 제작하고, 예비조사와 전문가 평정을 통해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문제행동 영역, 환경영역, 정신건강 영역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조사대상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의 선정을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16개 광역 행정 단위별 청소년 구성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이다.

(표 6) 세 선행연구 실태조사 내용 비교

구분	위기(기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2005)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2006)			
	개인	가정	학교	개인적 특장 및 개인 위기 영역	현재신분 친구관계	제학생, 학교밖 청소년	문제행동영역	유해물질 사용		
조사 영역	정서적 심리적문제 신체적문제 체험 문제 스트레스 대처 문제 우울, 불안, 공격성/충동성, 부정적 자존감 신체적 자아 흡연, 흡주경험 회피중심	학대부모, 부모자녀 관계, 양육태도, 가정결손	학업성적,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의 무관심, 방과후 시간낭비	가정환경 및 가족 위기 영역	가족 특기 사항 및 가족 내 위기요인 주거환경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특징	부모관계 및 형제관계 위기, 특수한 가족형태, 부모의 결혼 상태, 가족경제상황, 가족원 간 폭력 폭언여부 및 범법자 유무 주거환경의 안정수준 주거지역의 특징	가족관계 및 형제관계, 이성친구관계, 동성친구관계, 이성친구없음	가출유력(가해 피해), 폭력(가해 피해), 집단따돌림, 괴롭힘, 자살 시도, 인터넷 중독, 만, 게임 등 파괴, 절도, 갈취, 상매매, 징폭력, 흡연, 관적인 흡주, 흡연, 약물 등 유해물질 사용	경제적 수준, 유기 및 방임, 부모와의 갈등, 주변 유해환경 노출,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등	부정적 자존감, 불안, 우울, 공격성
	또래 지역회 주변환경	개인 위기 영역	정서적 문제, 정신건강문제, 낮은 자능, 기타 약물문제 성문제 폭력문제 자살 문제 학대 피해 신체적학대경험, 성적학대경험 행동 문제 가출 문제	개인 위기 영역	정신건강 영역	정신건강 영역	친구없음	친구없음	친구없음	친구없음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984명			5개 지역의 청소년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 478명			초·중·고학생, 학교밖 청소년 2,968명			

## 라.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강석영 외, 2009)는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개발한 위기평정척도를 근거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온 청소년위기실태조사를 수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6개의 청소년 위험요인 영역(81문항-심리, 개인, 가정, 학교, 또래 및 지역사회)과 청소년들이 겪는 9개의 실제 위기상황 영역(18문항-가정문제, 가출문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물, 인터넷 중독, 성폭력, 절도 및 자살)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2005년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구본용 외)의 척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과 조사대상의 선정에 표본설계에 근거하여 하지 않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할당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또한 2005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 조사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표 7〉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2009)

응답자 특성	성별, 학교별, 학년별, 가족형태별, 현재거주 형태, 가정경제수준
1388 청소년 전화 인지 및 이용경험 부모로 부터의 지원	1388 인지 여부, 1388 이용 여부 정서적 지원 정도
위험요인	정서적/심리적 요인, 개인요소, 가정요소, 학교요소, 또래요소, 지역사회요소
위기결과	가정문제,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약, 인터넷중독, 성폭력, 절도, 자살

## 마.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

〈표 8〉의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이봉주 외, 2009)는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아동·청소년 정책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생활 및 가족환경, 인지 및 언어, 사회성 및 정서, 건강 및 안전, 진로 및 아르바이트로 나누어 요인을 구성하였고 표본설계를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현황을 밝히고 실태를 조사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복지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 8〉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

요인	하위요인	세부항목	
사회 경제적 요인	가구환경	· 가구구성 형태	· 주택소유형태/종류/주거면적/시가
		· 부모와의 동거여부	· 아동방 유무
		· 부모직업	· 거주주택 외 소유주택유무
		· 부모 근로형태	· 부모의 국적
		· 부모 이외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가족구성형태	
		· 부모와의 비동거 시 비동거 기간과 사유(이혼, 학업 등)	
		· 가구 소득	· 비동거 부모와 교류 정도와 내용
	· 월평균 가구소득	· 부모의 재혼여부	
	· 저축액 / 자산 / 부채	· 현재 거주기에서의 거주기간	
	· 월평균 생활비	· 사교육 지출비용	
지역환경	· 지역사회 애착	· 지역 사회 감속	
	· 학교명	· 선생님 애착	
환경환경	· 학교소개지		
	· 보육기관/ 유아교육기관 이용 여부와 만족도		
	· 학교유형		
	· 기관 외 서비스 이용 여부와 만족도		
	· 일반계, 실업계 선택이유	· 친인척 보육 여부	
	· 수업시간 및 수업태도 평가	· 부정행위경험	
	· 학교생활 전반 만족도	· 무단결석 경험	
· 임원 경험	· 징계경험		
가족생활 및 가족 환경	가족생활	· 부모역할 수행	· 부모-자녀관계
	가족환경	· 미디어노출	· 문화생활
· 사회적 지원		· 기타 가정환경	
인지 및 언어	인지	· 기본인지기술	· 학업성취도
		· 수과학적 사고력	· 일반 지식
사회성 및 정서	사회성	· 사회적 유능감	· 대인관계
		· 문제해동	· 사회생활 참여
	정서	· 기질 / 애착	· 자아관 및 기타 정서발달
		· 정서반응	
건강 및 안전	건강	· 아동의 건강특성 / 수면	· 영양 및 섭식
		· 부모의 건강특성	· 임신과 출산
	안전	· 아동학대 및 방임	· 일상안전습관
	복지	· 복지인식 및 실태	
진로 및 아 르바이트	경제활동	· 직업체험활동 유무	
	진로준비	· 장래희망	· 장래진로준비



## 바. OJJDP의 소년위험 평가도구

미국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이하 OJJDP)은 위기 청소년을 관별하기 위하여 소년위험 평가도구를 활용한다. 위험평가도구는 개인특성, 가족, 학교, 친구관계, 이웃환경 등에서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소년이 저지르는 온갖 종류의 범죄와 문제행동을 고려하여 해당 소년의 위험성 즉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상태를 관별한다. OJJDP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위험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험평가도구를 활용한다. 범죄와 비행에 관한 국가자문단(NCCD,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이 위험평가도구의 개발을 주도하였다. NCCD는 미국 각 지역 대표자들과 협의를 통해 위험요인의 수를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표준화된 형태의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9>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사용하는 위험평가도구이다. 위험평가도구는 최초비행연령, 과거비행건수, 과거비행의 심각성, 과거 폭력, 도주경험, 음주나 불법약물 사용, 학교 문제행동, 친구관계, 부모관계 등 9개의 위험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위험요인에 따라 배점(가중치)이 다르다. 예를 들어, 반사회성의 개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들은 많은 점수를 배점하고, 관련이 미약한 위험요인들은 낮은 점수를 배점하여 위험요인별 비중이 고려하고 있다.

## 사. 선행 실태조사에서의 시사점

먼저, 선행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중 대표적인 세 연구(구본용 외, 2005; 윤철경 외, 2006; 지승희 외, 2006)을 살펴보면, 개발 과정은 선행 연구를 통한 문항 선정(연구자), 전문가 자문, 예비검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거쳐 최종 문항을 개발하였다. 조사대상은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혹은 청소년 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이었다. 조사영역은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환경) 영역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의 공통된 제한점으로, 첫째,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추출 방식이 아닌 임의적인 선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본용 등의 연구에서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만, 윤철경 등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동반자의 상담을 받는 위기상황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만이 조사대상으로 한정되었다. 지승희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 뿐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조사대상의 폭을 넓혔으나 광역 행정 단위별 청소년 구성비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문항의 배점이 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9〉 소년위험 평가도구

위험요인	범 주	배점	점수
최초비행연령	a. 12세 이상, 과거비행 없음	0	
	b. 12세 미만	2	
과거비행건수	a. 0	0	
	b. 1회	1	
	c. 2-3회	2	
	d. 4회 이상	3	
과거비행의 심각성	a. 없음	0	
	b. 불량행위	1	
	c. 1-3급 경비행	2	
	d. F-I급 중비행 또는 A1 경비행	3	
	e. A-E급 중비행	4	
과거 폭력	a. 없음	0	
	b. 다툼의 경험	1	
	c. 폭력경험, 무기 미사용	2	
	d. 폭력경험, 무기 미사용, 심각한 상해	3	
	e. 폭력경험, 무기 사용	4	
	f. 폭력경험, 무기 사용, 심각한 상해	5	
도주경험	a. 없음	0	
	b. 있음	2	
음주, 불법약물 사용	a. 없음	0	
	b. 약간 경험, 검사 필요	1	
	c. 만성 경험, 검사와 치료 필요	3	
학교 문제행동	a. 없음 (등록, 정상 등교)	0	
	b. 경미수준 (교직원과의 문제, 1-3회 무단 조퇴/결석)	1	
	c. 보통수준 (4-5회 무단 조퇴/결석, 10일 이내의 유기정학)	2	
	d. 심각수준 (10회 이상 무단 조퇴/결석, 1회 이상의 단기 혹은 장기정학)	3	
친구관계	a. 건전한 지원과 영향	0	
	b. 친한 친구의 왕따, 비행친구 간헐교제	1	
	c. 비행친구 빈번 교제	3	
	d. 폭력집단원, 폭력집단과 교제	5	
부모관계	a. 부모/후원자 감독의사, 감독역량	0	
	b. 부모/후원자 감독의사, 역량부족	2	
	c. 부모/후원자 감독의사 없음	3	
총점			

위험수준 평가:  저위험(0-7)     중위험(8-14)     고위험(15+)

즉, 세 연구의 설문 문항들은 위기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같은 배점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자살시도와 음주 문제를 묻는 문항은 문제의 심각성이나 사후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노스캐롤

라이나 주에서 사용하는 위험평가도구에서처럼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문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문항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의 인원이 너무 적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임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에 많은 대상자들을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2009년에 실시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강석영 외)는 조사대상 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약 7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2005년 구본용 등의 연구의 설문지를 타당성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었으며,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이 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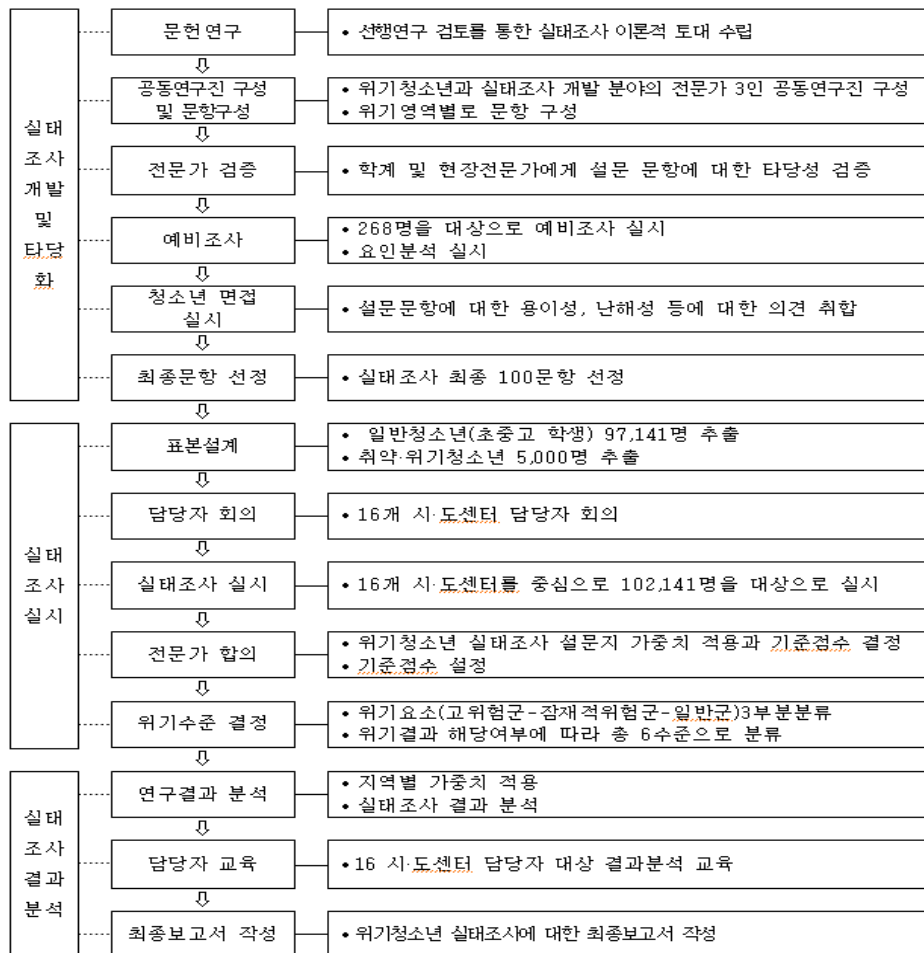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비행(강도, 절도, 보호처분 이상 받음, 성폭력, 살인, 성매매 알선, 자발적 성매매, 상습적 가출), 자살(생각, 계획, 시도), 학업부적응과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가해, 피해), 정신건강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는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문항을 1차로 구성하여 전문가 검증과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를 구성하고, 둘째, 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추출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셋째,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문항의 배점을 달리하여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의 비율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정의, 위기 수준, 위기 유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고, 최종 개발된 실태조사 문항을 전국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 1. 연구 절차



〈그림 4〉 연구절차

## 2. 실태조사 개발 및 타당화 작업

### 가. 문헌 연구

국내·외 연구보고서, 자료집, 여러 기관의 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의, 위기 수준, 위기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 실태조사 연구들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나. 문항 구성

실태조사 문항 구성은 5인 공동연구진(임상심리학 박사 1인, 상담심리학 박사 2인, 사회복지학 박사 1인, 상담전공 교육심리학 박사 1인)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도출한 후, 위기 영역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은 먼저, 200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 문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위기 평정척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설문문항의 영역을 도출하였고, 셋째, 영역별 하위문항을 개발하였다. 하위문항 개발 시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과 기존의 청소년실태조사 설문 척도 문항을 참조하였다. 넷째, 하위문항 구성은 기존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와 유사성이 많아 되도록 기본 실태조사 문항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5-6회의 공동연구진 회의를 거쳐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는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을 제외한 위기요인과 위기 결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로 구분하였으며, 하위요인들은 우울·불안(9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6문항), 부모관계·학대·방임(11문항), 가정환경(2문항), 반사회적 가족(4문항), 학교생활(4문항), 비행친구(4문항), 지역사회(3문항)로 구성되었다.

〈표 10〉 위기요인 문항

영역	하위요인	문항수
개인	우울, 불안	9문항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6문항
가정	부모관계, 학대, 방임	11문항
	가정환경	2문항
	가족구성원	4문항
학교	학교생활	4문항
또래	비행 친구	4문항
지역사회	지역사회	3문항
		총 43문항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결과 문항은 학교문제(2문항), 인터넷 문제(4문항), 술·담배 등(3문항), 학교폭력(10문항), 자살(3문항), 성문제(5문항), 가출(2문항), 학업중단(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1〉 위기결과 문항

하위영역	문항수
학교문제	2문항
인터넷 문제	4문항
술, 담배 등	3문항
학교폭력	10문항
자살	3문항
성문제	5문항
가출	2문항
학업중단	1문항
총 30문항	

#### 다. 전문가 검증

1차로 구성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최종 설문 문항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2참조). 전문가 대상은 학계 및 센터 소장들로서 최종 13명의 의견을 보내왔다. 방법은 전문가들에게 설문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답신을 받았으며, 설문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 '전혀 타당하지 않다'· 5점 '매우 타당하다'로 하였다(부록 2). 전문가 검증 기간은 2010년 4월 7일에서 4월 22일 까지였다. 〈표 12〉는 전문가의 의견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12〉 전문가 의견 내용

구분	의견내용
우울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문항은 우울, 불안 이외 분노일 수도 있다.</li> <li>• 나는 늘 슬프다. 문항에서 “늘”은 “ 대체로, 거의 매일” 이 현실적이다.</li> <li>•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하다. 문항에서 신경이 날카로운 것과 불안한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불안을 대신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li> <li>• 가끔 땀나고 긴장이 되는 정도로 불안을 켈 수 없기 때문에 보완하기</li> </ul>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문항에서 “잘 싸운다”는 “치고받는 싸움을 자주 한다.” 로 고치기</li> <li>•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주의집중을 못한다. 문항에서 공부와 놀이는 매우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만하는 일을 할 때에도 ”라는 식으로 수정하기</li> <li>• 공부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문항에서 선택이나 나열을 하기보다는 “공부나 다른 활동”을 “중요한 일”로 고쳐보기</li> </ul>
부모 관계,학 대,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번 다른 형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기</li> </ul>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에게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li> <li>• 다니는 학교에 학생에게 함부로 욕하고 때리는 교사가 있는지?</li> <li>• 학교생활 중 학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포함하기</li> </ul>
가정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와 “부모님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신다.”두 문항은 의미가 중복되는 유사항목이다.</li> <li>• “부모님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신다.” 문항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li> </ul>
가족구 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중에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다.” 문항에서 ‘감옥’ → “소년원이나 교도소’로 수정하기</li> <li>• 반사회적가족, 반사회적친구라는 용어보다 부드러운 용어로 바꾸기</li> <li>• 알코올중독가족, 수감가족원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사회적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조손가족 등도 단지 가족의 형태만으로 위기가족 혹은 반사회적 가족으로 명명할 위험이 있음.</li> </ul>
비행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거나 위축되는 경험을 묻는 요인 추가 필요</li> <li>•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 가출한 친구가 있다.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li> <li>•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문항에 보호관찰, 소년원 가본 경험 추가하기</li> </ul>

구분	의견내용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각, 조퇴, 잦은 결석 등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 추가하기</li> <li>• 나는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문항에서 “종종” 빈도부사 뺀 것</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한달 동안 거의 매일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문항에서 4시간이 특정한 준거인가? 또한 ‘거의 매일’ 과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은 상충된다.</li> <li>•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못한 적이 있다. ‘친구와의 만남’을 ‘모임참석’ 으로 바꾸기</li> <li>• 인터넷에서 채팅을 얼마나 하는지?</li> <li>• 채팅을 통해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고 사귀게 되는지</li> <li>• 채팅을 통해 성매매 유혹을 받거나 또 경험이 있는지? - 문항추가하기</li> <li>•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못한 적이 있다. 문항에서 1번 이상의 경우에는 등교를 못한 경우와 친구와의 만남을 못한 경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또는 지각, 조퇴 등)을 못한 적이 있다.” 변경해보기</li> </ul>
술 담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적이 있다 문항에서 ‘흡입’ 보다 ‘사용’이 더 포괄적이다.</li> <li>• 조사 시기에 따른 술, 담배문항이 달라질 수 있다.</li> </ul>
학교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문항은 매우 중요한 문항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 라는 요인으로 생성해서 물어보기</li> <li>• 지난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 혹은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문항에서 비행행동(지위비행, 폭행, 범죄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기</li> <li>• 피해와 가해를 나누기</li> <li>• 친구, 선배와의 관계 점검 필요함 &lt;뺑을 뜯거나(뜯기거나)학교에 조직을 알고 있는지, 선배들에게 맞거나 돈을 상납한 적이 있는지?&gt;</li> </ul>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중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시도한 가족이 있다.”추가하기</li> </ul>
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문항에서 유혹보다는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또는 하고 싶다고 느낀)적이 있다’로 수정하기</li> <li>•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문항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적이 있다를 바꾸기</li> </ul>
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문항 추가하기</li> </ul>
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을 중단한 상태’는 학문적인 용어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자퇴, 가출, 휴학)등으로 바뀌보기</li> </ul>



구분	의견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평가하는 문항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자원’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요인 별로 추가하기</li> <li>• 문항수가 적당히 많아야 신뢰도 확보가능</li> <li>• 친구관계, 인터넷&lt;채팅피해&gt;, 교사환경 요인 추가하기</li> <li>•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부분 - 우리 집은 가난하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li> <li>• 비행이나 위기실태의 측면에서 이전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위험요인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li> <li>• 0~4점까지 5점 척도를 주면 가운데(3점)에 주로 체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혹시 가능하면 0~5점까지 짝수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보기</li> <li>• 비행요인, 자살요인, 성문제요인 문항 줄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들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몇 번 이상~한 적이 있다”고 수정하기</li> <li>• 가출, 학업을 따로 분류한 이유와 가족, 반사회적 친구도 별도의 요인으로 나눌 필요성 있다.</li> <li>• 각 요인별로 문항 더 추가하기</li> <li>• 행위 결과만 묻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잠재적 성향 문항 추가하기</li> <li>• 생각과 행동적인 측면 보충하기</li> <li>• 비관으로 인해 자살, 좌절, 자포자기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검토하기</li> <li>• 일탈, 비행, 범죄, 소외, 왕따 경험을 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문항에 관하여 검토하기</li> <li>• 가출에 대해서 비행이나 아니냐 등의 논란도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소년법에는 비행이 명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장기적인 가출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마음과 몸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위기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li> <li>• 반사회적 행동으로 - 비행, 가출, 학업중단 등을 묶으면 좋을 것 같다.</li> <li>• 위기청소년 평가(척도)관련해서 기존 논문들의 문항들도 참고하기</li> <li>• 친구관계에 대한 것이 누락되었음 -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li> </ul>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여부에 대한 응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서 최저 3.08에서 최고 4.83점까지의 점수 분포가 도출되었고, 평균 4.25점이 나왔다. 4점 이하로 나온 12문항과 그 이외의 문항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공동연구진의 회의를 거쳐 수정·검토하였다.

〈표 13〉 전문가 검증 평균과 표준편차

N=13

요인	내 용	M(SD)
우울 불안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4.50(.5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4.58(.51)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4.00(.95)
	나는 늘 슬프다.	4.33(.78)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워진다.	4.09(.70)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하다.	3.92(.67)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4.25(.75)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3.25(1.06)
공격성 충동성 부 주의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3.83(.94)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4.25(.62)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4.50(.5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3.75(.97)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4.17(.94)
부모와 의 갈등, 부모관 계, 방임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주의집중을 못한다.	3.42(1.24)
	공부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3.33(.78)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4.50(0.52)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4.67(.49)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4.58(.79)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4.42(.67)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4.25(.9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4.08(.90)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3.25(.97)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4.17(.94)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4.17(.94)
학교생 활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4.33(.98)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4.45(.93)
	나는 공부를 못한다.	3.08(1.00)
	선생님들은 나를 싫어한다.	4.25(.75)
가정환 경	나는 학교가 싫다.	4.17(1.03)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3.91(1.14)
지역 사회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4.42(.67)
	부모님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신다.	4.42(.67)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3.75(1.22)
가족 구성원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4.25(.75)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4.33(.78)
	가족 중에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다.	4.17(.94)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4.33(.78)
구성원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4.42(.67)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4.08(.79)

요인	내 용	M(SD)
비행 친구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	4.08(1.00)
	가출한 친구가 있다.	4.25(.62)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4.33(.78)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4.25(.75)
학교 생활	나는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4.42(.51)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4.25(.75)
인터넷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4.33(.65)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4.33(.65)
	지난 한달 동안 거의 매일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4.08(.79)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 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못한 적이 있다.	4.42(.79)
술담배 등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4.17(.72)
	지난 한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4.33(.65)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적이 있다.	4.00(1.04)
학교 폭력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4.58(.5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4.67(.49)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4.33(.65)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4.75(.45)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신체적 폭행을 한 적이 있다.	4.83(.39)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4.08(.51)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4.75(.45)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4.75(.45)
	지난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4.50(.52)
	지난 1년 동안 친구 혹은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4.83(.39)
자살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4.42(.79)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3.75(.87)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4.08(.67)
성문제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4.17(.5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3.83(.7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4.08(.79)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4.17(.83)
가출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4.25(.75)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다.	4.33(.78)
학업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4.67(.49)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4.58(.51)

## 라. 예비 조사

### 1) 조사 대상

전문가 검증을 통해 도출된 1차 문항을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약 300명의 청소년들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268명이었으며, 남녀별로는 남학생 128명, 여학생 140명이었다.

<표 14> 조사대상 분포

명

구분	남	여	합계
초 5	18	15	33
초 6	18	16	34
중 1	16	18	34
중 2	18	16	34
중 3	14	18	32
고 1	34	34	68
고 2	10	23	33
합계	128	140	268

### 2) 위험요인 점수 분포

예비조사 위험요인 설문 문항에 대한 하위요인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의 분포는 <표 15>와 같다.

<표 15> 위험요인의 점수 분포

영역	하위요인	M(SD)	최대값	최소값	최빈값	전체 M(SD)
개인	우울, 불안	9.48(7.44)	0	36	0	16.28 (10.90)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6.78(4.56)	0	24	7	
가정	부모와의 갈등, 부모관계, 방임	3.98(6.20)	0	44	0	4.96 (7.87)
	가정환경	.75(1.44)	0	8	0	
	가족구성원	.36(1.43)	0	16	0	
학교	학교생활	3.59(3.23)	0	16	0	3.59(3.23)
또래	비행 친구	.96(2.33)	0	16	0	.96(2.33)
지역사회	지역사회	2.31(2.59)	0	12	0	2.31(2.59)

### 3) 신뢰도

예비조사 위험요인 설문 문항의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요인별로 제시하였다.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영역의 내적합치도는 .70-.91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962로써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16> 위험요인의 내적합치도

영역	하위요인	Cronbach's $\alpha$	전체 Cronbach's $\alpha$
개인	우울, 불안	.91	.92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81	
가정	부모와의 갈등, 부모관계, 방임	.91	.92
	가정환경	.84	
	가족구성원	.80	
학교	학교생활	.80	.80
또래	비행 친구	.80	.80
지역사회	지역사회	.70	.70

### 4) 요인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1차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영역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7>).

<표 17> 상관분석

구분	개인	가정	학교	또래
개인				
가정	.64**			
학교	.70**	.56**		
또래	.31**	.36**	.40**	
지역사회	.53**	.51**	.5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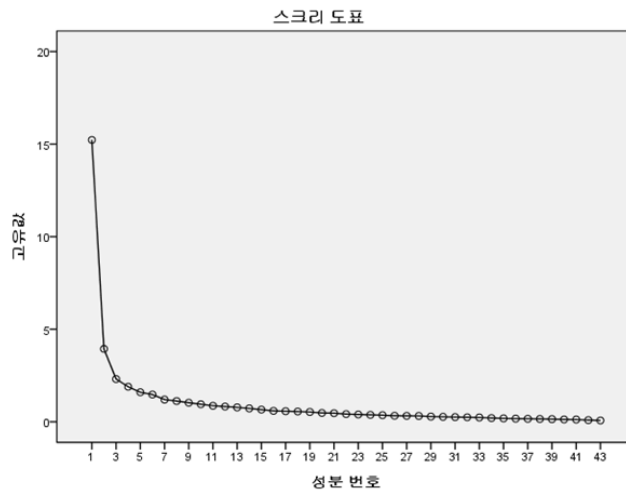
\*\* $p < .01$

예비조사를 통해 1차 위기요인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기요인 43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 요인구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잠정적으로 설정했던 요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4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은 주축요인 추출과 사교회전(promax)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Eigenvalue가 1보다 큰 주성분의 수가 9개인 경우 설명량이 69.29%로 가장 컸으며,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영역(요인 2, 요인 4, 요인 6), 가정 영역(요인 1, 요인 3, 요인 7), 또래 영역(요인 7), 지역사회 영역(요인 9)로 나타났으나 학교 영역은 요인 4와 요인 8이 각각 분리된 요인으로 묶여서 나타났다.

<표 18> 요인별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요인 1	문 36-39, 문 77-80	부모방임, 반사회 가족구성원
요인 2	문 18-22	불안
요인 3	문 29-32, 문 44-45	부모와의 갈등, 부부 갈등
요인 4	문 14-17, 문 40, 문42-43	우울, 학교·교과목 싫음
요인 5	문 81-84	비행친구
요인 6	문 25-28	충동성, 부주의
요인 7	문 33-35	부모관계
요인 8	문 23-24, 문 41	공격성, 교사가 싫어함
요인 9	문 46-48	지역사회



<그림 5> 스크리 도표

〈표 19〉 요인분석 결과

	요 인								
	1	2	3	4	5	6	7	8	9
문14	.024	.347	.014	.668	-.038	-.095	-.021	-.108	.003
문15	.143	.066	.000	.822	-.072	.065	-.090	-.077	-.002
문16	.036	.393	.096	.522	-.016	-.096	.057	.058	-.184
문17	.062	.476	.002	.531	.044	-.040	-.017	-.057	-.075
문18	-.042	.513	-.089	.240	.004	.040	.243	.125	-.117
문19	-.071	.760	-.015	-.009	.058	-.066	.157	.132	-.045
문20	-.095	.709	-.036	.069	.083	.099	-.078	-.154	.186
문21	.060	.556	-.047	-.085	-.059	.140	-.120	.170	.049
문22	.035	.571	.068	-.021	-.151	.160	.014	-.012	.111
문23	.021	.200	.087	-.109	.083	.000	-.031	.665	-.014
문24	.139	-.072	-.003	.090	.105	.086	-.057	.694	-.050
문25	-.156	-.009	.245	.094	-.056	.566	-.116	.274	.080
문26	-.001	.339	-.001	-.128	.017	.513	-.127	.158	.097
문27	.057	-.098	-.183	.219	-.099	.728	.159	-.076	.046
문28	.029	.237	.004	-.039	-.114	.682	.067	-.042	-.046
문29	.006	-.105	.871	.011	.053	.013	.112	.027	-.021
문30	.040	.010	.803	-.054	.088	-.040	.080	.169	-.148
문31	.171	-.039	.624	.081	-.027	.001	.148	.065	-.116
문32	-.077	.088	.534	-.054	.006	-.082	.371	-.045	.181
문33	-.022	.035	.195	-.040	.009	-.010	.726	-.130	.063
문34	-.005	.040	.393	.007	-.054	-.009	.594	-.132	.101
문35	.005	-.026	.122	.025	-.149	.116	.573	.175	-.067
문36	.700	.035	-.238	-.011	-.023	-.105	.201	.215	.121
문37	.846	-.047	-.018	-.005	-.097	-.065	.033	.169	.110
문38	.896	-.008	-.006	.057	-.094	-.072	-.076	.038	.127
문39	.881	-.052	.067	.039	-.148	-.067	-.043	.137	.062
문40	-.035	-.142	-.127	.530	.089	.303	.118	-.041	.110
문41	.024	.043	.030	.241	.031	.009	.129	.302	.131
문42	-.143	.032	.026	.689	.153	-.039	-.126	.085	.188
문43	-.109	-.150	.117	.532	.064	.154	.109	.137	-.038
문44	.185	.113	.479	.087	-.090	.000	-.048	-.091	.130
문45	.390	-.035	.477	.081	-.069	-.020	-.100	-.132	.272
문46	.065	.149	.039	.010	.116	.076	-.030	-.082	.453
문47	.051	.031	-.041	-.063	.139	.078	.258	-.016	.585
문48	-.051	.019	-.019	.107	.154	.009	-.034	.021	.555
문77	.792	-.042	.157	-.025	.141	.075	-.036	-.041	-.152
문78	.511	.064	.043	-.023	.175	.046	.059	-.168	-.177
문79	.595	-.010	-.069	-.128	.364	.129	.050	.018	-.105
문80	.614	.047	.174	-.054	.215	.181	-.106	-.141	-.127
문81	-.110	-.006	.096	-.006	.667	-.072	.059	.153	.154
문82	.124	-.111	-.066	.171	.525	.006	.162	-.040	.116
문83	.093	.140	-.074	-.077	.703	-.077	-.062	.029	.156
문84	-.022	-.080	.087	.153	.621	-.131	-.220	.091	.057

## 마. 청소년 면접 실시

예비조사 실시 후 설문지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6명과 초등학교 교사 3명에게 문장의 적절성, 용이성, 난해성 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초등학생만 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초등학생에게 설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서였다. 실시 결과, ‘기초수급 대상자’, ‘성매매’, ‘새터민’과 같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설문 실시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 최종 문항 선정

예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검증을 바탕으로 본 검사에 포함될 최종 문항 100문항(보호요인 문항 10문항 추가)을 선정하였다(부록 1 참조). <표 20>는 1차 문항과 최종 문항의 변경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변경된 문항을 살펴보면,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하다’는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로,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는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로, ‘선생님들은 나를 싫어한다’는 ‘나는 좋아하는 학교선생님이 하나도 없다’등으로 변경하였다.

<표 20> 문항 변경 전후

문항	변경 전	변경 후
13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습니까?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4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9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워진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20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하다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21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22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23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자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25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8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주의집중을 못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29	공부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34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문항	변경 전	변경 후
36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십니다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43	선생님들은 나를 싫어한다	나를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47	부모님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부모님이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51	가족 중에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5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56	가출한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57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58	폭력서클(예: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예: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59	나는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63	지난 한달 동안 거의 매일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64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못한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67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분드, 미약류를 흡입해 본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분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71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73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신체적 폭행을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76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 한 적이 있다
77	지난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78	지난 1년 동안 친구 혹은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89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유학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
추가된 문항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② 한 분만 외국인 ③ 두 분 모두 외국인 ④ 두분 모두 새터민 ⑤ 한 분만 새터민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⑦ 한 분만 중국교포
	44	나는 좋아하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다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90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b>보호요인 문항(새로 추가)</b>	
	9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92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93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94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는다
	9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96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97	가족들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98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99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100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사. 위기요소 및 위기결과

최종 문항은 다시 크게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로 나누었다. 위기요소는 문항 15번~60번까지로써,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의 현황을 질문하는 문항들이며, 위기결과는 문항 61번~89번까지로, 청소년들이 실제로 위험요인 실행 여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기요소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다.

<표 21> 위기요소 하위문항

구 분	문항수	문항번호	영역
우울·불안	9	15,16,17,18,19,20,21,22,23	개인
공격성·충동성·부주의	6	24,25,26,27,28,29	
부모관계·학대·방임	11	30,31,32,33,34,35,36,37,38,39,40	
가정환경	2	46,47	가정
반사회적가족	4	51,52,53,54	학교
학교생활	7	41,42,43,44,45,59,60	
지역사회	3	48,49,50	
반사회적친구	4	55,56,57,58	또래

## 3. 실태조사 실시

### 가. 표본 설계

사회요구를 반영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청소년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표본 설계를 실시하였다.

#### ○ 모집단 정의

- 일반 초등학교(5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모집단 크기는 5,238,590명이며, 학교구분별로는 초등학교 1,265,826명(24.2%), 중학교 2,006,972명(38.3%), 고등학교 일반계 1,484,966명(28.3%), 고등학교 전문계 480,826명(9.2%)임.

## 1) 표본배분 및 학교추출

### 1) 층화

- 지역, 학교구분, 학년을 층으로 구성함(총 176개 세부 층으로 구성).
  - 지역 : 광역시도(16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4개)
  - 학년 : 학교구분별 학년(2-3개)
- 세부 층별로 학교를 먼저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선정된 학급의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층화집락추출).

#### 가) 학년별 조사될 학생 수의 배분

초등학교(5, 6학년), 중학교(1, 2, 3학년), 고등학교 일반계(1, 2, 3학년), 고등학교 전문계(1, 2, 3학년) 모집단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학년별로 조사될 학생 수를 배분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가 618,571명이고 이는 전체 학생 수 5,238,590의 11.8%를 차지하므로, 조사될 학생 수 70,000명의 11.8%인 8,260명이 조사되도록 배분하였다.

#### 나) 학년별, 지역별 조사될 학생 수의 배분

광역시도 및 시군구별 모집단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지역별로 조사될 학생 수를 배분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초등학교 5학년은 105,877명이고 이는 전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 618,571의 17.1%를 차지하므로, 조사될 학생 수 8,260명의 17.1%인 1,412명이 조사되도록 배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강남구의 초등학교 5학년 모집단 학생 수는 5,211명이고 이는 서울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 105,877명의 4.9%를 차지하므로, 조사될 학생 수 1,412명의 4.9%인 69명이 조사되도록 배분하였다.

#### 다) 학년별, 지역별 조사될 학교 수의 결정

학년별, 지역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고려하여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의 초등학교 5학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9.0명이므로, 위

에서 배분된 69명 이상이 조사되기 위해서는 3개의 학교가 조사되어야 한다(학교당 한 개의 학급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시 강남구의 초등학교 5학년은 약 87명(=29.0명×3개 학교)이 조사되었다.

#### 라) 학년별, 지역별 조사될 학교의 추출

학년별, 지역별로 결정된 학교 수만큼 조사될 학교를 랜덤으로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는 30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서 3개의 학교를 추출해야 하므로, 30개의 초등학교에 1부터 30까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랜덤으로 3개의 번호를 추출하고(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수를 발생시켜 추출한다.) 추출된 번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조사될 학교로 결정하였다.

#### ○ 학교추출 방법 : 세부 층별 조사될 학교의 추출

- 각 세부 층(광역시도×시군구, 학교구분×학년)별로 배정된 학교 수를 각 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한 확률비례추출(PPS: 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 방법으로 추출함.

#### ○ 조사 및 표본대체 원칙

- 추출된 학교에서 각 학년별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학급의 선정은 조사될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사 시 결정한다).
- 원표본 학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조사 거절, 조사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학교규모가 너무 작은 학교 등) 대체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대체표본 학교는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 세부 층(광역시도×시군구, 학교구분×학년) 내에서 가급적 남학생과 여학생이 골고루 조사되도록 실사 시 조정한다.

#### ○ 사후 층화

- 세부 층(광역시도×학교구분×학년)별 모집단과 표본의 비율에 대한 불일치는 사후층화를 통해 조정한다.
- 세부 층(광역시도×학교구분×학년)별 모집단과 표본의 성별 비율에 대한 불일치는 사후층화를 통해 조정한다.

○ 예상 오차한계(표본오차)

- 집락효과를 무시하는 경우(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예상되는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N=5,238,590$ ,  $n=97,141 \Rightarrow e=\pm 0.31\%P$

- 대략  $M=30$ (집락크기),  $\rho=0.04$ (급내상관계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의 경우)로 간주하여,  $defl = 1 + (M-1)\rho=2.16$ 을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로 하고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예상되는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times \sqrt{defl}$$

-  $N=5,238,590$ ,  $n=97,141 \Rightarrow e=\pm 0.46\%P$

2) 표본배분 및 취약·위기청소년 추출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표본 배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 모집단 정의

- 아동복지법상 취약위기 청소년으로서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양육시설, 쉼터, 가정위탁 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
- 모집단 크기는 35,017명이며, 시설유형별로는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818명(2.3%), 양육시설 6,459명(18.4%), 쉼터 14,137명(40.1%), 가정위탁 13,603명(38.8%)임.

○ 조사 원칙

- 세부 층(시설유형×지역) 내에서 표본크기 이상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 세부 층(시설유형×지역) 내에서 가급적 남자와 여자가 골고루 조사되도록 실시 시 조정한다.

- 사후 층화
  - 세부 층(시설유형×지역)별 모집단과 표본의 비율에 대한 불일치는 사후층화를 통해 조정한다.
- 예상 오차한계(표본오차)
  -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예상되는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N=35,017, n=2,500 \Rightarrow e=\pm 1.89\%P$$

소년법상 비행 청소년들의 표본 배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 모집단 정의
  - 소년법상 비행청소년으로서 소년원, 보호관찰 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
  - 모집단 크기: 24,633명
  - 소년원: 당해 연도 새롭게 입원한 청소년 중 일일평균 청소년으로서 1,374명.
  - 보호관찰: 당해 연도 입원한 청소년으로서 23,259명.
- 층화
  - 소년원: 11개 소년원을 층으로 구성한다.  
보호관찰: 16개 광역시도를 층으로 구성한다.
  - 세부 층별로 청소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층화 추출).
- 표본배분
  - 전체 표본크기를 2,500으로 한다.
  - 소년원 청소년: 지역별 일일평균 수용인원 약 1,500명을 목표 표본크기로 한다.
  - 보호관찰 청소년: 1,000명을 목표 표본크기로 한다. 지역별 배분은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한다.
- 조사 원칙
  - 세부 층 내에서 표본크기 이상의 청소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다.
  - 세부 층 내에서 가급적 남자와 여자가 골고루 조사되도록 실사 시 조정한다.

- 사후 층화
  - 세부 층(시설유형×지역)별 모집단과 표본의 비율에 대한 불일치는 사후층화를 통해 조정한다.
- 예상 오차한계(표본오차)
  -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0.5$ 로 할 때, 예상되는 모비율에 대한 오차한계를 계산하면(95% 신뢰수준 하에서)

$$e = z_{\alpha/2} \times \sqrt{\frac{p(1-p)}{n}} \times \sqrt{\frac{N-n}{N-1}}$$

- 소년원:  $N=35,017, n=1,500 \Rightarrow e=\pm 2.31\%P$

- 보호관찰:  $N=23,259, n=1,000 \Rightarrow e=\pm 3.03\%P$

## 나. 담당자 회의

표본설계에 의한 본격적인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4월에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대상 학교명단, 코딩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자료 코딩에 대한 안내 지침서를 배부하여 16개 시·도가 일관성이 있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 다. 조사대상

표본 설계를 바탕으로 전국 97,141명의 일반청소년(초·중·고 재학생)과 5,000명의 취약·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초 일반청소년 실태조사 대상은 70,000명이었으나 시·도센터에서 해당 시·군·구 지역의 학교들이 빠짐없이 표본으로 들어가야함을 요청함으로써 재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최종 일반청소년 조사대상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141명으로써 약 27,000명이 증가하였으며, 모든 시·군·구의 학교들이 빠짐없이 추출되었음 구성하였다(부록 4). 취약·위기청소년 조사대상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명이며, 총 102,141명의 청소년들이 조사대상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7만명으로 파악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는 직접적인 조사의 어려움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22〉 조사대상 일반청소년 수

명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3,325	1,433	1,399	1,571	1,584	1,573	1,276	1,282	1,256	660	633	658
부산	6,471	540	562	699	696	709	641	687	669	425	427	416
대구	4,031	409	410	433	458	454	394	401	395	226	226	225
인천	4,688	466	464	570	577	553	387	399	392	298	301	281
광주	2,663	318	313	298	301	298	286	275	266	108	103	97
대전	2,253	286	274	222	241	245	209	215	210	122	113	116
울산	2,213	203	194	212	227	222	236	227	223	166	151	152
경기	17,668	2,074	2,024	1,965	1,944	1,959	1,626	1,604	1,571	977	980	944
강원	5,805	568	530	588	593	583	504	528	516	440	465	490
충북	4,504	493	445	448	442	410	449	434	424	334	328	297
충남	5,476	559	522	582	598	574	546	539	511	368	342	335
전북	4,901	536	502	564	551	533	411	395	379	366	342	322
전남	6,980	707	693	755	737	731	648	626	612	531	456	484
경북	7,381	662	682	783	754	742	720	745	724	539	525	505
경남	7,807	746	820	792	722	785	771	765	743	569	557	537
제주	975	122	106	104	115	109	72	77	72	69	64	65
합계	97,141	10,122	9,940	10,586	10,540	10,480	9,176	9,199	8,963	6,198	6,013	5,924

〈표 23〉 조사대상 취약·위기 청소년 수

명

	전체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쉼터			가정위탁			
				전체	단기	중장기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	331	33	41	175	142	33	82	19	30	32
부산	179	16	46	59	53	6	58	15	19	24
대구	76	12	17	31	26	5	17	4	6	7
인천	175	8	16	96	85	11	55	12	21	22
광주	75	8	11	34	27	6	23	5	8	9
대전	81	5	9	46	40	6	21	5	8	8
울산	41	4	0	26	19	7	12	5	4	3
경기	527	52	33	288	282	7	154	38	57	59
강원	168	11	0	50	38	12	107	28	45	34
충북	80	12	14	21	21	0	33	9	12	12
충남	122	6	16	56	50	7	44	10	15	18
전북	115	13	18	17	12	6	67	17	26	24
전남	196	11	30	33	33	0	122	34	45	44
경북	122	2	19	22	17	5	80	23	31	26
경남	162	5	27	30	23	7	101	24	39	39
제주	51	3	5	18	9	9	24	6	9	9
합계	2,500	200	300	1,000	874	126	1,000	254	376	370



소년원	구분	전체	비고	
	서울	209	남자 (보호소년)	
	부산	177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대구	140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광주	140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전주	123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대덕	185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청주	17	여자 (보호소년)	
	안양	190	여자 (보호소년)	
	춘천	101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제주	38	남자 (보호소년, 위탁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81	(위탁소년)	
<b>합계</b>	<b>1,500</b>			

보호 관찰소	구분	전체	남자	여자	비고
	서울	185	156	30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서부, 서울북부
	부산	65	56	9	부산, 부산서부
	대구	60	52	8	대구, 대구서부
	인천	76	65	11	인천
	광주	32	27	6	광주
	대전	44	35	8	대전
	울산	38	33	5	울산
	경기	218	181	37	의정부, 수원, 고양, 부천, 성남, 여주, 안산, 평택
	강원	38	32	7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충북	33	28	5	청주, 충주
	충남	34	30	4	홍성, 논산, 서산, 천안
	전북	37	32	5	전주, 군산, 정읍
	전남	24	21	3	목포, 순천
	경북	47	39	8	안동, 경주, 포항, 김천
	경남	58	51	7	창원, 진주, 통영
	제주	10	8	2	제주
<b>합계</b>	<b>1,000</b>	846	154		

## 라. 실태조사 설문 문항 가중치 적용과 기준점수 설정

### 1) 실태조사 설문 문항 가중치 적용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대한 가중치 적용을 위해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문항의 가중치를 결정하고자 함이었다. 전문가 합의 방법은 관련 전문가 40인에게 각 설문 문항이 얼마나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한 문항이 받을 수 있는 평정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40점과 200점이 된다. 이러한 점수들을 바탕으로, 문항 사이의 최대 가중치 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정한 후에 각 문항에 부여할 가중치를 최종 계산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합의는 6월에 실시되었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문항의 평균은 2.51~4.83점 사이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이하 IRT)을 사용하여 해당 문항의 변별도를 추정하여 이를 각 문항의 가중치로 사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결과적으로, 공동연구진은 문항의 가중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는 첫째, 두 방법 간에 별다른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둘째, 공동연구진이 판단할 때 어느 쪽도 문항 가중치로 사용될만한 타당한 경향성이나 근거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연구진은 문항의 가중치 적용보다는 이론적 근거와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영역별 점수를 동일한 비중으로 합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전체점수와 함께 위기결과 문항에 대한 응답에 기반하여 위험군을 분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24> 위기수준 반영에 대한 전문가 평정 결과와 문항반응이론에 따른 가중치

문 항	M(SD)	IRT 가중치
1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3.64(0.89)	1.70
2 나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4.18(0.64)	2.00
3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3.66(0.91)	1.84
4 늘 슬프다.	3.76(0.82)	2.50
5 이유 없이 불안하다.	3.50(0.94)	1.83
6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3.39(1.0)	0.83
7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3.14(0.91)	0.81
8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2.78(0.88)	0.77
9 자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3.11(0.89)	0.74
10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4.00(0.91)	0.56
11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3.99(0.90)	0.48
1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2.91(0.93)	0.47
1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3.29(1.08)	0.44
14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3.22(0.95)	0.60
15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3.01(0.89)	0.65
16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3.91(0.91)	1.67
17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4.46(0.72)	2.20
18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신다.	4.59(0.61)	2.29
19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3.58(1.06)	1.32

	문 항	M(SD)	IRT 가중치
20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3.54(1.02)	1.84
21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3.88(0.81)	1.25
22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3.34(1.07)	2.50
23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3.91(1.09)	1.56
24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4.17(1.12)	1.66
25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4.18(1.07)	1.86
26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4.41(1.01)	1.44
27	나는 공부를 못한다.	2.51(0.95)	1.15
28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2.87(0.94)	2.46
29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3.00(0.97)	2.47
30	나는 좋아하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다.	3.80(0.97)	2.50
31	나는 학교가 싫다.	3.67(0.86)	1.70
32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3.67(0.97)	1.36
33	부모님이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4.34(0.79)	1.60
34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2.92(0.94)	0.57
35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3.05(0.96)	1.19
36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3.36(1.06)	0.72
37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3.57(0.92)	0.69
38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3.64(1.07)	0.31
39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3.68(0.81)	0.03
40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3.47(0.93)	0.53
41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3.36(1.19)	1.18
42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3.62(0.94)	1.62
43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3.78(0.84)	2.50
44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4.04(0.92)	0.80
45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3.84(1.03)	0.69
46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4.16(0.89)	0.70
47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3.64(1.08)	2.50
48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3.32(1.14)	2.32
49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3.07(1.18)	1.64
50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3.78(1.11)	2.24
51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3.16(1.03)	0.53
52	지난 한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3.22(1.13)	0.42
53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4.13(1.14)	1.26
54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3.75(1.04)	1.36

	문 항	M(SD)	IRT 가중치
55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3.82(1.00)	1.20
56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3.71(1.11)	1.34
57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3.66(1.04)	1.20
58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3.63(0.97)	1.05
59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4.21(0.87)	2.41
60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3.74(0.94)	1.88
61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3.86(0.96)	2.50
62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 한 적이 있다.	3.62(0.94)	2.12
63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4.36(0.81)	1.50
64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4.58(0.83)	2.22
65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3.84(0.92)	0.90
66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4.46(0.88)	2.50
67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4.75(0.79)	1.42
68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3.99(0.89)	0.30
69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4.71(0.57)	0.44
70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4.76(0.63)	0.35
71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4.29(0.72)	0.34
7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4.76(0.63)	0.37
73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4.36(0.71)	0.26
74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4.83(0.5)	-
75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4.62(0.54)	-

## 2) 앵고프 방식(modified Angoff)을 통한 기준점수 설정(Standard Setting)

Modified Angoff 방법을 통하여 전체 피험자를 위험군, 잠재군 그리고 일반군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한 두 분할점수(cut-off scores: 위험군 vs. 잠재군 구분, 잠재군 vs. 일반군)를 구하였다. 분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전 준비

한 전문가가 각 설문문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계선 상의 청소년들이 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점수를 표기할 수 있도록 목록표(설문지)를 준비하였다.

### 나) 전문가 회의 실시

관련 전문가 14인을 한자리에 모아서 준거설정을 위한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 시 회의의 목적, 준거설정의 의미, 검사에서 고려된 하위 영역들, 그리고 실제 사용된

문항 및 각 문항의 가중치들에 대하여 가능한 자세히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수준의 경계선 각각에 대해서 전문가가 (실제로 알고 있는 청소년이든 상상 속의 청소년이든) 특정 청소년을 각자의 마음속에 상상하게 한 후, 위험군-잠재군, 잠재군-일반군 경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설문지에 체크를 하였다.

#### 다) 결과 분석

전문가가 문항 당 제공한 두 개의 점수를 취합해 두 종류의 청소년 집단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였다. 여기서 각 문항 당 평균과 영역 점수별 평균을 구하였다.

#### 라) 전문가에게 결과 제시

위의 결과를 각 전문가들에게 제시하였다. 즉 자신이 제공한 문항, 영역별 수준에서의 분할점수들과 자신을 포함한 전체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계산한 평균적 분할점수들 알려주었다(여기서 각 문항 및 영역별로 가능한 최소 및 최대점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문항 수준에서 자신이 앞서 결정한 바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 마) 평균과 문항 수준 구하기

2회차 결과를 취합해 두 분할점수의 평균을 각 문항 수준에서 구하였다.

### 3) 산출된 점수의 적용

#### 가) 영역 및 종합 점수의 결정

청소년 위기수준을 정하기 위한 각 영역별 하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해당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역별 표준점수( $z$  점수)를 계산하였다. 종합 점수의 결정은 각 영역별 중요도를 동일하다고 보고 이들 영역별 표준점수를 합산(즉 8개  $z$  점수의 합)하여 도출하였다. 각 영역별 점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국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의 <표 25>와 같다.

〈표 25〉 전국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영역	문항 수	원점수상의 분할점수	평균	표준 편차	z점수척도상 잠재군/일반군 분할점수	z점수척도상 위험군/잠재군 분할점수
우울·불안	9	10.05	8.66	7.11	0.20	1.35
공격성·부주의·충동성	6	6.05	6.35	4.51	-0.07	1.01
부모관계·학대·방임	11	9.16	3.07	5.08	1.20	3.12
학교생활	2	7.40	4.64	4.04	0.68	1.86
가정환경	4	2.28	0.77	1.35	1.12	2.33
지역사회	7	2.78	2.06	2.46	0.29	1.16
반사회적가족	3	1.62	0.52	1.34	0.82	1.54
반사회적친구	4	3.05	1.29	2.44	0.72	0.87
전체 점수(8개 z점수 합)에서의 분할점수					4.96	13.23

#### 나) 위기 수준 결정

앞의 기준 설정 과정은 문항 별로 세 개의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분할점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에서 표준점수 상에서의 두 분할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영역별 분할 점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검사 수준에서의 분할 점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각 청소년이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 중 어느 수준에 속하는 지 결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요소를 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일반군 3부분으로 분류하고,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여부에 따라 총 6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26〉 위기요소와 위기결과에 따른 6수준 분류

요소	위기결과 위기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있음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없음
고위험군		1수준	4수준
잠재적 위험군		2수준	5수준
일반군		3수준	6수준

〈표 27〉 6수준 분류 및 설명

구 분		설 명
1수준	위험군	고위험군 위기요소가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2수준		행동적 위험군 위기요소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3수준		결과적 위험군 위기요소가 일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 1문항 이상 응답한 청소년군
4수준		심리환경적 위험군 위기요소가 고위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5수준	잠재군	위기요소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나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6수준	일반군	위기요소가 일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군

〈표 28〉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 1-2회	거의 매일
63.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64.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0	1	2	<u>3</u>	<u>4</u>
65. <u>지난 한달 동안</u>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u>4</u>
66. <u>지난 한달 동안</u>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u>4</u>
67. <u>지난 한달 동안</u>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u>3</u>	<u>4</u>
68.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u>3</u>	<u>4</u>
69.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u>4</u>
73.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u>3</u>	<u>4</u>
77. <u>지난 1년 동안</u>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0	1	2	<u>3</u>	<u>4</u>
78. <u>지난 1년 동안</u>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u>3</u>	<u>4</u>
80.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u>3</u>	<u>4</u>
81.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u>2</u>	<u>3</u>	<u>4</u>
83.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84.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86.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u>1</u>	<u>2</u>	<u>3</u>	<u>4</u>
87. <u>지난 1년 동안</u> 가출 한 경험이 있다.	0	1	2	<u>3</u>	<u>4</u>
문항내용	아니다		그렇다		
88. <u>지금</u> 가출한 상태이다.	0		<u>1</u>		
89. <u>지금</u>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유학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	0		<u>1</u>		

※ 위 설문 문항 중 진하게 밑줄 친 번호에 체크한 경우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됨. 단, 63번과 64번은 동시에 모두 체크되어야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됨.

〈표 29〉는 위기요소의 cut-off 점수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의 cut-off 점수는 13.2198점 이상, 잠재적 위험군은 4.9471점-13.2197점, 일반군은 4.9470점 이하로 나타났다.

〈표 29〉 위기요소 cut-off 점수

위기요소	cut-off점수(z점수)
고위험군	13.2198 이상
잠재적 위험군	4.9471 - 13.2197
일반군	4.9470 이하

#### 4) 실제 취약·위기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타당화 작업

아래에서는 실제 취약·위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섯 개 위기 수준을 적용해 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러한 수준은 위기요소 3개 등급과 위기 결과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다.

### 마. 지역별 가중치 부여

지역별 가중치 부여 이유는 표본설계에 의해 설문 조사가 시행되었지만, 실제 조사 결과 표본설계시 조사 인원과의 차이에 따른 지역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 1) 일반학생

일반 학생에 대한 기본 가중치는 시도( $h=1, \dots, 16$ ), 학교급( $i=1, \dots, 4$ ), 학년( $j=1, \dots, 3(2)$ )의 조합을 세부 층으로 고려하여 각 층별 표본추출률의 역수로 산출되었다. 즉, 각 세부 층의  $l$ 번째 학생에 대한 기본 가중치는

$$W_{hijl}^a = \frac{1}{n_{hij}/N_{hij}} = \frac{N_{hij}}{n_{hij}}$$



여기서  $N_{hij}$ 는 세부 층에 속한 모집단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j}$ 는 각 세부 층에서 조사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ijkl}^b = \frac{N_{hijk}}{\sum_{l=1}^{n_{hik}} W_{hijkl}^a}$$

여기서  $N_{hij1}$ 과  $N_{hij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ijkl}^a$ 은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W_{hijkl}^f = W_{hijl}^a \times W_{hijkl}^b$$

## 2) 취약 · 위기청소년

취약 ·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기본 가중치는 취약 · 위기 구분( $h=1, \dots, 8$ )을 세부 층으로 고려하여 각 층별 표본추출률의 역수로 산출되었다. 즉, 각 세부 층의  $l$ 번째 청소년에 대한 기본 가중치는

$$W_{hl}^a = \frac{1}{n_h/N_h} = \frac{N_h}{n_h}$$

여기서  $N_h$ 는 세부 층에 속한 모집단 청소년수를 나타내고,  $n_h$ 는 각 세부 층에서 조사된 조사한 청소년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l}^b = \frac{N_{hk}}{\sum_{l=1}^{n_{hk}} W_{hkl}^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자와 여자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l}^a$ 은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W_{hkl}^f = W_{hi}^a \times W_{hkl}^b$$

#### 바.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 실시되었다. 또한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역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의 협력을 통해 표본 설계에서 도출된 조사대상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코딩을 하여 본원으로 송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코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코딩에 대한 교육과 차후 연구결과 분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사.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요인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설계에 의해 표집대상을 추출 후, 최종적으로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므로 아래에 제시된 조사대상 분포는 모집단 분포를 근거로 제시되었다.

### 1. 조사대상

#### 가. 시도별

##### 1) 일반학생

〈표 30〉은 일반학생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시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조사대상은 89,827명으로써 이 중 경기도가 15,765명(1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 12,476명(13%) 순이었다.

〈표 30〉 일반학생 시도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서울특별시	12,476	13.9
부산광역시	6,083	6.8
인천광역시	4,149	4.6
대구광역시	3,374	3.8
대전광역시	2,299	2.6
광주광역시	2,514	2.8
울산광역시	2,090	2.3
강원도	4,296	4.8
경기도	15,765	17.6
경상남도	9,337	10.4
경상북도	7,009	7.8
진라남도	6,025	6.7
진라북도	4,280	4.8
충청남도	4,667	5.2
충청북도	4,481	5.0
제주특별자치도	982	1.1
합계	89,827	100.0

〈표 31〉은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학생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시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은 경기도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18.0%) 순이었다.

〈표 31〉 일반학생 시도별 분포(지역별 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서울특별시	941,687	18.0
부산광역시	354,478	6.8
인천광역시	300,526	5.7
대구광역시	287,037	5.5
대전광역시	173,824	3.3
광주광역시	182,616	3.5
울산광역시	139,194	2.7
강원도	153,783	2.9
경기도	1,256,811	24.0
경상남도	354,462	6.8
경상북도	260,671	5.0
전라남도	195,937	3.7
전라북도	202,019	3.9
충청남도	205,511	3.9
충청북도	164,807	3.1
제주특별자치도	65,227	1.2
합계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2〉는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조사대상에 대한 시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조사대상은 3,776명으로써 이 중 경기도가 661명(1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 473명(12.5%) 순이었다.

〈표 33〉은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 · 위기청소년 조사대상에 대한 시도별 전체 분포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은 경기도가 1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13.4%) 순이었다.

〈표 3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서울특별시	473	12.5
부산광역시	304	8.1
인천광역시	184	4.9
대구광역시	223	5.9
대전광역시	368	9.7
광주광역시	145	3.8
울산광역시	107	2.8
강원도	277	7.3
경기도	661	17.5
경상남도	210	5.6
경상북도	106	2.8
전라남도	131	3.5
전라북도	257	6.8
충청남도	137	3.6
충청북도	93	2.5
제주특별자치도	100	2.6
합계	3,776	100.0

〈표 33〉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분포(지역별 기준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서울특별시	7,973	13.4
부산광역시	2,790	4.7
인천광역시	4,803	8.0
대구광역시	1,060	1.8
대전광역시	3,154	5.3
광주광역시	1,637	2.7
울산광역시	1,966	3.3
강원도	6,454	10.8
경기도	8,912	14.9
경상남도	4,647	7.8
경상북도	2,824	4.7
전라남도	2,882	4.8
전라북도	4,083	6.8
충청남도	3,127	5.2
충청북도	1,738	2.9
제주특별자치도	1,643	2.8
합계	59,693	100.0

## 나. 성별

### 1) 일반학생

〈표 34〉는 일반학생의 성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조사대상 중 남학생은 52.4%, 여학생은 47.6%의 분포를 보였다.

〈표 34〉 일반학생 성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남	47,075	52.4
여	42,752	47.6
합계	89,827	100.0

〈표 35〉는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학생의 성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조사대상 중 남학생은 52.8%, 여학생은 47.2%의 분포를 보였다.

〈표 35〉 일반학생 성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남	2,764,555	52.8
여	2,474,035	47.2
합계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6〉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조사대상 중 남학생은 71.2%, 여학생은 28.8%의 분포를 보였다.

〈표 3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남	2,689	71.2
여	1,087	28.8
합계	3,776	100.0

〈표 37〉은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총 조사대상 중 남학생은 65.6%, 여학생은 34.4%의 분포를 보였다.

〈표 37〉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남	39,176	65.6
여	20,517	34.4
합계	59,693	100.0

## 다. 학교별

### 1) 일반학생

〈표 38〉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5-6학년)은 20.6%, 중학생은 32.6%, 인문계 고등학생은 31.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15.5%의 분포를 보였다.

〈표 38〉 일반학생 학교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18,529	20.6
중학교	29,286	32.6
인문계 고등학교	28,086	31.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3,926	15.5
합계	89,827	100.0

〈표 39〉는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5-6학년)은 24.2%, 중학생은 38.3%, 인문계 고등학생은 28.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9.3%의 분포를 보였다.

〈표 39〉 일반학생 학교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1,265,826	24.2
중학교	2,006,972	38.3
인문계 고등학교	1,480,100	28.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485,692	9.3
합계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40〉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 및 기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5-6학년)은 3.7%, 중학생은 19.2%, 인문계 고등학생은 7.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13.8%, 대안학교 1.1%, 검정고시 학원 3.4%, 직업학교 0.3%, 직업훈련기관 0.5%, 소년원학교 36.2%, 다니지 않음 14.5%의 분포를 보였다.

〈표 40〉 취약 · 위기청소년 학교 및 기관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140	3.7
중학교	725	19.2
인문계 고등학교	274	7.3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522	13.8
대안학교	41	1.1
검정고시 학원	129	3.4
직업학교	13	.3
직업훈련기관	20	.5
소년원학교	1,366	36.2
다니지 않음	546	14.5
합계	3,776	100.0

〈표 41〉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기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정위탁 청소년은 9.4%, 양육시설은 10.7%, 그룹홈은 2.5%, 단기쉼터는 10.6%, 중장기 쉼터 6.4%, 보호관찰 22.8%, 소년원학교 36.2%, 기타 1.4%의 분포를 보였다.

〈표 41〉 취약 · 위기청소년 기관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가정위탁	356	9.4
양육시설	405	10.7
그룹홈	96	2.5
단기쉼터	402	10.6
중장기 쉼터	240	6.4
보호관찰	860	22.8
소년원학교	1,366	36.2
기타	51	1.4
합계	3,776	100.0



〈표 42〉는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 및 기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생(5-6학년)은 6.6%, 중학생은 28.5%, 인문계 고등학생은 12.1%, 전문계(실업계) 고등학생은 21.2%, 대안학교 1.6%, 검정고시 학원 4.8%, 직업학교 0.4%, 직업훈련기관 0.8%, 소년원학교 2.4%, 다니지 않음 21.6%의 분포를 보였다.

〈표 4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 및 기관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3,964	6.6
중학교	16,990	28.5
인문계 고등학교	7,198	12.1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12,656	21.2
대안학교	975	1.6
검정고시 학원	2,846	4.8
직업학교	226	.4
직업훈련기관	500	.8
소년원학교	1,446	2.4
다니지 않음	12,892	21.6
합계	59,693	100.0

〈표 43〉은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위기청소년의 기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정위탁 청소년은 22.8%, 양육시설은 10.8%, 그룹홈은 1.4%, 단기쉼터는 20.7%, 중장기 쉼터 3.0%, 보호관찰 39.0%, 소년원학교 2.3%, 기타 0.1%의 분포를 보였다.

〈표 43〉 취약·위기청소년 기관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가정위탁	13,602	22.8
양육시설	6,458	10.8
그룹홈	817	1.4
단기쉼터	12,358	20.7
중장기쉼터	1,777	3.0
보호관찰	23,257	39.0
소년원학교	1,373	2.3
기타	51	.1
합계	59,693	100.0

## 라. 학년별

### 1) 일반학생

〈표 44〉는 일반학생의 학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은 10.0%, 초등학교 6학년은 10.7%, 중학교 1학년은 10.9%, 중학교 2학년은 10.9%, 중학교 3학년은 10.7%, 고등학교 1학년은 16.3%, 고등학교 2학년은 15.9%, 고등학교 3학년은 14.6%의 분포를 보였다.

〈표 44〉 일반학생 학년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5학년	8,938	10.0
초등학교 6학년	9,585	10.7
중학교 1학년	9,801	10.9
중학교 2학년	9,836	10.9
중학교 3학년	9,655	10.7
고등학교 1학년	14,664	16.3
고등학교 2학년	14,242	15.9
고등학교 3학년	13,106	14.6
합계	89,827	100.0

〈표 45〉는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은 11.8%, 초등학교 6학년은 12.4%, 중학교 1학년은 12.5%, 중학교 2학년은 12.9%, 중학교 3학년은 12.9%, 고등학교 1학년은 12.8%, 고등학교 2학년은 12.6%, 고등학교 3학년은 12.1%의 분포를 보였다.

〈표 45〉 일반학생 학년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5학년	618,571	11.8
초등학교 6학년	647,255	12.4
중학교 1학년	656,572	12.5
중학교 2학년	676,887	12.9
중학교 3학년	673,513	12.9
고등학교 1학년	670,040	12.8
고등학교 2학년	661,416	12.6
고등학교 3학년	634,336	12.1
합계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46〉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은 1.7%, 초등학교 6학년은 2.0%, 중학교 1학년은 5.0%, 중학교 2학년은 7.7%, 중학교 3학년은 8.3%, 고등학교 1학년은 9.2%, 고등학교 2학년은 7.3%, 고등학교 3학년은 6.3%, 해당사항 없음 52.4%의 분포를 보였다.

〈표 46〉 취약 · 위기청소년 학년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5학년	66	1.7
초등학교 6학년	76	2.0
중학교 1학년	189	5.0
중학교 2학년	289	7.7
중학교 3학년	314	8.3
고등학교 1학년	348	9.2
고등학교 2학년	276	7.3
고등학교 3학년	238	6.3
해당사항 없음	1,980	52.4
합계	3,776	100.0

〈표 47〉은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은 3.1%, 초등학교 6학년은 3.6%, 중학교 1학년은 6.7%, 중학교 2학년은 10.5%, 중학교 3학년은 12.6%, 고등학교 1학년은 13.8%, 고등학교 2학년은 10.9%, 고등학교 3학년은 9.3%, 해당사항 없음 29.5%의 분포를 보였다.

〈표 47〉 취약 · 위기청소년 학년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초등학교 5학년	1,868	3.1
초등학교 6학년	2,146	3.6
중학교 1학년	4,016	6.7
중학교 2학년	6,273	10.5
중학교 3학년	7,497	12.6
고등학교 1학년	8,238	13.8
고등학교 2학년	6,515	10.9
고등학교 3학년	5,522	9.3
해당사항 없음	17,618	29.5
합계	59,693	100.0

## 마. 거주형태별

### 1) 일반학생

〈표 48〉은 일반학생의 거주형태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두 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는 81.5%,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4.4%,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6.8%,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1.9%의 분포를 보였다.

〈표 48〉 일반학생 거주형태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모두 친부모	73,241	81.5
친아버지만	3,956	4.4
친어머니만	6,139	6.8
친아버지와새어머니	1,073	1.2
친어머니와새아버지	816	.9
두분 모두 양부모	76	.1
할머니나 할아버지	1,740	1.9
부모조부모와 살지않음	1,894	2.1
기타	892	1.0
합계	89,827	100.0

〈표 49〉는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학생의 거주형태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두 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는 83.2%,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4.0%,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6.4%,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1.6%의 분포를 보였다.

〈표 49〉 일반학생 거주형태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모두 친부모	4,358,514	83.2
친아버지만	207,852	4.0
친어머니만	335,971	6.4
친아버지와새어머니	55,612	1.1
친어머니와새아버지	44,707	.9
두분 모두 양부모	5,243	.1
할머니나 할아버지	85,314	1.6
부모조부모와 살지않음	98,332	1.9
기타	47,045	.9
합계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50〉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거주형태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두 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는 16.2%,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6.8%,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6.3%, 부모나 조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 57.8%의 분포를 보였다.

〈표 50〉 취약 · 위기청소년 거주형태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모두 친부모	610	16.2
친아버지만	256	6.8
친어머니만	239	6.3
친아버지와새어머니	75	2.0
친어머니와새아버지	47	1.2
두분 모두 양부모	6	.2
할머니나 할아버지	221	5.9
부모조부모와 살지 않음	2,183	57.8
기타	139	3.7
합계	3,776	100.0

〈표 51〉은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거주형태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모두 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는 24.6%, 친아버지와 살고 있는 경우 10.0%, 친어머니와 살고 있는 경우 9.1%, 부모나 조부모와 살지 않는 경우 35.7%의 분포를 보였다.

〈표 51〉 취약 · 위기청소년 거주형태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모두 친부모	14,660	24.6
친아버지만	5,941	10.0
친어머니만	5,435	9.1
친아버지와새어머니	1,437	2.4
친어머니와새아버지	933	1.6
두분 모두 양부모	98	.2
할머니나 할아버지	7,275	12.2
부모조부모와 살지않음	21,301	35.7
기타	2,613	4.4
합계	59,693	100.0

## 바. 부모출신국별

### 1) 일반학생

〈표 52〉는 일반학생의 부모출신국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8.8%, 한 분만 외국인은 0.5%, 두 분 모두 외국인은 0.1%, 한 분만 중국교포는 0.3%의 분포를 보였다.

〈표 52〉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두 분 모두 한국인	88,789	98.8
한 분만 외국인	458	.5
두 분 모두 외국인	102	.1
두 분 모두 새터민	38	.0
한 분만 새터민	30	.0
두 분 모두 중국교포	21	.0
한 분만 중국교포	100	.1
모르겠다	289	.3
전체	89,827	100.0

〈표 53〉은 가중치를 적용한 일반학생의 부모출신국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8.7%, 한 분만 외국인은 0.5%, 두 분 모두 외국인은 0.1%, 한 분만 중국교포는 0.1%의 분포를 보였다.

〈표 53〉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두 분 모두 한국인	5,171,625	98.7
한 분만 외국인	24,352	.5
두 분 모두 외국인	6,843	.1
두 분 모두 새터민	2,326	.0
한 분만 새터민	1,666	.0
두 분 모두 중국교포	1,204	.0
한 분만 중국교포	5,462	.1
모르겠다	25,112	.5
전체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54〉는 취약 · 위기청소년의 부모출신국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7.0%, 한 분만 외국인은 0.6%, 두 분 모두 외국인은 0.1%, 한 분만 중국교포는 0.2%의 분포를 보였다.

〈표 54〉 취약 · 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두 분 모두 한국인	3,662	97.0
한 분만 외국인	24	.6
두 분 모두 외국인	4	.1
두 분 모두 새터민	1	.0
두 분 모두 중국교포	1	.0
한 분만 중국교포	9	.2
모르겠다	75	2.0
전체	3,776	100.0

〈표 55〉는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부모출신국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두 분 모두 한국인은 96.5%, 한 분만 외국인은 0.9%, 두 분 모두 외국인은 0.1%, 한 분만 중국교포는 0.2%의 분포를 보였다.

〈표 55〉 취약 · 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두 분 모두 한국인	57,584	96.5
한 분만 외국인	537	.9
두 분 모두 외국인	87	.1
두 분 모두 새터민	16	.0
한 분만 새터민	0	0
두 분 모두 중국교포	28	.0
한 분만 중국교포	129	.2
모르겠다	1,312	2.2
전체	59,693	100.0

## 사. 가정경제수준별

### 1) 일반학생

〈표 56〉은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 ‘어려운 편’15.1%, ‘보통이다’ 66.9%, ‘잘 사는 편’ 13.8%, ‘매우 잘 사는 편’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매우 어려운 편	2,009	2.2
어려운 편	13,564	15.1
보통이다	60,099	66.9
잘사는 편	12,419	13.8
매우 잘사는 편	1,736	1.9
합계	89,827	100.0

〈표 57〉은 가중치를 적용한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는 1.7%, ‘어려운 편’12.8%, ‘보통이다’ 67.4%, ‘잘 사는 편’ 15.8%, ‘매우 잘 사는 편’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매우 어려운 편	87,980	1.7
어려운 편	670,883	12.8
보통이다	3,532,962	67.4
잘사는 편	830,010	15.8
매우 잘사는 편	116,755	2.2
합계	5,238,590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58〉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는 8.9%, ‘어려운 편’28.9%, ‘보통이다’ 54.6%, ‘잘 사는 편’ 6.4%, ‘매우 잘 사는 편’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매우 어려운 편	336	8.9
어려운 편	1,091	28.9
보통이다	2,062	54.6
잘사는 편	243	6.4
매우 잘사는 편	44	1.2
합계	3,776	100.0

〈표 59〉는 가중치를 적용한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는 9.7%, ‘어려운 편’ 31.3%, ‘보통이다’ 52.7%, ‘잘 사는 편’ 5.3%, ‘매우 잘 사는 편’ 1.1%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가중치 적용)

구 분	빈 도	퍼 센 트
매우 어려운 편	5,765	9.7
어려운 편	18,662	31.3
보통이다	31,430	52.7
잘사는 편	3,159	5.3
매우 잘사는 편	677	1.1
합계	59,693	100.0

## 2. 위기요소 문항내적합치도

〈표 60〉은 위기요소의 문항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일반학생 .55-.91, 취약·위기청소년 .62-.93의 분포를 나타냈다.

〈표 60〉 위기요소 문항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

구 분	문항수	일반학생	취약·위기청소년
우울·불안	9	.91	.93
공격성·충동성·부주의	6	.81	.85
부모관계·학대·방임	11	.89	.93
학교생활	7	.75	.82
가정환경	2	.74	.82
지역사회	3	.68	.73
반사회적가족	4	.55	.62
반사회적친구	4	.72	.80

### 3. 위기수준(6수준) 분포

위기수준(6수준) 분류는 위기요소(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를 분류하여 위기결과 해당유무에 따라 6수준(1수준:고위험군, 2수준:행동적 위험군, 3수준:결과적 위험군, 4수준:심리환경적 위험군, 5수준:잠재군, 6수준:일반군)으로 분류되는 과정을 거쳤다.

#### 가. 일반학생

##### 1) 위기요소 분포

위기요소 문항의 총점에 따른 위기 정도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일반학생들의 전체 위기요소 분포는 <표 61>과 같다. 고위험군은 유효퍼센트가 2.0%, 잠재적 위험군은 13.4%, 일반군은 84.6%로 나타났다.

<표 61> 일반청소년 전체 위기요소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고위험군	105,305	2.0	2.0	2.0
잠재적 위험군	703,040	13.4	13.4	15.4
일반군	4,430,245	84.6	84.6	100.0
합계	5,238,590	100.0	100.0	

##### 2) 위기결과 분포

위기결과 분류는 위기결과 문항 중 17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위기결과에 항목에 해당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학생의 경우, 17개 문항 중 '가출 상태'와 '학업중단 상태'를 제외한 결과를 <표 62>에 제시하였다. 이들 항목 중 '흡연 경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 '자살 계획'을 경험한 경우가 1.7%였다.

〈표 62〉 일반학생 전체 위기결과 분포

내용	경험유무	빈도	퍼센트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유	46,454	.9
	무	5,192,136	99.1
음주경험(거의 매일)	유	19,767	.4
	무	5,218,823	99.6
흡연 경험(거의 매일)	유	122,717	2.3
	무	5,115,873	97.7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1-2회 이상)	유	18,610	.4
	무	5,219,980	99.6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1-2회 이상)	유	5,185,062	99.0
	무	53,528	1.0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유	41,852	.8
	무	5,196,738	99.2
친구 폭행 경험(주1-2회 이상)	유	45,027	.9
	무	5,193,563	99.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1-2회 이상)	유	23,746	.5
	무	5,214,844	99.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1-2회 이상)	유	19,298	.4
	무	5,219,292	99.6
자살 계획(주1-2회 이상)	유	91,147	1.7
	무	5,147,443	98.3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유	114,258	2.2
	무	5,124,332	97.8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유	33,770	.6
	무	5,204,820	99.4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유	53,763	1.0
	무	5,184,827	99.0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유	27,564	.5
	무	5,211,026	99.5
가출 경험(주1-2회 이상)	유	19,360	.4
	무	5,219,230	99.6

### 3) 위기수준 분포

〈표 63〉은 일반학생 전체의 1수준(고위험군)에서 6수준(일반군)까지 분포를 나타내었다. 1수준(고위험군)은 전체 일반학생의 1.2%, 2수준(행동적 위험군)은 전체 일반학생의 3.1%, 3수준(결과적 위험군)은 전체 일반학생의 4.2%, 4수준(심리환경적 위험군)은 전체 일반학생의 0.8%, 5수준(잠재군)은 전체 일반학생의 10.3%, 6수준(일반군)은 전체 일반학생의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별 분포

위기요소		위기결과		해당없음		전체
		빈도	해당있음	빈도	해당없음	
고위험군	빈도 %	1수준	63,270 1.2%	4수준	42,035 .8%	105,305 2.0%
		2수준	161,485 3.1%	5수준	541,555 10.3%	703,040 13.4%
일반군	빈도 %	3수준	220,745 4.2%	6수준	4,209,500 80.4%	4,430,245 84.6%
전체	빈도 %		445,500 8.5%		4,793,090 91.5%	5,238,5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 1) 위기요소 분포

위기요소 문항의 총점에 따른 위기 정도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취약 · 위기청소년 들의 전체 위기요소 분포는 〈표 64〉와 같다. 고위험군은 유효퍼센트가 17.6%, 잠재적 위험군은 27.3%, 일반군은 55.1%로 나타났다.

〈표 64〉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 분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고위험군	10,533	17.6	17.6	17.6
잠재적 위험군	16,293	27.3	27.3	44.9
일반군	32,867	55.1	55.1	100.0
합계	59,693	100.0	100.0	

## 2) 위기결과 분포

〈표 65〉는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항목 해당 유무를 제시하였다. 이들 항목 중 ‘흡연 경험’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학업중단 상태’24.2%, ‘가출상태’13.7%였다.

〈표 65〉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결과 분포

내 용	경험유무	빈도	퍼센트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유	2,280	3.8
	무	57,413	96.2
음주경험(거의 매일)	유	3,111	5.2
	무	56,582	94.8
흡연 경험(거의 매일)	유	18,407	30.8
	무	41,286	69.2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1-2회 이상)	유	1,010	1.7
	무	58,683	98.3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1-2회 이상)	유	855	1.4
	무	58,838	98.6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유	673	1.1
	무	59,020	98.9
친구 폭행 경험(주1-2회 이상)	유	2,012	3.4
	무	57,681	96.6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1-2회 이상)	유	2,403	4.0
	무	57,290	96.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1-2회 이상)	유	2,321	3.9
	무	57,372	96.1
자살 계획(주1-2회 이상)	유	2,634	4.4
	무	57,059	95.6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유	4,284	7.2
	무	55,409	92.8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유	2,891	4.8
	무	56,802	95.2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유	1,558	2.6
	무	58,135	97.4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유	1,426	2.4
	무	58,267	97.6
가출 경험(주1-2회 이상)	유	5,677	9.5
	무	54,016	90.5
현재 가출 상태	유	8,192	13.7
	무	51,501	86.3
현재 학업중단 상태	유	14,423	24.2
	무	45,270	75.8

### 3) 위기수준 분포

〈표 66〉은 취약·위기청소년 전체의 1수준(고위험군)에서 6수준(일반군)까지 분포를 제시하였다. 1수준(고위험군)은 전체 취약·위기청소년의 15.9%, 2수준(행동적 위험군)은 전체 취약·위기청소년의 17.3%, 3수준(결과적 위험군)은 전체 취약·위기청소년의 17.3%, 4수준(심리환경적 위험군)은 전체 취약·위기청소년의 1.7%, 5수준(잠재군)은 전체 취약·위기청소년의 10.0%, 6수준(일반군)은 전체 취약·위기청소년의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별 분포

위기요소	위기결과		해당있음		해당없음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고위험군	1수준	9,495 15.9%	4수준	1,038 1.7%	10,533	17.6%	
잠재적위험군	2수준	10,315 17.3%	5수준	5,977 10.0%	16,292	27.3%	
일반군	3수준	10,298 17.3%	6수준	22,570 37.8%	32,868	55.1%	
전체		30,108 50.4%		29,585 49.6%	59,693	100.0%	

## 4. 배경변인별 위기수준 분포

### 가. 시도별

#### 1) 일반학생

〈표 67〉은 시도별 일반학생의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고위험군 2.0%, 잠재적 위험군 13.4%, 일반군 84.6%였으며, 위기요소 중 고위험군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으로써 3.6%, 그 다음은 제주도 2.7%, 광주와 강원도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요소 분포

시도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서울	빈도	21,630	144,221	775,836	941,687
	시도의 %	2.3%	15.3%	82.4%	100.0%
부산	빈도	4,916	39,431	310,131	354,478
	시도의 %	1.4%	11.1%	87.5%	100.0%
인천	빈도	5,958	42,897	251,671	300,526
	시도의 %	2.0%	14.3%	83.7%	100.0%
대구	빈도	4,270	35,292	247,475	287,037
	시도의 %	1.5%	12.3%	86.2%	100.0%
대전	빈도	3,331	23,106	147,387	173,824
	시도의 %	1.9%	13.3%	84.8%	100.0%
광주	빈도	4,501	23,769	154,346	182,616
	시도의 %	2.5%	13.0%	84.5%	100.0%
울산	빈도	4,979	19,727	114,488	139,194
	시도의 %	3.6%	14.2%	82.3%	100.0%
강원도	빈도	3,828	23,529	126,426	153,783
	시도의 %	2.5%	15.3%	82.2%	100.0%
경기도	빈도	23,695	156,803	1,076,313	1,256,811
	시도의 %	1.9%	12.5%	85.6%	100.0%
경남	빈도	6,075	43,463	304,924	354,462
	시도의 %	1.7%	12.3%	86.0%	100.0%
경북	빈도	3,976	34,522	222,173	260,671
	시도의 %	1.5%	13.2%	85.2%	100.0%
전남	빈도	3,783	26,416	165,738	195,937
	시도의 %	1.9%	13.5%	84.6%	100.0%
전북	빈도	4,869	26,638	170,512	202,019
	시도의 %	2.4%	13.2%	84.4%	100.0%
충남	빈도	4,302	27,083	174,126	205,511
	시도의 %	2.1%	13.2%	84.7%	100.0%
충북	빈도	3,443	22,682	138,682	164,807
	시도의 %	2.1%	13.8%	84.1%	100.0%
제주도	빈도	1,747	13,461	50,019	65,227
	시도의 %	2.7%	20.6%	76.7%	100.0%
전체	빈도	105,303	703,040	4,430,247	5,238,590
	시도의 %	2.0%	13.4%	84.6%	100.0%

〈표 68〉은 시도별 일반학생의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분포는 8.5%였으며, 시도 중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도로써 10.5%, 그 다음이 대전 10.4%, 울산 10.3%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결과 분포

시 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84,205	857,482	941,687
	시도의 %	8.9%	91.1%	100.0%
부산	빈도	27,841	326,637	354,478
	시도의 %	7.9%	92.1%	100.0%
인천	빈도	27,803	272,723	300,526
	시도의 %	9.3%	90.7%	100.0%
대구	빈도	20,313	266,724	287,037
	시도의 %	7.1%	92.9%	100.0%
대전	빈도	18,163	155,661	173,824
	시도의 %	10.4%	89.6%	100.0%
광주	빈도	15,083	167,533	182,616
	시도의 %	8.3%	91.7%	100.0%
울산	빈도	14,307	124,887	139,194
	시도의 %	10.3%	89.7%	100.0%
강원도	빈도	14,197	139,586	153,783
	시도의 %	9.2%	90.8%	100.0%
경기도	빈도	92,707	1,164,104	1,256,811
	시도의 %	7.4%	92.6%	100.0%
경남	빈도	31,530	322,932	354,462
	시도의 %	8.9%	91.1%	100.0%
경북	빈도	21,639	239,032	260,671
	시도의 %	8.3%	91.7%	100.0%
전남	빈도	17,054	178,883	195,937
	시도의 %	8.7%	91.3%	100.0%
전북	빈도	18,302	183,717	202,019
	시도의 %	9.1%	90.9%	100.0%
충남	빈도	18,888	186,623	205,511
	시도의 %	9.2%	90.8%	100.0%
충북	빈도	16,629	148,178	164,807
	시도의 %	10.1%	89.9%	100.0%
제주도	빈도	6,841	58,386	65,227
	시도의 %	10.5%	89.5%	100.0%
전체	빈도	445,502	4,793,088	5,238,590
	시도의 %	8.5%	91.5%	100.0%



〈표 69〉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인 1수준 가장 많이 분포한 시도는 울산 2.3%, 제주, 대전, 전북이 1.5%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위험군인 2수준은 제주 4.9%, 대전 4.0%, 울산 3.7%순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 위험군인 3수준은 충북 5.1%, 대전 5.0%, 경남 4.9%순으로 나타났다. 심리환경적 위험군인 4수준은 울산 1.3%, 광주 1.2%, 강원·제주 1.1%순으로 나타났다.

〈표 69〉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수준 분포

시도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서울	빈도	12,741	30,814	40,651	8,889	113,407	735,185	941,687
	시도의 %	1.4%	3.3%	4.3%	.9%	12.0%	78.1%	100.0%
부산	빈도	2,742	9,587	15,512	2,174	29,844	294,619	354,478
	시도의 %	.8%	2.7%	4.4%	.6%	8.4%	83.1%	100.0%
인천	빈도	3,908	10,979	12,916	2,050	31,918	238,755	300,526
	시도의 %	1.3%	3.7%	4.3%	.7%	10.6%	79.4%	100.0%
대구	빈도	2,371	7,368	10,574	1,898	27,924	236,902	287,037
	시도의 %	.8%	2.6%	3.7%	.7%	9.7%	82.5%	100.0%
대전	빈도	2,538	6,892	8,733	793	16,214	138,654	173,824
	시도의 %	1.5%	4.0%	5.0%	.5%	9.3%	79.8%	100.0%
광주	빈도	2,228	5,029	7,826	2,273	18,739	146,521	182,616
	시도의 %	1.2%	2.8%	4.3%	1.2%	10.3%	80.2%	100.0%
울산	빈도	3,165	5,091	6,052	1,815	14,637	108,434	139,194
	시도의 %	2.3%	3.7%	4.3%	1.3%	10.5%	77.9%	100.0%
강원도	빈도	2,179	5,215	6,803	1,649	18,314	119,623	153,783
	시도의 %	1.4%	3.4%	4.4%	1.1%	11.9%	77.8%	100.0%
경기도	빈도	14,757	33,832	44,117	8,938	122,970	1,032,197	1,256,811
	시도의 %	1.2%	2.7%	3.5%	.7%	9.8%	82.1%	100.0%
경남	빈도	3,804	10,461	17,264	2,271	33,002	287,660	354,462
	시도의 %	1.1%	3.0%	4.9%	.6%	9.3%	81.2%	100.0%
경북	빈도	2,349	7,313	11,977	1,628	27,209	210,195	260,671
	시도의 %	.9%	2.8%	4.6%	.6%	10.4%	80.6%	100.0%
전남	빈도	2,210	6,174	8,670	1,574	20,242	157,067	195,937
	시도의 %	1.1%	3.2%	4.4%	.8%	10.3%	80.2%	100.0%
전북	빈도	2,997	6,855	8,449	1,872	19,784	162,062	202,019
	시도의 %	1.5%	3.4%	4.2%	.9%	9.8%	80.2%	100.0%
충남	빈도	2,161	6,652	10,075	2,141	20,431	164,051	205,511
	시도의 %	1.1%	3.2%	4.9%	1.0%	9.9%	79.8%	100.0%
충북	빈도	2,112	6,043	8,474	1,332	16,639	130,207	164,807
	시도의 %	1.3%	3.7%	5.1%	.8%	10.1%	79.0%	100.0%
제주도	빈도	1,008	3,181	2,652	739	10,280	47,367	65,227
	시도의 %	1.5%	4.9%	4.1%	1.1%	15.8%	72.6%	100.0%
전체	빈도	63,270	161,486	220,745	42,036	541,554	4,209,499	5,238,590
	시도의 %	1.2%	3.1%	4.2%	.8%	10.3%	80.4%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70〉은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고위험군 17.6%, 잠재적 위험군 27.3%, 일반군 55.1%였으며, 위기요소 중 고위험군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로써 34.6%, 그 다음은 경기도 27.1%, 서울 26.5%, 울산 2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0〉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요소 분포

시도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서울	빈도	2,116	2,263	3,593	7,972
	시도의 %	26.5%	28.4%	45.1%	100.0%
부산	빈도	207	894	1,689	2,790
	시도의 %	7.4%	32.0%	60.5%	100.0%
인천	빈도	1,094	1,175	2,534	4,803
	시도의 %	22.8%	24.5%	52.8%	100.0%
대구	빈도	173	327	560	1,060
	시도의 %	16.3%	30.8%	52.9%	100.0%
대전	빈도	396	913	1,845	3,154
	시도의 %	12.6%	28.9%	58.5%	100.0%
광주	빈도	566	633	438	1,637
	시도의 %	34.6%	38.7%	26.8%	100.0%
울산	빈도	474	441	1,051	1,966
	시도의 %	24.1%	22.4%	53.5%	100.0%
강원도	빈도	534	1,661	4,259	6,454
	시도의 %	8.3%	25.7%	66.0%	100.0%
경기도	빈도	2,415	2,492	4,005	8,912
	시도의 %	27.1%	28.0%	44.9%	100.0%
경남	빈도	600	1,114	2,933	4,647
	시도의 %	12.9%	24.0%	63.1%	100.0%
경북	빈도	291	741	1,792	2,824
	시도의 %	10.3%	26.2%	63.5%	100.0%
전남	빈도	612	762	1,508	2,882
	시도의 %	21.2%	26.4%	52.3%	100.0%
전북	빈도	268	1,174	2,641	4,083
	시도의 %	6.6%	28.8%	64.7%	100.0%
충남	빈도	382	677	2,068	3,127
	시도의 %	12.2%	21.7%	66.1%	100.0%
충북	빈도	178	394	1,166	1,738
	시도의 %	10.2%	22.7%	67.1%	100.0%
제주도	빈도	227	632	784	1,643
	시도의 %	13.8%	38.5%	47.7%	100.0%
전체	빈도	10,533	16,293	32,867	59,693
	시도의 %	17.6%	27.3%	55.1%	100.0%

〈표 71〉은 시도별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분포는 50.4%였으며, 시도 중 위기결과 항목에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로써 74.7%, 그 다음이 서울 71.1%, 경기도 68.6%순으로 나타났다.

〈표 71〉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결과 분포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5,667	2,306	7,973
	시도의 %	71.1%	28.9%	100.0%
부산	빈도	1,303	1,487	2,790
	시도의 %	46.7%	53.3%	100.0%
인천	빈도	2,789	2,014	4,803
	시도의 %	58.1%	41.9%	100.0%
대구	빈도	510	550	1,060
	시도의 %	48.1%	51.9%	100.0%
대전	빈도	1,600	1,554	3,154
	시도의 %	50.7%	49.3%	100.0%
광주	빈도	1,223	414	1,637
	시도의 %	74.7%	25.3%	100.0%
울산	빈도	876	1,090	1,966
	시도의 %	44.6%	55.4%	100.0%
강원도	빈도	1,624	4,830	6,454
	시도의 %	25.2%	74.8%	100.0%
경기도	빈도	6,110	2,802	8,912
	시도의 %	68.6%	31.4%	100.0%
경남	빈도	1,942	2,705	4,647
	시도의 %	41.8%	58.2%	100.0%
경북	빈도	988	1,836	2,824
	시도의 %	35.0%	65.0%	100.0%
전남	빈도	1,417	1,465	2,882
	시도의 %	49.2%	50.8%	100.0%
전북	빈도	1,233	2,850	4,083
	시도의 %	30.2%	69.8%	100.0%
충남	빈도	1,175	1,952	3,127
	시도의 %	37.6%	62.4%	100.0%
충북	빈도	890	848	1,738
	시도의 %	51.2%	48.8%	100.0%
제주도	빈도	762	881	1,643
	시도의 %	46.4%	53.6%	100.0%
전체	빈도	30,109	29,585	59,693
	시도의 %	50.4%	49.6%	100.0%

〈표 72〉는 취약·위기청소년의 시도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인 1수준 가장 많이 분포한 시도는 광주 31.1%, 서울 25.9%, 경기도 25.1% 순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위험군인 2수준은 광주 30.3%, 제주도 24.5%, 서울 2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 위험군인 3수준은 충북 29.4%, 부산 23.9%, 경기도 23.2%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환경적 위험군인 4수준은 울산 5.0%, 광주 3.5%, 부산 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수준 분포

시도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서울	빈도	2,067	1,804	1,796	50	459	1,799	7,973
	시도의 %	25.9%	22.6%	22.5%	.6%	5.8%	22.5%	100.0%
부산	빈도	140	495	668	67	399	1,021	2,790
	시도의 %	5.0%	17.7%	23.9%	2.4%	14.3%	36.6%	100.0%
인천	빈도	1,027	895	867	67	280	1,667	4,803
	시도의 %	21.4%	18.6%	18.1%	1.4%	5.8%	34.7%	100.0%
대구	빈도	157	198	156	16	130	403	1,060
	시도의 %	14.8%	18.6%	14.7%	1.5%	12.2%	38.1%	100.0%
대전	빈도	360	579	661	36	334	1,184	3,154
	시도의 %	11.4%	18.4%	21.0%	1.1%	10.6%	37.5%	100.0%
광주	빈도	509	496	218	57	137	220	1,637
	시도의 %	31.1%	30.3%	13.3%	3.5%	8.4%	13.4%	100.0%
울산	빈도	375	267	234	99	173	818	1,966
	시도의 %	19.1%	13.6%	11.9%	5.0%	8.8%	41.6%	100.0%
강원도	빈도	391	521	712	142	1,139	3,549	6,454
	시도의 %	6.1%	8.1%	11.0%	2.2%	17.7%	55.0%	100.0%
경기도	빈도	2,236	1,809	2,064	178	683	1,942	8,912
	시도의 %	25.1%	20.3%	23.2%	2.0%	7.7%	21.8%	100.0%
경남	빈도	524	611	808	76	503	2,125	4,647
	시도의 %	11.3%	13.1%	17.4%	1.6%	10.8%	45.7%	100.0%
경북	빈도	237	353	398	53	388	1,395	2,824
	시도의 %	8.4%	12.5%	14.1%	1.9%	13.7%	49.4%	100.0%
전남	빈도	546	527	344	66	236	1,163	2,882
	시도의 %	18.9%	18.3%	11.9%	2.3%	8.2%	40.4%	100.0%
전북	빈도	218	625	389	50	549	2,252	4,083
	시도의 %	5.3%	15.3%	9.5%	1.2%	13.4%	55.1%	100.0%
충남	빈도	310	534	330	72	142	1,739	3,127
	시도의 %	9.9%	17.1%	10.6%	2.3%	4.5%	55.6%	100.0%
충북	빈도	178	200	512	0	195	653	1,738
	시도의 %	10.2%	11.5%	29.4%	.0%	11.2%	37.6%	100.0%
제주도	빈도	219	402	141	8	231	642	1,643
	시도의 %	13.3%	24.5%	8.6%	.5%	14.1%	39.1%	100.0%
전체	빈도	9,494	10,316	10,298	1,037	5,978	22,570	59,693
	시도의 %	15.9%	17.3%	17.3%	1.7%	10.0%	37.8%	100.0%

## 나. 성별

### 1) 일반학생

〈표 73〉은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고위험군의 비율은 2.0%였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13.3%,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일반학생 성별 위기요소 분포

성별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남	빈도	55,029	368,318	2,341,208	2,764,555
	성별의 %	2.0%	13.3%	84.7%	100.0%
여	빈도	50,276	334,722	2,089,037	2,474,035
	성별의 %	2.0%	13.5%	84.4%	100.0%
전체	빈도	105,305	703,040	4,430,245	5,238,590
	성별의 %	2.0%	13.4%	84.6%	100.0%

〈표 74〉는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0.0%, 여학생은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일반학생 성별 위기결과 분포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75,236	2,489,319	2,764,555
	성별의 %	10.0%	90.0%	100.0%
여	빈도	170,264	2,303,771	2,474,035
	성별의 %	6.9%	93.1%	100.0%
전체	빈도	445,500	4,793,090	5,238,590
	성별의 %	8.5%	91.5%	100.0%

〈표 75〉는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인 1수준 분포는 남학생 1.2%였으며 여학생도 1.2%였다. 행동적 위험군인 2수준 남학생은 3.4%, 여학생은 2.7%로 나타났다. 결과적 위험군인 3수준 남학생은 5.3%, 여학생은 3.0%였으며, 심리환경적 위험군인 4수준 남학생은 0.8%, 여학생도 0.8%로 나타났다.

〈표 75〉 일반학생 성별 위기수준 분포

성 별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남	빈도	33,674	94,629	146,934	21,355	273,688	2,194,275	2,764,555
	성별의 %	1.2%	3.4%	5.3%	.8%	9.9%	79.4%	100.0%
여	빈도	29,596	66,856	73,812	20,680	267,866	2,015,225	2,474,035
	성별의 %	1.2%	2.7%	3.0%	.8%	10.8%	81.5%	100.0%
전 체	빈도	63,270	161,485	220,746	42,035	541,554	4,209,500	5,238,590
	성별의 %	1.2%	3.1%	4.2%	.8%	10.3%	80.4%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76〉은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로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고위험군 비율은14.9%, 여학생의 고위험군의 비율은 22.8%였으며, 잠재적 위험군은 모두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위기로소 분포

성 별		위기로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남	빈도	5,846	10,681	22,649	39,176
	성별의 %	14.9%	27.3%	57.8%	100.0%
여	빈도	4,687	5,611	10,219	20,517
	성별의 %	22.8%	27.3%	49.8%	100.0%
전 체	빈도	10,533	16,292	32,868	59,693
	성별의 %	17.6%	27.3%	55.1%	100.0%

〈표 77〉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성별 위기로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로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54.0%, 여학생은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위기로결과 분포

성 별		위기로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1,138	18,038	39,176
	성별의 %	54.0%	46.0%	100.0%
여	빈도	8,971	11,546	20,517
	성별의 %	43.7%	56.3%	100.0%
전 체	빈도	30,109	29,584	59,693
	성별의 %	50.4%	49.6%	100.0%

〈표 78〉은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인 1수준 분포는 남학생 13.7%였으며 여학생은 20.4%였다. 행동적 위험군인 2수준 남학생은 17.6%, 여학생은 16.7%로 나타났다. 결과적 위험군인 3수준 남학생은 22.8%, 여학생은 6.6%였으며, 심리환경적 위험군인 4수준 남학생은 1.4%, 여학생도 2.5%로 나타났다.

〈표 78〉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수준 분포

성 별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남	빈도	5,314	6,879	8,945	531	3,802	13,705	39,176
	성별의 %	13.6%	17.6%	22.8%	1.4%	9.7%	35.0%	100.0%
여	빈도	4,181	3,436	1,354	506	2,175	8,865	20,517
	성별의 %	20.4%	16.7%	6.6%	2.5%	10.6%	43.2%	100.0%
전 체	빈도	9,495	10,315	10,299	1,037	5,977	22,570	59,693
	성별의 %	15.9%	17.3%	17.3%	1.7%	10.0%	37.8%	100.0%

## 다. 학교별

### 1) 일반학생

〈표 79〉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4.1%, 인문계 고등학교는 2.5%, 중학교는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9〉 일반학생 학교별 전체 위기요소 분포

학교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초등학교	빈도	9,028	83,803	1,172,995	1,265,826
	학교의 %	.7%	6.6%	92.7%	100.0%
중학교	빈도	39,705	261,475	1,705,792	2,006,972
	학교의 %	2.0%	13.0%	85.0%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36,840	243,929	1,199,331	1,480,100
	학교의 %	2.5%	16.5%	81.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9,732	113,833	352,127	485,692
	학교의 %	4.1%	23.4%	72.5%	100.0%
전체	빈도	105,305	703,040	4,430,245	5,238,590
	학교의 %	2.0%	13.4%	84.6%	100.0%

〈표 80〉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16.5%, 인문계 고등학교는 8.3%, 중학교는 8.0%, 초등학교 비율은 6.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일반학생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81,153	1,184,673	1,265,826
	학교의 %	6.4%	93.6%	100.0%
중학교	빈도	160,547	1,846,425	2,006,972
	학교의 %	8.0%	92.0%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23,544	1,356,556	1,480,100
	학교의 %	8.3%	91.7%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80,257	405,435	485,692
	학교의 %	16.5%	83.5%	100.0%
전체	빈도	445,501	4,793,089	5,238,590
	학교의 %	8.5%	91.5%	100.0%

〈표 81〉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인 1수준 분포는 초등학교 0.4%, 중학교 1.2%, 인문계 고등학교 1.5%, 전문계 고등학교 2.5%였으며, 행동적 위험군인 2수준 초등학교는 1.8%, 중학교 2.9%, 인문계 고등학교 3.2%, 전문계 고등학교 6.6%였다. 결과적 위험군인 3수준 초등학교는 4.2%, 중학교 3.9%, 인문계 고등학교 3.7%, 전문계 고등학교 7.3%였으며, 심리환경적 위험군인 4수준 초등학교는 0.3%, 중학교 0.8%, 인문계 고등학교 1.0%, 전문계 고등학교 1.5%였다.

〈표 81〉 일반학생 학교별 위기수준 분포

학교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초등학교	빈도	5,470	23,032	52,650	3,558	60,771	1,120,345	1,265,826
	학교의 %	.4%	1.8%	4.2%	.3%	4.8%	88.5%	100.0%
중학교	빈도	23,638	58,488	78,421	16,067	202,986	1,627,372	2,006,972
	학교의 %	1.2%	2.9%	3.9%	.8%	10.1%	81.1%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21,786	47,669	54,089	15,054	196,260	1,145,242	1,480,100
	학교의 %	1.5%	3.2%	3.7%	1.0%	13.3%	77.4%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12,375	32,296	35,586	7,356	81,538	316,541	485,692
	학교의 %	2.5%	6.6%	7.3%	1.5%	16.8%	65.2%	100.0%
전체	빈도	63,269	161,485	220,746	42,035	541,555	4,209,500	5,238,590
	학교의 %	1.2%	3.1%	4.2%	.8%	10.3%	80.4%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82〉는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학교에 다니지 않음 6.8%, 중학교는 4.1%, 전문계 고등학교는 2.9% 순으로 나타났다.

〈표 82〉 취약 · 위기청소년 학교별 전체 위기요소 분포

학교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초등학교	빈도	119	517	3,328	3,964
	학교및기관의 %	3.0%	13.0%	84.0%	100.0%
중학교	빈도	2,504	3,781	10,705	16,990
	학교및기관의 %	14.7%	22.3%	63.0%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747	1,802	4,649	7,198
	학교및기관의 %	10.4%	25.0%	64.6%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739	4,029	6,888	12,656
	학교및기관의 %	13.7%	31.8%	54.4%	100.0%
대안학교	빈도	378	364	233	975
	학교및기관의 %	38.8%	37.3%	23.9%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526	929	1,391	2,846
	학교및기관의 %	18.5%	32.6%	48.9%	100.0%
직업학교	빈도	28	42	156	226
	학교및기관의 %	12.4%	18.6%	69.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257	103	140	500
	학교및기관의 %	51.4%	20.6%	28.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272	511	663	1,446
	학교및기관의 %	18.8%	35.3%	45.9%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3,962	4,215	4,715	12,892
	학교및기관의 %	30.7%	32.7%	36.6%	100.0%
전체	빈도	10,532	16,293	32,868	59,693
	학교및기관의 %	17.6%	27.3%	55.1%	100.0%

〈표 83〉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학교 및 기관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다니지 않음 90.7%, 직업훈련기관 83.4%, 8.5%, 검정고시 학원 80.1%, 대안학교 77.8%, 소년원 학교 75.8%, 직업학교 66.8%, 전문계 고등학교 43.3%, 인문계 고등학교, 36.0%, 중학교 31.2%, 초등학교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36	3,628	3,964
	학교맞기관 의 %	8.5%	91.5%	100.0%
중학교	빈도	5,305	11,685	16,990
	학교맞기관 의 %	31.2%	68.8%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2,590	4,608	7,198
	학교맞기관 의 %	36.0%	64.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5,483	7,173	12,656
	학교맞기관 의 %	43.3%	56.7%	100.0%
대안학교	빈도	758	217	975
	학교맞기관 의 %	77.8%	22.2%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280	566	2,846
	학교맞기관 의 %	80.1%	19.9%	100.0%
직업학교	빈도	151	75	226
	학교맞기관 의 %	66.8%	33.2%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416	84	500
	학교맞기관 의 %	83.4%	16.6%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096	350	1,446
	학교맞기관 의 %	75.8%	24.2%	100.0%
다나지 않음	빈도	11,692	1,200	12,892
	학교맞기관 의 %	90.7%	9.3%	100.0%
전체	빈도	30,107	29,586	59,693
	학교맞기관 의 %	50.4%	49.6%	100.0%

〈표 84〉는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45.8%, 대안학교 38.8%, 다니지 않음 30.5%, 소년원 학교 17.7%, 검정고시 학원 17.5%, 직업학교 12.4%, 전문계 고등학교 11.9%, 인문계 고등학교 9.3%, 중학교 11.2%, 초등학교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위기수준 분포

학교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초등학교	빈도	111	56	169	7	461	3,160	3,964
	학교맞기관의 %	2.8%	1.4%	4.3%	.2%	11.6%	79.7%	100.0%
중학교	빈도	1,895	1,764	1,647	609	2,017	9,058	16,990
	학교맞기관의 %	11.2%	10.4%	9.7%	3.6%	11.9%	53.3%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671	752	1,167	76	1,050	3,482	7,198
	학교맞기관의 %	9.3%	10.4%	16.2%	1.1%	14.6%	48.4%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1,504	2,072	1,907	236	1,957	4,980	12,656
	학교맞기관의 %	11.9%	16.4%	15.1%	1.9%	15.5%	39.4%	100.0%
대안학교	빈도	378	242	138	0	122	95	975
	학교맞기관의 %	38.8%	24.8%	14.2%	.0%	12.5%	9.7%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497	814	969	28	115	423	2,846
	학교맞기관의 %	17.5%	28.6%	34.0%	1.0%	4.0%	14.9%	100.0%
직업학교	빈도	28	42	80	0	0	76	226
	학교맞기관의 %	12.4%	18.7%	35.6%	.0%	.0%	33.3%	100.0%
직업훈련 기관	빈도	229	103	85	28	0	55	500
	학교맞기관의 %	45.8%	20.6%	17.0%	5.6%	.0%	11.0%	100.0%
소년원 학교	빈도	256	405	435	16	106	228	1,446
	학교맞기관의 %	17.7%	28.0%	30.1%	1.1%	7.3%	15.8%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3,926	4,066	3,701	36	150	1,014	12,893
	학교맞기관의 %	30.5%	31.5%	28.7%	.3%	1.2%	7.9%	100.0%
전체	빈도	9,495	10,316	10,298	1,036	5,978	22,570	59,693
	학교맞기관의 %	15.9%	17.3%	17.3%	1.7%	10.0%	37.8%	100.0%

## 라. 학년별

### 1) 일반학생

〈표 85〉는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3.1%, 고등학교 3학년 2.8%, 고등학교 1학년 2.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5〉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요소 분포

학년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초등학교5학년	빈도	2,937	36,605	579,029	618,571
	학년의 %	.5%	5.9%	93.6%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6,091	47,197	593,967	647,255
	학년의 %	.9%	7.3%	91.8%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9,085	71,173	576,314	656,572
	학년의 %	1.4%	10.8%	87.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13,805	91,711	571,371	676,887
	학년의 %	2.0%	13.5%	84.4%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6,815	98,591	558,107	673,513
	학년의 %	2.5%	14.6%	82.9%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8,252	120,239	531,549	670,040
	학년의 %	2.7%	17.9%	79.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20,418	124,105	516,893	661,416
	학년의 %	3.1%	18.8%	78.1%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7,902	113,418	503,016	634,336
	학년의 %	2.8%	17.9%	79.3%	100.0%
전체	빈도	105,305	703,039	4,430,246	5,238,590
	학년의 %	2.0%	13.4%	84.6%	100.0%

〈표 86〉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고등학교 3학년 11.2%, 고등학교 2학년 10.6%, 고등학교 1학년 9.3%, 중학교 3학년 8.2%, 중학교 2학년 8.1%, 중학교 1학년 7.7%, 초등학교 6학년은 6.7%, 초등학교 5학년은 6.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37,542	581,029	618,571
	학년의 %	6.1%	93.9%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43,611	603,644	647,255
	학년의 %	6.7%	93.3%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50,542	606,030	656,572
	학년의 %	7.7%	92.3%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54,562	622,325	676,887
	학년의 %	8.1%	91.9%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55,443	618,070	673,513
	학년의 %	8.2%	91.8%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62,615	607,425	670,040
	학년의 %	9.3%	90.7%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70,077	591,339	661,416
	학년의 %	10.6%	89.4%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71,109	563,227	634,336
	학년의 %	11.2%	88.8%	100.0%
전체	빈도	445,501	4,793,089	5,238,590
	학년의 %	8.5%	91.5%	100.0%

〈표 87〉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1.8%, 고등학교 3학년 1.8%, 고등학교 1학년 1.6%, 중학교 3학년 1.4%, 중학교 2학년 1.2%, 중학교 1학년 0.8%, 초등학교 6학년은 0.6%, 초등학교 5학년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수준 분포

학년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초등학교	빈도	1,767	9,868	25,907	1,170	26,738	553,121	618,571
5학년	학년의 %	.3%	1.6%	4.2%	.2%	4.3%	89.4%	100.0%
초등학교	빈도	3,703	13,164	26,743	2,388	34,033	567,224	647,255
6학년	학년의 %	.6%	2.0%	4.1%	.4%	5.3%	87.6%	100.0%
중학교	빈도	5,536	16,325	28,680	3,549	54,848	547,634	656,572
1학년	학년의 %	.8%	2.5%	4.4%	.5%	8.4%	83.4%	100.0%
중학교	빈도	8,399	20,751	25,413	5,406	70,960	545,958	676,887
2학년	학년의 %	1.2%	3.1%	3.8%	.8%	10.5%	80.7%	100.0%
중학교	빈도	9,703	21,413	24,328	7,112	77,179	533,778	673,513
3학년	학년의 %	1.4%	3.2%	3.6%	1.1%	11.5%	79.3%	100.0%
고등학교	빈도	10,483	25,520	26,613	7,769	94,719	504,936	670,040
1학년	학년의 %	1.6%	3.8%	4.0%	1.2%	14.1%	75.4%	100.0%
고등학교	빈도	12,224	28,869	28,984	8,194	95,236	487,909	661,416
2학년	학년의 %	1.8%	4.4%	4.4%	1.2%	14.4%	73.8%	100.0%
고등학교	빈도	11,455	25,576	34,078	6,447	87,842	468,938	634,336
3학년	학년의 %	1.8%	4.0%	5.4%	1.0%	13.8%	73.9%	100.0%
전체	빈도	63,270	161,486	220,746	42,035	541,555	4,209,498	5,238,590
	학년의 %	1.2%	3.1%	4.2%	.8%	10.3%	80.4%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88〉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로 가장 높은 학년은 해당없음 27.7%, 중학교 3학년 19.6%, 중학교 2학년 1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요소 분포

학년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	잠재군	일반군	
초등학교5학년	빈도	73	211	1,584	1,868
	학교맞기관의 %	3.9%	11.3%	84.8%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95	305	1,746	2,146
	학교맞기관의 %	4.4%	14.2%	81.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357	655	3,004	4,016
	학교맞기관의 %	8.9%	16.3%	74.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1,053	1,459	3,761	6,273
	학교맞기관의 %	16.8%	23.3%	60.0%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471	1,846	4,180	7,497
	학교맞기관의 %	19.6%	24.6%	55.8%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963	2,522	4,753	8,238
	학교맞기관의 %	11.7%	30.6%	57.7%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054	1,768	3,693	6,515
	학교맞기관의 %	16.2%	27.1%	56.7%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594	1,795	3,131	5,520
	학교맞기관의 %	10.8%	32.5%	56.7%	100.0%
해당없음	빈도	4,873	5,731	7,014	17,618
	학교맞기관의 %	27.7%	32.5%	39.8%	100.0%
전체	빈도	10,533	16,292	32,868	59,693
	학교맞기관의 %	17.6%	27.3%	55.1%	100.0%

〈표 89〉는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87.4%, 고등학교 2학년 42.7%, 고등학교 1학년 41.7%, 고등학교 3학년 39.5%, 중학교 3학년 36.7%, 중학교 2학년 35.4%, 중학교 1학년 23.7%, 초등학교 6학년은 11.6%, 초등학교 5학년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9〉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37	1,731	1,868
	학교맞기관의 %	7.3%	92.7%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248	1,898	2,146
	학교맞기관의 %	11.6%	88.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952	3,064	4,016
	학교맞기관의 %	23.7%	76.3%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2,222	4,051	6,273
	학교맞기관의 %	35.4%	64.6%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2,751	4,746	7,497
	학교맞기관의 %	36.7%	63.3%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432	4,806	8,238
	학교맞기관의 %	41.7%	58.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2,781	3,734	6,515
	학교맞기관의 %	42.7%	57.3%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2,179	3,343	5,522
	학교맞기관의 %	39.5%	60.5%	100.0%
해당없음	빈도	15,405	2,213	17,618
	학교맞기관의 %	87.4%	12.6%	100.0%
전체	빈도	30,107	29,586	59,693
	학교맞기관의 %	50.4%	49.6%	100.0%

〈표 90〉은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해당없음 27.1%, 중학교 3학년 15.9%, 고등학교 2학년 13.6%, 중학교 12.7%, 고등학교 1학년 11.0%, 고등학교 3학년 9.3%, 중학교 1학년 6.8%, 초등학교 6학년은 4.4%, 초등학교 5학년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수준 분포

학년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초등학	빈도	66	56	16	7	156	1,567	1,868
교5학년	학교맞기관 의 %	3.5%	3.0%	.9%	.4%	8.4%	83.9%	100.0%
초등학	빈도	95	0	153	0	305	1,593	2,146
교6학년	학교맞기관 의 %	4.4%	.0%	7.1%	.0%	14.2%	74.2%	100.0%
중학교	빈도	273	231	448	84	423	2,557	4,016
1학년	학교맞기관 의 %	6.8%	5.8%	11.2%	2.1%	10.5%	63.7%	100.0%
중학교	빈도	795	729	699	258	730	3,062	6,273
2학년	학교맞기관 의 %	12.7%	11.6%	11.1%	4.1%	11.6%	48.8%	100.0%
중학교	빈도	1,195	946	610	275	900	3,571	7,497
3학년	학교맞기관 의 %	15.9%	12.6%	8.1%	3.7%	12.0%	47.6%	100.0%
고등학	빈도	903	1,415	1,114	60	1,106	3,640	8,238
교1학년	학교맞기관 의 %	11.0%	17.2%	13.5%	.7%	13.4%	44.2%	100.0%
고등학	빈도	885	740	1,156	168	1,028	2,538	6,515
교2학년	학교맞기관 의 %	13.6%	11.4%	17.7%	2.6%	15.8%	38.9%	100.0%
고등학	빈도	516	835	829	78	960	2,304	5,522
교3학년	학교맞기관 의 %	9.3%	15.1%	15.0%	1.4%	17.4%	41.7%	100.0%
해당	빈도	4,767	5,363	5,275	106	368	1,739	17,618
없음	학교맞기관 의 %	27.1%	30.4%	29.9%	.6%	2.1%	9.9%	100.0%
전체	빈도	9,495	10,315	10,300	1,036	5,976	22,571	59,693
	학교맞기관 의 %	15.9%	17.3%	17.3%	1.7%	10.0%	37.8%	100.0%

## 마. 부모출신국별

### 1) 일반학생

〈표 91〉은 일반학생의 부모출신국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두 분 모두 중국 교포'47.5%, '한 분만 새터민'39.1%, '두 분 모두 새터민'29.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1〉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요소 분포

부모출신국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두 분 모두	빈도	97,839	693,413	4,380,373	5,171,625
한국인	부모출신국의 %	1.9%	13.4%	84.7%	100.0%
한분만	빈도	1,239	3,068	20,045	24,352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5.1%	12.6%	82.3%	100.0%
두 분 모두	빈도	1,146	1,474	4,223	6,843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16.7%	21.5%	61.7%	100.0%
두 분 모두	빈도	684	108	1,534	2,326
새터민	부모출신국의 %	29.4%	4.6%	66.0%	100.0%
한 분만	빈도	651	119	896	1,666
새터민	부모출신국의 %	39.1%	7.1%	53.8%	100.0%
두 분 모두	빈도	572	260	372	1,204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47.5%	21.6%	30.9%	100.0%
한 분만	빈도	243	1,070	4,149	5,462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4.4%	19.6%	76.0%	100.0%
모르겠다	빈도	2,931	3,528	18,653	25,112
	부모출신국의 %	11.7%	14.0%	74.3%	100.0%
전체	빈도	105,305	703,040	4,430,245	5,238,590
	부모출신국의 %	2.0%	13.4%	84.6%	100.0%

〈표 92〉는 일반학생의 부모출신국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부모가 두 분 모두 중국교포’48.5%, ‘한 분만 새터민’47.4%, ‘두 분 모두 새터민’38.2%, ‘두 분 모두 외국인’24.6%, ‘모르겠다’21.1%, ‘한 분만 중국교포’13.8%, ‘한분만 외국인’은 11.1%, ‘두 분 모두 한국인’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결과 분포

부모출신국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두 분 모두	빈도	432,819	4,738,806	5,171,625
한국인	부모출신국의 %	8.4%	91.6%	100.0%
한분만	빈도	2,691	21,661	24,352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11.1%	88.9%	100.0%
두 분 모두	빈도	1,682	5,161	6,843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24.6%	75.4%	100.0%
두 분 모두	빈도	888	1,438	2,326
새터민	부모출신국의 %	38.2%	61.8%	100.0%
한 분만	빈도	790	876	1,666
새터민	부모출신국의 %	47.4%	52.6%	100.0%
두 분 모두	빈도	584	620	1,204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48.5%	51.5%	100.0%
한 분만	빈도	754	4,708	5,462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13.8%	86.2%	100.0%
모르겠다	빈도	5,292	19,820	25,112
	부모출신국의 %	21.1%	78.9%	100.0%
전체	빈도	445,500	4,793,090	5,238,590
	부모출신국의 %	8.5%	91.5%	100.0%

〈표 93〉은 일반학생의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부모가 ‘한 분만 새터민’39.1%, ‘두 분 모두 중국교포’38.7%, ‘두 분 모두 새터민’29.4%, ‘두 분 모두 외국인’11.2%, ‘모르겠다’9.4%, ‘한분만 외국인’은 4.7%, ‘한 분만 중국교포’4.4%, ‘두 분 모두 한국인’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일반학생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

부모 출신국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두 분 모두 한국인	빈도 1,144	158,318	217,536	40,874	535,094	4,162,838	5,171,625
	부모 출신국의%	1.1%	3.1%	4.2%	.8%	10.3%	80.5%
한분만 외국인	빈도 1,144	744	802	95	2,323	19,244	24,352
	부모 출신국의%	4.7%	3.1%	3.3%	.4%	9.5%	79.0%
두 분 모두 외국인	빈도 767	518	397	379	956	3,826	6,843
	부모 출신국의%	11.2%	7.6%	5.8%	5.5%	14.0%	55.9%
두 분 모두 새터민	빈도 684	88	116	0	20	1,418	2,326
	부모 출신국의%	29.4%	3.8%	5.0%	.0%	.9%	61.0%
한 분만 새터민	빈도 651	53	86	0	66	810	1,666
	부모 출신국의%	39.1%	3.2%	5.2%	.0%	4.0%	48.6%
두 분 모두 중국교포	빈도 468	48	69	104	213	302	1,204
	부모 출신국의%	38.8%	4.0%	5.7%	8.6%	17.7%	25.1%
한 분만 중국교포	빈도 243	216	295	0	854	3,854	5,462
	부모 출신국의%	4.4%	4.0%	5.4%	.0%	15.6%	70.6%
모르겠다	빈도 2,348	1,500	1,444	583	2,026	17,210	25,111
	부모 출신국의%	9.4%	6.0%	5.8%	2.3%	8.1%	68.5%
전체	빈도 63,270	161,485	220,745	42,035	541,553	4,209,502	5,238,590
	부모 출신국의%	1.2%	3.1%	4.2%	.8%	10.3%	80.4%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94〉는 취약 · 위기청소년의 부모출신국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두 분 모두 외국인’56.8%, ‘한 분만 중국교포’31.3%, ‘한분만 외국인’은 2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 취약 · 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요소 분포

부모출신국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두 분 모두	빈도	10,098	15,618	31,868	57,584
한국인	부모출신국의 %	17.5%	27.1%	55.3%	100.0%
한분만	빈도	114	135	288	537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21.2%	25.1%	53.6%	100.0%
두 분 모두	빈도	50	36	1	87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56.8%	42.0%	1.1%	100.0%
두 분 모두	빈도	0	0	16	16
새터민	부모출신국의 %	.0%	.0%	100.0%	100.0%
두 분 모두	빈도	0	28	0	28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0%	100.0%	.0%	100.0%
한 분만	빈도	40	86	2	129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31.3%	67.2%	1.6%	100.0%
모르겠다	빈도	231	389	692	1,312
	부모출신국의 %	17.6%	29.6%	52.8%	100.0%
전체	빈도	10,533	16,292	32,868	59,693
	부모출신국의 %	17.6%	27.3%	55.1%	100.0%

〈표 95〉는 취약 · 위기청소년의 부모출신국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부모가 ‘두 분 모두 중국교포’100.0%, ‘한분만 중국교포’65.6%, ‘두 분 모두 외국인’58.0%, ‘두 분 모두 한국인’은 50.9%, ‘한분만 외국인’은 38.5%, ‘모르겠다’34.8%‘두 분 모두 새터민’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5〉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결과 분포

부모출신국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두 분 모두	빈도	29,282	28,302	57,584
한국인	부모출신국의 %	50.9%	49.1%	100.0%
한분만 외국인	빈도	207	330	537
	부모출신국의 %	38.5%	61.5%	100.0%
두 분 모두	빈도	51	37	88
외국인	부모출신국의 %	58.0%	42.0%	100.0%
두 분 모두	빈도	0	16	16
새터민	부모출신국의 %	.0%	100.0%	100.0%
두 분 모두	빈도	28	0	28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100.0%	.0%	100.0%
한 분만	빈도	84	44	128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의 %	65.6%	34.4%	100.0%
모르겠다	빈도	457	855	1312
	부모출신국의 %	34.8%	65.2%	100.0%
전체	빈도	30,109	29,584	59,693
	부모출신국의 %	50.4%	49.6%	100.0%

〈표 96〉은 취약·위기청소년의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부모가 ‘두 분 모두 외국인’56.8%, ‘한 분만 중국교포’31.3%, ‘한분만 외국인’은 21.1%, ‘모르겠다’17.6%, ‘두 분 모두 한국인’은 15.7%, ‘두 분 모두 새터민’0.0%, ‘두 분 모두 중국교포’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6〉 취약·위기청소년 부모출신국별 위기수준 분포

부모 출신국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두 분 모두	반도	9,061	10,069	10,152	1,037	5,549	21,716	57,584
한국인	부모출신국위%	15.7%	17.5%	17.6%	1.8%	9.6%	37.7%	100.0%
한분만	반도	113	28	65	1	106	224	537
외국인	부모출신국위%	21.1%	5.2%	12.1%	.2%	19.8%	41.6%	100.0%
두 분 모두	반도	50	0	1	0	36	0	87
외국인	부모출신국위%	56.8%	.0%	1.1%	.0%	42.0%	.0%	100.0%
두 분 모두	반도	0	0	0	0	0	16	16
새터민	부모출신국위%	.0%	.0%	.0%	.0%	.0%	100.0%	100.0%
두 분 모두	반도	0	28	0	0	0	0	28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위%	.0%	100.0%	.0%	.0%	.0%	.0%	100.0%
한 분만	반도	40	42	2	0	45	0	129
중국교포	부모출신국위%	31.3%	32.8%	1.6%	.0%	34.4%	.0%	100.0%
모르겠다	반도	231	148	79	0	241	612	1,312
	부모출신국위%	17.6%	11.3%	6.0%	.0%	18.4%	46.8%	100.0%
전체	반도	9,495	10,315	10,299	1,038	5,977	22,569	59,693
	부모출신국위%	15.9%	17.3%	17.3%	1.7%	10.0%	37.8%	100.0%

## 사. 가정경제 수준별

### 1) 일반학생

〈표 97〉은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15.9%, ‘어려운 편’ 4.2%순으로 나타났다.

〈표 9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요소 분포

가정경제 수준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군		
매우어려운편	빈도	13,950	25,324	48,706	87,980
	경제수준의 %	15.9%	28.8%	55.4%	100.0%
어려운편	빈도	27,920	172,069	470,894	670,883
	경제수준의 %	4.2%	25.6%	70.2%	100.0%
보통	빈도	50,905	434,770	3,047,287	3,532,962
	경제수준의 %	1.4%	12.3%	86.3%	100.0%
잘사는편	빈도	8,172	61,544	760,294	830,010
	경제수준의 %	1.0%	7.4%	91.6%	100.0%
매우잘사는편	빈도	4,360	9,332	103,063	116,755
	경제수준의 %	3.7%	8.0%	88.3%	100.0%
전체	빈도	105,307	703,039	4,430,244	5,238,590
	경제수준의 %	2.0%	13.4%	84.6%	100.0%

〈표 98〉은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27.4%, ‘어려운 편’ 13.4%, ‘매우 잘 사는 편’ 12.4%, ‘보통이다’ 7.4%, ‘잘 사는 편’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8〉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24,100	63,880	87,980
	경제수준의 %	27.4%	72.6%	100.0%
어려운편	빈도	89,731	581,152	670,883
	경제수준의 %	13.4%	86.6%	100.0%
보통	빈도	261,303	3,271,659	3,532,962
	경제수준의 %	7.4%	92.6%	100.0%
잘 사는편	빈도	55,880	774,130	830,010
	경제수준의 %	6.7%	93.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4,487	102,268	116,755
	경제수준의 %	12.4%	87.6%	100.0%
전체	빈도	445,501	4,793,089	5,238,590
	경제수준의 %	8.5%	91.5%	100.0%



〈표 9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수준 분포를 나타내었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11.4%, ‘매우 잘 사는 편’ 3.3%, ‘어려운 편’ 2.3%, ‘보통이다’ 0.8%, ‘잘 사는 편’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수준 분포

가정 경제수준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매우 어려운편	반도	9,986	8,276	5,837	3,963	17,048	42,870	87,980
	경제수준의%	11.4%	9.4%	6.6%	4.5%	19.4%	48.7%	100.0%
어려운편	반도	15,536	40,501	33,693	12,383	131,568	437,202	670,883
	경제수준의%	2.3%	6.0%	5.0%	1.8%	19.6%	65.2%	100.0%
보통	반도	28,732	93,590	138,981	22,173	341,180	2,908,306	3,532,962
	경제수준의%	.8%	2.6%	3.9%	.6%	9.7%	82.3%	100.0%
잘 사는 편	반도	5,108	15,832	34,940	3,064	45,712	725,354	830,010
	경제수준의%	.6%	1.9%	4.2%	.4%	5.5%	87.4%	100.0%
매우 잘사는편	반도	3,908	3,286	7,294	452	6,047	95,768	116,755
	경제수준의%	3.3%	2.8%	6.2%	.4%	5.2%	82.0%	100.0%
전체	반도	63,270	161,485	220,745	42,035	541,555	4,209,500	5,238,590
	경제수준의%	1.2%	3.1%	4.2%	.8%	10.3%	80.4%	100.0%

## 2)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00〉은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30.7%, ‘어려운 편’ 2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0〉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요소 분포

가정경제 수준	위기요소			전체	
	고위험	잠재군	일반군		
매우어려운편	빈도	1,769	1,671	2,325	5,765
	경제수준의 %	30.7%	29.0%	40.3%	100.0%
어려운편	빈도	3,953	5,658	9,051	18,662
	경제수준의 %	21.2%	30.3%	48.5%	100.0%
보통	빈도	4,278	8,030	19,122	31,430
	경제수준의 %	13.6%	25.5%	60.8%	100.0%
잘사는편	빈도	489	792	1,878	3,159
	경제수준의 %	15.5%	25.1%	59.4%	100.0%
매우잘사는편	빈도	45	140	492	677
	경제수준의 %	6.7%	20.7%	72.6%	100.0%
전체	빈도	10,534	16,291	32,868	59,693
	경제수준의 %	17.6%	27.3%	55.1%	100.0%

〈표 101〉은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매우 어려운 편' 57.1%, '어려운 편' 54.1%, '잘 사는 편' 48.6%, '보통이다' 47.5%, '매우 잘 사는 편'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292	2,473	5,765
	경제수준의 %	57.1%	42.9%	100.0%
어려운편	빈도	10,104	8,558	18,662
	경제수준의 %	54.1%	45.9%	100.0%
보통	빈도	14,934	16,496	31,430
	경제수준의 %	47.5%	52.5%	100.0%
잘 사는편	빈도	1,536	1,623	3,159
	경제수준의 %	48.6%	51.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44	433	677
	경제수준의 %	36.0%	64.0%	100.0%
전체	빈도	30,110	29,583	59,694
	경제수준의 %	50.4%	49.6%	100.0%

〈표 102〉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수준 분포를 나타내었다. 고위험군 1수준이 높은 분포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28.6%, ‘어려운 편’ 19.0%, ‘잘 사는 편’ 14.5%, ‘보통이다’ 12.1%, ‘매우 잘 사는 편’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수준 분포

가정경제 수준		위기수준						전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매우 어려운편	반도	1,651	1,035	605	117	636	1,721	5,765
	경제준의%	28.6%	18.0%	10.5%	2.0%	11.0%	29.8%	100.0%
어려운편	반도	3,539	3,487	3,078	414	2,172	5,972	18,662
	경제준의%	19.0%	18.7%	16.5%	2.2%	11.6%	32.0%	100.0%
보통	반도	3,800	5,082	6,052	477	2,949	13,070	31,430
	경제준의%	12.1%	16.2%	19.3%	1.5%	9.4%	41.6%	100.0%
잘 사는 편	반도	459	606	470	29	186	1409	3,159
	경제준의%	14.5%	19.2%	14.9%	.9%	5.9%	44.6%	100.0%
매우 잘사는편	반도	45	106	93	0	35	398	677
	경제준의%	6.6%	15.7%	13.7%	.0%	5.2%	58.8%	100.0%
전체	반도	9,494	10,316	10,298	1,037	5,978	22,570	59,693
	경제준의%	15.9%	17.3%	17.3%	1.7%	10.0%	37.8%	100.0%

## 5.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 가.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10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9%이며, 1수준 비율은 18.6%, 2수준은 10.3%, 3수준은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1,857	51,413	63,270
	결과 %	18.7%	81.3%	100.0%
2수준	빈도	16,557	144,928	161,485
	결과 %	10.3%	89.7%	100.0%
3수준	빈도	18,040	202,705	220,745
	결과 %	8.2%	91.8%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46,454	5,192,136	5,238,590
	결과 %	.9%	99.1%	100.0%

〈표 10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9%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1.3%, 잠재적 위험군 2.3%, 일반군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1,857	93,448	105,305
	결과 %	11.3%	88.7%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6,557	686,483	703,040
	결과 %	2.4%	97.6%	100.0%
일반군	빈도	18,040	4,412,205	4,430,245
	결과 %	.4%	99.6%	100.0%
전체	빈도	46,454	5,192,136	5,238,590
	결과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0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 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8%이며, 1수준 비율은 14.9%, 2수준은 6.6%, 3수준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5〉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414	8,082	9,496
	결과 %	14.9%	85.1%	100.0%
2수준	빈도	680	9,635	10,315
	결과 %	6.6%	93.4%	100.0%
3수준	빈도	186	10,112	10,298
	결과 %	1.8%	98.2%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9	22,56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280	57,413	59,693
	결과 %	3.8%	96.2%	100.0%

〈표 10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8%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3.4%, 잠재적 위험군 4.2%, 일반군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6〉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414	9,119	10,533
	결과 %	13.4%	86.6%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680	15,612	16,292
	결과 %	4.2%	95.8%	100.0%
일반군	빈도	186	32,682	32,868
	결과 %	.6%	99.4%	100.0%
전체	빈도	2,280	57,413	59,693
	결과 %	3.8%	96.2%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0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1.4%), 다음으로 서울(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7〉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1,159	930,528	941,687
	시도의 %	1.2%	98.8%	100.0%
부산	빈도	1,992	352,486	354,478
	시도의 %	.6%	99.4%	100.0%
인천	빈도	2,016	298,511	300,527
	시도의 %	.7%	99.3%	100.0%
대구	빈도	1,966	285,071	287,037
	시도의 %	.7%	99.3%	100.0%
대전	빈도	1,942	171,882	173,824
	시도의 %	1.1%	98.9%	100.0%
광주	빈도	1,912	180,704	182,616
	시도의 %	1.0%	99.0%	100.0%
울산	빈도	1,915	137,279	139,194
	시도의 %	1.4%	98.6%	100.0%
강원도	빈도	1,260	152,523	153,783
	시도의 %	.8%	99.2%	100.0%
경기도	빈도	10,483	1,246,328	1,256,811
	시도의 %	.8%	99.2%	100.0%
경남	빈도	2,796	351,666	354,462
	시도의 %	.8%	99.2%	100.0%
경북	빈도	1,619	259,052	260,671
	시도의 %	.6%	99.4%	100.0%
전남	빈도	2,025	193,912	195,937
	시도의 %	1.0%	99.0%	100.0%
전북	빈도	1,825	200,194	202,019
	시도의 %	.9%	99.1%	100.0%
충남	빈도	1,963	203,548	205,511
	시도의 %	1.0%	99.0%	100.0%
충북	빈도	1,079	163,728	164,807
	시도의 %	.7%	99.3%	100.0%
제주도	빈도	501	64,726	65,227
	시도의 %	.8%	99.2%	100.0%
전체	빈도	46,453	5,192,137	5,238,590
	시도의 %	.9%	99.1%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0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인천이며(7.5%), 다음으로 서울(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8〉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415	7,558	7,973
	시도의 %	5.2%	94.8%	100.0%
부산	빈도	43	2,747	2,790
	시도의 %	1.5%	98.5%	100.0%
인천	빈도	360	4,443	4,803
	시도의 %	7.5%	92.5%	100.0%
대구	빈도	84	976	1,060
	시도의 %	7.9%	92.1%	100.0%
대전	빈도	6	3,148	3,154
	시도의 %	.2%	99.8%	100.0%
광주	빈도	57	1,580	1,637
	시도의 %	3.5%	96.5%	100.0%
울산	빈도	57	1,909	1,966
	시도의 %	2.9%	97.1%	100.0%
강원도	빈도	288	6,166	6,454
	시도의 %	4.5%	95.5%	100.0%
경기도	빈도	419	8,493	8,912
	시도의 %	4.7%	95.3%	100.0%
경남	빈도	93	4,554	4,647
	시도의 %	2.0%	98.0%	100.0%
경북	빈도	0	2,824	2,824
	시도의 %	.0%	100.0%	100.0%
전남	빈도	34	2,848	2,882
	시도의 %	1.2%	98.8%	100.0%
전북	빈도	142	3,941	4,083
	시도의 %	3.5%	96.5%	100.0%
충남	빈도	159	2,968	3,127
	시도의 %	5.1%	94.9%	100.0%
충북	빈도	59	1,679	1,738
	시도의 %	3.4%	96.6%	100.0%
제주도	빈도	65	1,578	1,643
	시도의 %	4.0%	96.0%	100.0%
전체	빈도	2,281	57,412	59,693
	시도의 %	3.8%	96.2%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0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1 %, 여학생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9〉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9,826	2,734,729	2,764,555
	성별의 %	1.1%	98.9%	100.0%
여	빈도	16,629	2,457,406	2,474,035
	성별의 %	.7%	99.3%	100.0%
전체	빈도	46,455	5,192,135	5,238,590
	성별의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3.7%, 여학생은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442	37,734	39,176
	성별의 %	3.7%	96.3%	100.0%
여	빈도	839	19,678	20,517
	성별의 %	4.1%	95.9%	100.0%
전체	빈도	2,281	57,412	59,693
	성별의 %	3.8%	96.2%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1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4%, 중학교 1.0%, 인문계 고등학교 1.0%, 초등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일반학생의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5,537	1,260,289	1,265,826
	학교의 %	.4%	99.6%	100.0%
중학교	빈도	19,490	1,987,482	2,006,972
	학교의 %	1.0%	99.0%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4,722	1,465,378	1,480,100
	학교의 %	1.0%	99.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6,706	478,986	485,692
	학교의 %	1.4%	98.6%	100.0%
전체	빈도	46,455	5,192,135	5,238,590
	학교의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다니지 않음 7.8%, 소년원 학교 5.7%, 검정고시 학원 4.5%, 중학교 3.7%, 전문계 고등학교 2.7%, 인문계 고등학교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0	3,964	3,964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중학교	빈도	623	16,367	16,990
	학교맞기관 의 %	3.7%	96.3%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97	7,101	7,198
	학교맞기관 의 %	1.3%	98.7%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339	12,317	12,656
	학교맞기관 의 %	2.7%	97.3%	100.0%
대안학교	빈도	0	975	975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127	2,719	2,846
	학교맞기관 의 %	4.5%	95.5%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0	500	500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83	1,363	1,446
	학교맞기관 의 %	5.7%	94.3%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1,010	11,882	12,892
	학교맞기관 의 %	7.8%	92.2%	100.0%
전체	빈도	2,279	57,414	59,693
	학교맞기관 의 %	3.8%	96.2%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1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3학년 1.3%, 고등학교 2학년 1.2%, 고등학교 1학년 1.1%, 중학교 2학년 1.0%, 고등학교 3학년 1.0%, 초등학교 6학년 0.6%, 중학교 1학년 0.6%, 초등학교 5학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857	616,714	618,571
	학년의 %	.3%	99.7%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3,679	643,576	647,255
	학년의 %	.6%	99.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4,117	652,455	656,572
	학년의 %	.6%	99.4%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6,751	670,136	676,887
	학년의 %	1.0%	99.0%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8,622	664,891	673,513
	학년의 %	1.3%	98.7%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7,614	662,426	670,040
	학년의 %	1.1%	98.9%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7,717	653,699	661,416
	학년의 %	1.2%	98.8%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6,098	628,238	634,336
	학년의 %	1.0%	99.0%	100.0%
전체	빈도	46,455	5,192,135	5,238,590
	학년의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6.9%, 중학교 3학년 4.8%, 중학교 2학년 3.3%, 고등학교 3학년 3.1%, 중학교 1학년 2.3%, 고등학교 2학년 1.7%, 고등학교 1학년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1,868
	학년의 %	.0%	100.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0	2,146	2,146
	학년의 %	.0%	100.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92	3,924	4,016
	학년의 %	2.3%	97.7%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205	6,068	6,273
	학년의 %	3.3%	96.7%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363	7,134	7,497
	학년의 %	4.8%	95.2%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28	8,110	8,238
	학년의 %	1.6%	98.4%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11	6,404	6,515
	학년의 %	1.7%	98.3%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72	5,350	5,522
	학년의 %	3.1%	96.9%	100.0%
해당없음	빈도	1,210	16,408	17,618
	학년의 %	6.9%	93.1%	100.0%
전체	빈도	2,281	57,412	59,693
	학년의 %	3.8%	96.2%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1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0%, ‘매우 잘 사는 편’ 2.0%, ‘어려운 편’ 1.3%, ‘보통이다’ 0.8%, ‘잘 사는 편’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368	83,612	87,980
	경제수준의 %	5.0%	95.0%	100.0%
어려운편	빈도	8,714	662,169	670,883
	경제수준의 %	1.3%	98.7%	100.0%
보통	빈도	27,422	3,505,540	3,532,962
	경제수준의 %	.8%	99.2%	100.0%
잘 사는편	빈도	3,578	826,432	830,01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373	114,382	116,755
	경제수준의 %	2.0%	98.0%	100.0%
전체	빈도	46,455	5,192,135	5,238,590
	경제수준의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7.7%, ‘어려운 편’ 5.0%, ‘매우 잘 사는 편’ 4.3%, ‘잘 사는 편’ 3.2%, ‘보통이다’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거의 매일) & 일상생활 못함(주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45	5,320	5,765
	경제수준의 %	7.7%	92.3%	100.0%
어려운편	빈도	926	17,736	18,662
	경제수준의 %	5.0%	95.0%	100.0%
보통	빈도	779	30,651	31,430
	경제수준의 %	2.5%	97.5%	100.0%
잘 사는편	빈도	100	3,059	3,159
	경제수준의 %	3.2%	96.8%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9	648	677
	경제수준의 %	4.3%	95.7%	100.0%
전체	빈도	2,279	57,414	59,693
	경제수준의 %	3.8%	96.2%	100.0%

## 나. 음주 경험(거의 매일)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11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1수준 비율은 15.1%, 2수준은 3.4%, 3수준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7〉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9,545	53,725	63,270
	결과 %	15.1%	84.9%	100.0%
2수준	빈도	5,465	156,019	161,484
	결과 %	3.4%	96.6%	100.0%
3수준	빈도	4,756	215,989	220,745
	결과 %	2.2%	97.8%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1	4,209,501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9,766	5,218,824	5,238,590
	결과 %	.4%	99.6%	100.0%

〈표 11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9.1%, 잠재적 위험군 0.8%, 일반군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8〉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9,545	95,760	105,305
	결과 %	9.1%	90.9%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5,465	697,574	703,039
	결과 %	.8%	99.2%	100.0%
일반군	빈도	4,756	4,425,490	4,430,246
	결과 %	.1%	99.9%	100.0%
전체	빈도	19,766	5,218,824	5,238,590
	결과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1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5.2%이며, 1수준 비율은 21.6%, 2수준은 7.5%, 3수준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9〉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2,052	7,443	9,495
	결과 %	21.6%	78.4%	100.0%
2수준	빈도	773	9,542	10,315
	결과 %	7.5%	92.5%	100.0%
3수준	빈도	285	10,013	10,298
	결과 %	2.8%	97.2%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70	22,57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3,110	56,583	59,693
	결과 %	5.2%	94.8%	100.0%

〈표 12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5.2%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9.5%, 잠재적 위험군 4.7%, 일반군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0〉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2,052	8,481	10,533
	결과 %	19.5%	80.5%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773	15,520	16,293
	결과 %	4.7%	95.3%	100.0%
일반군	빈도	285	32,582	32,867
	결과 %	.9%	99.1%	100.0%
전체	빈도	3,110	56,583	59,693
	결과 %	5.2%	94.8%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2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0.7%), 다음으로 강원도(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 일반학생 시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664	939,023	941,687
	시도의 %	.3%	99.7%	100.0%
부산	빈도	981	353,497	354,478
	시도의 %	.3%	99.7%	100.0%
인천	빈도	1,397	299,129	300,526
	시도의 %	.5%	99.5%	100.0%
대구	빈도	872	286,165	287,037
	시도의 %	.3%	99.7%	100.0%
대전	빈도	831	172,993	173,824
	시도의 %	.5%	99.5%	100.0%
광주	빈도	579	182,037	182,616
	시도의 %	.3%	99.7%	100.0%
울산	빈도	1,012	138,182	139,194
	시도의 %	.7%	99.3%	100.0%
강원도	빈도	901	152,882	153,783
	시도의 %	.6%	99.4%	100.0%
경기도	빈도	4,812	1,251,999	1,256,811
	시도의 %	.4%	99.6%	100.0%
경남	빈도	1,031	353,431	354,462
	시도의 %	.3%	99.7%	100.0%
경북	빈도	1,081	259,590	260,671
	시도의 %	.4%	99.6%	100.0%
전남	빈도	944	194,993	195,937
	시도의 %	.5%	99.5%	100.0%
전북	빈도	878	201,141	202,019
	시도의 %	.4%	99.6%	100.0%
충남	빈도	923	204,588	205,511
	시도의 %	.4%	99.6%	100.0%
충북	빈도	524	164,283	164,807
	시도의 %	.3%	99.7%	100.0%
제주도	빈도	339	64,888	65,227
	시도의 %	.5%	99.5%	100.0%
전체	빈도	19,769	5,218,821	5,238,590
	시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2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이며(8.4%), 다음으로 경기도(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667	7,306	7,973
	시도의 %	8.4%	91.6%	100.0%
부산	빈도	100	2,690	2,790
	시도의 %	3.6%	96.4%	100.0%
인천	빈도	287	4,516	4,803
	시도의 %	6.0%	94.0%	100.0%
대구	빈도	68	992	1,060
	시도의 %	6.4%	93.6%	100.0%
대전	빈도	162	2,992	3,154
	시도의 %	5.1%	94.9%	100.0%
광주	빈도	25	1,612	1,637
	시도의 %	1.5%	98.5%	100.0%
울산	빈도	57	1,909	1,966
	시도의 %	2.9%	97.1%	100.0%
강원도	빈도	167	6,287	6,454
	시도의 %	2.6%	97.4%	100.0%
경기도	빈도	680	8,232	8,912
	시도의 %	7.6%	92.4%	100.0%
경남	빈도	171	4,476	4,647
	시도의 %	3.7%	96.3%	100.0%
경북	빈도	28	2,796	2,824
	시도의 %	1.0%	99.0%	100.0%
전남	빈도	196	2,686	2,882
	시도의 %	6.8%	93.2%	100.0%
전북	빈도	225	3,858	4,083
	시도의 %	5.5%	94.5%	100.0%
충남	빈도	140	2,987	3,127
	시도의 %	4.5%	95.5%	100.0%
충북	빈도	35	1,703	1,738
	시도의 %	2.0%	98.0%	100.0%
제주도	빈도	103	1,540	1,643
	시도의 %	6.3%	93.7%	100.0%
전체	빈도	3,111	56,582	59,693
	시도의 %	5.2%	94.8%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2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5%,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일반학생 성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4,542	2,750,013	2,764,555
	성별의 %	.5%	99.5%	100.0%
여	빈도	5,225	2,468,810	2,474,035
	성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19,767	5,218,823	5,238,590
	성별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2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5.1%, 여학생은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008	37,168	39,176
	성별의 %	5.1%	94.9%	100.0%
여	빈도	1,102	19,415	20,517
	성별의 %	5.4%	94.6%	100.0%
전체	빈도	3,110	56,583	59,693
	성별의 %	5.2%	94.8%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2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2%, 인문계 고등학교 0.6%, 중학교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 일반학생 학교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95	1,265,431	1,265,826
	학교의 %	.0%	100.0%	100.0%
중학교	빈도	4,170	2,002,802	2,006,972
	학교의 %	.2%	99.8%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9,578	1,470,522	1,480,100
	학교의 %	.6%	99.4%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5,625	480,067	485,692
	학교의 %	1.2%	98.8%	100.0%
전체	빈도	19,768	5,218,822	5,238,590
	학교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2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 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대안학교 13.5%, 다니지 않음 11.5%, 소년원 학교 6.4%, 검정고시 학원 6.1%, 전문계 고등학교 4.3%, 직업훈련기관 4.2%, 중학교 3.1%, 인문계 고등학교 1.8%, 직업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6〉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0	3,964	3,964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중학교	빈도	533	16,457	16,990
	학교맞기관 의 %	3.1%	96.9%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31	7,067	7,198
	학교맞기관 의 %	1.8%	98.2%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547	12,109	12,656
	학교맞기관 의 %	4.3%	95.7%	100.0%
대안학교	빈도	132	843	975
	학교맞기관 의 %	13.5%	86.5%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174	2,672	2,846
	학교맞기관 의 %	6.1%	93.9%	100.0%
직업학교	빈도	1	225	226
	학교맞기관 의 %	.4%	99.6%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21	479	500
	학교맞기관 의 %	4.2%	95.8%	100.0%
소년원학교	빈도	93	1,353	1,446
	학교맞기관 의 %	6.4%	93.6%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1,477	11,415	12,892
	학교맞기관 의 %	11.5%	88.5%	100.0%
전체	빈도	3,109	56,584	59,693
	학교맞기관 의 %	5.2%	94.8%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2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고등학교 3학년 1.0%, 고등학교 2학년 0.8%, 고등학교 1학년 0.6%, 중학교 3학년 0.4%, 중학교 1학년 0.1%, 중학교 2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7〉 일반학생 학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230	618,341	618,571
	학년의 %	.0%	100.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64	647,091	647,255
	학년의 %	.0%	100.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853	655,719	656,572
	학년의 %	.1%	99.9%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950	675,937	676,887
	학년의 %	.1%	99.9%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2,367	671,146	673,513
	학년의 %	.4%	99.6%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811	666,229	670,040
	학년의 %	.6%	99.4%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5,324	656,092	661,416
	학년의 %	.8%	99.2%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6,067	628,269	634,336
	학년의 %	1.0%	99.0%	100.0%
전체	빈도	19,766	5,218,824	5,238,590
	학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2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10.0%, 중학교 3학년 5.0%, 고등학교 3학년 4.8%, 고등학교 2학년 4.7%, 중학교 2학년 2.7%, 고등학교 1학년 2.5%, 중학교 1학년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학년의 %	.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0	2,146
	학년의 %	.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40	3,976
	학년의 %	1.0%	99.0%
중학교2학년	빈도	171	6,102
	학년의 %	2.7%	97.3%
중학교3학년	빈도	372	7,125
	학년의 %	5.0%	95.0%
고등학교1학년	빈도	202	8,036
	학년의 %	2.5%	97.5%
고등학교2학년	빈도	304	6,211
	학년의 %	4.7%	95.3%
고등학교3학년	빈도	263	5,259
	학년의 %	4.8%	95.2%
해당없음	빈도	1,757	15,861
	학년의 %	10.0%	90.0%
전체	빈도	3,109	56,584
	학년의 %	5.2%	94.8%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29〉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5%, ‘매우 잘 사는 편’ 1.8%, ‘어려운 편’ 0.4%, ‘보통이다’ 0.3%, ‘잘 사는 편’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945	84,035	87,980
	경제수준의 %	4.5%	95.5%	100.0%
어려운편	빈도	2,666	668,217	670,883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보통	빈도	9,290	3,523,672	3,532,962
	경제수준의 %	.3%	99.7%	100.0%
잘 사는편	빈도	1,796	828,214	830,010
	경제수준의 %	.2%	99.8%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071	114,684	116,755
	경제수준의 %	1.8%	98.2%	100.0%
전체	빈도	19,768	5,218,822	5,238,59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3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음주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잘 사는 편’10.6%,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5%, ‘어려운 편’ 5.4%, ‘보통이다’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0〉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거의 매일)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549	5,216	5,765
	경제수준의 %	9.5%	90.5%	100.0%
어려운편	빈도	1,003	17,659	18,662
	경제수준의 %	5.4%	94.6%	100.0%
보통	빈도	1,222	30,208	31,430
	경제수준의 %	3.9%	96.1%	100.0%
잘 사는편	빈도	336	2,823	3,159
	경제수준의 %	10.6%	89.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0	677	677
	경제수준의 %	.0%	100.0%	100.0%
전체	빈도	3,110	56,583	59,693
	경제수준의 %	5.2%	94.8%	100.0%

## 다. 흡연경험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131〉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3%이며, 1수준 비율은 31.7%, 2수준은 29.7%, 3수준은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1〉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20,054	43,216	63,270
	결과 %	31.7%	68.3%	100.0%
2수준	빈도	47,895	113,590	161,485
	결과 %	29.7%	70.3%	100.0%
3수준	빈도	54,767	165,978	220,745
	결과 %	24.8%	75.2%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22,716	5,115,874	5,238,590
	결과 %	2.3%	97.7%	100.0%

〈표 132〉는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3%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9.0%, 잠재적 위험군 6.8%, 일반군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20,054	85,251	105,305
	결과 %	19.0%	81.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47,895	655,145	703,040
	결과 %	6.8%	93.2%	100.0%
일반군	빈도	54,767	4,375,478	4,430,245
	결과 %	1.2%	98.8%	100.0%
전체	빈도	122,716	5,115,874	5,238,590
	결과 %	2.3%	97.7%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33〉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0.8%이며, 1수준 비율은 61.9%, 2수준은 61.4%, 3수준은 6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3〉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5,879	3,616	9,495
	결과 %	61.9%	38.1%	100.0%
2수준	빈도	6,336	3,979	10,315
	결과 %	61.4%	38.6%	100.0%
3수준	빈도	6,191	4,107	10,298
	결과 %	60.1%	39.9%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70	22,57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8,406	41,287	59,693
	결과 %	30.8%	69.2%	100.0%

〈표 134〉는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0.8%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55.8%, 잠재적 위험군 38.9%, 일반군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4〉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5,879	4,654	10,533
	결과 %	55.8%	44.2%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6,336	9,956	16,292
	결과 %	38.9%	61.1%	100.0%
일반군	빈도	6,191	26,677	32,868
	결과 %	18.8%	81.2%	100.0%
전체	빈도	18,406	41,287	59,693
	결과 %	30.8%	69.2%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35〉는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 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도이며(3.5%), 다음으로 대전(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5〉 일반학생 시도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7,729	923,958	941,687
	시도의 %	1.9%	98.1%	100.0%
부산	빈도	6,827	347,651	354,478
	시도의 %	1.9%	98.1%	100.0%
인천	빈도	9,084	291,442	300,526
	시도의 %	3.0%	97.0%	100.0%
대구	빈도	5,755	281,282	287,037
	시도의 %	2.0%	98.0%	100.0%
대전	빈도	5,644	168,180	173,824
	시도의 %	3.2%	96.8%	100.0%
광주	빈도	2,816	179,800	182,616
	시도의 %	1.5%	98.5%	100.0%
울산	빈도	4,157	135,037	139,194
	시도의 %	3.0%	97.0%	100.0%
강원도	빈도	3,952	149,831	153,783
	시도의 %	2.6%	97.4%	100.0%
경기도	빈도	27,617	1,229,194	1,256,811
	시도의 %	2.2%	97.8%	100.0%
경남	빈도	8,418	346,044	354,462
	시도의 %	2.4%	97.6%	100.0%
경북	빈도	7,113	253,558	260,671
	시도의 %	2.7%	97.3%	100.0%
전남	빈도	5,133	190,804	195,937
	시도의 %	2.6%	97.4%	100.0%
전북	빈도	5,700	196,319	202,019
	시도의 %	2.8%	97.2%	100.0%
충남	빈도	5,513	199,998	205,511
	시도의 %	2.7%	97.3%	100.0%
충북	빈도	4,968	159,839	164,807
	시도의 %	3.0%	97.0%	100.0%
제주도	빈도	2,291	62,936	65,227
	시도의 %	3.5%	96.5%	100.0%
전체	빈도	122,717	5,115,873	5,238,590
	시도의 %	2.3%	97.7%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36〉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이며(52.2%), 다음으로 인천(4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6〉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4,162	3,811	7,973
	시도의 %	52.2%	47.8%	100.0%
부산	빈도	877	1,913	2,790
	시도의 %	31.4%	68.6%	100.0%
인천	빈도	1,978	2,825	4,803
	시도의 %	41.2%	58.8%	100.0%
대구	빈도	274	786	1,060
	시도의 %	25.8%	74.2%	100.0%
대전	빈도	1,061	2,093	3,154
	시도의 %	33.6%	66.4%	100.0%
광주	빈도	635	1,002	1,637
	시도의 %	38.8%	61.2%	100.0%
울산	빈도	389	1,577	1,966
	시도의 %	19.8%	80.2%	100.0%
강원도	빈도	815	5,639	6,454
	시도의 %	12.6%	87.4%	100.0%
경기도	빈도	3,064	5,848	8,912
	시도의 %	34.4%	65.6%	100.0%
경남	빈도	1,198	3,449	4,647
	시도의 %	25.8%	74.2%	100.0%
경북	빈도	560	2,264	2,824
	시도의 %	19.8%	80.2%	100.0%
전남	빈도	999	1,883	2,882
	시도의 %	34.7%	65.3%	100.0%
전북	빈도	523	3,560	4,083
	시도의 %	12.8%	87.2%	100.0%
충남	빈도	889	2,238	3,127
	시도의 %	28.4%	71.6%	100.0%
충북	빈도	510	1,228	1,738
	시도의 %	29.3%	70.7%	100.0%
제주도	빈도	472	1,171	1,643
	시도의 %	28.7%	71.3%	100.0%
전체	빈도	18,406	41,287	59,693
	시도의 %	30.8%	69.2%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37〉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3.5%, 여학생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7〉 일반학생 성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97,526	2,667,029	2,764,555
	성별의 %	3.5%	96.5%	100.0%
여	빈도	25,191	2,448,844	2,474,035
	성별의 %	1.0%	99.0%	100.0%
전체	빈도	122,717	5,115,873	5,238,590
	성별의 %	2.3%	97.7%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38〉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34.1%, 여학생은 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8〉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3,377	25,799	39,176
	성별의 %	34.1%	65.9%	100.0%
여	빈도	5,030	15,487	20,517
	성별의 %	24.5%	75.5%	100.0%
전체	빈도	18,407	41,286	59,693
	성별의 %	30.8%	69.2%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39〉는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0.3%, 인문계 고등학교 3.5%, 중학교 0.9%, 초등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9〉 일반학생 학교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439	1,264,387	1,265,826
	학교의 %	.1%	99.9%	100.0%
중학교	빈도	19,021	1,987,951	2,006,972
	학교의 %	.9%	99.1%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52,450	1,427,650	1,480,100
	학교의 %	3.5%	96.5%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49,807	435,885	485,692
	학교의 %	10.3%	89.7%	100.0%
전체	빈도	122,717	5,115,873	5,238,590
	학교의 %	2.3%	97.7%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40〉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 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58.4%, 대안학교 57.7%, 다니지 않음 53.3%, 검정고시 학원 49.6 %, 전문계 고등학교 29.6%, 소년원 학교 28.5%, 직업학교 25.6%, 인문계 고등학교 25.0%, 중학교 18.9%, 초등학교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50	3,914	3,964
	학교맞기관의 %	1.3%	98.7%	100.0%
중학교	빈도	3,210	13,780	16,990
	학교맞기관의 %	18.9%	81.1%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796	5,402	7,198
	학교맞기관의 %	25.0%	75.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3,746	8,910	12,656
	학교맞기관의 %	29.6%	70.4%	100.0%
대안학교	빈도	562	413	975
	학교맞기관의 %	57.7%	42.3%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1,411	1,435	2,846
	학교맞기관의 %	49.6%	50.4%	100.0%
직업학교	빈도	58	168	226
	학교맞기관의 %	25.6%	74.4%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292	208	500
	학교맞기관의 %	58.4%	41.6%	100.0%
소년원학교	빈도	412	1,034	1,446
	학교맞기관의 %	28.5%	71.5%	100.0%
다치지 않음	빈도	6,871	6,021	12,892
	학교맞기관의 %	53.3%	46.7%	100.0%
전체	빈도	18,408	41,285	59,693
	학교맞기관의 %	30.8%	69.2%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41〉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고등학교 3학년 6.6%, 고등학교 2학년 5.4%, 고등학교 1학년 3.7%, 중학교 3학년 1.9%, 중학교 2학년 0.6%, 중학교 1학년 0.3%,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 일반학생 학년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473	618,098	618,571
	학년의 %	.1%	99.9%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966	646,289	647,255
	학년의 %	.1%	99.9%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2,257	654,315	656,572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4,255	672,632	676,887
	학년의 %	.6%	99.4%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2,508	661,005	673,513
	학년의 %	1.9%	98.1%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24,869	645,171	670,040
	학년의 %	3.7%	96.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5,536	625,880	661,416
	학년의 %	5.4%	94.6%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41,852	592,484	634,336
	학년의 %	6.6%	93.4%	100.0%
전체	빈도	122,716	5,115,874	5,238,590
	학년의 %	2.3%	97.7%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42〉는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 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50.9%, 고등학교 2학년 32.1%, 고등학교 1학년 26.7%, 고등학교 3학년 26.2%, 중학교 3학년 24.5%, 중학교 2학년 24.3%, 중학교 1학년 6.6%, 초등학교 5학년 2.0%, 초등학교 6학년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37	1,831	1,868
	학년의 %	2.0%	98.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34	2,112	2,146
	학년의 %	1.6%	98.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266	3,750	4,016
	학년의 %	6.6%	93.4%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1,524	4,749	6,273
	학년의 %	24.3%	75.7%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836	5,661	7,497
	학년의 %	24.5%	75.5%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2,203	6,035	8,238
	학년의 %	26.7%	73.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2,092	4,423	6,515
	학년의 %	32.1%	67.9%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447	4,075	5,522
	학년의 %	26.2%	73.8%	100.0%
해당없음	빈도	8,967	8,651	17,618
	학년의 %	50.9%	49.1%	100.0%
전체	빈도	18,406	41,287	59,693
	학년의 %	30.8%	69.2%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43〉은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4%, ‘어려운 편’ 4.4%, ‘매우 잘 사는 편’ 2.9%, ‘보통이다’ 2.0%, ‘잘 사는 편’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 경험(거의 매일)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8,258	79,722	87,980
	경제수준의 %	9.4%	90.6%	100.0%
어려운편	빈도	29,341	641,542	670,883
	경제수준의 %	4.4%	95.6%	100.0%
보통	빈도	71,522	3,461,440	3,532,962
	경제수준의 %	2.0%	98.0%	100.0%
잘 사는편	빈도	10,241	819,769	830,010
	경제수준의 %	1.2%	98.8%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3,354	113,401	116,755
	경제수준의 %	2.9%	97.1%	100.0%
전체	빈도	122,716	5,115,874	5,238,590
	경제수준의 %	2.3%	97.7%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44〉는 위기결과 문항 중 ‘흡연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잘 사는 편’35.4%, ‘보통이다’ 31.1%,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0.1%, ‘어려운 편’ 30.0%, ‘매우 잘 사는 편’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경험(거의 매일)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1,738	4,027	5,765
	경제수준의 %	30.1%	69.9%	100.0%
어려운편	빈도	5,607	13,055	18,662
	경제수준의 %	30.0%	70.0%	100.0%
보통	빈도	9,768	21,662	31,430
	경제수준의 %	31.1%	68.9%	100.0%
잘 사는편	빈도	1,117	2,042	3,159
	경제수준의 %	35.4%	64.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78	499	677
	경제수준의 %	26.3%	73.7%	100.0%
전체	빈도	18,408	41,285	59,693
	경제수준의 %	30.8%	69.2%	100.0%

라.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1) 전체

가) 일반학생

〈표 145〉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1수준 비율은 13.1%, 2수준은 2.6%, 3수준은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8,303	54,967	63,270
	결과 %	13.1%	86.9%	100.0%
2수준	빈도	4,230	157,255	161,485
	결과 %	2.6%	97.4%	100.0%
3수준	빈도	6,077	214,669	220,746
	결과 %	2.8%	97.2%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499	4,209,49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8,610	5,219,980	5,238,590
	결과 %	.4%	99.6%	100.0%

〈표 146〉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 고위험군 비율은 7.9%, 잠재적 위험군 0.6%, 일반군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6〉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8,303	97,002	105,305
	결과 %	7.9%	92.1%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4,230	698,810	703,040
	결과 %	.6%	99.4%	100.0%
일반군	빈도	6,077	4,424,168	4,430,245
	결과 %	.1%	99.9%	100.0%
전체	빈도	18,610	5,219,980	5,238,590
	결과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47〉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7%이며, 1수준 비율은 7.7%, 2수준은 2.0%, 3수준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7〉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735	8,760	9,495
	결과 %	7.7%	92.3%	100.0%
2수준	빈도	203	10,112	10,315
	결과 %	2.0%	98.0%	100.0%
3수준	빈도	72	10,227	10,299
	결과 %	.7%	99.3%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9	22,56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010	58,683	59,693
	결과 %	1.7%	98.3%	100.0%

〈표 148〉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위гы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7%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7.0%, 잠재적 위험군 1.2%, 일반군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8〉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гы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735	9,798	10,533
	결과 %	7.0%	93.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203	16,090	16,293
	결과 %	1.2%	98.8%	100.0%
일반군	빈도	72	32,795	32,867
	결과 %	.2%	99.8%	100.0%
전체	빈도	1,010	58,683	59,693
	결과 %	1.7%	98.3%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49〉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0.7%), 다음으로 광주(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9〉 일반학생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601	939,086	941,687
	시도의 %	.3%	99.7%	100.0%
부산	빈도	700	353,778	354,478
	시도의 %	.2%	99.8%	100.0%
인천	빈도	763	299,763	300,526
	시도의 %	.3%	99.7%	100.0%
대구	빈도	724	286,313	287,037
	시도의 %	.3%	99.7%	100.0%
대전	빈도	354	173,470	173,824
	시도의 %	.2%	99.8%	100.0%
광주	빈도	1,037	181,579	182,616
	시도의 %	.6%	99.4%	100.0%
울산	빈도	962	138,232	139,194
	시도의 %	.7%	99.3%	100.0%
강원도	빈도	760	153,023	153,783
	시도의 %	.5%	99.5%	100.0%
경기도	빈도	5,152	1,251,659	1,256,811
	시도의 %	.4%	99.6%	100.0%
경남	빈도	1,545	352,917	354,462
	시도의 %	.4%	99.6%	100.0%
경북	빈도	857	259,814	260,671
	시도의 %	.3%	99.7%	100.0%
전남	빈도	897	195,040	195,937
	시도의 %	.5%	99.5%	100.0%
전북	빈도	867	201,152	202,019
	시도의 %	.4%	99.6%	100.0%
충남	빈도	846	204,665	205,511
	시도의 %	.4%	99.6%	100.0%
충북	빈도	409	164,398	164,807
	시도의 %	.2%	99.8%	100.0%
제주도	빈도	134	65,093	65,227
	시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18,608	5,219,982	5,238,590
	시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50〉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10.3%), 다음으로 대구(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0〉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50	7,823	7,973
	시도의 %	1.9%	98.1%	100.0%
부산	빈도	23	2,767	2,790
	시도의 %	.8%	99.2%	100.0%
인천	빈도	57	4,746	4,803
	시도의 %	1.2%	98.8%	100.0%
대구	빈도	32	1,028	1,060
	시도의 %	3.0%	97.0%	100.0%
대전	빈도	3	3,151	3,154
	시도의 %	.1%	99.9%	100.0%
광주	빈도	168	1,469	1,637
	시도의 %	10.3%	89.7%	100.0%
울산	빈도	73	1,893	1,966
	시도의 %	3.7%	96.3%	100.0%
강원도	빈도	44	6,410	6,454
	시도의 %	.7%	99.3%	100.0%
경기도	빈도	205	8,707	8,912
	시도의 %	2.3%	97.7%	100.0%
경남	빈도	117	4,530	4,647
	시도의 %	2.5%	97.5%	100.0%
경북	빈도	0	2,824	2,824
	시도의 %	.0%	100.0%	100.0%
전남	빈도	34	2,848	2,882
	시도의 %	1.2%	98.8%	100.0%
전북	빈도	35	4,048	4,083
	시도의 %	.9%	99.1%	100.0%
충남	빈도	28	3,099	3,127
	시도의 %	.9%	99.1%	100.0%
충북	빈도	41	1,697	1,738
	시도의 %	2.4%	97.6%	100.0%
제주도	빈도	1	1,642	1,643
	시도의 %	.1%	99.9%	100.0%
전체	빈도	1,011	58,682	59,693
	시도의 %	1.7%	98.3%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51〉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5%,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 일반학생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3,410	2,751,145	2,764,555
	성별의 %	.5%	99.5%	100.0%
여	빈도	5,200	2,468,835	2,474,035
	성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18,610	5,219,980	5,238,590
	성별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52〉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8%, 여학생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703	38,473	39,176
	성별의 %	1.8%	98.2%	100.0%
여	빈도	307	20,210	20,517
	성별의 %	1.5%	98.5%	100.0%
전체	빈도	1,010	58,683	59,693
	성별의 %	1.7%	98.3%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53〉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0.5%, 전문계 고등학교 0.5%, 인문계 고등학교 0.4%, 중학교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 일반학생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6,729	1,259,097	1,265,826
	학교의 %	.5%	99.5%	100.0%
중학교	빈도	3,995	2,002,977	2,006,972
	학교의 %	.2%	99.8%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5,654	1,474,446	1,480,100
	학교의 %	.4%	99.6%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232	483,460	485,692
	학교의 %	.5%	99.5%	100.0%
전체	빈도	18,610	5,219,980	5,238,590
	학교의 %	.4%	99.6%	100.0%

#####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154〉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6.8%, 소년원 학교 4.4%, 다니지 않음 2.7%, 중학교 1.9%, 초등학교 1.3%, 전문계 고등학교 1.0%, 검정고시 학원 1.0%, 인문계 고등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50	3,914	3,964
	학교맞기관의 %	1.3%	98.7%	100.0%
중학교	빈도	325	16,665	16,990
	학교맞기관의 %	1.9%	98.1%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32	7,166	7,198
	학교맞기관의 %	.4%	99.6%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28	12,528	12,656
	학교맞기관의 %	1.0%	99.0%	100.0%
대안학교	빈도	0	975	975
	학교맞기관의 %	.0%	100.0%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8	2,818	2,846
	학교맞기관의 %	1.0%	99.0%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34	466	500
	학교맞기관의 %	6.8%	93.2%	100.0%
소년원학교	빈도	64	1,382	1,446
	학교맞기관의 %	4.4%	95.6%	100.0%
다치지 않음	빈도	350	12,542	12,892
	학교맞기관의 %	2.7%	97.3%	100.0%
전체	빈도	1,011	58,682	59,693
	학교맞기관의 %	1.7%	98.3%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55〉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5학년 0.7%, 고등학교 2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5%, 초등학교 6학년 0.4%, 중학교 3학년 0.3%, 고등학교 1학년 0.3%, 중학교 1학년 0.2%, 중학교 2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5〉 일반학생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4,306	614,265	618,571
	학년의 %	.7%	99.3%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2,423	644,832	647,255
	학년의 %	.4%	99.6%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225	655,347	656,572
	학년의 %	.2%	99.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892	675,995	676,887
	학년의 %	.1%	99.9%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878	671,635	673,513
	학년의 %	.3%	99.7%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691	668,349	670,040
	학년의 %	.3%	99.7%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163	658,253	661,416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032	631,304	634,336
	학년의 %	.5%	99.5%	100.0%
전체	빈도	18,610	5,219,980	5,238,590
	학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56〉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3학년 2.8%, 해당없음 2.3%, 중학교 2학년 2.0%, 초등학교 6학년은 1.6%, 고등학교 1학년 1.4%, 초등학교 5학년 0.9%, 중학교 1학년 0.7%, 고등학교 2학년 0.7%, 고등학교 3학년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 취약 · 위기청소년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6	1,852	1,868
	학년의 %	.9%	99.1%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34	2,112	2,146
	학년의 %	1.6%	98.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28	3,988	4,016
	학년의 %	.7%	99.3%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123	6,150	6,273
	학년의 %	2.0%	98.0%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209	7,288	7,497
	학년의 %	2.8%	97.2%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14	8,124	8,238
	학년의 %	1.4%	98.6%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45	6,470	6,515
	학년의 %	.7%	99.3%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8	5,484	5,522
	학년의 %	.7%	99.3%	100.0%
해당없음	빈도	402	17,216	17,618
	학년의 %	2.3%	97.7%	100.0%
전체	빈도	1,009	58,684	59,693
	학년의 %	1.7%	98.3%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57〉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7%, ‘매우 잘 사는 편’ 2.0%, ‘어려운 편’ 0.3%, ‘잘 사는 편’ 0.3%, ‘보통이다’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299	84,681	87,980
	경제수준의 %	3.7%	96.3%	100.0%
어려운편	빈도	2,170	668,713	670,883
	경제수준의 %	.3%	99.7%	100.0%
보통	빈도	8,734	3,524,228	3,532,962
	경제수준의 %	.2%	99.8%	100.0%
잘 사는편	빈도	2,096	827,914	830,010
	경제수준의 %	.3%	99.7%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310	114,445	116,755
	경제수준의 %	2.0%	98.0%	100.0%
전체	빈도	18,609	5,219,981	5,238,59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58〉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8%, ‘어려운 편’ 2.0%, ‘잘 사는 편’ 1.4%, ‘보통이다’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8〉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217	5,548	5,765
	경제수준의 %	3.8%	96.2%	100.0%
어려운편	빈도	379	18,283	18,662
	경제수준의 %	2.0%	98.0%	100.0%
보통	빈도	371	31,059	31,430
	경제수준의 %	1.2%	98.8%	100.0%
잘 사는편	빈도	43	3,116	3,159
	경제수준의 %	1.4%	98.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0	677	677
	경제수준의 %	.0%	100.0%	100.0%
전체	빈도	1,010	58,683	59,693
	경제수준의 %	1.7%	98.3%	100.0%

#### 마.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159〉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0%이며, 1수준 비율은 17.5%, 2수준은 8.4%, 3수준은 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9〉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1,095	52,175	63,270
	결과 %	17.5%	82.5%	100.0%
2수준	빈도	13,605	147,880	161,485
	결과 %	8.4%	91.6%	100.0%
3수준	빈도	28,828	191,917	220,745
	결과 %	13.1%	86.9%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53,528	5,185,062	5,238,590
	결과 %	1.0%	99.0%	100.0%

〈표 16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0%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0.5%, 잠재적 위험군 1.9%, 일반군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0〉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1,095	94,210	105,305
	결과 %	10.5%	89.5%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3,605	689,435	703,040
	결과 %	1.9%	98.1%	100.0%
일반군	빈도	28,828	4,401,417	4,430,245
	결과 %	.7%	99.3%	100.0%
전체	빈도	53,528	5,185,062	5,238,590
	결과 %	1.0%	9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6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4%이며, 1수준 비율은 7.8%, 2수준은 0.7%, 3수준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1〉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742	8,753	9,495
	결과 %	7.8%	92.2%	100.0%
2수준	빈도	68	10,248	10,316
	결과 %	.7%	99.3%	100.0%
3수준	빈도	45	10,253	10,298
	결과 %	.4%	99.6%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9	22,56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855	58,838	59,693
	결과 %	1.4%	98.6%	100.0%

〈표 16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7.0%, 잠재적 위험군 0.4%, 일반군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2〉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742	9,791	10,533
	결과 %	7.0%	93.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68	16,225	16,293
	결과 %	.4%	99.6%	100.0%
일반군	빈도	45	32,822	32,867
	결과 %	.1%	99.9%	100.0%
전체	빈도	855	58,838	59,693
	결과 %	1.4%	98.6%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6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1.8%), 다음으로 대전과 광주(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3〉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1,848	929,839	941,687
	시도의 %	1.3%	98.7%	100.0%
부산	빈도	3,244	351,234	354,478
	시도의 %	.9%	99.1%	100.0%
인천	빈도	2,092	298,434	300,526
	시도의 %	.7%	99.3%	100.0%
대구	빈도	2,122	284,915	287,037
	시도의 %	.7%	99.3%	100.0%
대전	빈도	2,551	171,273	173,824
	시도의 %	1.5%	98.5%	100.0%
광주	빈도	2,829	179,787	182,616
	시도의 %	1.5%	98.5%	100.0%
울산	빈도	2,530	136,664	139,194
	시도의 %	1.8%	98.2%	100.0%
강원도	빈도	2,129	151,654	153,783
	시도의 %	1.4%	98.6%	100.0%
경기도	빈도	8,328	1,248,483	1,256,811
	시도의 %	.7%	99.3%	100.0%
경남	빈도	4,587	349,875	354,462
	시도의 %	1.3%	98.7%	100.0%
경북	빈도	2,445	258,226	260,671
	시도의 %	.9%	99.1%	100.0%
전남	빈도	1,838	194,099	195,937
	시도의 %	.9%	99.1%	100.0%
전북	빈도	2,267	199,752	202,019
	시도의 %	1.1%	98.9%	100.0%
충남	빈도	2,134	203,377	205,511
	시도의 %	1.0%	99.0%	100.0%
충북	빈도	1,981	162,826	164,807
	시도의 %	1.2%	98.8%	100.0%
제주도	빈도	604	64,623	65,227
	시도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53,529	5,185,061	5,238,590
	시도의 %	1.0%	99.0%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6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3.8%), 다음으로 대구(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4〉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39	7,734	7,973
	시도의 %	3.0%	97.0%	100.0%
부산	빈도	1	2,789	2,790
	시도의 %	.0%	100.0%	100.0%
인천	빈도	40	4,763	4,803
	시도의 %	.8%	99.2%	100.0%
대구	빈도	33	1,027	1,060
	시도의 %	3.1%	96.9%	100.0%
대전	빈도	3	3,151	3,154
	시도의 %	.1%	99.9%	100.0%
광주	빈도	63	1,574	1,637
	시도의 %	3.8%	96.2%	100.0%
울산	빈도	28	1,938	1,966
	시도의 %	1.4%	98.6%	100.0%
강원도	빈도	81	6,373	6,454
	시도의 %	1.3%	98.7%	100.0%
경기도	빈도	129	8,783	8,912
	시도의 %	1.4%	98.6%	100.0%
경남	빈도	28	4,619	4,647
	시도의 %	.6%	99.4%	100.0%
경북	빈도	0	2,824	2,824
	시도의 %	.0%	100.0%	100.0%
전남	빈도	83	2,799	2,882
	시도의 %	2.9%	97.1%	100.0%
전북	빈도	116	3,967	4,083
	시도의 %	2.8%	97.2%	100.0%
충남	빈도	8	3,119	3,127
	시도의 %	.3%	99.7%	100.0%
충북	빈도	1	1,737	1,738
	시도의 %	.1%	99.9%	100.0%
제주도	빈도	0	1,643	1,643
	시도의 %	.0%	100.0%	100.0%
전체	빈도	853	58,840	59,693
	시도의 %	1.4%	98.6%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6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6%, 여학생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5〉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44,839	2,719,716	2,764,555
	성별의 %	1.6%	98.4%	100.0%
여	빈도	8,689	2,465,346	2,474,035
	성별의 %	.4%	99.6%	100.0%
전체	빈도	53,528	5,185,062	5,238,590
	성별의 %	1.0%	9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6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6%, 여학생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610	38,566	39,176
	성별의 %	1.6%	98.4%	100.0%
여	빈도	245	20,272	20,517
	성별의 %	1.2%	98.8%	100.0%
전체	빈도	855	58,838	59,693
	성별의 %	1.4%	98.6%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6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1.2%, 전문계 고등학교 1.2%, 초등학교 0.9%, 인문계 고등학교 0.9%,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0,829	1,254,997	1,265,826
	학교의 %	.9%	99.1%	100.0%
중학교	빈도	23,300	1,983,672	2,006,972
	학교의 %	1.2%	98.8%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3,774	1,466,326	1,480,100
	학교의 %	.9%	99.1%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5,625	480,067	485,692
	학교의 %	1.2%	98.8%	100.0%
전체	빈도	53,528	5,185,062	5,238,590
	학교의 %	1.0%	9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6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6.8%, 다니지 않음 2.6%, 중학교 1.7%, 전문계 고등학교 1.0%, 검정고시 학원 1.0%, 소년원 학교 0.8%, 인문계 고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8〉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0	3,964	3,964
	학교맞기관의 %	.0%	100.0%	100.0%
중학교	빈도	281	16,709	16,990
	학교맞기관의 %	1.7%	98.3%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40	7,158	7,198
	학교맞기관의 %	.6%	99.4%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25	12,531	12,656
	학교맞기관의 %	1.0%	99.0%	100.0%
대안학교	빈도	0	975	975
	학교맞기관의 %	.0%	100.0%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8	2,818	2,846
	학교맞기관의 %	1.0%	99.0%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34	466	500
	학교맞기관의 %	6.8%	93.2%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2	1,434	1,446
	학교맞기관의 %	.8%	99.2%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336	12,556	12,892
	학교맞기관의 %	2.6%	97.4%	100.0%
전체	빈도	856	58,837	59,693
	학교맞기관의 %	1.4%	98.6%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6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2학년 1.3%, 중학교 1학년 1.2%, 고등학교 2학년 1.1%, 중학교 3학년 1.1%, 고등학교 3학년 1.0%, 초등학교 5학년 0.9%, 초등학교 6학년 0.8%, 고등학교 1학년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9〉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5,374	613,197	618,571
	학년의 %	.9%	99.1%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5,455	641,800	647,255
	학년의 %	.8%	99.2%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7,709	648,863	656,572
	학년의 %	1.2%	98.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8,479	668,408	676,887
	학년의 %	1.3%	98.7%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7,113	666,400	673,513
	학년의 %	1.1%	98.9%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5,562	664,478	670,040
	학년의 %	.8%	99.2%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7,426	653,990	661,416
	학년의 %	1.1%	98.9%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6,411	627,925	634,336
	학년의 %	1.0%	99.0%	100.0%
전체	빈도	53,529	5,185,061	5,238,590
	학년의 %	1.0%	9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7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2학년 2.2%, 중학교 3학년 2.2%, 해당없음 2.1%, 중고등학교 2학년 1.1%, 고등학교 1학년 0.8%, 고등학교 3학년 0.5%, 학교 1학년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학년의 %	.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0	2,146
	학년의 %	.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7	3,999
	학년의 %	.4%	99.6%
중학교2학년	빈도	135	6,138
	학년의 %	2.2%	97.8%
중학교3학년	빈도	163	7,334
	학년의 %	2.2%	97.8%
고등학교1학년	빈도	67	8,171
	학년의 %	.8%	99.2%
고등학교2학년	빈도	72	6,443
	학년의 %	1.1%	98.9%
고등학교3학년	빈도	28	5,494
	학년의 %	.5%	99.5%
해당없음	빈도	374	17,244
	학년의 %	2.1%	97.9%
전체	빈도	856	58,837
	학년의 %	1.4%	98.6%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7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6%, ‘매우 잘 사는 편’ 2.8%, ‘어려운 편’ 1.4%, ‘잘 사는 편’ 0.9%, ‘보통이다’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1〉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5,785	82,195	87,980
	경제수준의 %	6.6%	93.4%	100.0%
어려운편	빈도	9,576	661,307	670,883
	경제수준의 %	1.4%	98.6%	100.0%
보통	빈도	27,465	3,505,497	3,532,962
	경제수준의 %	.8%	99.2%	100.0%
잘 사는편	빈도	7,484	822,526	830,010
	경제수준의 %	.9%	99.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3,218	113,537	116,755
	경제수준의 %	2.8%	97.2%	100.0%
전체	빈도	53,528	5,185,062	5,238,590
	경제수준의 %	1.0%	99.0%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7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0%, ‘어려운 편’ 1.8%, ‘잘 사는 편’ 0.9%, ‘보통이다’ 0.5%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2〉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신체폭행 당한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44	5,421	5,765
	경제수준의 %	6.0%	94.0%	100.0%
어려운편	빈도	330	18,332	18,662
	경제수준의 %	1.8%	98.2%	100.0%
보통	빈도	152	31,278	31,430
	경제수준의 %	.5%	99.5%	100.0%
잘 사는편	빈도	28	3,131	3,159
	경제수준의 %	.9%	99.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0	677	677
	경제수준의 %	.0%	100.0%	100.0%
전체	빈도	854	58,839	59,693
	경제수준의 %	1.4%	98.6%	100.0%

바.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1) 전체

가) 일반학생

〈표 17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8%이며, 1수준 비율은 12.6%, 2수준은 7.4%, 3수준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7,967	55,303	63,270
	결과 %	12.6%	87.4%	100.0%
2수준	빈도	11,871	149,614	161,485
	결과 %	7.4%	92.6%	100.0%
3수준	빈도	22,014	198,732	220,746
	결과 %	10.0%	90.0%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499	4,209,49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41,852	5,196,738	5,238,590
	결과 %	.8%	99.2%	100.0%

〈표 17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8%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7.6%, 잠재적 위험군 1.7%, 일반군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4〉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7,967	97,338	105,305
	결과 %	7.6%	92.4%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1,871	691,169	703,040
	결과 %	1.7%	98.3%	100.0%
일반군	빈도	22,014	4,408,231	4,430,245
	결과 %	.5%	99.5%	100.0%
전체	빈도	41,852	5,196,738	5,238,590
	결과 %	.8%	99.2%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7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1%이며, 1수준 비율은 5.3%, 2수준은 0.9%, 3수준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5〉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503	8,992	9,495
	결과 %	5.3%	94.7%	100.0%
2수준	빈도	90	10,225	10,315
	결과 %	.9%	99.1%	100.0%
3수준	빈도	80	10,218	10,298
	결과 %	.8%	99.2%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70	22,57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673	59,020	59,693
	결과 %	1.1%	98.9%	100.0%

〈표 17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1%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4.8%, 잠재적 위험군 0.6%, 일반군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6〉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503	10,030	10,533
	결과 %	4.8%	95.2%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90	16,202	16,292
	결과 %	.6%	99.4%	100.0%
일반군	빈도	80	32,788	32,868
	결과 %	.2%	99.8%	100.0%
전체	빈도	673	59,020	59,693
	결과 %	1.1%	98.9%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7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1.2%), 다음으로 광주와 충북(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7〉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8,075	933,612	941,687
	시도의 %	.9%	99.1%	100.0%
부산	빈도	2,220	352,258	354,478
	시도의 %	.6%	99.4%	100.0%
인천	빈도	2,235	298,291	300,526
	시도의 %	.7%	99.3%	100.0%
대구	빈도	1,075	285,962	287,037
	시도의 %	.4%	99.6%	100.0%
대전	빈도	1,515	172,309	173,824
	시도의 %	.9%	99.1%	100.0%
광주	빈도	1,854	180,762	182,616
	시도의 %	1.0%	99.0%	100.0%
울산	빈도	1,657	137,537	139,194
	시도의 %	1.2%	98.8%	100.0%
강원도	빈도	1,452	152,331	153,783
	시도의 %	.9%	99.1%	100.0%
경기도	빈도	9,858	1,246,953	1,256,811
	시도의 %	.8%	99.2%	100.0%
경남	빈도	3,117	351,345	354,462
	시도의 %	.9%	99.1%	100.0%
경북	빈도	1,827	258,844	260,671
	시도의 %	.7%	99.3%	100.0%
전남	빈도	1,500	194,437	195,937
	시도의 %	.8%	99.2%	100.0%
전북	빈도	1,616	200,403	202,019
	시도의 %	.8%	99.2%	100.0%
충남	빈도	1,771	203,740	205,511
	시도의 %	.9%	99.1%	100.0%
충북	빈도	1,572	163,235	164,807
	시도의 %	1.0%	99.0%	100.0%
제주도	빈도	507	64,720	65,227
	시도의 %	.8%	99.2%	100.0%
전체	빈도	41,851	5,196,739	5,238,590
	시도의 %	.8%	99.2%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7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이며(3.0%), 다음으로 전북(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8〉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06	7,867
	시도의 %	1.3%	98.7%
부산	빈도	0	2,790
	시도의 %	.0%	100.0%
인천	빈도	62	4,741
	시도의 %	1.3%	98.7%
대구	빈도	32	1,028
	시도의 %	3.0%	97.0%
대전	빈도	35	3,119
	시도의 %	1.1%	98.9%
광주	빈도	2	1,635
	시도의 %	.1%	99.9%
울산	빈도	7	1,959
	시도의 %	.4%	99.6%
강원도	빈도	66	6,388
	시도의 %	1.0%	99.0%
경기도	빈도	120	8,792
	시도의 %	1.3%	98.7%
경남	빈도	60	4,587
	시도의 %	1.3%	98.7%
경북	빈도	23	2,801
	시도의 %	.8%	99.2%
전남	빈도	34	2,848
	시도의 %	1.2%	98.8%
전북	빈도	86	3,997
	시도의 %	2.1%	97.9%
충남	빈도	40	3,087
	시도의 %	1.3%	98.7%
충북	빈도	1	1,737
	시도의 %	.1%	99.9%
제주도	빈도	0	1,643
	시도의 %	.0%	100.0%
전체	빈도	674	59,019
	시도의 %	1.1%	98.9%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7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8%, 여학생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9〉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3,167	2,741,388	2,764,555
	성별의 %	.8%	99.2%	100.0%
여	빈도	18,685	2,455,350	2,474,035
	성별의 %	.8%	99.2%	100.0%
전체	빈도	41,852	5,196,738	5,238,590
	성별의 %	.8%	99.2%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8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1%, 여학생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0〉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435	38,741	39,176
	성별의 %	1.1%	98.9%	100.0%
여	빈도	238	20,279	20,517
	성별의 %	1.2%	98.8%	100.0%
전체	빈도	673	59,020	59,693
	성별의 %	1.1%	98.9%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8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1.4%, 중학교 0.7%, 전문계 고등학교 0.6%, 인문계 고등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1〉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7,552	1,248,274	1,265,826
	학교의 %	1.4%	98.6%	100.0%
중학교	빈도	14,630	1,992,342	2,006,972
	학교의 %	.7%	99.3%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6,539	1,473,561	1,480,100
	학교의 %	.4%	99.6%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3,130	482,562	485,692
	학교의 %	.6%	99.4%	100.0%
전체	빈도	41,851	5,196,739	5,238,590
	학교의 %	.8%	99.2%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8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비율은 2.0%, 소년원 학교 1.8%, 다니지 않음 1.8%, 중학교 1.3%, 검정고시 학원 1.2%, 인문계 고등학교 0.7%, 전문계 고등학교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78	3,886	3,964
	학교맞기관 의 %	2.0%	98.0%	100.0%
중학교	빈도	223	16,767	16,990
	학교맞기관 의 %	1.3%	98.7%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48	7,150	7,198
	학교맞기관 의 %	.7%	99.3%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37	12,619	12,656
	학교맞기관 의 %	.3%	99.7%	100.0%
대안학교	빈도	0	975	975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35	2,811	2,846
	학교맞기관 의 %	1.2%	98.8%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0	500	500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26	1,420	1,446
	학교맞기관 의 %	1.8%	98.2%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226	12,667	12,893
	학교맞기관 의 %	1.8%	98.2%	100.0%
전체	빈도	673	59,020	59,693
	학교맞기관 의 %	1.1%	98.9%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8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5학년은 1.4%, 초등학교 6학년은 1.4%, 중학교 1학년 1.1%, 중학교 2학년 0.7%, 중학교 3학년 0.5%, 고등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8,674	609,897	618,571
	학년의 %	1.4%	98.6%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8,879	638,376	647,255
	학년의 %	1.4%	98.6%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6,952	649,620	656,572
	학년의 %	1.1%	98.9%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4,434	672,453	676,887
	학년의 %	.7%	99.3%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3,245	670,268	673,513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350	666,690	670,040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504	657,912	661,416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2,815	631,521	634,336
	학년의 %	.4%	99.6%	100.0%
전체	빈도	41,853	5,196,737	5,238,590
	학년의 %	.8%	99.2%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8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6학년은 2.9%, 초등학교 5학년은 2.0%, 중학교 3학년 1.8%, 해당없음 1.5%, 중학교 2학년 1.3%, 고등학교 3학년 0.6%, 중고등학교 1학년 0.5%, 학교 1학년 0.2%, 고등학교 2학년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4〉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37	1,831	1,868
	학년의 %	2.0%	98.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62	2,084	2,146
	학년의 %	2.9%	97.1%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7	4,009	4,016
	학년의 %	.2%	99.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81	6,192	6,273
	학년의 %	1.3%	98.7%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35	7,362	7,497
	학년의 %	1.8%	98.2%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8	8,202	8,238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6	6,499	6,515
	학년의 %	.2%	99.8%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3	5,489	5,522
	학년의 %	.6%	99.4%	100.0%
해당없음	빈도	264	17,354	17,618
	학년의 %	1.5%	98.5%	100.0%
전체	빈도	673	59,020	59,693
	학년의 %	1.1%	98.9%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8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1%, ‘매우 잘 사는 편’ 2.1%, ‘어려운 편’ 1.1%, ‘잘 사는 편’ 0.9%, ‘보통이다’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5〉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444	83,536	87,980
	경제수준의 %	5.1%	94.9%	100.0%
어려운편	빈도	7,600	663,283	670,883
	경제수준의 %	1.1%	98.9%	100.0%
보통	빈도	20,224	3,512,738	3,532,962
	경제수준의 %	.6%	99.4%	100.0%
잘 사는편	빈도	7,125	822,885	830,010
	경제수준의 %	.9%	99.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459	114,296	116,755
	경제수준의 %	2.1%	97.9%	100.0%
전체	빈도	41,852	5,196,738	5,238,590
	경제수준의 %	.8%	99.2%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8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6%, ‘어려운 편’ 1.5%, ‘잘 사는 편’ 0.7%, ‘보통이다’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6〉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거의 매일)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210	5,555	5,765
	경제수준의 %	3.6%	96.4%	100.0%
어려운편	빈도	278	18,384	18,662
	경제수준의 %	1.5%	98.5%	100.0%
보통	빈도	161	31,269	31,430
	경제수준의 %	.5%	99.5%	100.0%
잘 사는편	빈도	23	3,136	3,159
	경제수준의 %	.7%	99.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0	677	677
	경제수준의 %	.0%	100.0%	100.0%
전체	빈도	672	59,021	59,693
	경제수준의 %	1.1%	98.9%	100.0%



사.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1) 전체

가) 일반학생

〈표 18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 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9%이며, 1수준 비율은 21.5%, 2수준은 8.5%, 3수준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7〉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3,602	49,668	63,270
	결과 %	21.5%	78.5%	100.0%
2수준	빈도	13,703	147,782	161,485
	결과 %	8.5%	91.5%	100.0%
3수준	빈도	17,722	203,024	220,746
	결과 %	8.0%	92.0%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499	4,209,49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45,027	5,193,563	5,238,590
	결과 %	.9%	99.1%	100.0%

〈표 18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 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9%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2.9%, 잠재적 위험군 1.9%, 일반군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8〉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3,602	91,703	105,305
	결과 %	12.9%	87.1%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3,703	689,337	703,040
	결과 %	1.9%	98.1%	100.0%
일반군	빈도	17,722	4,412,523	4,430,245
	결과 %	.4%	99.6%	100.0%
전체	빈도	45,027	5,193,563	5,238,590
	결과 %	.9%	99.1%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8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4%이며, 1수준 비율은 15.2%, 2수준은 3.4%, 3수준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9〉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448	8,048	9,496
	결과 %	15.2%	84.8%	100.0%
2수준	빈도	354	9,962	10,316
	결과 %	3.4%	96.6%	100.0%
3수준	빈도	211	10,088	10,299
	결과 %	2.0%	98.0%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7	22,567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013	57,680	59,693
	결과 %	3.4%	96.6%	100.0%

〈표 19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3.7%, 잠재적 위험군 2.2%, 일반군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0〉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448	9,085	10,533
	결과 %	13.7%	86.3%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354	15,939	16,293
	결과 %	2.2%	97.8%	100.0%
일반군	빈도	211	32,656	32,867
	결과 %	.6%	99.4%	100.0%
전체	빈도	2,013	57,680	59,693
	결과 %	3.4%	96.6%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19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과 강원도(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1〉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9,059	932,628	941,687
	시도의 %	1.0%	99.0%	100.0%
부산	빈도	2,798	351,680	354,478
	시도의 %	.8%	99.2%	100.0%
인천	빈도	2,072	298,454	300,526
	시도의 %	.7%	99.3%	100.0%
대구	빈도	1,991	285,046	287,037
	시도의 %	.7%	99.3%	100.0%
대전	빈도	1,856	171,968	173,824
	시도의 %	1.1%	98.9%	100.0%
광주	빈도	1,929	180,687	182,616
	시도의 %	1.1%	98.9%	100.0%
울산	빈도	1,715	137,479	139,194
	시도의 %	1.2%	98.8%	100.0%
강원도	빈도	1,825	151,958	153,783
	시도의 %	1.2%	98.8%	100.0%
경기도	빈도	10,088	1,246,723	1,256,811
	시도의 %	.8%	99.2%	100.0%
경남	빈도	2,885	351,577	354,462
	시도의 %	.8%	99.2%	100.0%
경북	빈도	2,021	258,650	260,671
	시도의 %	.8%	99.2%	100.0%
전남	빈도	1,350	194,587	195,937
	시도의 %	.7%	99.3%	100.0%
전북	빈도	1,934	200,085	202,019
	시도의 %	1.0%	99.0%	100.0%
충남	빈도	1,791	203,720	205,511
	시도의 %	.9%	99.1%	100.0%
충북	빈도	1,347	163,460	164,807
	시도의 %	.8%	99.2%	100.0%
제주도	빈도	364	64,863	65,227
	시도의 %	.6%	99.4%	100.0%
전체	빈도	45,025	5,193,565	5,238,590
	시도의 %	.9%	99.1%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9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이며(11.3%), 다음으로 광주(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2〉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12	7,761	7,973
	시도의 %	2.7%	97.3%	100.0%
부산	빈도	8	2,782	2,790
	시도의 %	.3%	99.7%	100.0%
인천	빈도	176	4,627	4,803
	시도의 %	3.7%	96.3%	100.0%
대구	빈도	83	977	1,060
	시도의 %	7.8%	92.2%	100.0%
대전	빈도	45	3,109	3,154
	시도의 %	1.4%	98.6%	100.0%
광주	빈도	137	1,500	1,637
	시도의 %	8.4%	91.6%	100.0%
울산	빈도	158	1,808	1,966
	시도의 %	8.0%	92.0%	100.0%
강원도	빈도	170	6,284	6,454
	시도의 %	2.6%	97.4%	100.0%
경기도	빈도	396	8,516	8,912
	시도의 %	4.4%	95.6%	100.0%
경남	빈도	112	4,535	4,647
	시도의 %	2.4%	97.6%	100.0%
경북	빈도	0	2,824	2,824
	시도의 %	.0%	100.0%	100.0%
전남	빈도	325	2,557	2,882
	시도의 %	11.3%	88.7%	100.0%
전북	빈도	68	4,015	4,083
	시도의 %	1.7%	98.3%	100.0%
충남	빈도	104	3,023	3,127
	시도의 %	3.3%	96.7%	100.0%
충북	빈도	10	1,728	1,738
	시도의 %	.6%	99.4%	100.0%
제주도	빈도	9	1,634	1,643
	시도의 %	.5%	99.5%	100.0%
전체	빈도	2,013	57,680	59,693
	시도의 %	3.4%	96.6%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19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3%, 여학생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3〉 일반학생 성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36,406	2,728,149	2,764,555
	성별의 %	1.3%	98.7%	100.0%
여	빈도	8,621	2,465,414	2,474,035
	성별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45,027	5,193,563	5,238,590
	성별의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9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3.4%, 여학생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4〉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338	37,838	39,176
	성별의 %	3.4%	96.6%	100.0%
여	빈도	674	19,843	20,517
	성별의 %	3.3%	96.7%	100.0%
전체	빈도	2,012	57,681	59,693
	성별의 %	3.4%	96.6%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19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1.0%, 인문계 고등학교 0.9%, 전문계 고등학교 0.9%, 초등학교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5〉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8,512	1,257,314	1,265,826
	학교의 %	.7%	99.3%	100.0%
중학교	빈도	19,320	1,987,652	2,006,972
	학교의 %	1.0%	99.0%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2,897	1,467,203	1,480,100
	학교의 %	.9%	99.1%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4,298	481,394	485,692
	학교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45,027	5,193,563	5,238,590
	학교의 %	.9%	99.1%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9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11.0%, 검정고시 학원 5.3%, 다니지 않음 4.5%, 소년원 학교 4.4%, 중학교 4.4%, 대안학교 3.6%, 직업학교 3.1%, 전문계 고등학교 2.0%, 인문계 고등학교 1.2%, 초등학교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6〉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4	3,930	3,964
	학교맞기관 의 %	.9%	99.1%	100.0%
중학교	빈도	756	16,234	16,990
	학교맞기관 의 %	4.4%	95.6%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85	7,113	7,198
	학교맞기관 의 %	1.2%	98.8%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47	12,409	12,656
	학교맞기관 의 %	2.0%	98.0%	100.0%
대안학교	빈도	35	940	975
	학교맞기관 의 %	3.6%	96.4%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152	2,694	2,846
	학교맞기관 의 %	5.3%	94.7%	100.0%
직업학교	빈도	7	219	226
	학교맞기관 의 %	3.1%	96.9%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55	445	500
	학교맞기관 의 %	11.0%	89.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64	1,382	1,446
	학교맞기관 의 %	4.4%	95.6%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577	12,315	12,892
	학교맞기관 의 %	4.5%	95.5%	100.0%
전체	빈도	2,012	57,681	59,693
	학교맞기관 의 %	3.4%	96.6%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19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2학년 1.1%, 중학교 1학년 1.0%, 고등학교 1학년 0.9%, 고등학교 2학년 0.9%, 고등학교 3학년 0.9%, 초등학교 6학년 0.8%, 중학교 3학년 0.8%, 초등학교 5학년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7〉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3,210	615,361	618,571
	학년의 %	.5%	99.5%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5,302	641,953	647,255
	학년의 %	.8%	99.2%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6,651	649,921	656,572
	학년의 %	1.0%	99.0%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7,191	669,696	676,887
	학년의 %	1.1%	98.9%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5,478	668,035	673,513
	학년의 %	.8%	99.2%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5,860	664,180	670,040
	학년의 %	.9%	99.1%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5,804	655,612	661,416
	학년의 %	.9%	99.1%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5,530	628,806	634,336
	학년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45,026	5,193,564	5,238,590
	학년의 %	.9%	99.1%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19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3학년 6.4%, 해당없음 4.6%, 중학교 2학년 4.5%, 고등학교 1학년 2.1%, 중학교 1학년 1.8%, 초등학교 6학년 1.6%, 고등학교 3학년 1.4%, 고등학교 2학년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1,868
	학년의 %	.0%	100.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34	2,112	2,146
	학년의 %	1.6%	98.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71	3,945	4,016
	학년의 %	1.8%	98.2%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284	5,989	6,273
	학년의 %	4.5%	95.5%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479	7,018	7,497
	학년의 %	6.4%	93.6%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73	8,065	8,238
	학년의 %	2.1%	97.9%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85	6,430	6,515
	학년의 %	1.3%	98.7%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79	5,443	5,522
	학년의 %	1.4%	98.6%	100.0%
해당없음	빈도	807	16,811	17,618
	학년의 %	4.6%	95.4%	100.0%
전체	빈도	2,012	57,681	59,693
	학년의 %	3.4%	96.6%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19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 ‘매우 잘 사는 편’ 2.4%, ‘어려운 편’ 0.9%, ‘잘 사는 편’ 0.9%, ‘보통이다’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5,206	82,774	87,980
	경제수준의 %	5.9%	94.1%	100.0%
어려운편	빈도	6,352	664,531	670,883
	경제수준의 %	.9%	99.1%	100.0%
보통	빈도	23,502	3,509,460	3,532,962
	경제수준의 %	.7%	99.3%	100.0%
잘 사는편	빈도	7,222	822,788	830,010
	경제수준의 %	.9%	99.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745	114,010	116,755
	경제수준의 %	2.4%	97.6%	100.0%
전체	빈도	45,027	5,193,563	5,238,590
	경제수준의 %	.9%	99.1%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0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2%, ‘잘 사는 편’ 3.7%, ‘어려운 편’ 3.5%, ‘보통이다’ 2.7%, ‘매우 잘 사는 편’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0〉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59	5,406	5,765
	경제수준의 %	6.2%	93.8%	100.0%
어려운편	빈도	659	18,003	18,662
	경제수준의 %	3.5%	96.5%	100.0%
보통	빈도	862	30,568	31,430
	경제수준의 %	2.7%	97.3%	100.0%
잘 사는편	빈도	117	3,042	3,159
	경제수준의 %	3.7%	96.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6	661	677
	경제수준의 %	2.4%	97.6%	100.0%
전체	빈도	2,013	57,680	59,693
	경제수준의 %	3.4%	96.6%	100.0%

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1) 전체

가) 일반학생

〈표 201〉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5%이며, 1수준 비율은 16.9%, 2수준은 3.789%, 3수준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0,697	52,573	63,270
	결과 %	16.9%	83.1%	100.0%
2수준	빈도	6,060	155,425	161,485
	결과 %	3.8%	96.2%	100.0%
3수준	빈도	6,990	213,755	220,745
	결과 %	3.2%	96.8%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3,747	5,214,843	5,238,590
	결과 %	.5%	99.5%	100.0%

〈표 202〉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5%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0.2%, 잠재적 위험군 0.9%, 일반군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2〉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0,697	94,608	105,305
	결과 %	10.2%	89.8%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6,060	696,980	703,040
	결과 %	.9%	99.1%	100.0%
일반군	빈도	6,990	4,423,255	4,430,245
	결과 %	.2%	99.8%	100.0%
전체	빈도	23,747	5,214,843	5,238,590
	결과 %	.5%	99.5%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03〉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4.0%이며, 1수준 비율은 17.3%, 2수준은 5.0%, 3수준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3〉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647	7,849	9,496
	결과 %	17.3%	82.7%	100.0%
2수준	빈도	515	9,800	10,315
	결과 %	5.0%	95.0%	100.0%
3수준	빈도	242	10,057	10,299
	결과 %	2.3%	97.7%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8	22,568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404	57,289	59,693
	결과 %	4.0%	96.0%	100.0%

〈표 204〉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4.0%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5.6%, 잠재적 위험군 3.2%, 일반군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4〉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647	8,886	10,533
	결과 %	15.6%	84.4%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515	15,778	16,293
	결과 %	3.2%	96.8%	100.0%
일반군	빈도	242	32,625	32,867
	결과 %	.7%	99.3%	100.0%
전체	빈도	2,404	57,289	59,693
	결과 %	4.0%	96.0%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05〉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과 제주도(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5〉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5,393	936,294	941,687
	시도의 %	.6%	99.4%	100.0%
부산	빈도	1,408	353,070	354,478
	시도의 %	.4%	99.6%	100.0%
인천	빈도	1,083	299,443	300,526
	시도의 %	.4%	99.6%	100.0%
대구	빈도	791	286,246	287,037
	시도의 %	.3%	99.7%	100.0%
대전	빈도	966	172,858	173,824
	시도의 %	.6%	99.4%	100.0%
광주	빈도	996	181,620	182,616
	시도의 %	.5%	99.5%	100.0%
울산	빈도	1,026	138,168	139,194
	시도의 %	.7%	99.3%	100.0%
강원도	빈도	803	152,980	153,783
	시도의 %	.5%	99.5%	100.0%
경기도	빈도	5,022	1,251,789	1,256,811
	시도의 %	.4%	99.6%	100.0%
경남	빈도	1,796	352,666	354,462
	시도의 %	.5%	99.5%	100.0%
경북	빈도	880	259,791	260,671
	시도의 %	.3%	99.7%	100.0%
전남	빈도	707	195,230	195,937
	시도의 %	.4%	99.6%	100.0%
전북	빈도	1,013	201,006	202,019
	시도의 %	.5%	99.5%	100.0%
충남	빈도	975	204,536	205,511
	시도의 %	.5%	99.5%	100.0%
충북	빈도	438	164,369	164,807
	시도의 %	.3%	99.7%	100.0%
제주도	빈도	449	64,778	65,227
	시도의 %	.7%	99.3%	100.0%
전체	빈도	23,746	5,214,844	5,238,590
	시도의 %	.5%	99.5%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06〉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7.4%), 다음으로 대구(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6〉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42	7,731	7,973
	시도의 %	3.0%	97.0%	100.0%
부산	빈도	41	2,749	2,790
	시도의 %	1.5%	98.5%	100.0%
인천	빈도	298	4,505	4,803
	시도의 %	6.2%	93.8%	100.0%
대구	빈도	76	984	1,060
	시도의 %	7.2%	92.8%	100.0%
대전	빈도	117	3,037	3,154
	시도의 %	3.7%	96.3%	100.0%
광주	빈도	121	1,516	1,637
	시도의 %	7.4%	92.6%	100.0%
울산	빈도	129	1,837	1,966
	시도의 %	6.6%	93.4%	100.0%
강원도	빈도	73	6,381	6,454
	시도의 %	1.1%	98.9%	100.0%
경기도	빈도	607	8,305	8,912
	시도의 %	6.8%	93.2%	100.0%
경남	빈도	151	4,496	4,647
	시도의 %	3.2%	96.8%	100.0%
경북	빈도	0	2,824	2,824
	시도의 %	.0%	100.0%	100.0%
전남	빈도	191	2,691	2,882
	시도의 %	6.6%	93.4%	100.0%
전북	빈도	161	3,922	4,083
	시도의 %	3.9%	96.1%	100.0%
충남	빈도	111	3,016	3,127
	시도의 %	3.5%	96.5%	100.0%
충북	빈도	42	1,696	1,738
	시도의 %	2.4%	97.6%	100.0%
제주도	빈도	42	1,601	1,643
	시도의 %	2.6%	97.4%	100.0%
전체	빈도	2,402	57,291	59,693
	시도의 %	4.0%	96.0%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07〉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6%, 여학생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7〉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6,864	2,747,691	2,764,555
	성별의 %	.6%	99.4%	100.0%
여	빈도	6,883	2,467,152	2,474,035
	성별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23,747	5,214,843	5,238,590
	성별의 %	.5%	99.5%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08〉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4.1%, 여학생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8〉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622	37,554	39,176
	성별의 %	4.1%	95.9%	100.0%
여	빈도	782	19,735	20,517
	성별의 %	3.8%	96.2%	100.0%
전체	빈도	2,404	57,289	59,693
	성별의 %	4.0%	96.0%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09〉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학교 비율로, 초등학교 비율은 0.3%, 중학교는 0.5%, 인문계 고등학교는 0.6%, 전문계 고등학교는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9〉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170	1,262,656	1,265,826
	학교의 %	.3%	99.7%	100.0%
중학교	빈도	9,658	1,997,314	2,006,972
	학교의 %	.5%	99.5%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8,174	1,471,926	1,480,100
	학교의 %	.6%	99.4%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745	482,947	485,692
	학교의 %	.6%	99.4%	100.0%
전체	빈도	23,747	5,214,843	5,238,590
	학교의 %	.5%	99.5%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10〉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20.0%, 소년원 학교 10.6%, 검정고시 학원 7.7%, 다니지 않음 7.3%, 대안학교 3.6%, 중학교 3.4%, 전문계 고등학교는 2.4%, 초등학교 0.9%, 인문계 고등학교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4	3,930	3,964
	학교맞기관 의 %	.9%	99.1%	100.0%
중학교	빈도	574	16,416	16,990
	학교맞기관 의 %	3.4%	96.6%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44	7,154	7,198
	학교맞기관 의 %	.6%	99.4%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98	12,358	12,656
	학교맞기관 의 %	2.4%	97.6%	100.0%
대안학교	빈도	35	940	975
	학교맞기관 의 %	3.6%	96.4%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20	2,626	2,846
	학교맞기관 의 %	7.7%	92.3%	100.0%
직업학교	빈도	1	225	226
	학교맞기관 의 %	.4%	99.6%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100	400	500
	학교맞기관 의 %	20.0%	80.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53	1293	1,446
	학교맞기관 의 %	10.6%	89.4%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945	11,947	12,892
	학교맞기관 의 %	7.3%	92.7%	100.0%
전체	빈도	2,404	57,289	59,693
	학교맞기관 의 %	4.0%	96.0%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11〉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6%, 고등학교 3학년 0.6%, 중학교 2학년 0.5%, 중학교 3학년 0.5%, 고등학교 1학년 0.5%, 중학교 1학년 0.4%, 초등학교 6학년은 0.3%, 초등학교 5학년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545	617,026	618,571
	학년의 %	.2%	99.8%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625	645,630	647,255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2,908	653,664	656,572
	학년의 %	.4%	99.6%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3,554	673,333	676,887
	학년의 %	.5%	99.5%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3,195	670,318	673,513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071	666,969	670,040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4,009	657,407	661,416
	학년의 %	.6%	99.4%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839	630,497	634,336
	학년의 %	.6%	99.4%	100.0%
전체	빈도	23,746	5,214,844	5,238,590
	학년의 %	.5%	99.5%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12〉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7.8%, 중학교 2학년 5.0%, 고등학교 1학년 3.7%, 중학교 3학년 3.2%, 중학교 1학년 2.2%, 초등학교 6학년 1.6%, 고등학교 3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1,868
	학년의 %	.0%	100.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34	2,112	2,146
	학년의 %	1.6%	98.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90	3,926	4,016
	학년의 %	2.2%	97.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315	5,958	6,273
	학년의 %	5.0%	95.0%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242	7,255	7,497
	학년의 %	3.2%	96.8%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03	7,935	8,238
	학년의 %	3.7%	96.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7	6,498	6,515
	학년의 %	.3%	99.7%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28	5,494	5,522
	학년의 %	.5%	99.5%	100.0%
해당없음	빈도	1,375	16,243	17,618
	학년의 %	7.8%	92.2%	100.0%
전체	빈도	2,404	57,289	59,693
	학년의 %	4.0%	96.0%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13〉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 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3%, ‘매우 잘 사는 편’ 2.1%, ‘어려운 편’ 0.5%, ‘잘 사는 편’ 0.4%, ‘보통이다’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770	84,210	87,980
	경제수준의 %	4.3%	95.7%	100.0%
어려운편	빈도	3,081	667,802	670,883
	경제수준의 %	.5%	99.5%	100.0%
보통	빈도	11,367	3,521,595	3,532,962
	경제수준의 %	.3%	99.7%	100.0%
잘 사는편	빈도	3,068	826,942	830,01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460	114,295	116,755
	경제수준의 %	2.1%	97.9%	100.0%
전체	빈도	23,746	5,214,844	5,238,590
	경제수준의 %	.5%	99.5%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14〉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4%, ‘어려운 편’ 4.7%, ‘잘 사는 편’ 4.5%, ‘보통이다’ 3.2%, ‘매우 잘 사는 편’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70	5,395	5,765
	경제수준의 %	6.4%	93.6%	100.0%
어려운편	빈도	868	17,794	18,662
	경제수준의 %	4.7%	95.3%	100.0%
보통	빈도	1,020	30,410	31,430
	경제수준의 %	3.2%	96.8%	100.0%
잘 사는편	빈도	143	3,016	3,159
	경제수준의 %	4.5%	95.5%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	675	677
	경제수준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2,403	57,290	59,693
	경제수준의 %	4.0%	96.0%	100.0%

## 자.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215〉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1수준 비율은 16.6%, 2수준은 3.0%, 3수준은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0,501	52,769	63,270
	결과 %	16.6%	83.4%	100.0%
2수준	빈도	4,897	156,588	161,485
	결과 %	3.0%	97.0%	100.0%
3수준	빈도	3,900	216,845	220,745
	결과 %	1.8%	98.2%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9,298	5,219,292	5,238,590
	결과 %	.4%	99.6%	100.0%

〈표 216〉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0.0%, 잠재적 위험군 0.7%, 일반군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0,501	94,804	105,305
	결과 %	10.0%	90.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4,897	698,143	703,040
	결과 %	.7%	99.3%	100.0%
일반군	빈도	3,900	4,426,345	4,430,245
	결과 %	.1%	99.9%	100.0%
전체	빈도	19,298	5,219,292	5,238,590
	결과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17〉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9%이며, 1수준 비율은 17.2%, 2수준은 5.1%, 3수준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630	7,866	9,496
	결과 %	17.2%	82.8%	100.0%
2수준	빈도	528	9,787	10,315
	결과 %	5.1%	94.9%	100.0%
3수준	빈도	164	10,135	10,299
	결과 %	1.6%	98.4%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8	22,568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322	57,371	59,693
	결과 %	3.9%	96.1%	100.0%

〈표 218〉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3.9%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5.5%, 잠재적 위험군 3.2%, 일반군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630	8,904	10,534
	결과 %	15.5%	84.5%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528	15,765	16,293
	결과 %	3.2%	96.8%	100.0%
일반군	빈도	164	32,702	32,866
	결과 %	.5%	99.5%	100.0%
전체	빈도	2,322	57,371	59,693
	결과 %	3.9%	96.1%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19〉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0.8%), 다음으로 강원도(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3,935	937,752	941,687
	시도의 %	.4%	99.6%	100.0%
부산	빈도	1,095	353,383	354,478
	시도의 %	.3%	99.7%	100.0%
인천	빈도	987	299,539	300,526
	시도의 %	.3%	99.7%	100.0%
대구	빈도	797	286,240	287,037
	시도의 %	.3%	99.7%	100.0%
대전	빈도	590	173,234	173,824
	시도의 %	.3%	99.7%	100.0%
광주	빈도	802	181,814	182,616
	시도의 %	.4%	99.6%	100.0%
울산	빈도	1,140	138,054	139,194
	시도의 %	.8%	99.2%	100.0%
강원도	빈도	1,039	152,744	153,783
	시도의 %	.7%	99.3%	100.0%
경기도	빈도	4,344	1,252,467	1,256,811
	시도의 %	.3%	99.7%	100.0%
경남	빈도	1,318	353,144	354,462
	시도의 %	.4%	99.6%	100.0%
경북	빈도	320	260,351	260,671
	시도의 %	.1%	99.9%	100.0%
전남	빈도	892	195,045	195,937
	시도의 %	.5%	99.5%	100.0%
전북	빈도	869	201,150	202,019
	시도의 %	.4%	99.6%	100.0%
충남	빈도	541	204,970	205,511
	시도의 %	.3%	99.7%	100.0%
충북	빈도	453	164,354	164,807
	시도의 %	.3%	99.7%	100.0%
제주도	빈도	175	65,052	65,227
	시도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19,297	5,219,293	5,238,590
	시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20〉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11.2%), 다음으로 전남(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0〉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318	7,653	7,973
	시도의 %	4.0%	96.0%	100.0%
부산	빈도	16	2,774	2,790
	시도의 %	.6%	99.4%	100.0%
인천	빈도	302	4,501	4,803
	시도의 %	6.3%	93.7%	100.0%
대구	빈도	74	986	1,060
	시도의 %	7.0%	93.0%	100.0%
대전	빈도	102	3,052	3,154
	시도의 %	3.2%	96.8%	100.0%
광주	빈도	184	1,453	1,637
	시도의 %	11.2%	88.8%	100.0%
울산	빈도	79	1,887	1,966
	시도의 %	4.0%	96.0%	100.0%
강원도	빈도	29	6,425	6,454
	시도의 %	.4%	99.6%	100.0%
경기도	빈도	456	8,456	8,912
	시도의 %	5.1%	94.9%	100.0%
경남	빈도	194	4,453	4,647
	시도의 %	4.2%	95.8%	100.0%
경북	빈도	62	2,762	2,824
	시도의 %	2.2%	97.8%	100.0%
전남	빈도	225	2,657	2,882
	시도의 %	7.8%	92.2%	100.0%
전북	빈도	180	3,903	4,083
	시도의 %	4.4%	95.6%	100.0%
충남	빈도	90	3,037	3,127
	시도의 %	2.9%	97.1%	100.0%
충북	빈도	5	1,733	1,738
	시도의 %	.3%	99.7%	100.0%
제주도	빈도	5	1,638	1,643
	시도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2,321	57,372	59,693
	시도의 %	3.9%	96.1%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21〉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5%,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4,620	2,749,935	2,764,555
	성별의 %	.5%	99.5%	100.0%
여	빈도	4,678	2,469,357	2,474,035
	성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19,298	5,219,292	5,238,590
	성별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22〉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3.2%, 여학생은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251	37,925	39,176
	성별의 %	3.2%	96.8%	100.0%
여	빈도	1,070	19,447	20,517
	성별의 %	5.2%	94.8%	100.0%
전체	빈도	2,321	57,372	59,693
	성별의 %	3.9%	96.1%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23〉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는 0.6%, 인문계 고등학교는 0.5%, 중학교는 0.4%, 초등학교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2,066	1,263,760	1,265,826
	학교의 %	.2%	99.8%	100.0%
중학교	빈도	7,511	1,999,461	2,006,972
	학교의 %	.4%	99.6%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6,879	1,473,221	1,480,100
	학교의 %	.5%	99.5%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841	482,851	485,692
	학교의 %	.6%	99.4%	100.0%
전체	빈도	19,297	5,219,293	5,238,590
	학교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24〉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14.2%, 소년원 학교 9.5%, 대안학교 7.7%, 다니지 않음 6.5%, 검정고시 학원 6.0%, 중학교 3.7%, 직업학교 3.1%, 전문계 고등학교 2.3%, 인문계 고등학교 1.2%, 초등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6	3,948	3,964
	학교맞기관 의 %	.4%	99.6%	100.0%
중학교	빈도	633	16,357	16,990
	학교맞기관 의 %	3.7%	96.3%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83	7,115	7,198
	학교맞기관 의 %	1.2%	98.8%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96	12,360	12,656
	학교맞기관 의 %	2.3%	97.7%	100.0%
대안학교	빈도	75	900	975
	학교맞기관 의 %	7.7%	92.3%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170	2,676	2,846
	학교맞기관 의 %	6.0%	94.0%	100.0%
직업학교	빈도	7	219	226
	학교맞기관 의 %	3.1%	96.9%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71	429	500
	학교맞기관 의 %	14.2%	85.8%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38	1,308	1,446
	학교맞기관 의 %	9.5%	90.5%	100.0%
다리지 않음	빈도	832	12,060	12,892
	학교맞기관 의 %	6.5%	93.5%	100.0%
전체	빈도	2,321	57,372	59,693
	학교맞기관 의 %	3.9%	96.1%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25〉는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5%, 중학교 2학년 0.3%, 중학교 3학년 0.3%, 초등학교 6학년 0.2%, 초등학교 5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777	617,794	618,571
	학년의 %	.1%	99.9%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290	645,965	647,255
	학년의 %	.2%	99.8%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3,068	653,504	656,572
	학년의 %	.5%	99.5%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2,311	674,576	676,887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2,133	671,380	673,513
	학년의 %	.3%	99.7%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186	666,854	670,040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335	658,081	661,416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199	631,137	634,336
	학년의 %	.5%	99.5%	100.0%
전체	빈도	19,299	5,219,291	5,238,590
	학년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26〉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6.6%, 중학교 3학년 5.0%, 중학교 2학년 4.2%, 고등학교 1학년 3.6%, 중학교 1학년 1.9%, 고등학교 2학년 1.5%, 초등학교 5학년은 0.9%, 고등학교 3학년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6〉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6	1,852
	학년의 %	.9%	99.1%
초등학교6학년	빈도	0	2,146
	학년의 %	.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76	3,940
	학년의 %	1.9%	98.1%
중학교2학년	빈도	264	6,009
	학년의 %	4.2%	95.8%
중학교3학년	빈도	376	7,121
	학년의 %	5.0%	95.0%
고등학교1학년	빈도	294	7,944
	학년의 %	3.6%	96.4%
고등학교2학년	빈도	95	6,420
	학년의 %	1.5%	98.5%
고등학교3학년	빈도	29	5,493
	학년의 %	.5%	99.5%
해당없음	빈도	1,171	16,447
	학년의 %	6.6%	93.4%
전체	빈도	2,321	57,372
	학년의 %	3.9%	96.1%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27〉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4%, ‘매우 잘 사는 편’ 2.2%, ‘어려운 편’ 0.3%, ‘잘 사는 편’ 0.3%, ‘보통이다’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865	84,115	87,980
	경제수준의 %	4.4%	95.6%	100.0%
어려운편	빈도	2,290	668,593	670,883
	경제수준의 %	.3%	99.7%	100.0%
보통	빈도	7,899	3,525,063	3,532,962
	경제수준의 %	.2%	99.8%	100.0%
잘 사는편	빈도	2,629	827,381	830,010
	경제수준의 %	.3%	99.7%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2,616	114,139	116,755
	경제수준의 %	2.2%	97.8%	100.0%
전체	빈도	19,299	5,219,291	5,238,59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28〉은 위기결과 문항 중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7.1%, '어려운 편' 4.4%, '잘 사는 편' 3.3%, '보통이다' 3.1%, '매우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09	5,356	5,765
	경제수준의 %	7.1%	92.9%	100.0%
어려운편	빈도	823	17,839	18,662
	경제수준의 %	4.4%	95.6%	100.0%
보통	빈도	985	30,445	31,430
	경제수준의 %	3.1%	96.9%	100.0%
잘 사는편	빈도	103	3,056	3,159
	경제수준의 %	3.3%	96.7%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	676	677
	경제수준의 %	.1%	99.9%	100.0%
전체	빈도	2,321	57,372	59,693
	경제수준의 %	3.9%	96.1%	100.0%

## 차.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22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7%이며, 1수준 비율은 40.8%, 2수준은 24.1%, 3수준은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25,807	37,463	63,270
	결과 %	40.8%	59.2%	100.0%
2수준	빈도	38,865	122,620	161,485
	결과 %	24.1%	75.9%	100.0%
3수준	빈도	26,474	194,271	220,745
	결과 %	12.0%	88.0%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91,146	5,147,444	5,238,590
	결과 %	1.7%	98.3%	100.0%

〈표 23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7%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24.5%, 잠재적 위험군 5.5%, 일반군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25,807	79,497	105,304
	결과 %	24.5%	75.5%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38,865	664,174	703,039
	결과 %	5.5%	94.5%	100.0%
일반군	빈도	26,474	4,403,773	4,430,247
	결과 %	.6%	99.4%	100.0%
전체	빈도	91,146	5,147,444	5,238,590
	결과 %	1.7%	98.3%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3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 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4.4%이며, 1수준 비율은 18.3%, 2수준은 8.5%, 3수준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742	7,754	9,496
	결과 %	18.3%	81.7%	100.0%
2수준	빈도	874	9,441	10,315
	결과 %	8.5%	91.5%	100.0%
3수준	빈도	18	10,281	10,299
	결과 %	.2%	99.8%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8	22,568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634	57,059	59,693
	결과 %	4.4%	95.6%	100.0%

〈표 23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4.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6.5%, 잠재적 위험군 5.4%, 일반군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742	8,791	10,533
	결과 %	16.5%	83.5%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874	15,418	16,292
	결과 %	5.4%	94.6%	100.0%
일반군	빈도	18	32,850	32,868
	결과 %	.1%	99.9%	100.0%
전체	빈도	2,634	57,059	59,693
	결과 %	4.4%	95.6%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3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도이며(2.8%), 다음으로 충남(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일반학생의 시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7,829	923,858	941,687
	시도의 %	1.9%	98.1%	100.0%
부산	빈도	4,440	350,038	354,478
	시도의 %	1.3%	98.7%	100.0%
인천	빈도	6,415	294,111	300,526
	시도의 %	2.1%	97.9%	100.0%
대구	빈도	3,815	283,222	287,037
	시도의 %	1.3%	98.7%	100.0%
대전	빈도	3,179	170,645	173,824
	시도의 %	1.8%	98.2%	100.0%
광주	빈도	2,651	179,965	182,616
	시도의 %	1.5%	98.5%	100.0%
울산	빈도	2,607	136,587	139,194
	시도의 %	1.9%	98.1%	100.0%
강원도	빈도	3,213	150,570	153,783
	시도의 %	2.1%	97.9%	100.0%
경기도	빈도	20,686	1,236,125	1,256,811
	시도의 %	1.6%	98.4%	100.0%
경남	빈도	5,516	348,946	354,462
	시도의 %	1.6%	98.4%	100.0%
경북	빈도	3,928	256,743	260,671
	시도의 %	1.5%	98.5%	100.0%
전남	빈도	3,512	192,425	195,937
	시도의 %	1.8%	98.2%	100.0%
전북	빈도	4,048	197,971	202,019
	시도의 %	2.0%	98.0%	100.0%
충남	빈도	4,441	201,070	205,511
	시도의 %	2.2%	97.8%	100.0%
충북	빈도	3,016	161,791	164,807
	시도의 %	1.8%	98.2%	100.0%
제주도	빈도	1,851	63,376	65,227
	시도의 %	2.8%	97.2%	100.0%
전체	빈도	91,147	5,147,443	5,238,590
	시도의 %	1.7%	98.3%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3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12.3%), 다음으로 서울(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4〉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685	7,288	7,973
	시도의 %	8.6%	91.4%	100.0%
부산	빈도	91	2,699	2,790
	시도의 %	3.3%	96.7%	100.0%
인천	빈도	83	4,720	4,803
	시도의 %	1.7%	98.3%	100.0%
대구	빈도	50	1,010	1,060
	시도의 %	4.7%	95.3%	100.0%
대전	빈도	133	3,021	3,154
	시도의 %	4.2%	95.8%	100.0%
광주	빈도	202	1,435	1,637
	시도의 %	12.3%	87.7%	100.0%
울산	빈도	136	1,830	1,966
	시도의 %	6.9%	93.1%	100.0%
강원도	빈도	167	6,287	6,454
	시도의 %	2.6%	97.4%	100.0%
경기도	빈도	528	8,384	8,912
	시도의 %	5.9%	94.1%	100.0%
경남	빈도	92	4,555	4,647
	시도의 %	2.0%	98.0%	100.0%
경북	빈도	73	2,751	2,824
	시도의 %	2.6%	97.4%	100.0%
전남	빈도	106	2,776	2,882
	시도의 %	3.7%	96.3%	100.0%
전북	빈도	44	4,039	4,083
	시도의 %	1.1%	98.9%	100.0%
충남	빈도	48	3,079	3,127
	시도의 %	1.5%	98.5%	100.0%
충북	빈도	62	1,676	1,738
	시도의 %	3.6%	96.4%	100.0%
제주도	빈도	133	1,510	1,643
	시도의 %	8.1%	91.9%	100.0%
전체	빈도	2,633	57,060	59,693
	시도의 %	4.4%	95.6%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3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3%, 여학생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5〉 일반학생 성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36,526	2,728,029	2,764,555
	성별의 %	1.3%	98.7%	100.0%
여	빈도	54,621	2,419,414	2,474,035
	성별의 %	2.2%	97.8%	100.0%
전체	빈도	91,147	5,147,443	5,238,590
	성별의 %	1.7%	98.3%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3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2.7%, 여학생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057	38,119	39,176
	성별의 %	2.7%	97.3%	100.0%
여	빈도	1,577	18,940	20,517
	성별의 %	7.7%	92.3%	100.0%
전체	빈도	2,634	57,059	59,693
	성별의 %	4.4%	95.6%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3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2.1%, 전문계 고등학교 2.1%, 인문계 고등학교 1.5%, 초등학교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7〉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5,774	1,250,052	1,265,826
	학교의 %	1.2%	98.8%	100.0%
중학교	빈도	43,146	1,963,826	2,006,972
	학교의 %	2.1%	97.9%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22,196	1,457,904	1,480,100
	학교의 %	1.5%	98.5%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0,030	475,662	485,692
	학교의 %	2.1%	97.9%	100.0%
전체	빈도	91,146	5,147,444	5,238,590
	학교의 %	1.7%	98.3%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3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소년원 학교 10.9%, 검정고시 학원 8.2%, 다니지 않음 7.1%, 직업훈련기관 5.8%, 대안학교 4.6%, 전문계 고등학교는 3.9%, 중학교 3.2%, 인문계 고등학교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0	3,964	3,964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중학교	빈도	538	16,452	16,990
	학교맞기관 의 %	3.2%	96.8%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230	6,968	7,198
	학교맞기관 의 %	3.2%	96.8%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491	12,165	12,656
	학교맞기관 의 %	3.9%	96.1%	100.0%
대안학교	빈도	45	930	975
	학교맞기관 의 %	4.6%	95.4%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33	2,613	2,846
	학교맞기관 의 %	8.2%	91.8%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29	471	500
	학교맞기관 의 %	5.8%	94.2%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58	1,288	1,446
	학교맞기관 의 %	10.9%	89.1%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909	11,983	12,892
	학교맞기관 의 %	7.1%	92.9%	100.0%
전체	빈도	2,633	57,060	59,693
	학교맞기관 의 %	4.4%	95.6%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3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2학년 2.5%, 중학교 1학년 2.1%, 고등학교 2학년 1.9%, 중학교 3학년 1.8%, 고등학교 1학년 1.7%, 초등학교 6학년 1.5%, 고등학교 3학년 1.3%, 초등학교 5학년 1.0%,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9〉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6,131	612,440	618,571
	학년의 %	1.0%	99.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9,643	637,612	647,255
	학년의 %	1.5%	98.5%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3,816	642,756	656,572
	학년의 %	2.1%	97.9%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17,181	659,706	676,887
	학년의 %	2.5%	97.5%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2,149	661,364	673,513
	학년의 %	1.8%	98.2%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1,403	658,637	670,040
	학년의 %	1.7%	98.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2,382	649,034	661,416
	학년의 %	1.9%	98.1%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8,441	625,895	634,336
	학년의 %	1.3%	98.7%	100.0%
전체	빈도	91,146	5,147,444	5,238,590
	학년의 %	1.7%	98.3%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4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 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7.0%, 중학교 2학년 5.2%, 고등학교 1학년 4.7%, 고등학교 3학년 3.1%, 고등학교 2학년 3.0%, 중학교 1학년 3.0%, 중학교 3학년 2.3%, 초등학교 5학년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21	1,847	1,868
	학년의 %	1.1%	98.9%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0	2,146	2,146
	학년의 %	.0%	100.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21	3,895	4,016
	학년의 %	3.0%	97.0%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326	5,947	6,273
	학년의 %	5.2%	94.8%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76	7,321	7,497
	학년의 %	2.3%	97.7%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88	7,850	8,238
	학년의 %	4.7%	95.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98	6,317	6,515
	학년의 %	3.0%	97.0%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69	5,353	5,522
	학년의 %	3.1%	96.9%	100.0%
해당없음	빈도	1,234	16,384	17,618
	학년의 %	7.0%	93.0%	100.0%
전체	빈도	2,633	57,060	59,693
	학년의 %	4.4%	95.6%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4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8.9%, ‘매우 잘 사는 편’ 3.3%, ‘어려운 편’ 2.9%, ‘보통이다’ 1.4%, ‘잘 사는 편’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7,809	80,171	87,980
	경제수준의 %	8.9%	91.1%	100.0%
어려운편	빈도	19,295	651,588	670,883
	경제수준의 %	2.9%	97.1%	100.0%
보통	빈도	49,133	3,483,829	3,532,962
	경제수준의 %	1.4%	98.6%	100.0%
잘 사는편	빈도	11,000	819,010	830,010
	경제수준의 %	1.3%	98.7%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3,910	112,845	116,755
	경제수준의 %	3.3%	96.7%	100.0%
전체	빈도	91,147	5,147,443	5,238,590
	경제수준의 %	1.7%	98.3%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4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0.8%, ‘어려운 편’ 4.7%, ‘잘 사는 편’ 3.7%, ‘보통이다’ 3.2%, ‘매우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2〉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624	5,141	5,765
	경제수준의 %	10.8%	89.2%	100.0%
어려운편	빈도	878	17,784	18,662
	경제수준의 %	4.7%	95.3%	100.0%
보통	빈도	1,014	30,416	31,430
	경제수준의 %	3.2%	96.8%	100.0%
잘 사는편	빈도	117	3,042	3,159
	경제수준의 %	3.7%	96.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	676	677
	경제수준의 %	.1%	99.9%	100.0%
전체	빈도	2,634	57,059	59,693
	경제수준의 %	4.4%	95.6%	100.0%



파.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1) 전체

가) 일반학생

〈표 24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2%이며, 1수준 비율은 48.2%, 2수준은 27.4%, 3수준은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30,509	32,761	63,270
	결과 %	48.2%	51.8%	100.0%
2수준	빈도	44,177	117,308	161,485
	결과 %	27.4%	72.6%	100.0%
3수준	빈도	39,571	181,174	220,745
	결과 %	17.9%	82.1%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14,257	5,124,333	5,238,590
	결과 %	2.2%	97.8%	100.0%

〈표 24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2%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29.0%, 잠재적 위험군 6.3%, 일반군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4〉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30,509	74,796	105,305
	결과 %	29.0%	71.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44,177	658,863	703,040
	결과 %	6.3%	93.7%	100.0%
일반군	빈도	39,571	4,390,674	4,430,245
	결과 %	.9%	99.1%	100.0%
전체	빈도	114,257	5,124,333	5,238,590
	결과 %	2.2%	97.8%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4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7.2%이며, 1수준 비율은 28.1%, 2수준은 12.3%, 3수준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2,666	6,830	9,496
	결과 %	28.1%	71.9%	100.0%
2수준	빈도	1,272	9,044	10,316
	결과 %	12.3%	87.7%	100.0%
3수준	빈도	346	9,952	10,298
	결과 %	3.4%	96.6%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8	22,568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4,284	55,409	59,693
	결과 %	7.2%	92.8%	100.0%

〈표 24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7.2%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25.3%, 잠재적 위험군 7.8%, 일반군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2,666	7,867	10,533
	결과 %	25.3%	74.7%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272	15,021	16,293
	결과 %	7.8%	92.2%	100.0%
일반군	빈도	346	32,521	32,867
	결과 %	1.1%	98.9%	100.0%
전체	빈도	4,284	55,409	59,693
	결과 %	7.2%	92.8%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4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북이며(2.9%), 다음으로 인천과 울산(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7〉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1,622	920,065	941,687
	시도의 %	2.3%	97.7%	100.0%
부산	빈도	6,534	347,944	354,478
	시도의 %	1.8%	98.2%	100.0%
인천	빈도	8,198	292,328	300,526
	시도의 %	2.7%	97.3%	100.0%
대구	빈도	4,182	282,855	287,037
	시도의 %	1.5%	98.5%	100.0%
대전	빈도	4,067	169,757	173,824
	시도의 %	2.3%	97.7%	100.0%
광주	빈도	4,086	178,530	182,616
	시도의 %	2.2%	97.8%	100.0%
울산	빈도	3,766	135,428	139,194
	시도의 %	2.7%	97.3%	100.0%
강원도	빈도	3,997	149,786	153,783
	시도의 %	2.6%	97.4%	100.0%
경기도	빈도	26,253	1,230,558	1,256,811
	시도의 %	2.1%	97.9%	100.0%
경남	빈도	7,235	347,227	354,462
	시도의 %	2.0%	98.0%	100.0%
경북	빈도	4,734	255,937	260,671
	시도의 %	1.8%	98.2%	100.0%
전남	빈도	3,921	192,016	195,937
	시도의 %	2.0%	98.0%	100.0%
전북	빈도	5,782	196,237	202,019
	시도의 %	2.9%	97.1%	100.0%
충남	빈도	4,849	200,662	205,511
	시도의 %	2.4%	97.6%	100.0%
충북	빈도	3,734	161,073	164,807
	시도의 %	2.3%	97.7%	100.0%
제주도	빈도	1,298	63,929	65,227
	시도의 %	2.0%	98.0%	100.0%
전체	빈도	114,258	5,124,332	5,238,590
	시도의 %	2.2%	97.8%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4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19.8%), 다음으로 서울(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8〉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978	6,995	7,973
	시도의 %	12.3%	87.7%	100.0%
부산	빈도	84	2,706	2,790
	시도의 %	3.0%	97.0%	100.0%
인천	빈도	364	4,439	4,803
	시도의 %	7.6%	92.4%	100.0%
대구	빈도	99	961	1,060
	시도의 %	9.3%	90.7%	100.0%
대전	빈도	178	2,976	3,154
	시도의 %	5.6%	94.4%	100.0%
광주	빈도	324	1,313	1,637
	시도의 %	19.8%	80.2%	100.0%
울산	빈도	172	1,794	1,966
	시도의 %	8.7%	91.3%	100.0%
강원도	빈도	212	6,242	6,454
	시도의 %	3.3%	96.7%	100.0%
경기도	빈도	847	8,065	8,912
	시도의 %	9.5%	90.5%	100.0%
경남	빈도	126	4,521	4,647
	시도의 %	2.7%	97.3%	100.0%
경북	빈도	157	2,667	2,824
	시도의 %	5.6%	94.4%	100.0%
전남	빈도	230	2,652	2,882
	시도의 %	8.0%	92.0%	100.0%
전북	빈도	159	3,924	4,083
	시도의 %	3.9%	96.1%	100.0%
충남	빈도	85	3,042	3,127
	시도의 %	2.7%	97.3%	100.0%
충북	빈도	106	1,632	1,738
	시도의 %	6.1%	93.9%	100.0%
제주도	빈도	163	1,480	1,643
	시도의 %	9.9%	90.1%	100.0%
전체	빈도	4,284	55,409	59,693
	시도의 %	7.2%	92.8%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4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6%, 여학생은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일반학생 성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43,045	2,721,510	2,764,555
	성별의 %	1.6%	98.4%	100.0%
여	빈도	71,213	2,402,822	2,474,035
	성별의 %	2.9%	97.1%	100.0%
전체	빈도	114,258	5,124,332	5,238,590
	성별의 %	2.2%	97.8%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5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4.2%, 여학생은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638	37,538	39,176
	성별의 %	4.2%	95.8%	100.0%
여	빈도	2,646	17,871	20,517
	성별의 %	12.9%	87.1%	100.0%
전체	빈도	4,284	55,409	59,693
	성별의 %	7.2%	92.8%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5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 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2.7%, 중학교 2.6%, 인문계 고등학교 2.0%, 초등학교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8,330	1,247,496	1,265,826
	학교의 %	1.4%	98.6%	100.0%
중학교	빈도	52,598	1,954,374	2,006,972
	학교의 %	2.6%	97.4%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30,054	1,450,046	1,480,100
	학교의 %	2.0%	98.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3,276	472,416	485,692
	학교의 %	2.7%	97.3%	100.0%
전체	빈도	114,258	5,124,332	5,238,590
	학교의 %	2.2%	97.8%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5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36.8%, 다니지 않음 12.4%, 소년원 학교 11.9%, 검정고시 학원 9.7%, 전문계 고등학교 6.1%, 중학교 5.3%, 대안학교 4.4%, 인문계 고등학교 4.3%, 초등학교 0.9%, 직업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4	3,930	3,964
	학교맞기관 의 %	.9%	99.1%	100.0%
중학교	빈도	892	16,098	16,990
	학교맞기관 의 %	5.3%	94.7%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306	6,892	7,198
	학교맞기관 의 %	4.3%	95.7%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777	11,879	12,656
	학교맞기관 의 %	6.1%	93.9%	100.0%
대안학교	빈도	43	932	975
	학교맞기관 의 %	4.4%	95.6%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75	2,571	2,846
	학교맞기관 의 %	9.7%	90.3%	100.0%
직업학교	빈도	1	225	226
	학교맞기관 의 %	.4%	99.6%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184	316	500
	학교맞기관 의 %	36.8%	63.2%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72	1,274	1,446
	학교맞기관 의 %	11.9%	88.1%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1,600	11,292	12,892
	학교맞기관 의 %	12.4%	87.6%	100.0%
전체	빈도	4,284	55,409	59,693
	학교맞기관 의 %	7.2%	92.8%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5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2학년 2.9%, 중학교 3학년 2.5%, 중학교 1학년 2.4%, 고등학교 1학년 2.4%, 고등학교 2학년 2.3%, 초등학교 6학년 1.9%, 고등학교 3학년 1.9%, 초등학교 5학년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3〉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6,336	612,235	618,571
	학년의 %	1.0%	99.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1,993	635,262	647,255
	학년의 %	1.9%	98.1%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5,906	640,666	656,572
	학년의 %	2.4%	97.6%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19,854	657,033	676,887
	학년의 %	2.9%	97.1%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6,838	656,675	673,513
	학년의 %	2.5%	97.5%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6,191	653,849	670,040
	학년의 %	2.4%	97.6%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4,954	646,462	661,416
	학년의 %	2.3%	97.7%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2,185	622,151	634,336
	학년의 %	1.9%	98.1%	100.0%
전체	빈도	114,257	5,124,333	5,238,590
	학년의 %	2.2%	97.8%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5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11.9%, 중학교 3학년 7.2%, 고등학교 1학년 6.0%, 고등학교 3학년 5.5%, 중학교 2학년 5.2%, 고등학교 2학년 5.1%, 중학교 1학년 4.3%, 초등학교 6학년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4〉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1,868
	학년의 %	.0%	100.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34	2,112	2,146
	학년의 %	1.6%	98.4%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71	3,845	4,016
	학년의 %	4.3%	95.7%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325	5,948	6,273
	학년의 %	5.2%	94.8%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539	6,958	7,497
	학년의 %	7.2%	92.8%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491	7,747	8,238
	학년의 %	6.0%	94.0%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32	6,183	6,515
	학년의 %	5.1%	94.9%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02	5,220	5,522
	학년의 %	5.5%	94.5%	100.0%
해당없음	빈도	2,091	15,527	17,618
	학년의 %	11.9%	88.1%	100.0%
전체	빈도	4,285	55,408	59,693
	학년의 %	7.2%	92.8%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5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4%, ‘매우 잘 사는 편’ 4.2%, ‘어려운 편’ 3.5%, ‘보통이다’ 1.8%, ‘잘 사는 편’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5〉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8,307	79,673	87,980
	경제수준의 %	9.4%	90.6%	100.0%
어려운편	빈도	23,474	647,409	670,883
	경제수준의 %	3.5%	96.5%	100.0%
보통	빈도	64,918	3,468,044	3,532,962
	경제수준의 %	1.8%	98.2%	100.0%
잘 사는편	빈도	12,641	817,369	830,010
	경제수준의 %	1.5%	98.5%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4,918	111,838	116,755
	경제수준의 %	4.2%	95.8%	100.0%
전체	빈도	114,258	5,124,332	5,238,590
	경제수준의 %	2.2%	97.8%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5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5.2%, ‘잘 사는 편’ 6.9%, ‘어려운 편’ 6.6%, ‘보통이다’ 6.2%, ‘매우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6〉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1년 2-3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879	4,886	5,765
	경제수준의 %	15.2%	84.8%	100.0%
어려운편	빈도	1,223	17,439	18,662
	경제수준의 %	6.6%	93.4%	100.0%
보통	빈도	1,961	29,469	31,430
	경제수준의 %	6.2%	93.8%	100.0%
잘 사는편	빈도	219	2,940	3,159
	경제수준의 %	6.9%	93.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	676	677
	경제수준의 %	.1%	99.9%	100.0%
전체	빈도	4,283	55,410	59,693
	경제수준의 %	7.2%	92.8%	100.0%

## 타.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25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6%이며, 1수준 비율은 26.1%, 2수준은 5.0%, 3수준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7〉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46,749	63,270
	결과 %	73.9%	100.0%
2수준	빈도	153,487	161,485
	결과 %	95.0%	100.0%
3수준	빈도	211,495	220,745
	결과 %	95.8%	100.0%
4수준	빈도	42,035	42,035
	결과 %	100.0%	100.0%
5수준	빈도	541,555	541,555
	결과 %	100.0%	100.0%
6수준	빈도	4,209,500	4,209,500
	결과 %	100.0%	100.0%
전체	빈도	5,204,821	5,238,590
	결과 %	99.4%	100.0%

〈표 25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6%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5.7%, 잠재적 위험군 1.1%, 일반군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8〉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88,784	105,305
	결과 %	84.3%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695,042	703,040
	결과 %	98.9%	100.0%
일반군	빈도	4,420,995	4,430,245
	결과 %	99.8%	100.0%
전체	빈도	5,204,821	5,238,590
	결과 %	99.4%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5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4.8%이며, 1수준 비율은 19.1%, 2수준은 7.2%, 3수준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9〉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818	7,677	9,495
	결과 %	19.1%	80.9%	100.0%
2수준	빈도	745	9,570	10,315
	결과 %	7.2%	92.8%	100.0%
3수준	빈도	328	9,971	10,299
	결과 %	3.2%	96.8%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9	22,56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891	56,802	59,693
	결과 %	4.8%	95.2%	100.0%

〈표 26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4.8%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7.3%, 잠재적 위험군 4.6%, 일반군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0〉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818	8,715	10,533
	결과 %	17.3%	82.7%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745	15,547	16,292
	결과 %	4.6%	95.4%	100.0%
일반군	빈도	328	32,540	32,868
	결과 %	1.0%	99.0%	100.0%
전체	빈도	2,891	56,802	59,693
	결과 %	4.8%	95.2%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6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1.5%), 다음으로 전북(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 일반학생 시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5,907	935,780	941,687
	시도의 %	.6%	99.4%	100.0%
부산	빈도	1,722	352,756	354,478
	시도의 %	.5%	99.5%	100.0%
인천	빈도	2,584	297,942	300,526
	시도의 %	.9%	99.1%	100.0%
대구	빈도	1,049	285,988	287,037
	시도의 %	.4%	99.6%	100.0%
대전	빈도	1,042	172,782	173,824
	시도의 %	.6%	99.4%	100.0%
광주	빈도	1,433	181,183	182,616
	시도의 %	.8%	99.2%	100.0%
울산	빈도	2,064	137,130	139,194
	시도의 %	1.5%	98.5%	100.0%
강원도	빈도	1,243	152,540	153,783
	시도의 %	.8%	99.2%	100.0%
경기도	빈도	7,101	1,249,710	1,256,811
	시도의 %	.6%	99.4%	100.0%
경남	빈도	2,595	351,867	354,462
	시도의 %	.7%	99.3%	100.0%
경북	빈도	866	259,805	260,671
	시도의 %	.3%	99.7%	100.0%
전남	빈도	1,631	194,306	195,937
	시도의 %	.8%	99.2%	100.0%
전북	빈도	1,944	200,075	202,019
	시도의 %	1.0%	99.0%	100.0%
충남	빈도	1,031	204,480	205,511
	시도의 %	.5%	99.5%	100.0%
충북	빈도	1,402	163,405	164,807
	시도의 %	.9%	99.1%	100.0%
제주도	빈도	157	65,070	65,227
	시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33,771	5,204,819	5,238,590
	시도의 %	.6%	99.4%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6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18.3%), 다음으로 울산과 전남(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2〉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483	7,490	7,973
	시도의 %	6.1%	93.9%	100.0%
부산	빈도	129	2,661	2,790
	시도의 %	4.6%	95.4%	100.0%
인천	빈도	318	4,485	4,803
	시도의 %	6.6%	93.4%	100.0%
대구	빈도	65	995	1,060
	시도의 %	6.1%	93.9%	100.0%
대전	빈도	86	3,068	3,154
	시도의 %	2.7%	97.3%	100.0%
광주	빈도	300	1,337	1,637
	시도의 %	18.3%	81.7%	100.0%
울산	빈도	193	1,773	1,966
	시도의 %	9.8%	90.2%	100.0%
강원도	빈도	93	6,361	6,454
	시도의 %	1.4%	98.6%	100.0%
경기도	빈도	517	8,395	8,912
	시도의 %	5.8%	94.2%	100.0%
경남	빈도	144	4,503	4,647
	시도의 %	3.1%	96.9%	100.0%
경북	빈도	16	2,808	2,824
	시도의 %	.6%	99.4%	100.0%
전남	빈도	281	2,601	2,882
	시도의 %	9.8%	90.2%	100.0%
전북	빈도	90	3,993	4,083
	시도의 %	2.2%	97.8%	100.0%
충남	빈도	139	2,988	3,127
	시도의 %	4.4%	95.6%	100.0%
충북	빈도	26	1,712	1,738
	시도의 %	1.5%	98.5%	100.0%
제주도	빈도	12	1,631	1,643
	시도의 %	.7%	99.3%	100.0%
전체	빈도	2,892	56,801	59,693
	시도의 %	4.8%	95.2%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6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0%, 여학생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3〉 일반학생 성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7,100	2,737,455	2,764,555
	성별의 %	1.0%	99.0%	100.0%
여	빈도	6,670	2,467,365	2,474,035
	성별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33,770	5,204,820	5,238,590
	성별의 %	.6%	99.4%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6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4.4%, 여학생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4〉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736	37,440	39,176
	성별의 %	4.4%	95.6%	100.0%
여	빈도	1,155	19,362	20,517
	성별의 %	5.6%	94.4%	100.0%
전체	빈도	2,891	56,802	59,693
	성별의 %	4.8%	95.2%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6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4%, 인문계 고등학교 0.9%, 중학교 0.5%, 초등학교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5〉 일반학생 학교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517	1,262,309	1,265,826
	학교의 %	.3%	99.7%	100.0%
중학교	빈도	9,621	1,997,351	2,006,972
	학교의 %	.5%	99.5%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3,928	1,466,172	1,480,100
	학교의 %	.9%	99.1%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6,704	478,988	485,692
	학교의 %	1.4%	98.6%	100.0%
전체	빈도	33,770	5,204,820	5,238,590
	학교의 %	.6%	99.4%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6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18.0%, 소년원 학교 13.1%, 검정고시 학원 9.0%, 다니지 않음 8.1%, 대안학교 7.9%, 전문계 고등학교는 4.5%, 중학교는 2.6%, 인문계 고등학교는 2.1%, 초등학교 비율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68	3,896	3,964
	학교맞기관 의 %	1.7%	98.3%	100.0%
중학교	빈도	439	16,551	16,990
	학교맞기관 의 %	2.6%	97.4%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51	7,047	7,198
	학교맞기관 의 %	2.1%	97.9%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575	12,081	12,656
	학교맞기관 의 %	4.5%	95.5%	100.0%
대안학교	빈도	77	898	975
	학교맞기관 의 %	7.9%	92.1%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56	2,590	2,846
	학교맞기관 의 %	9.0%	91.0%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90	410	500
	학교맞기관 의 %	18.0%	82.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90	1,256	1,446
	학교맞기관 의 %	13.1%	86.9%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1,045	11,848	12,892
	학교맞기관 의 %	8.1%	91.9%	100.0%
전체	빈도	2,891	56,801	59,693
	학교맞기관 의 %	4.8%	95.2%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6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1.1%, 고등학교 3학년 1.1%, 고등학교 1학년 0.9%, 중학교 3학년 0.6%, 중학교 2학년 0.5%, 초등학교 5학년 0.3%, 초등학교 6학년 0.3%, 중학교 1학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7〉 일반학생 학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712	616,859	618,571
	학년의 %	.3%	99.7%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805	645,450	647,255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2,081	654,491	656,572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3,269	673,618	676,887
	학년의 %	.5%	99.5%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4,271	669,242	673,513
	학년의 %	.6%	99.4%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5,839	664,201	670,040
	학년의 %	.9%	99.1%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7,549	653,867	661,416
	학년의 %	1.1%	98.9%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7,245	627,091	634,336
	학년의 %	1.1%	98.9%	100.0%
전체	빈도	33,771	5,204,819	5,238,590
	학년의 %	.6%	99.4%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6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8.4%, 고등학교 3학년 5.9%, 고등학교 2학년 3.9%, 중학교 2학년 3.8%, 초등학교 5학년 3.6%, 중학교 3학년 3.2%, 고등학교 1학년 2.7%, 초등학교 6학년 1.3%, 중학교 1학년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8〉 취약 · 위기청소년 학년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68	1,800	1,868
	학년의 %	3.6%	96.4%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28	2,118	2,146
	학년의 %	1.3%	98.7%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44	3,972	4,016
	학년의 %	1.1%	98.9%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237	6,036	6,273
	학년의 %	3.8%	96.2%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237	7,260	7,497
	학년의 %	3.2%	96.8%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219	8,019	8,238
	학년의 %	2.7%	97.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254	6,261	6,515
	학년의 %	3.9%	96.1%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27	5,195	5,522
	학년의 %	5.9%	94.1%	100.0%
해당없음	빈도	1,476	16,142	17,618
	학년의 %	8.4%	91.6%	100.0%
전체	빈도	2,890	56,803	59,693
	학년의 %	4.8%	95.2%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6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2%, ‘매우 잘 사는 편’ 3.2%, ‘어려운 편’ 0.6%, ‘보통이다’ 0.5%, ‘잘 사는 편’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6,323	81,657	87,980
	경제수준의 %	7.2%	92.8%	100.0%
어려운편	빈도	4,039	666,844	670,883
	경제수준의 %	.6%	99.4%	100.0%
보통	빈도	16,605	3,516,357	3,532,962
	경제수준의 %	.5%	99.5%	100.0%
잘 사는편	빈도	3,102	826,908	830,01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3,701	113,054	116,755
	경제수준의 %	3.2%	96.8%	100.0%
전체	빈도	33,770	5,204,820	5,238,590
	경제수준의 %	.6%	99.4%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7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 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9.3%, ‘보통이다’ 4.5%, ‘어려운 편’ 4.4%, ‘잘 사는 편’ 3.5%, ‘매우 잘 사는 편’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0〉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1년 1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535	5,230	5,765
	경제수준의 %	9.3%	90.7%	100.0%
어려운편	빈도	821	17,841	18,662
	경제수준의 %	4.4%	95.6%	100.0%
보통	빈도	1,408	30,022	31,430
	경제수준의 %	4.5%	95.5%	100.0%
잘 사는편	빈도	111	3,048	3,159
	경제수준의 %	3.5%	96.5%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6	661	677
	경제수준의 %	2.4%	97.6%	100.0%
전체	빈도	2,891	56,802	59,693
	경제수준의 %	4.8%	95.2%	100.0%

## 하.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27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0%이며, 1수준 비율은 24.4%, 2수준은 8.0%, 3수준은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1〉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5,459	47,811	63,270
	결과 %	24.4%	75.6%	100.0%
2수준	빈도	12,855	148,630	161,485
	결과 %	8.0%	92.0%	100.0%
3수준	빈도	25,450	195,296	220,746
	결과 %	11.5%	88.5%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499	4,209,49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53,764	5,184,826	5,238,590
	결과 %	1.0%	99.0%	100.0%

〈표 27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0%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4.7%, 잠재적 위험군 1.8%, 일반군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5,459	89,846	105,305
	결과 %	14.7%	85.3%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2,855	690,185	703,040
	결과 %	1.8%	98.2%	100.0%
일반군	빈도	25,450	4,404,795	4,430,245
	결과 %	.6%	99.4%	100.0%
전체	빈도	53,764	5,184,826	5,238,590
	결과 %	1.0%	99.0%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7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6%이며, 1수준 비율은 12.2%, 2수준은 2.7%, 3수준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3〉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154	8,341	9,495
	결과 %	12.2%	87.8%	100.0%
2수준	빈도	278	10,037	10,315
	결과 %	2.7%	97.3%	100.0%
3수준	빈도	126	10,173	10,299
	결과 %	1.2%	98.8%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9	22,56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558	58,135	59,693
	결과 %	2.6%	97.4%	100.0%

〈표 27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6%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1.0%, 잠재적 위험군 1.7%, 일반군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4〉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154	9,379	10,533
	결과 %	11.0%	89.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278	16,014	16,292
	결과 %	1.7%	98.3%	100.0%
일반군	빈도	126	32,742	32,868
	결과 %	.4%	99.6%	100.0%
전체	빈도	1,558	58,135	59,693
	결과 %	2.6%	97.4%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7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2.0%), 다음으로 대전과 제주도(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5〉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9,545	932,142	941,687
	시도의 %	1.0%	99.0%	100.0%
부산	빈도	3,844	350,634	354,478
	시도의 %	1.1%	98.9%	100.0%
인천	빈도	3,021	297,505	300,526
	시도의 %	1.0%	99.0%	100.0%
대구	빈도	1,998	285,039	287,037
	시도의 %	.7%	99.3%	100.0%
대전	빈도	2,599	171,225	173,824
	시도의 %	1.5%	98.5%	100.0%
광주	빈도	2,140	180,476	182,616
	시도의 %	1.2%	98.8%	100.0%
울산	빈도	2,719	136,475	139,194
	시도의 %	2.0%	98.0%	100.0%
강원도	빈도	1,806	151,977	153,783
	시도의 %	1.2%	98.8%	100.0%
경기도	빈도	11,173	1,245,638	1,256,811
	시도의 %	.9%	99.1%	100.0%
경남	빈도	3,880	350,582	354,462
	시도의 %	1.1%	98.9%	100.0%
경북	빈도	1,810	258,861	260,671
	시도의 %	.7%	99.3%	100.0%
전남	빈도	2,163	193,774	195,937
	시도의 %	1.1%	98.9%	100.0%
전북	빈도	2,214	199,805	202,019
	시도의 %	1.1%	98.9%	100.0%
충남	빈도	2,086	203,425	205,511
	시도의 %	1.0%	99.0%	100.0%
충북	빈도	1,817	162,990	164,807
	시도의 %	1.1%	98.9%	100.0%
제주도	빈도	948	64,279	65,227
	시도의 %	1.5%	98.5%	100.0%
전체	빈도	53,763	5,184,827	5,238,590
	시도의 %	1.0%	99.0%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7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이며(8.9%), 다음으로 광주(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6〉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84	7,789	7,973
	시도의 %	2.3%	97.7%	100.0%
부산	빈도	24	2,766	2,790
	시도의 %	.9%	99.1%	100.0%
인천	빈도	224	4,579	4,803
	시도의 %	4.7%	95.3%	100.0%
대구	빈도	49	1,011	1,060
	시도의 %	4.6%	95.4%	100.0%
대전	빈도	115	3,039	3,154
	시도의 %	3.6%	96.4%	100.0%
광주	빈도	90	1,547	1,637
	시도의 %	5.5%	94.5%	100.0%
울산	빈도	28	1,938	1,966
	시도의 %	1.4%	98.6%	100.0%
강원도	빈도	69	6,385	6,454
	시도의 %	1.1%	98.9%	100.0%
경기도	빈도	330	8,582	8,912
	시도의 %	3.7%	96.3%	100.0%
경남	빈도	44	4,603	4,647
	시도의 %	.9%	99.1%	100.0%
경북	빈도	8	2,816	2,824
	시도의 %	.3%	99.7%	100.0%
전남	빈도	257	2,625	2,882
	시도의 %	8.9%	91.1%	100.0%
전북	빈도	21	4,062	4,083
	시도의 %	.5%	99.5%	100.0%
충남	빈도	21	3,106	3,127
	시도의 %	.7%	99.3%	100.0%
충북	빈도	24	1,714	1,738
	시도의 %	1.4%	98.6%	100.0%
제주도	빈도	69	1,574	1,643
	시도의 %	4.2%	95.8%	100.0%
전체	빈도	1,557	58,136	59,693
	시도의 %	2.6%	97.4%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7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1%, 여학생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7〉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31,788	2,732,767	2,764,555
	성별의 %	1.1%	98.9%	100.0%
여	빈도	21,975	2,452,060	2,474,035
	성별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53,763	5,184,827	5,238,590
	성별의 %	1.0%	9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7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1.3%, 여학생은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8〉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507	38,669	39,176
	성별의 %	1.3%	98.7%	100.0%
여	빈도	1,051	19,466	20,517
	성별의 %	5.1%	94.9%	100.0%
전체	빈도	1,558	58,135	59,693
	성별의 %	2.6%	97.4%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7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3%, 초등학교 1.2%, 인문계 고등학교 1.0%, 중학교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9〉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4,941	1,250,885	1,265,826
	학교의 %	1.2%	98.8%	100.0%
중학교	빈도	17,960	1,989,012	2,006,972
	학교의 %	.9%	99.1%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4,607	1,465,493	1,480,100
	학교의 %	1.0%	99.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6,256	479,436	485,692
	학교의 %	1.3%	98.7%	100.0%
전체	빈도	53,764	5,184,826	5,238,590
	학교의 %	1.0%	99.0%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8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18.0%, 직업학교 12.4%, 소년원 학교 6.4%, 다니지 않음 5.5%, 대안학교 2.9%, 전문계 고등학교 1.8%, 검정고시 학원 1.8%, 인문계 고등학교 1.7%, 중학교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0〉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0	3,964	3,964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중학교	빈도	209	16,781	16,990
	학교맞기관 의 %	1.2%	98.8%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25	7,073	7,198
	학교맞기관 의 %	1.7%	98.3%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23	12,433	12,656
	학교맞기관 의 %	1.8%	98.2%	100.0%
대안학교	빈도	28	947	975
	학교맞기관 의 %	2.9%	97.1%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51	2,795	2,846
	학교맞기관 의 %	1.8%	98.2%	100.0%
직업학교	빈도	28	198	226
	학교맞기관 의 %	12.4%	87.6%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90	410	500
	학교맞기관 의 %	18.0%	82.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92	1,354	1,446
	학교맞기관 의 %	6.4%	93.6%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711	12,181	12,892
	학교맞기관 의 %	5.5%	94.5%	100.0%
전체	빈도	1,557	58,136	59,693
	학교맞기관 의 %	2.6%	97.4%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8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 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초등학교 5학년 1.3%, 고등학교 2학년 1.2%, 고등학교 3학년 1.1%, 초등학교 6학년 1.0%, 중학교 1학년 1.0%, 고등학교 1학년 0.9%, 중학교 2학년 0.8%, 중학교 3학년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1〉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8,196	610,375	618,571
	학년의 %	1.3%	98.7%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6,745	640,510	647,255
	학년의 %	1.0%	99.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6,760	649,812	656,572
	학년의 %	1.0%	99.0%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5,591	671,296	676,887
	학년의 %	.8%	99.2%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5,609	667,904	673,513
	학년의 %	.8%	99.2%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5,794	664,246	670,040
	학년의 %	.9%	99.1%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7,809	653,607	661,416
	학년의 %	1.2%	98.8%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7,259	627,077	634,336
	학년의 %	1.1%	98.9%	100.0%
전체	빈도	53,763	5,184,827	5,238,590
	학년의 %	1.0%	99.0%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8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5.0%, 고등학교 2학년 2.5%, 중학교 3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 2.1%, 초등학교 5학년은 1.5%, 고등학교 1학년 1.3%, 중학교 1학년 1.0%, 중학교 2학년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2〉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28	1,840	1,868
	학년의 %	1.5%	98.5%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0	2,146	2,146
	학년의 %	.0%	100.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40	3,976	4,016
	학년의 %	1.0%	99.0%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54	6,219	6,273
	학년의 %	.9%	99.1%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181	7,316	7,497
	학년의 %	2.4%	97.6%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104	8,134	8,238
	학년의 %	1.3%	98.7%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161	6,354	6,515
	학년의 %	2.5%	97.5%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17	5,405	5,522
	학년의 %	2.1%	97.9%	100.0%
해당없음	빈도	873	16,745	17,618
	학년의 %	5.0%	95.0%	100.0%
전체	빈도	1,558	58,135	59,693
	학년의 %	2.6%	97.4%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8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 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9%, ‘매우 잘 사는 편’ 3.6%, ‘어려운 편’ 1.1%, ‘잘 사는 편’ 1.0%, ‘보통이다’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3〉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6,045	81,935	87,980
	경제수준의 %	6.9%	93.1%	100.0%
어려운편	빈도	7,591	663,292	670,883
	경제수준의 %	1.1%	98.9%	100.0%
보통	빈도	27,818	3,505,144	3,532,962
	경제수준의 %	.8%	99.2%	100.0%
잘 사는편	빈도	8,051	821,959	830,010
	경제수준의 %	1.0%	99.0%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4,259	112,496	116,755
	경제수준의 %	3.6%	96.4%	100.0%
전체	빈도	53,764	5,184,826	5,238,590
	경제수준의 %	1.0%	99.0%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8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8.6%, ‘잘 사는 편’ 2.9%, ‘어려운 편’ 2.5%, ‘보통이다’ 1.6%, ‘매우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4〉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1년 1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98	5,267	5,765
	경제수준의 %	8.6%	91.4%	100.0%
어려운편	빈도	471	18,191	18,662
	경제수준의 %	2.5%	97.5%	100.0%
보통	빈도	496	30,934	31,430
	경제수준의 %	1.6%	98.4%	100.0%
잘 사는편	빈도	92	3,067	3,159
	경제수준의 %	2.9%	97.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	676	677
	경제수준의 %	.1%	99.9%	100.0%
전체	빈도	1,558	58,135	59,693
	경제수준의 %	2.6%	97.4%	100.0%

## 가.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28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5%이며, 1수준 비율은 20.0%, 2수준은 4.0%, 3수준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5〉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2,669	50,601	63,270
	결과 %	20.0%	80.0%	100.0%
2수준	빈도	6,524	154,961	161,485
	결과 %	4.0%	96.0%	100.0%
3수준	빈도	8,371	212,374	220,745
	결과 %	3.8%	96.2%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27,564	5,211,026	5,238,590
	결과 %	.5%	99.5%	100.0%

〈표 28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5%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2.0%, 잠재적 위험군 0.9%, 일반군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6〉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2,669	92,636	105,305
	결과 %	12.0%	88.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6,524	696,515	703,039
	결과 %	.9%	99.1%	100.0%
일반군	빈도	8,371	4,421,875	4,430,246
	결과 %	.2%	99.8%	100.0%
전체	빈도	27,564	5,211,026	5,238,590
	결과 %	.5%	99.5%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8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4%이며, 1수준 비율은 8.8%, 2수준은 1.7%, 3수준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7〉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834	8,661	9,495
	결과 %	8.8%	91.2%	100.0%
2수준	빈도	179	10,136	10,315
	결과 %	1.7%	98.3%	100.0%
3수준	빈도	412	9,886	10,298
	결과 %	4.0%	96.0%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70	22,57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425	58,268	59,693
	결과 %	2.4%	97.6%	100.0%

〈표 28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7.9%, 잠재적 위험군 1.1%, 일반군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8〉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834	9,699	10,533
	결과 %	7.9%	92.1%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79	16,113	16,292
	결과 %	1.1%	98.9%	100.0%
일반군	빈도	412	32,456	32,868
	결과 %	1.3%	98.7%	100.0%
전체	빈도	1,425	58,268	59,693
	결과 %	2.4%	97.6%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289〉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이며(0.9%), 다음으로 강원도와 전북(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9〉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4,485	937,202	941,687
	시도의 %	.5%	99.5%	100.0%
부산	빈도	1,641	352,837	354,478
	시도의 %	.5%	99.5%	100.0%
인천	빈도	1,336	299,190	300,526
	시도의 %	.4%	99.6%	100.0%
대구	빈도	1,307	285,730	287,037
	시도의 %	.5%	99.5%	100.0%
대전	빈도	1,286	172,538	173,824
	시도의 %	.7%	99.3%	100.0%
광주	빈도	1,245	181,371	182,616
	시도의 %	.7%	99.3%	100.0%
울산	빈도	1,280	137,914	139,194
	시도의 %	.9%	99.1%	100.0%
강원도	빈도	1,172	152,611	153,783
	시도의 %	.8%	99.2%	100.0%
경기도	빈도	6,441	1,250,370	1,256,811
	시도의 %	.5%	99.5%	100.0%
경남	빈도	1,934	352,528	354,462
	시도의 %	.5%	99.5%	100.0%
경북	빈도	721	259,950	260,671
	시도의 %	.3%	99.7%	100.0%
전남	빈도	1,136	194,801	195,937
	시도의 %	.6%	99.4%	100.0%
전북	빈도	1,591	200,428	202,019
	시도의 %	.8%	99.2%	100.0%
충남	빈도	1,082	204,429	205,511
	시도의 %	.5%	99.5%	100.0%
충북	빈도	768	164,039	164,807
	시도의 %	.5%	99.5%	100.0%
제주도	빈도	140	65,087	65,227
	시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27,565	5,211,025	5,238,590
	시도의 %	.5%	99.5%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90〉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이며(5.3%), 다음으로 경기도(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0〉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82	7,991
	시도의 %	1.0%	99.0%
부산	빈도	68	2,722
	시도의 %	2.4%	97.6%
인천	빈도	83	4,720
	시도의 %	1.7%	98.3%
대구	빈도	37	1,023
	시도의 %	3.5%	96.5%
대전	빈도	48	3,106
	시도의 %	1.5%	98.5%
광주	빈도	69	1,568
	시도의 %	4.2%	95.8%
울산	빈도	28	1,938
	시도의 %	1.4%	98.6%
강원도	빈도	40	6,414
	시도의 %	.6%	99.4%
경기도	빈도	407	8,505
	시도의 %	4.6%	95.4%
경남	빈도	129	4,518
	시도의 %	2.8%	97.2%
경북	빈도	0	2,824
	시도의 %	.0%	100.0%
전남	빈도	152	2,730
	시도의 %	5.3%	94.7%
전북	빈도	169	3,914
	시도의 %	4.1%	95.9%
충남	빈도	75	3,052
	시도의 %	2.4%	97.6%
충북	빈도	1	1,737
	시도의 %	.1%	99.9%
제주도	빈도	37	1,606
	시도의 %	2.3%	97.7%
전체	빈도	1,425	58,268
	시도의 %	2.4%	97.6%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291〉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8%,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1〉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2,113	2,742,442	2,764,555
	성별의 %	.8%	99.2%	100.0%
여	빈도	5,451	2,468,584	2,474,035
	성별의 %	.2%	99.8%	100.0%
전체	빈도	27,564	5,211,026	5,238,590
	성별의 %	.5%	99.5%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92〉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2.8%, 여학생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2〉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078	38,098	39,176
	성별의 %	2.8%	97.2%	100.0%
여	빈도	348	20,169	20,517
	성별의 %	1.7%	98.3%	100.0%
전체	빈도	1,426	58,267	59,693
	성별의 %	2.4%	97.6%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293〉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0.9%, 인문계 고등학교 0.8%, 중학교 0.4%, 초등학교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3〉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3,164	1,262,662	1,265,826
	학교의 %	.2%	99.8%	100.0%
중학교	빈도	8,363	1,998,609	2,006,972
	학교의 %	.4%	99.6%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1,478	1,468,622	1,480,100
	학교의 %	.8%	99.2%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4,559	481,133	485,692
	학교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27,564	5,211,026	5,238,590
	학교의 %	.5%	99.5%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94〉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18.0%, 소년원 학교 9.6%, 대안학교 5.8%, 다니지 않음 3.0%. 전문계 고등학교 2.3%, 인문계 고등학교는 2.0%, 중학교는 1.5%, 검정고시 학원 1.0%, 초등학교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4〉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40	3,924	3,964
	학교맞기관 의 %	1.0%	99.0%	100.0%
중학교	빈도	257	16,733	16,990
	학교맞기관 의 %	1.5%	98.5%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145	7,053	7,198
	학교맞기관 의 %	2.0%	98.0%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285	12,371	12,656
	학교맞기관 의 %	2.3%	97.7%	100.0%
대안학교	빈도	57	918	975
	학교맞기관 의 %	5.8%	94.2%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29	2,817	2,846
	학교맞기관 의 %	1.0%	99.0%	100.0%
직업학교	빈도	0	226	226
	학교맞기관 의 %	.0%	100.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90	410	500
	학교맞기관 의 %	18.0%	82.0%	100.0%
소년원학교	빈도	139	1,307	1,446
	학교맞기관 의 %	9.6%	90.4%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383	12,509	12,892
	학교맞기관 의 %	3.0%	97.0%	100.0%
전체	빈도	1,425	58,268	59,693
	학교맞기관 의 %	2.4%	97.6%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295〉는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9%, 고등학교 3학년 0.9%, 고등학교 1학년 0.7%, 중학교 2학년 0.5%, 중학교 3학년 0.5%, 초등학교 5학년 0.3%, 중학교 1학년 0.3%, 초등학교 6학년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5〉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1,930	616,641	618,571
	학년의 %	.3%	99.7%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234	646,021	647,255
	학년의 %	.2%	99.8%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842	654,730	656,572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3,145	673,742	676,887
	학년의 %	.5%	99.5%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3,376	670,137	673,513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4,788	665,252	670,040
	학년의 %	.7%	99.3%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5,691	655,725	661,416
	학년의 %	.9%	99.1%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5,559	628,777	634,336
	학년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27,565	5,211,025	5,238,590
	학년의 %	.5%	99.5%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96〉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3.2%, 고등학교 1학년 2.9%, 고등학교 2학년 2.4%, 중학교 3학년 2.1%, 초등학교 6학년 1.9%, 중학교 2학년 1.7%, 초등학교 5학년 1.5%, 중학교 1학년 1.4%, 고등학교 3학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6〉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28	1,840
	학년의 %	1.5%	98.5%
초등학교6학년	빈도	40	2,106
	학년의 %	1.9%	98.1%
중학교1학년	빈도	57	3,959
	학년의 %	1.4%	98.6%
중학교2학년	빈도	107	6,166
	학년의 %	1.7%	98.3%
중학교3학년	빈도	158	7,339
	학년의 %	2.1%	97.9%
고등학교1학년	빈도	243	7,995
	학년의 %	2.9%	97.1%
고등학교2학년	빈도	157	6,358
	학년의 %	2.4%	97.6%
고등학교3학년	빈도	65	5,457
	학년의 %	1.2%	98.8%
해당없음	빈도	571	17,047
	학년의 %	3.2%	96.8%
전체	빈도	1,426	58,267
	학년의 %	2.4%	97.6%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297〉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1%, ‘매우 잘 사는 편’ 2.7%, ‘어려운 편’ 0.5%, ‘보통이다’ 0.4%, ‘잘 사는 편’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7〉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449	83,531	87,980
	경제수준의 %	5.1%	94.9%	100.0%
어려운편	빈도	3,247	667,636	670,883
	경제수준의 %	.5%	99.5%	100.0%
보통	빈도	13,686	3,519,276	3,532,962
	경제수준의 %	.4%	99.6%	100.0%
잘 사는편	빈도	3,086	826,924	830,01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3,095	113,660	116,755
	경제수준의 %	2.7%	97.3%	100.0%
전체	빈도	27,563	5,211,026	5,238,590
	경제수준의 %	.5%	99.5%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298〉은 위기결과 문항 중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4%, ‘어려운 편’ 2.5%, ‘보통이다’ 1.9%, ‘잘 사는 편’1.2%, ‘매우 잘 사는 편’ 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8〉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1년 1번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311	5,454	5,765
	경제수준의 %	5.4%	94.6%	100.0%
어려운편	빈도	468	18,194	18,662
	경제수준의 %	2.5%	97.5%	100.0%
보통	빈도	607	30,823	31,430
	경제수준의 %	1.9%	98.1%	100.0%
잘 사는편	빈도	39	3,120	3,159
	경제수준의 %	1.2%	98.8%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0	677	677
	경제수준의 %	.0%	100.0%	100.0%
전체	빈도	1,425	58,268	59,693
	경제수준의 %	2.4%	97.6%	100.0%



## 나.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 1) 전체

#### 가) 일반학생

〈표 299〉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1수준 비율은 18.4%, 2수준은 2.8%, 3수준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9〉 일반학생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11,635	51,635	63,270
	결과 %	18.4%	81.6%	100.0%
2수준	빈도	4,477	157,008	161,485
	결과 %	2.8%	97.2%	100.0%
3수준	빈도	3,248	217,497	220,745
	결과 %	1.5%	98.5%	100.0%
4수준	빈도	0	42,035	42,035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41,555	541,555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4,209,500	4,209,50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9,360	5,219,230	5,238,590
	결과 %	.4%	99.6%	100.0%

〈표 300〉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학생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0.4%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11.0%, 잠재적 위험군 0.6%, 일반군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0〉 일반학생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11,635	93,670	105,305
	결과 %	11.0%	89.0%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4,477	698,563	703,040
	결과 %	.6%	99.4%	100.0%
일반군	빈도	3,248	4,426,997	4,430,245
	결과 %	.1%	99.9%	100.0%
전체	빈도	19,360	5,219,230	5,238,590
	결과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01〉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9.5%이며, 1수준 비율은 31.6%, 2수준은 17.6%, 3수준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1〉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3,005	6,490	9,495
	결과 %	31.6%	68.4%	100.0%
2수준	빈도	1,817	8,498	10,315
	결과 %	17.6%	82.4%	100.0%
3수준	빈도	855	9,443	10,298
	결과 %	8.3%	91.7%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8	22,568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5,677	54,014	59,693
	결과 %	9.5%	90.5%	100.0%

〈표 302〉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9.5%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28.5%, 잠재적 위험군 11.2%, 일반군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2〉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3,005	7,528	10,533
	결과 %	28.5%	71.5%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1,817	14,476	16,293
	결과 %	11.2%	88.8%	100.0%
일반군	빈도	855	32,012	32,867
	결과 %	2.6%	97.4%	100.0%
전체	빈도	5,677	54,016	59,693
	결과 %	9.5%	90.5%	100.0%

## 2) 시도별

### 가) 일반학생

〈표 303〉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이며(0.7%), 다음으로 광주, 강원도, 전북, 제주도(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3〉 일반학생 시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3,745	937,942	941,687
	시도의 %	.4%	99.6%	100.0%
부산	빈도	820	353,658	354,478
	시도의 %	.2%	99.8%	100.0%
인천	빈도	1,303	299,223	300,526
	시도의 %	.4%	99.6%	100.0%
대구	빈도	729	286,308	287,037
	시도의 %	.3%	99.7%	100.0%
대전	빈도	1,156	172,668	173,824
	시도의 %	.7%	99.3%	100.0%
광주	빈도	1,065	181,551	182,616
	시도의 %	.6%	99.4%	100.0%
울산	빈도	553	138,641	139,194
	시도의 %	.4%	99.6%	100.0%
강원도	빈도	903	152,880	153,783
	시도의 %	.6%	99.4%	100.0%
경기도	빈도	3,627	1,253,184	1,256,811
	시도의 %	.3%	99.7%	100.0%
경남	빈도	1,150	353,312	354,462
	시도의 %	.3%	99.7%	100.0%
경북	빈도	511	260,160	260,671
	시도의 %	.2%	99.8%	100.0%
전남	빈도	687	195,250	195,937
	시도의 %	.4%	99.6%	100.0%
전북	빈도	1,166	200,853	202,019
	시도의 %	.6%	99.4%	100.0%
충남	빈도	1,026	204,485	205,511
	시도의 %	.5%	99.5%	100.0%
충북	빈도	505	164,302	164,807
	시도의 %	.3%	99.7%	100.0%
제주도	빈도	414	64,813	65,227
	시도의 %	.6%	99.4%	100.0%
전체	빈도	19,360	5,219,230	5,238,590
	시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04〉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이며(22.8%), 다음으로 서울(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4〉 취약 · 위기청소년 시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1,380	6,593	7,973
	시도의 %	17.3%	82.7%	100.0%
부산	빈도	120	2,670	2,790
	시도의 %	4.3%	95.7%	100.0%
인천	빈도	600	4,203	4,803
	시도의 %	12.5%	87.5%	100.0%
대구	빈도	148	912	1,060
	시도의 %	13.9%	86.1%	100.0%
대전	빈도	236	2,918	3,154
	시도의 %	7.5%	92.5%	100.0%
광주	빈도	373	1,264	1,637
	시도의 %	22.8%	77.2%	100.0%
울산	빈도	170	1,796	1,966
	시도의 %	8.6%	91.4%	100.0%
강원도	빈도	206	6,248	6,454
	시도의 %	3.2%	96.8%	100.0%
경기도	빈도	1,239	7,673	8,912
	시도의 %	13.9%	86.1%	100.0%
경남	빈도	167	4,480	4,647
	시도의 %	3.6%	96.4%	100.0%
경북	빈도	65	2,759	2,824
	시도의 %	2.3%	97.7%	100.0%
전남	빈도	357	2,525	2,882
	시도의 %	12.4%	87.6%	100.0%
전북	빈도	176	3,907	4,083
	시도의 %	4.3%	95.7%	100.0%
충남	빈도	132	2,995	3,127
	시도의 %	4.2%	95.8%	100.0%
충북	빈도	84	1,654	1,738
	시도의 %	4.8%	95.2%	100.0%
제주도	빈도	223	1,420	1,643
	시도의 %	13.6%	86.4%	100.0%
전체	빈도	5,676	54,017	59,693
	시도의 %	9.5%	90.5%	100.0%

### 3) 성별

#### 가) 일반학생

〈표 305〉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일반학생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0.5%, 여학생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5〉 일반학생 성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13,136	2,751,419	2,764,555
	성별의 %	.5%	99.5%	100.0%
여	빈도	6,224	2,467,811	2,474,035
	성별의 %	.3%	99.7%	100.0%
전체	빈도	19,360	5,219,230	5,238,590
	성별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06〉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7.5%, 여학생은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2,939	36,237	39,176
	성별의 %	7.5%	92.5%	100.0%
여	빈도	2,738	17,779	20,517
	성별의 %	13.3%	86.7%	100.0%
전체	빈도	5,677	54,016	59,693
	성별의 %	9.5%	90.5%	100.0%

#### 4) 학교별

##### 가) 일반학생

〈표 307〉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0.8%, 중학교 0.4%, 인문계 고등학교 0.4%, 초등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7〉 일반학생 학교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569	1,264,257	1,265,826
	학교의 %	.1%	99.9%	100.0%
중학교	빈도	7,852	1,999,120	2,006,972
	학교의 %	.4%	99.6%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6,115	1,473,985	1,480,100
	학교의 %	.4%	99.6%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3,824	481,868	485,692
	학교의 %	.8%	99.2%	100.0%
전체	빈도	19,360	5,219,230	5,238,590
	학교의 %	.4%	99.6%	100.0%

#####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08〉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직업훈련기관 19.8%, 다니지 않음 19.7%, 소년원 학교 17.3%, 검정고시 학원 14.3%, 중학교 7.6%, 직업학교 7.5%, 전문계 고등학교 5.6%, 대안학교 3.7%, 인문계 고등학교는 3.4%, 초등학교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8〉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85	3,879	3,964
	학교맞기관 의 %	2.1%	97.9%	100.0%
중학교	빈도	1,294	15,696	16,990
	학교맞기관 의 %	7.6%	92.4%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243	6,955	7,198
	학교맞기관 의 %	3.4%	96.6%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707	11,949	12,656
	학교맞기관 의 %	5.6%	94.4%	100.0%
대안학교	빈도	36	939	975
	학교맞기관 의 %	3.7%	96.3%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407	2,439	2,846
	학교맞기관 의 %	14.3%	85.7%	100.0%
직업학교	빈도	17	209	226
	학교맞기관 의 %	7.5%	92.5%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99	401	500
	학교맞기관 의 %	19.8%	80.2%	100.0%
소년원학교	빈도	250	1,196	1,446
	학교맞기관 의 %	17.3%	82.7%	100.0%
다니지 않음	빈도	2,539	10,353	12,892
	학교맞기관 의 %	19.7%	80.3%	100.0%
전체	빈도	5,677	54,016	59,693
	학교맞기관 의 %	9.5%	90.5%	100.0%

## 5) 학년별

### 가) 일반학생

〈표 309〉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중학교 3학년 0.5%, 고등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5%, 중학교 2학년 0.4%, 중학교 1학년 0.3%,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9〉 일반학생 학년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759	617,812	618,571
	학년의 %	.1%	99.9%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810	646,445	647,255
	학년의 %	.1%	99.9%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1,765	654,807	656,572
	학년의 %	.3%	99.7%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2,496	674,391	676,887
	학년의 %	.4%	99.6%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3,592	669,921	673,513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3,477	666,563	670,040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314	658,102	661,416
	학년의 %	.5%	99.5%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3,148	631,188	634,336
	학년의 %	.5%	99.5%	100.0%
전체	빈도	19,361	5,219,229	5,238,590
	학년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10〉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18.2%, 중학교 2학년 8.8%, 중학교 3학년 8.0%, 중학교 1학년 6.4%, 고등학교 1학년 5.9%, 고등학교 2학년 5.2%, 초등학교 6학년 4.0%, 고등학교 3학년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가출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0	1,868	1,868
	학년의 %	.0%	100.0%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85	2,061	2,146
	학년의 %	4.0%	96.0%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259	3,757	4,016
	학년의 %	6.4%	93.6%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549	5,724	6,273
	학년의 %	8.8%	91.2%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601	6,896	7,497
	학년의 %	8.0%	92.0%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488	7,750	8,238
	학년의 %	5.9%	94.1%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342	6,173	6,515
	학년의 %	5.2%	94.8%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139	5,383	5,522
	학년의 %	2.5%	97.5%	100.0%
해당없음	빈도	3,214	14,404	17,618
	학년의 %	18.2%	81.8%	100.0%
전체	빈도	5,677	54,016	59,693
	학년의 %	9.5%	90.5%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 가) 일반학생

〈표 311〉은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7%, ‘매우 잘 사는 편’ 1.5%, ‘어려운 편’ 0.5%, ‘보통이다’ 0.2%, ‘잘 사는 편’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4,169	83,811	87,980
	경제수준의 %	4.7%	95.3%	100.0%
어려운편	빈도	3,337	667,546	670,883
	경제수준의 %	.5%	99.5%	100.0%
보통	빈도	8,523	3,524,439	3,532,962
	경제수준의 %	.2%	99.8%	100.0%
잘 사는편	빈도	1,533	828,477	830,010
	경제수준의 %	.2%	99.8%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797	114,958	116,755
	경제수준의 %	1.5%	98.5%	100.0%
전체	빈도	19,359	5,219,231	5,238,590
	경제수준의 %	.4%	99.6%	100.0%

나) 취약 · 위기청소년

〈표 312〉는 위기결과 문항 중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5.2%, '잘 사는 편' 10.8%, '어려운 편' 9.5%, '보통이다' 8.5%, '매우 잘 사는 편'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취약 · 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주 1-2회 이상)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877	4,888	5,765
	경제수준의 %	15.2%	84.8%	100.0%
어려운편	빈도	1,779	16,883	18,662
	경제수준의 %	9.5%	90.5%	100.0%
보통	빈도	2,673	28,757	31,430
	경제수준의 %	8.5%	91.5%	100.0%
잘 사는편	빈도	342	2,817	3,159
	경제수준의 %	10.8%	89.2%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6	671	677
	경제수준의 %	.9%	99.1%	100.0%
전체	빈도	5,677	54,016	59,693
	경제수준의 %	9.5%	90.5%	100.0%

다. 현재 가출 상태(취약·위기청소년에만 해당)

1) 전체

〈표 313〉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3.7%이며, 1수준 비율은 51.2%, 2수준은 22.0%, 3수준은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4,857	4,638	9,495
	결과 %	51.2%	48.8%	100.0%
2수준	빈도	2,272	8,043	10,315
	결과 %	22.0%	78.0%	100.0%
3수준	빈도	1,062	9,236	10,298
	결과 %	10.3%	89.7%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70	22,570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8,191	51,502	59,693
	결과 %	13.7%	86.3%	100.0%

〈표 314〉는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13.7%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46.1%, 잠재적 위험군 13.9%, 일반군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취약·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4,857	5,676	10,533
	결과 %	46.1%	53.9%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2,272	14,020	16,292
	결과 %	13.9%	86.1%	100.0%
일반군	빈도	1,062	31,806	32,868
	결과 %	3.2%	96.8%	100.0%
전체	빈도	8,191	51,502	59,693
	결과 %	13.7%	86.3%	100.0%

## 2) 시도별

〈표 315〉는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이며(31.1%), 다음으로 경기도(2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현재 가출 상태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2,480	5,493	7,973
	시도의 %	31.1%	68.9%	100.0%
부산	빈도	164	2,626	2,790
	시도의 %	5.9%	94.1%	100.0%
인천	빈도	957	3,846	4,803
	시도의 %	19.9%	80.1%	100.0%
대구	빈도	201	859	1,060
	시도의 %	18.9%	81.1%	100.0%
대전	빈도	361	2,793	3,154
	시도의 %	11.4%	88.6%	100.0%
광주	빈도	278	1,359	1,637
	시도의 %	17.0%	83.0%	100.0%
울산	빈도	281	1,685	1,966
	시도의 %	14.3%	85.7%	100.0%
강원도	빈도	227	6,227	6,454
	시도의 %	3.5%	96.5%	100.0%
경기도	빈도	1,826	7,086	8,912
	시도의 %	20.5%	79.5%	100.0%
경남	빈도	154	4,493	4,647
	시도의 %	3.3%	96.7%	100.0%
경북	빈도	91	2,733	2,824
	시도의 %	3.2%	96.8%	100.0%
전남	빈도	382	2,500	2,882
	시도의 %	13.3%	86.7%	100.0%
전북	빈도	314	3,769	4,083
	시도의 %	7.7%	92.3%	100.0%
충남	빈도	206	2,921	3,127
	시도의 %	6.6%	93.4%	100.0%
충북	빈도	126	1,612	1,738
	시도의 %	7.2%	92.8%	100.0%
제주도	빈도	143	1,500	1,643
	시도의 %	8.7%	91.3%	100.0%
전체	빈도	8,191	51,502	59,693
	시도의 %	13.7%	86.3%	100.0%

### 3) 성별

〈표 316〉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 · 위기 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9.9%, 여학생은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취약 · 위기청소년 성별 현재 가출 상태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3,865	35,311	39,176
	성별의 %	9.9%	90.1%	100.0%
여	빈도	4,327	16,190	20,517
	성별의 %	21.1%	78.9%	100.0%
전체	빈도	8,192	51,501	59,693
	성별의 %	13.7%	86.3%	100.0%

### 4) 학교별

〈표 317〉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취약 · 위기 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다니지 않음 29.5%, 직업학교 26.0%, 직업훈련기관 23.4%, 대안학교 20.9%, 검정고시 학원 11.5%, 전문계 고등학교 10.3%, 중학교 10.1%, 초등학교 3.0%, 인문계 고등학교 6.9%, 소년원 학교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현재 가출 상태

학교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	빈도	118	3,845	3,963
	학교맞기관 의 %	3.0%	97.0%	100.0%
중학교	빈도	1,715	15,275	16,990
	학교맞기관 의 %	10.1%	89.9%	100.0%
인문계고등학교	빈도	497	6,701	7,198
	학교맞기관 의 %	6.9%	93.1%	100.0%
전문계고등학교	빈도	1,307	11,349	12,656
	학교맞기관 의 %	10.3%	89.7%	100.0%
대안학교	빈도	204	771	975
	학교맞기관 의 %	20.9%	79.1%	100.0%
검정고시 학원	빈도	328	2,518	2,846
	학교맞기관 의 %	11.5%	88.5%	100.0%
직업학교	빈도	59	167	226
	학교맞기관 의 %	26.0%	74.0%	100.0%
직업훈련기관	빈도	117	383	500
	학교맞기관 의 %	23.4%	76.6%	100.0%
소년원학교	빈도	49	1,397	1,446
	학교맞기관 의 %	3.4%	96.6%	100.0%
다니지 없음	빈도	3,798	9,094	12,892
	학교맞기관 의 %	29.5%	70.5%	100.0%
전체	빈도	8,192	51,501	59,693
	학교맞기관 의 %	13.7%	86.3%	100.0%

### 5) 학년별

〈표 318〉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해당없음 24.3%, 중학교 3학년 12.1%, 중학교 2학년 11.0%, 고등학교 1학년 10.1%, 고등학교 3학년 9.9%, 중학교 1학년 8.2%, 고등학교 2학년 7.1%, 초등학교 6학년 5.5%, 초등학교 5학년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현재 가출 상태

학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초등학교5학년	빈도	28	1,840	1,868
	학년의 %	1.5%	98.5%	100.0%
초등학교6학년	빈도	118	2,028	2,146
	학년의 %	5.5%	94.5%	100.0%
중학교1학년	빈도	329	3,687	4,016
	학년의 %	8.2%	91.8%	100.0%
중학교2학년	빈도	688	5,585	6,273
	학년의 %	11.0%	89.0%	100.0%
중학교3학년	빈도	905	6,592	7,497
	학년의 %	12.1%	87.9%	100.0%
고등학교1학년	빈도	835	7,403	8,238
	학년의 %	10.1%	89.9%	100.0%
고등학교2학년	빈도	463	6,052	6,515
	학년의 %	7.1%	92.9%	100.0%
고등학교3학년	빈도	547	4,975	5,522
	학년의 %	9.9%	90.1%	100.0%
해당없음	빈도	4,277	13,341	17,618
	학년의 %	24.3%	75.7%	100.0%
전체	빈도	8,190	51,503	59,693
	학년의 %	13.7%	86.3%	100.0%

### 6) 가정경제 수준별

〈표 319〉는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가출 상태’문항에 대한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4.4%, ‘어려운 편’ 15.5%, ‘잘 사는 편’ 14.1%, ‘보통이다’ 10.8%, ‘매우 잘 사는 편’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현재 가출 상태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1,409	4,356	5,765
	경제수준의 %	24.4%	75.6%	100.0%
어려운편	빈도	2,896	15,766	18,662
	경제수준의 %	15.5%	84.5%	100.0%
보통	빈도	3,386	28,044	31,430
	경제수준의 %	10.8%	89.2%	100.0%
잘 사는편	빈도	444	2,715	3,159
	경제수준의 %	14.1%	85.9%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58	619	677
	경제수준의 %	8.6%	91.4%	100.0%
전체	빈도	8,193	51,500	59,693
	경제수준의 %	13.7%	86.3%	100.0%

러. 현재 학업중단 상태(취약 · 위기청소년에만 해당)

1) 전체

〈표 320〉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학업중단 상태’문항에 대한 위기수준(6수준)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4.2%이며, 1수준 비율은 53.0%, 2수준은 46.7%, 3수준은 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1수준	빈도	5,031	4,464	9,495
	결과 %	53.0%	47.0%	100.0%
2수준	빈도	4,818	5,497	10,315
	결과 %	46.7%	53.3%	100.0%
3수준	빈도	4,574	5,725	10,299
	결과 %	44.4%	55.6%	100.0%
4수준	빈도	0	1,038	1,038
	결과 %	.0%	100.0%	100.0%
5수준	빈도	0	5,977	5,977
	결과 %	.0%	100.0%	100.0%
6수준	빈도	0	22,569	22,569
	결과 %	.0%	100.0%	100.0%
전체	빈도	14,423	45,270	59,693
	결과 %	24.2%	75.8%	100.0%

〈표 321〉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학업중단 상태’문항에 대한 위기요소 분포를 제시하였다. 취약 · 위기청소년의 위기결과에 해당사항이 있는 전체 비율은 24.2%이며, 고위험군 비율은 47.8%, 잠재적 위험군 29.6%, 일반군은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취약 · 위기청소년 전체 위기요소에 따른 위기결과 분포

구 분	위기결과		전체	
	해당사항있음	해당사항없음		
고위험군	빈도	5,031	5,502	10,533
	결과 %	47.8%	52.2%	100.0%
잠재적 위험군	빈도	4,818	11,475	16,293
	결과 %	29.6%	70.4%	100.0%
일반군	빈도	4,574	28,293	32,867
	결과 %	13.9%	86.1%	100.0%
전체	빈도	14,423	45,270	59,693
	결과 %	24.2%	75.8%	100.0%



## 2) 시도별

〈표 322〉는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학업중단 상태’문항에 대한 시도별 취약·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위기결과 해당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도이며(39.1%), 다음으로 서울(37.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시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서울	빈도	3,023	4,950	7,973
	시도의 %	37.9%	62.1%	100.0%
부산	빈도	541	2,249	2,790
	시도의 %	19.4%	80.6%	100.0%
인천	빈도	967	3,836	4,803
	시도의 %	20.1%	79.9%	100.0%
대구	빈도	258	802	1,060
	시도의 %	24.3%	75.7%	100.0%
대전	빈도	842	2,312	3,154
	시도의 %	26.7%	73.3%	100.0%
광주	빈도	544	1,093	1,637
	시도의 %	33.2%	66.8%	100.0%
울산	빈도	361	1,605	1,966
	시도의 %	18.4%	81.6%	100.0%
강원도	빈도	727	5,727	6,454
	시도의 %	11.3%	88.7%	100.0%
경기도	빈도	3488	5,424	8,912
	시도의 %	39.1%	60.9%	100.0%
경남	빈도	671	3,976	4,647
	시도의 %	14.4%	85.6%	100.0%
경북	빈도	480	2,344	2,824
	시도의 %	17.0%	83.0%	100.0%
전남	빈도	540	2,342	2,882
	시도의 %	18.7%	81.3%	100.0%
전북	빈도	638	3,445	4,083
	시도의 %	15.6%	84.4%	100.0%
충남	빈도	499	2,628	3,127
	시도의 %	16.0%	84.0%	100.0%
충북	빈도	372	1,366	1,738
	시도의 %	21.4%	78.6%	100.0%
제주도	빈도	472	1,171	1,643
	시도의 %	28.7%	71.3%	100.0%
전체	빈도	14,423	45,270	59,693
	시도의 %	24.2%	75.8%	100.0%

### 3) 성별

〈표 323〉은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학업중단 상태’문항에 대한 성별 취약·위기청소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남학생의 비율은 24.5%, 여학생은 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성별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남	빈도	9,609	29,567	39,176
	성별의 %	24.5%	75.5%	100.0%
여	빈도	4,814	15,703	20,517
	성별의 %	23.5%	76.5%	100.0%
전체	빈도	14,423	45,270	59,693
	성별의 %	24.2%	75.8%	100.0%

### 4) 가정경제 수준별

〈표 324〉는 위기결과 문항 중 ‘현재 학업중단 상태’문항에 대한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0.8%, ‘어려운 편’ 27.1%, ‘보통이다’ 22.0%, ‘잘 사는 편’ 19.6%, ‘매우 잘 사는 편’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현재 학업중단 상태

가정경제수준		위기결과		전체
		해당있음	해당없음	
매우 어려운편	빈도	1,773	3,992	5,765
	경제수준의 %	30.8%	69.2%	100.0%
어려운편	빈도	5,056	13,606	18,662
	경제수준의 %	27.1%	72.9%	100.0%
보통	빈도	6,913	24,517	31,430
	경제수준의 %	22.0%	78.0%	100.0%
잘 사는편	빈도	618	2,541	3,159
	경제수준의 %	19.6%	80.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63	614	677
	경제수준의 %	9.3%	90.7%	100.0%
전체	빈도	14,423	45,270	59,693
	경제수준의 %	24.2%	75.8%	100.0%

## 6.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 가. 일반학생

#### 1) 시도별

〈표 32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987명(0.1%)으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서울(392명), 울산(204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성별

〈표 326〉은 일반학생의 성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1,575명, 여학생 6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별

〈표 32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학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88명, 중학교 536명, 인문계 고등학교 1,371명, 전문계 고등학교 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년별

〈표 32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 88명, 중학교 1학년 90명, 중학교 2학년 141명, 중학교 3학년 305명, 고등학교 1학년 302명, 고등학교 2학년 750명, 고등학교 3학년 5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가정경제 수준별

〈표 32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은 1,142명, ‘어려운 편’ 126명, ‘보통이다’ 387명, ‘잘 사는 편’ 90명, ‘매우 잘 사는 편’ 5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취약·위기청소년

### 1) 시도별

〈표 330〉은 취약·위기청소년의 시도별 위기결과 중복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시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이 34명, 경기도 28명, 대구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별

〈표 331〉은 취약·위기청소년의 성별 위기결과 중복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28명, 여학생 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별

〈표 332〉는 취약·위기청소년의 학교별 위기결과 중복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학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50명, 검정고시 학원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년별

〈표 333〉은 취약·위기청소년의 학년별 위기결과 중복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학년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 16명, 중학교 3학년 34명, 해당없음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가정경제 수준별

〈표 334〉는 취약·위기청소년의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중복을 분포를 제시하였다. 위기결과 17개 문항에 모두 해당되는 가정경제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은 28명, ‘어려운 편’ 34명, ‘보통이다’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일반학생 시도별 위기결과 증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
서울	657,480	59,825	14,232	4,667	1,921	1,383	214	750	266	0	185	186	0	0	41	74	91	392	941,687
	91.1%	6.4%	1.5%	.5%	.2%	.1%	.0%	.1%	.0%	.0%	.0%	.0%	.0%	.0%	.0%	.0%	.0%	.0%	100.0%
부산	326,636	19,135	5,790	1,614	468	284	269	0	75	0	101	29	0	0	0	0	29	48	354,478
	92.1%	5.4%	1.6%	.5%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인천	272,724	18,216	5,522	2,275	699	263	192	242	166	133	0	0	0	0	32	0	62	0	300,526
	90.7%	6.1%	1.8%	.8%	.2%	.1%	.1%	.1%	.1%	.0%	.0%	.0%	.0%	.0%	.0%	.0%	.0%	.0%	100.0%
대구	266,725	15,205	3,224	848	648	128	41	48	41	0	0	0	0	0	0	0	41	88	287,037
	92.9%	5.3%	1.1%	.3%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대전	155,661	11,455	4,352	1,160	659	211	70	35	105	81	0	0	0	0	0	35	0	0	173,824
	89.6%	6.6%	2.5%	.7%	.4%	.1%	.0%	.0%	.1%	.0%	.0%	.0%	.0%	.0%	.0%	.0%	.0%	.0%	100.0%
광주	167,530	10,486	2,024	1,055	459	432	140	84	0	0	84	70	0	0	84	0	84	84	182,616
	91.7%	5.7%	1.1%	.6%	.3%	.2%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울산	124,887	9,618	2,120	836	478	235	276	0	0	232	126	0	0	0	103	0	79	204	139,194
	89.7%	6.9%	1.5%	.6%	.3%	.2%	.2%	.0%	.0%	.2%	.1%	.0%	.0%	.0%	.1%	.0%	.1%	.1%	100.0%
강원	139,587	8,833	3,242	833	385	185	139	64	82	85	21	21	68	0	42	60	21	115	153,783
	90.8%	5.7%	2.1%	.5%	.3%	.1%	.1%	.0%	.1%	.1%	.0%	.0%	.0%	.0%	.0%	.0%	.0%	.1%	100.0%
경기	1,164,104	63,320	18,332	4,405	1,862	999	817	247	211	138	233	134	347	196	92	387	0	987	1,256,811
	92.6%	5.0%	1.5%	.4%	.1%	.1%	.1%	.0%	.0%	.0%	.0%	.0%	.0%	.0%	.0%	.0%	.0%	.1%	100.0%
강남	322,933	21,535	6,161	1,876	720	241	390	71	79	88	116	0	57	46	61	57	31	0	354,462
	91.1%	6.1%	1.7%	.5%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경북	239,032	15,833	3,907	1,163	337	72	81	20	123	29	0	0	40	0	0	0	0	34	260,671
	91.7%	6.1%	1.5%	.4%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전남	178,880	11,662	3,283	999	217	303	122	42	106	54	27	17	78	17	0	0	0	130	195,937
	91.3%	6.0%	1.7%	.5%	.1%	.2%	.1%	.0%	.1%	.0%	.0%	.0%	.0%	.0%	.0%	.0%	.0%	.1%	100.0%
전북	183,717	11,813	3,190	1,304	587	354	238	197	213	96	32	32	32	32	74	70	0	38	202,019
	90.9%	5.8%	1.6%	.6%	.3%	.2%	.1%	.1%	.1%	.0%	.0%	.0%	.0%	.0%	.0%	.0%	.0%	.0%	100.0%
충남	186,623	13,021	3,320	1,297	711	131	30	0	72	0	41	0	39	35	0	40	0	151	205,511
	90.8%	6.3%	1.6%	.6%	.3%	.1%	.0%	.0%	.0%	.0%	.0%	.0%	.0%	.0%	.0%	.0%	.0%	.1%	100.0%
충북	148,179	11,531	3,675	782	164	56	200	0	116	0	31	53	0	0	0	0	20	0	164,807
	89.1%	7.0%	2.2%	.5%	.1%	.0%	.1%	.0%	.1%	.0%	.0%	.0%	.0%	.0%	.0%	.0%	.0%	.0%	100.0%
제주	58,387	4,746	1,417	278	285	88	0	0	0	0	26	0	0	0	0	0	0	0	65,227
	89.5%	7.3%	2.2%	.4%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전체	4,793,085	306,234	83,791	25,392	10,600	5,365	3,219	1,800	1,655	936	1,003	542	661	326	529	723	458	2,271	5,238,590
	91.5%	5.8%	1.6%	.5%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표 328〉 일반학생 학년별 위기결과와 중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전체
초등	581,032	28,404	6,250	1,409	626	365	128	80	101	0	0	0	0	0	0	88	0	88	618,571
학교	93.9%	4.6%	1.0%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5학년	603,645	29,637	9,866	2,680	1,099	157	0	0	55	0	0	70	0	46	0	0	0	0	647,255
학교	93.3%	4.6%	1.5%	.4%	.2%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6학년	606,029	33,624	10,829	3,437	1,155	378	305	228	274	0	0	92	57	0	74	0	0	90	656,572
학교	92.3%	5.1%	1.6%	.5%	.2%	.1%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중학교	622,326	35,060	11,966	4,052	1,486	533	564	154	0	167	95	94	0	0	0	170	79	141	676,887
학교	91.9%	5.2%	1.8%	.6%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2학년	618,068	36,142	12,152	3,698	1,060	968	193	160	99	172	185	0	0	0	0	158	153	305	673,513
학교	91.8%	5.4%	1.8%	.5%	.2%	.1%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3학년	607,427	43,175	11,135	3,464	1,255	1,141	687	144	259	17	239	184	243	154	103	70	41	302	670,040
학교	90.7%	6.4%	1.7%	.5%	.2%	.2%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1학년	591,339	49,206	10,637	3,736	2,062	803	606	648	228	321	275	53	141	127	157	202	125	750	661,416
학교	89.4%	7.4%	1.6%	.6%	.3%	.1%	.1%	.1%	.0%	.0%	.0%	.0%	.0%	.0%	.0%	.0%	.0%	.0%	100.0%
2학년	563,228	50,985	10,956	2,916	1,855	1,019	734	386	638	259	207	50	220	0	195	35	59	594	634,336
학교	88.8%	8.0%	1.7%	.5%	.3%	.2%	.1%	.1%	.1%	.0%	.0%	.0%	.0%	.0%	.0%	.0%	.0%	.0%	100.0%
3학년	4,793,094	306,233	83,791	25,392	10,598	5,364	3,217	1,800	1,654	936	1,001	543	661	327	529	723	457	2,270	5,238,590
전체	91.5%	5.8%	1.6%	.5%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표 32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증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진체
매우	63,881	9,725	5,094	3,270	1,341	815	407	410	402	215	158	141	48	117	229	391	194	1,142	87,980
이러운편	72.6%	11.1%	5.8%	3.7%	1.5%	.9%	.5%	.5%	.5%	.2%	.2%	.2%	.1%	.1%	.3%	.4%	.2%	1.3%	100.0%
이러운편	581,151	62,403	18,581	4,945	1,993	451	581	78	231	31	93	0	64	0	134	0	21	126	670,883
	86.6%	9.3%	2.8%	.7%	.3%	.1%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보통	3,271,662	188,334	46,805	12,859	5,165	2,685	1,433	1,150	808	237	355	182	259	150	133	237	121	387	3,532,962
	92.6%	5.3%	1.3%	.4%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참사느편	774,130	39,066	10,597	2,999	1,217	1,047	343	34	0	189	26	92	105	60	0	35	0	90	830,010
	93.3%	4.7%	1.3%	.4%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매우	102,266	6,705	2,714	1,318	883	366	454	129	215	285	369	128	184	0	32	60	122	525	116,755
참사느편	87.6%	5.7%	2.3%	1.1%	.8%	.3%	.4%	.1%	.2%	.2%	.3%	.1%	.2%	.0%	.0%	.1%	.1%	.4%	100.0%
진체	4,793,090	306,233	83,791	25,391	10,599	5,364	3,218	1,801	1,656	937	1,001	543	660	327	528	723	458	2,270	5,238,590
	91.5%	5.8%	1.6%	.5%	.2%	.1%	.1%	.0%	.0%	.0%	.0%	.0%	.0%	.0%	.0%	.0%	.0%	.0%	100.0%



나. 취약·위기청소년

<표 330> 취약·위기청소년 시도별 위기결과와 중복률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전체
서울	2,306	1,873	1,243	825	752	342	390	158	85	21	0	0	28	0	0	0	7,973
	28.9%	23.5%	15.6%	10.3%	9.4%	4.3%	4.9%	2.0%	.4%	.3%	.0%	.0%	.4%	.0%	.0%	.0%	100.0%
부산	1,488	724	365	109	46	8	38	2	9	1	0	0	0	0	0	0	2,790
	53.3%	26.0%	13.1%	3.9%	1.6%	.3%	1.4%	.1%	.3%	.0%	.0%	.0%	.0%	.0%	.0%	.0%	100.0%
인천	2,015	1,219	368	535	270	200	28	67	34	67	0	0	0	0	0	0	4,803
	41.9%	25.4%	7.7%	11.1%	5.6%	4.2%	.6%	1.4%	.7%	1.4%	.0%	.0%	.0%	.0%	.0%	.0%	100.0%
대구	549	163	164	46	40	33	1	0	32	0	0	16	0	0	0	16	1,060
	51.8%	15.4%	15.5%	4.3%	3.8%	3.1%	.1%	.0%	3.0%	.0%	.0%	1.5%	.0%	.0%	.0%	1.5%	100.0%
대전	1,554	809	407	119	103	42	13	69	2	2	34	0	0	0	0	0	3,154
	49.3%	25.6%	12.9%	3.8%	3.3%	1.3%	.4%	2.2%	.1%	.1%	1.1%	.0%	.0%	.0%	.0%	.0%	100.0%
광주	413	417	264	126	240	34	47	0	28	67	0	0	0	1	0	0	1,637
	25.3%	25.5%	16.1%	7.7%	14.7%	2.1%	2.9%	.0%	1.7%	4.1%	.0%	.0%	.0%	.1%	.0%	.0%	100.0%
울산	1,090	281	260	170	0	57	64	0	28	16	0	0	0	0	0	0	1,966
	55.4%	14.3%	13.2%	8.6%	.0%	2.9%	3.3%	.0%	1.4%	.8%	.0%	.0%	.0%	.0%	.0%	.0%	100.0%
강원	4,830	699	486	126	186	95	29	1	0	1	0	0	1	0	0	0	6,454
	74.8%	10.8%	7.5%	2.0%	2.9%	1.5%	.4%	.0%	.0%	.0%	.0%	.0%	.0%	.0%	.0%	.0%	100.0%
경기	2,803	2,594	1,631	724	395	207	168	182	30	63	0	58	1	0	28	28	8,912
	31.5%	29.1%	18.3%	8.1%	4.4%	2.3%	1.9%	2.0%	.3%	.7%	.0%	.7%	.0%	.0%	.3%	.3%	100.0%
경남	2,704	1,196	371	190	58	76	8	8	8	0	0	0	0	28	0	0	4,647
	58.2%	25.7%	8.0%	4.1%	1.2%	1.6%	.2%	.2%	.2%	.0%	.0%	.0%	.0%	.6%	.0%	.0%	100.0%
경북	1,836	546	316	118	8	0	0	0	0	0	0	0	0	0	0	0	2,824
	65.0%	19.3%	11.2%	4.2%	.3%	.0%	.0%	.0%	.0%	.0%	.0%	.0%	.0%	.0%	.0%	.0%	100.0%
전남	1,463	546	427	57	78	85	90	0	34	0	34	0	34	0	0	34	2,882
	50.8%	18.9%	14.8%	2.0%	2.7%	2.9%	3.1%	.0%	1.2%	.0%	1.2%	.0%	1.2%	.0%	.0%	1.2%	100.0%
전북	2,849	649	247	81	95	85	3	2	34	1	59	28	0	0	0	0	4,083
	69.8%	15.9%	6.0%	2.0%	2.3%	.9%	.1%	.0%	.8%	.0%	1.4%	.7%	.0%	.0%	.0%	.0%	100.0%
충남	1,952	469	387	156	43	29	51	0	0	0	0	40	0	0	0	0	3,127
	62.4%	15.0%	12.4%	5.0%	1.4%	.9%	1.6%	.0%	.0%	.0%	.0%	1.3%	.0%	.0%	.0%	.0%	100.0%
충북	849	485	295	43	35	29	1	0	1	0	0	0	0	0	0	0	1,738
	48.8%	27.9%	17.0%	2.5%	2.0%	1.7%	.1%	.0%	.1%	.0%	.0%	.0%	.0%	.0%	.0%	.0%	100.0%
제주	881	241	271	75	73	32	3	67	0	0	0	0	0	0	0	0	1,643
	53.6%	14.7%	16.5%	4.6%	4.4%	1.9%	.2%	4.1%	.0%	.0%	.0%	.0%	.0%	.0%	.0%	.0%	100.0%
전체	29,583	12,910	7,502	3,500	2,422	1,304	934	556	275	239	127	142	64	29	28	78	59,693
	49.6%	21.6%	12.6%	5.9%	4.1%	2.2%	1.6%	.9%	.5%	.4%	.2%	.2%	.1%	.0%	.0%	.1%	100.0%

〈표 331〉 취약·위기청소년 성별 위기결과와 중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전체
남	18,039	10,489	5,546	2,058	1,203	715	484	206	89	48	59	125	30	29	28	28	39,176
	46.0%	26.8%	14.2%	5.3%	3.1%	1.8%	1.2%	.5%	.2%	.1%	.2%	.3%	.1%	.1%	.1%	.1%	100.0%
여	11,542	2,421	1,955	1,441	1,220	590	451	351	185	191	67	17	34	0	0	50	20,517
	56.3%	11.8%	9.5%	7.0%	5.9%	2.9%	2.2%	1.7%	.9%	.9%	.3%	.1%	.2%	.0%	.0%	.2%	100.0%
전체	29,583	12,910	7,501	3,499	2,423	1,305	935	557	274	239	126	142	64	29	28	78	59,693
	49.6%	21.6%	12.6%	5.9%	4.1%	2.2%	1.6%	.9%	.5%	.4%	.2%	.2%	.1%	.0%	.0%	.1%	100.0%

〈표 332〉 취약·위기청소년 학교별 위기결과와 중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전체
초등학교	3,628	196	44	34	62	0	0	0	0	0	0	0	0	0	0	0	3,964
	91.5%	4.9%	1.1%	.9%	1.6%	.0%	.0%	.0%	.0%	.0%	.0%	.0%	.0%	.0%	.0%	.0%	100.0%
중학교	11,684	2,424	1,105	555	557	190	184	101	0	78	34	0	0	0	28	50	16,990
	68.8%	14.3%	6.5%	3.3%	3.3%	1.1%	1.1%	.6%	.0%	.5%	.2%	.0%	.0%	.0%	.2%	.3%	100.0%
인문계	4,609	1,860	306	211	90	28	78	0	0	0	0	0	16	0	0	0	7,198
	64.0%	25.8%	4.3%	2.9%	1.3%	.4%	1.1%	.0%	.0%	.0%	.0%	.2%	.0%	.0%	.0%	.0%	100.0%
전문계	7,173	3,158	1,145	421	262	140	171	95	63	0	0	28	0	0	0	0	12,656
	56.7%	25.0%	9.0%	3.3%	2.1%	1.1%	1.4%	.8%	.5%	.0%	.0%	.2%	.0%	.0%	.0%	.0%	100.0%
대안학교	218	462	121	36	28	96	14	0	0	0	0	0	0	0	0	0	975
	22.2%	47.5%	12.4%	3.7%	2.9%	9.9%	1.4%	.0%	.0%	.0%	.0%	.0%	.0%	.0%	.0%	.0%	100.0%
경고시	567	799	839	286	127	95	29	0	36	0	0	40	0	0	0	28	2,846
	19.9%	28.1%	29.5%	10.1%	4.5%	3.3%	1.0%	.0%	1.3%	.0%	.0%	1.4%	.0%	.0%	.0%	1.0%	100.0%
학원	75	120	14	16	0	0	0	0	1	0	0	0	0	0	0	0	226
	33.2%	53.1%	6.2%	7.1%	.0%	.0%	.0%	.4%	.0%	.0%	.0%	.0%	.0%	.0%	.0%	.0%	100.0%
직업학교	84	90	165	28	0	0	43	28	28	34	0	0	0	0	0	0	500
	16.0%	18.0%	33.1%	5.6%	.0%	.0%	8.6%	5.6%	5.6%	6.8%	.0%	.0%	.0%	.0%	.0%	.0%	100.0%
소년원	350	454	267	110	99	47	29	41	5	38	2	1	2	1	0	0	1,446
	24.2%	31.4%	18.5%	7.6%	6.8%	3.3%	2.0%	2.8%	.3%	2.6%	.1%	.1%	.1%	.1%	.0%	.0%	100.0%
다누리	1,198	3,346	3,495	1,802	1,196	709	387	290	142	90	90	57	62	28	0	0	12,892
	9.3%	26.0%	27.1%	14.0%	9.3%	5.5%	3.0%	2.2%	1.1%	.7%	.7%	.4%	.5%	.2%	.0%	.0%	100.0%
총합	29,586	12,909	7,501	3,489	2,421	1,305	935	556	274	240	126	142	64	29	28	78	59,693
	49.6%	21.6%	12.6%	5.9%	4.1%	2.2%	1.6%	.9%	.5%	.4%	.2%	.2%	.1%	.0%	.0%	.1%	100.0%

〈표 333〉 취약·위기청소년 학년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전체
초등학교 5학년	1,731	72	16	0	21	28	0	0	0	0	0	0	0	0	0	0	1,868
	92.7%	3.9%	.9%	.0%	1.1%	1.5%	.0%	.0%	.0%	.0%	.0%	.0%	.0%	.0%	.0%	.0%	100.0%
초등학교 6학년	1,897	125	28	34	62	0	0	0	0	0	0	0	0	0	0	0	2,146
	88.4%	5.8%	1.3%	1.6%	2.9%	.0%	.0%	.0%	.0%	.0%	.0%	.0%	.0%	.0%	.0%	.0%	100.0%
중학교 1학년	3,063	400	360	81	82	0	29	1	0	0	0	0	0	0	0	0	4,016
	76.3%	10.0%	9.0%	2.0%	2.0%	.0%	.7%	.0%	.0%	.0%	.0%	.0%	.0%	.0%	.0%	.0%	100.0%
중학교 2학년	4,051	1,057	362	225	245	134	91	29	0	34	0	1	0	0	28	16	6,273
	64.6%	16.8%	5.8%	3.6%	3.9%	2.1%	1.5%	.5%	.0%	.5%	.0%	.0%	.0%	.0%	.4%	.3%	100.0%
중학교 3학년	4,744	1,253	465	286	332	98	71	102	0	78	34	0	0	0	0	34	7,487
	63.3%	16.7%	6.2%	3.8%	4.4%	1.3%	.9%	1.4%	.0%	1.0%	.5%	.0%	.0%	.0%	.0%	.5%	100.0%
고등학교 1학년	4,806	2,135	596	313	60	93	76	67	29	34	0	28	1	0	0	0	8,238
	58.3%	25.9%	7.2%	3.8%	.7%	1.1%	.9%	.8%	.4%	.4%	.0%	.3%	.0%	.0%	.0%	.0%	100.0%
고등학교 2학년	3,734	1,821	437	142	178	62	124	0	0	1	0	16	0	0	0	0	6,515
	57.3%	28.0%	6.7%	2.2%	2.7%	1.0%	1.9%	.0%	.0%	.0%	.0%	.2%	.0%	.0%	.0%	.0%	100.0%
고등학교 3학년	3,343	1,274	472	182	86	44	57	29	35	0	0	0	0	0	0	0	5,522
	60.5%	23.1%	8.5%	3.3%	1.6%	.8%	1.0%	.5%	.6%	.0%	.0%	.0%	.0%	.0%	.0%	.0%	100.0%
해당없음	2,214	4,774	4,765	2,237	1,357	846	486	328	210	93	92	96	63	29	0	28	17,618
	12.6%	27.1%	27.0%	12.7%	7.7%	4.8%	2.8%	1.9%	1.2%	.5%	.5%	.5%	.4%	.2%	.0%	.2%	100.0%
전체	29,583	12,911	7,501	3,500	2423	1305	934	556	274	240	126	141	64	29	28	78	59,683
	49.6%	21.6%	12.6%	5.9%	4.1%	2.2%	1.6%	.9%	.5%	.4%	.2%	.2%	.1%	.0%	.0%	.1%	100.0%

〈표 334〉 취약·위기청소년 가정경제 수준별 위기결과 중복율 분포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전체
매우어려운편	2,473	886	859	489	208	169	177	188	68	68	62	0	34	28	28	28	5,765
	42.9%	15.4%	14.9%	8.5%	3.6%	2.9%	3.1%	3.3%	1.2%	1.2%	1.1%	.0%	.6%	.5%	.5%	.5%	100.0%
어려운편	8,558	4,375	2,577	1,000	796	600	331	175	62	97	29	28	0	0	0	34	18,662
	45.9%	23.4%	13.8%	5.4%	4.3%	3.2%	1.8%	.9%	.3%	.5%	.2%	.2%	.0%	.0%	.0%	.2%	100.0%
보통	16,495	6,882	3,674	1,737	1,392	391	321	159	111	74	35	112	30	1	0	16	31,430
	52.5%	21.9%	11.7%	5.5%	4.4%	1.2%	1.0%	.5%	.4%	.2%	.1%	.4%	.1%	.0%	.0%	.1%	100.0%
잘사는편	1,622	645	274	271	25	145	107	35	34	0	0	1	0	0	0	0	3,159
	51.4%	20.4%	8.7%	8.6%	.8%	4.6%	3.4%	1.1%	1.1%	.0%	.0%	.0%	.0%	.0%	.0%	.0%	100.0%
매우잘사는편	433	123	117	2	2	0	0	0	0	0	0	0	0	0	0	0	677
	64.0%	18.2%	17.3%	.3%	.3%	.0%	.0%	.0%	.0%	.0%	.0%	.0%	.0%	.0%	.0%	.0%	100.0%
전체	29,581	12,911	7,501	3,499	2,423	1,305	936	557	275	239	126	141	64	29	28	78	59,683
	49.6%	21.6%	12.6%	5.9%	4.1%	2.2%	1.6%	.9%	.5%	.4%	.2%	.2%	.1%	.0%	.0%	.1%	100.0%

## 7. 위기결과 유형별 빈도 분포

### 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3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7%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1.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성별

〈표 336〉은 일반학생의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9%이며, 여학생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학교별

〈표 33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1.0%, 전문계 고등학교 0.8%, 인문계 고등학교 0.7%, 초등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라) 학년별

〈표 33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2학년 1.1%, 중학교 3학년 1.0%, 중학교 1학년 0.8%, 고등학교 1학년 0.8%, 고등학교 2학년 0.8%, 고등학교 3학년 0.5%, 초등학교 5학년 0.4%, 초등학교 6학년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798,026	77,573	43,271	14,295	8,522	941,687
	시도의 %	84.7%	8.2%	4.6%	1.5%	.9%	100.0%
부산	빈도	310,537	23,431	14,663	4,285	1,562	354,478
	시도의 %	87.6%	6.6%	4.1%	1.2%	.4%	100.0%
인천	빈도	261,168	23,004	10,977	3,449	1,928	300,526
	시도의 %	86.9%	7.7%	3.7%	1.1%	.6%	100.0%
대구	빈도	247,838	22,997	11,302	3,447	1,453	287,037
	시도의 %	86.3%	8.0%	3.9%	1.2%	.5%	100.0%
대전	빈도	151,628	11,658	6,425	2,723	1,390	173,824
	시도의 %	87.2%	6.7%	3.7%	1.6%	.8%	100.0%
광주	빈도	156,858	13,710	8,608	2,105	1,335	182,616
	시도의 %	85.9%	7.5%	4.7%	1.2%	.7%	100.0%
울산	빈도	119,886	10,781	5,897	1,222	1,408	139,194
	시도의 %	86.1%	7.7%	4.2%	.9%	1.0%	100.0%
강원도	빈도	135,833	9,938	5,395	1,389	1,228	153,783
	시도의 %	88.3%	6.5%	3.5%	.9%	.8%	100.0%
경기도	빈도	1,112,591	83,853	39,871	10,733	9,763	1,256,811
	시도의 %	88.5%	6.7%	3.2%	.9%	.8%	100.0%
경남	빈도	308,975	26,094	14,138	3,171	2,084	354,462
	시도의 %	87.2%	7.4%	4.0%	.9%	.6%	100.0%
경북	빈도	229,955	17,986	9,033	2,379	1,318	260,671
	시도의 %	88.2%	6.9%	3.5%	.9%	.5%	100.0%
전남	빈도	174,403	11,687	6,993	1,474	1,380	195,937
	시도의 %	89.0%	6.0%	3.6%	.8%	.7%	100.0%
전북	빈도	176,525	14,353	7,896	1,957	1,288	202,019
	시도의 %	87.4%	7.1%	3.9%	1.0%	.6%	100.0%
충남	빈도	178,012	15,191	8,398	2,224	1,686	205,511
	시도의 %	86.6%	7.4%	4.1%	1.1%	.8%	100.0%
충북	빈도	141,456	13,297	6,364	2,493	1,197	164,807
	시도의 %	85.8%	8.1%	3.9%	1.5%	.7%	100.0%
제주도	빈도	56,618	4,574	2,719	707	609	65,227
	시도의 %	86.8%	7.0%	4.2%	1.1%	.9%	100.0%
전체	빈도	4,560,309	380,127	201,950	58,053	38,151	5,238,590
	시도의 %	87.1%	7.3%	3.9%	1.1%	.7%	100.0%

〈표 336〉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310,125	252,009	138,704	39,228	24,489	2,764,555
	성별의 %	83.6%	9.1%	5.0%	1.4%	.9%	100.0%
여	빈도	2,250,180	128,121	63,246	18,824	13,664	2,474,035
	성별의 %	91.0%	5.2%	2.6%	.8%	.6%	100.0%
전체	빈도	4,560,305	380,130	201,950	58,052	38,153	5,238,590
	성별의 %	87.1%	7.3%	3.9%	1.1%	.7%	100.0%

〈표 337〉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72,606	60,215	22,799	5,232	4,974	1,265,826
	학교 구분의 %	92.6%	4.8%	1.8%	.4%	.4%	100.0%
중학교	빈도	1,693,521	175,393	92,472	26,426	19,160	2,006,972
	학교 구분의 %	84.4%	8.7%	4.6%	1.3%	1.0%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269,992	111,700	67,581	20,836	9,991	1,480,100
	학교 구분의 %	85.8%	7.5%	4.6%	1.4%	.7%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24,187	32,821	19,098	5,558	4,028	485,692
	학교 구분의 %	87.3%	6.8%	3.9%	1.1%	.8%	100.0%
전체	빈도	4,560,306	380,129	201,950	58,052	38,153	5,238,590
	학교 구분의 %	87.1%	7.3%	3.9%	1.1%	.7%	100.0%

〈표 338〉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82,513	23,581	8,551	1,740	2,186	618,571
	학년의 %	94.2%	3.8%	1.4%	.3%	.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90,094	36,633	14,248	3,492	2,788	647,255
	학년의 %	91.2%	5.7%	2.2%	.5%	.4%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66,076	55,020	24,307	6,179	4,990	656,572
	학년의 %	86.2%	8.4%	3.7%	.9%	.8%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572,782	56,227	32,113	9,244	6,521	676,887
	학년의 %	84.6%	8.3%	4.7%	1.4%	1.0%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554,663	64,146	36,052	11,003	7,649	673,513
	학년의 %	82.4%	9.5%	5.4%	1.6%	1.1%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567,650	54,768	32,873	9,687	5,062	670,040
	학년의 %	84.7%	8.2%	4.9%	1.4%	.8%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565,035	49,895	31,657	9,273	5,556	661,416
	학년의 %	85.4%	7.5%	4.8%	1.4%	.8%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561,495	39,858	22,149	7,434	3,400	634,336
	학년의 %	88.5%	6.3%	3.5%	1.2%	.5%	100.0%
전체	빈도	4,560,308	380,128	201,950	58,052	38,152	5,238,590
	학년의 %	87.1%	7.3%	3.9%	1.1%	.7%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3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4.4%, ‘매우 잘 사는 편’ 1.9%, ‘어려운 편’ 1.1%, ‘보통이다’ 0.6%, ‘잘 사는 편’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0,569	6,694	5,019	1,857	3,841	87,980
	경제수준의 %	80.2%	7.6%	5.7%	2.1%	4.4%	100.0%
어려운편	빈도	552,498	59,080	38,163	13,703	7,439	670,883
	경제수준의 %	82.4%	8.8%	5.7%	2.0%	1.1%	100.0%
보통	빈도	3,086,091	256,472	134,345	35,631	20,423	3,532,962
	경제수준의 %	87.4%	7.3%	3.8%	1.0%	.6%	100.0%
잘사는편	빈도	745,575	51,981	22,284	5,980	4,190	830,010
	경제수준의 %	89.8%	6.3%	2.7%	.7%	.5%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5,572	5,903	2,139	881	2,260	116,755
	경제수준의 %	90.4%	5.1%	1.8%	.8%	1.9%	100.0%
전체	빈도	4,560,305	380,130	201,950	58,052	38,153	5,238,590
	경제수준의 %	87.1%	7.3%	3.9%	1.1%	.7%	100.0%

## 나.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4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2.4%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과 대전(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597,518	136,315	132,420	44,986	30,448	941,687
	시도의 %	63.5%	14.5%	14.1%	4.8%	3.2%	100.0%
부산	빈도	240,035	51,306	42,833	13,811	6,493	354,478
	시도의 %	67.7%	14.5%	12.1%	3.9%	1.8%	100.0%
인천	빈도	197,185	45,389	39,515	11,067	7,370	300,526
	시도의 %	65.6%	15.1%	13.1%	3.7%	2.5%	100.0%
대구	빈도	193,545	42,610	36,137	9,686	5,059	287,037
	시도의 %	67.4%	14.8%	12.6%	3.4%	1.8%	100.0%
대전	빈도	107,604	29,621	23,344	7,719	5,536	173,824
	시도의 %	61.9%	17.0%	13.4%	4.4%	3.2%	100.0%
광주	빈도	121,830	26,588	22,127	7,680	4,391	182,616
	시도의 %	66.7%	14.6%	12.1%	4.2%	2.4%	100.0%
울산	빈도	88,176	22,972	18,600	5,774	3,672	139,194
	시도의 %	63.3%	16.5%	13.4%	4.1%	2.6%	100.0%
강원도	빈도	105,588	20,984	18,730	5,064	3,417	153,783
	시도의 %	68.7%	13.6%	12.2%	3.3%	2.2%	100.0%
경기도	빈도	818,097	189,017	173,838	49,665	26,194	1,256,811
	시도의 %	65.1%	15.0%	13.8%	4.0%	2.1%	100.0%
경남	빈도	220,350	58,550	50,511	17,217	7,834	354,462
	시도의 %	62.2%	16.5%	14.3%	4.9%	2.2%	100.0%
경북	빈도	173,557	38,797	32,983	9,412	5,922	260,671
	시도의 %	66.6%	14.9%	12.7%	3.6%	2.3%	100.0%
전남	빈도	138,293	27,850	19,717	5,393	4,684	195,937
	시도의 %	70.6%	14.2%	10.1%	2.8%	2.4%	100.0%
전북	빈도	139,176	28,543	24,241	6,074	3,985	202,019
	시도의 %	68.9%	14.1%	12.0%	3.0%	2.0%	100.0%
충남	빈도	132,264	30,295	28,332	8,605	6,015	205,511
	시도의 %	64.4%	14.7%	13.8%	4.2%	2.9%	100.0%
충북	빈도	107,818	23,832	22,077	6,708	4,372	164,807
	시도의 %	65.4%	14.5%	13.4%	4.1%	2.7%	100.0%
제주도	빈도	42,327	10,493	8,556	2,270	1,581	65,227
	시도의 %	64.9%	16.1%	13.1%	3.5%	2.4%	100.0%
전체	빈도	3,423,363	783,162	693,961	211,131	126,973	5,238,590
	시도의 %	65.3%	14.9%	13.2%	4.0%	2.4%	100.0%

#### 나) 성별

〈표 341〉은 일반학생의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2.7%이며, 여학생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1,719,171	449,890	396,664	124,992	73,838	2,764,555
	성별의 %	62.2%	16.3%	14.3%	4.5%	2.7%	100.0%
여	빈도	1,704,189	333,273	297,298	86,139	53,136	2,474,035
	성별의 %	68.9%	13.5%	12.0%	3.5%	2.1%	100.0%
전체	빈도	3,423,360	783,163	693,962	211,131	126,974	5,238,590
	성별의 %	65.3%	14.9%	13.2%	4.0%	2.4%	100.0%

#### 다) 학교별

〈표 34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3.2%, 전문계 고등학교 2.7%, 중학교 2.5%, 초등학교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 학교	빈도	976,679	166,855	86,684	18,656	16,952	1,265,826
	학교 구분의 %	77.2%	13.2%	6.8%	1.5%	1.3%	100.0%
중학교	빈도	1,268,923	325,286	279,286	83,599	49,878	2,006,972
	학교 구분의 %	63.2%	16.2%	13.9%	4.2%	2.5%	100.0%
인문계 고등 학교	빈도	845,266	227,493	268,362	91,792	47,187	1,480,100
	학교 구분의 %	57.1%	15.4%	18.1%	6.2%	3.2%	100.0%
전문계 고등 학교	빈도	332,493	63,530	59,629	17,084	12,956	485,692
	학교 구분의 %	68.5%	13.1%	12.3%	3.5%	2.7%	100.0%
전체	빈도	3,423,361	783,164	693,961	211,131	126,973	5,238,590
	학교 구분의 %	65.3%	14.9%	13.2%	4.0%	2.4%	100.0%

라) 학년별

〈표 34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1학년 3.2%, 고등학교 2학년 3.2%, 중학교 3학년 3.1%, 고등학교 3학년 2.8%, 중학교 2학년 2.3%, 중학교 1학년 2.0%, 초등학교 6학년 1.5%, 초등학교 5학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494,322	74,215	35,593	7,199	7,242	618,571
	학년의 %	79.9%	12.0%	5.8%	1.2%	1.2%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482,357	92,640	51,091	11,457	9,710	647,255
	학년의 %	74.5%	14.3%	7.9%	1.8%	1.5%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439,136	106,220	77,638	20,242	13,336	656,572
	학년의 %	66.9%	16.2%	11.8%	3.1%	2.0%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428,116	110,509	94,004	28,513	15,745	676,887
	학년의 %	63.2%	16.3%	13.9%	4.2%	2.3%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401,671	108,557	107,643	34,844	20,798	673,513
	학년의 %	59.6%	16.1%	16.0%	5.2%	3.1%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395,918	100,634	112,667	39,458	21,363	670,040
	학년의 %	59.1%	15.0%	16.8%	5.9%	3.2%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390,798	100,719	114,445	34,472	20,982	661,416
	학년의 %	59.1%	15.2%	17.3%	5.2%	3.2%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391,043	89,670	100,880	34,946	17,797	634,336
	학년의 %	61.6%	14.1%	15.9%	5.5%	2.8%	100.0%
전체	빈도	3,423,361	783,164	693,961	211,131	126,973	5,238,590
	학년의 %	65.3%	14.9%	13.2%	4.0%	2.4%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4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7.6%, ‘어려운 편’ 4.4%, ‘매우 잘 사는 편’ 2.8%, ‘보통이다’ 2.1%, ‘잘 사는 편’ 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못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계획한 일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56,559	9,432	11,168	4,176	6,645	87,980
	경제수준의 %	64.3%	10.7%	12.7%	4.7%	7.6%	100.0%
어려운편	빈도	387,309	101,818	111,024	40,991	29,741	670,883
	경제수준의 %	57.7%	15.2%	16.5%	6.1%	4.4%	100.0%
보통	빈도	2,290,359	544,493	483,454	39,821	74,835	3,532,962
	경제수준의 %	64.8%	15.4%	13.7%	4.0%	2.1%	100.0%
잘사는편	빈도	598,089	114,559	81,534	23,394	12,434	830,010
	경제수준의 %	72.1%	13.8%	9.8%	2.8%	1.5%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91,044	12,861	6,783	2,749	3,318	116,755
	경제수준의 %	78.0%	11.0%	5.8%	2.4%	2.8%	100.0%
전체	빈도	3,423,360	783,163	693,963	211,131	126,973	5,238,590
	경제수준의 %	65.3%	14.9%	13.2%	4.0%	2.4%	100.0%

## 다.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4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6.0%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496,669	118,444	157,358	98,074	71,142	941,687
	시도의 %	52.7%	12.6%	16.7%	10.4%	7.6%	100.0%
부산	빈도	199,146	44,705	59,075	33,274	18,278	354,478
	시도의 %	56.2%	12.6%	16.7%	9.4%	5.2%	100.0%
인천	빈도	157,675	42,478	49,315	29,613	21,445	300,526
	시도의 %	52.5%	14.1%	16.4%	9.9%	7.1%	100.0%
대구	빈도	150,539	40,123	49,450	31,307	15,618	287,037
	시도의 %	52.4%	14.0%	17.2%	10.9%	5.4%	100.0%
대전	빈도	98,364	18,935	26,165	17,656	12,704	173,824
	시도의 %	56.6%	10.9%	15.1%	10.2%	7.3%	100.0%
광주	빈도	106,719	24,230	27,678	14,528	9,461	182,616
	시도의 %	58.4%	13.3%	15.2%	8.0%	5.2%	100.0%
울산	빈도	76,305	18,188	23,963	12,653	8,085	139,194
	시도의 %	54.8%	13.1%	17.2%	9.1%	5.8%	100.0%
강원도	빈도	84,614	19,823	24,606	13,738	11,002	153,783
	시도의 %	55.0%	12.9%	16.0%	8.9%	7.2%	100.0%
경기도	빈도	730,867	157,034	195,032	114,868	59,010	1,256,811
	시도의 %	58.2%	12.5%	15.5%	9.1%	4.7%	100.0%
경남	빈도	192,339	43,778	62,804	36,668	18,873	354,462
	시도의 %	54.3%	12.4%	17.7%	10.3%	5.3%	100.0%
경북	빈도	139,762	32,829	46,367	26,731	14,982	260,671
	시도의 %	53.6%	12.6%	17.8%	10.3%	5.7%	100.0%
전남	빈도	101,999	29,170	33,460	17,452	13,856	195,937
	시도의 %	52.1%	14.9%	17.1%	8.9%	7.1%	100.0%
전북	빈도	110,504	24,476	34,921	20,223	11,895	202,019
	시도의 %	54.7%	12.1%	17.3%	10.0%	5.9%	100.0%
충남	빈도	111,901	23,229	35,995	20,740	13,646	205,511
	시도의 %	54.5%	11.3%	17.5%	10.1%	6.6%	100.0%
충북	빈도	85,819	22,591	27,882	17,397	11,118	164,807
	시도의 %	52.1%	13.7%	16.9%	10.6%	6.7%	100.0%
제주도	빈도	31,464	7,054	14,071	7,590	5,048	65,227
	시도의 %	48.2%	10.8%	21.6%	11.6%	7.7%	100.0%
전체	빈도	287,4686	667,087	868,142	512,512	316,163	5,238,590
	시도의 %	54.9%	12.7%	16.6%	9.8%	6.0%	100.0%

#### 나) 성별

〈표 346〉은 일반학생의 성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7.4%이며, 여학생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1,314,992	374,642	517,039	352,673	205,209	2,764,555
	성별의 %	47.6%	13.6%	18.7%	12.8%	7.4%	100.0%
여	빈도	1,559,691	292,445	351,103	159,841	110,955	2,474,035
	성별의 %	63.0%	11.8%	14.2%	6.5%	4.5%	100.0%
전체	빈도	2,874,683	667,087	868,142	512,514	316,164	5,238,590
	성별의 %	54.9%	12.7%	16.6%	9.8%	6.0%	100.0%

#### 다) 학교별

〈표 34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3.1%, 중학교 6.8%, 인문계 고등학교 5.1%, 초등학교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888,379	158,095	123,527	54,975	40,850	1,265,826
	학교 구분의 %	70.2%	12.5%	9.8%	4.3%	3.2%	100.0%
중학교	빈도	1,044,049	268,162	356,667	201,584	136,510	2,006,972
	학교 구분의 %	52.0%	13.4%	17.8%	10.0%	6.8%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728,599	189,854	295,177	191,097	75,373	1,480,100
	학교 구분의 %	49.2%	12.8%	19.9%	12.9%	5.1%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213,655	50,975	92,772	64,858	63,432	485,692
	학교 구분의 %	44.0%	10.5%	19.1%	13.4%	13.1%	100.0%
전체	빈도	2,874,682	667,086	868,143	512,514	316,165	5,238,590
	학교 구분의 %	54.9%	12.7%	16.6%	9.8%	6.0%	100.0%

#### 라) 학년별

〈표 34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3학년 8.4%, 고등학교 1학년 7.4%, 중학교 2학년 7.3%, 고등학교 2학년 7.3%, 고등학교 3학년 6.5%, 중학교 1학년 4.7%, 초등학교 6학년 4.0%, 초등학교 5학년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464,572	71,040	46,657	21,200	15,102	618,571
	학년의 %	75.1%	11.5%	7.5%	3.4%	2.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423,805	87,056	76,870	33,775	25,749	647,255
	학년의 %	65.5%	13.5%	11.9%	5.2%	4.0%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380,333	93,188	101,996	50,153	30,902	656,572
	학년의 %	57.9%	14.2%	15.5%	7.6%	4.7%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344,785	91,597	121,735	69,499	49,271	676,887
	학년의 %	50.9%	13.5%	18.0%	10.3%	7.3%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318,932	83,377	132,936	81,932	56,336	673,513
	학년의 %	47.4%	12.4%	19.7%	12.2%	8.4%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308,659	83,885	136,205	91,971	49,320	670,040
	학년의 %	46.1%	12.5%	20.3%	13.7%	7.4%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303,467	78,021	137,812	94,046	48,070	661,416
	학년의 %	45.9%	11.8%	20.8%	14.2%	7.3%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330,129	78,924	113,931	69,938	41,414	634,336
	학년의 %	52.0%	12.4%	18.0%	11.0%	6.5%	100.0%
전체	빈도	2,874,682	667,088	868,142	512,514	316,164	5,238,590
	학년의 %	54.9%	12.7%	16.6%	9.8%	6.0%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4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16.3%, ‘어려운 편’ 10.9%, ‘매우 잘 시는 편’ 6.6%, ‘보통이다’ 5.5%, ‘잘 시는 편’3.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을 3시간 이상 사용한 경험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을 3시간이상 사용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42,740	9,093	11,592	10,230	14,325	87,980
	경제수준의 %	48.6%	10.3%	13.2%	11.6%	16.3%	100.0%
어려운편	빈도	290,163	82,184	131,627	93,846	73,063	670,883
	경제수준의 %	43.3%	12.3%	19.6%	14.0%	10.9%	100.0%
보통	빈도	1,919,931	459,547	611,857	348,561	193,066	3,532,962
	경제수준의 %	54.3%	13.0%	17.3%	9.9%	5.5%	100.0%
잘사는편	빈도	541,768	104,418	100,836	54,945	28,043	830,010
	경제수준의 %	65.3%	12.6%	12.1%	6.6%	3.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80,078	11,847	12,230	4,932	7,668	116,755
	경제수준의 %	68.6%	10.1%	10.5%	4.2%	6.6%	100.0%
전체	빈도	2,874,680	667,089	868,142	512,514	316,165	5,238,590
	경제수준의 %	54.9%	12.7%	16.6%	9.8%	6.0%	100.0%

## 라.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5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7%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일반학생 시도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13,234	66,276	40,114	13,959	8,104	941,687
	시도의 %	86.4%	7.0%	4.3%	1.5%	.9%	100.0%
부산	빈도	308,664	25,543	15,529	3,762	980	354,478
	시도의 %	87.1%	7.2%	4.4%	1.1%	.3%	100.0%
인천	빈도	264,222	20,577	11,285	2,895	1,547	300,526
	시도의 %	87.9%	6.8%	3.8%	1.0%	.5%	100.0%
대구	빈도	251,136	20,332	10,653	3,438	1,478	287,037
	시도의 %	87.5%	7.1%	3.7%	1.2%	.5%	100.0%
대전	빈도	149,972	12,067	7,460	3,475	850	173,824
	시도의 %	86.3%	6.9%	4.3%	2.0%	.5%	100.0%
광주	빈도	157,411	13,304	7,374	2,583	1,944	182,616
	시도의 %	86.2%	7.3%	4.0%	1.4%	1.1%	100.0%
울산	빈도	121,352	9,931	4,318	1,891	1,702	139,194
	시도의 %	87.2%	7.1%	3.1%	1.4%	1.2%	100.0%
강원도	빈도	138,323	8,553	4,571	1,454	882	153,783
	시도의 %	89.9%	5.6%	3.0%	.9%	.6%	100.0%
경기도	빈도	1,110,524	82,435	42,224	13,155	8,473	1,256,811
	시도의 %	88.4%	6.6%	3.4%	1.0%	.7%	100.0%
경남	빈도	313,189	22,956	12,401	3,971	1,945	354,462
	시도의 %	88.4%	6.5%	3.5%	1.1%	.5%	100.0%
경북	빈도	235,532	14,238	7,644	2,134	1,123	260,671
	시도의 %	90.4%	5.5%	2.9%	.8%	.4%	100.0%
전남	빈도	175,327	11,756	5,654	1,542	1,658	195,937
	시도의 %	89.5%	6.0%	2.9%	.8%	.8%	100.0%
전북	빈도	179,789	13,029	5,890	1,904	1,407	202,019
	시도의 %	89.0%	6.4%	2.9%	.9%	.7%	100.0%
충남	빈도	183,813	11,367	6,570	2,162	1,599	205,511
	시도의 %	89.4%	5.5%	3.2%	1.1%	.8%	100.0%
충북	빈도	146,701	10,924	4,878	1,734	570	164,807
	시도의 %	89.0%	6.6%	3.0%	1.1%	.3%	100.0%
제주도	빈도	58,400	3,796	1,939	693	399	65,227
	시도의 %	89.5%	5.8%	3.0%	1.1%	.6%	100.0%
전체	빈도	4,607,589	347,084	188,504	60,752	34,661	5,238,590
	시도의 %	88.0%	6.6%	3.6%	1.2%	.7%	100.0%

#### 나) 성별

〈표 351〉은 일반학생의 성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8%이며, 여학생은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일반학생 성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367,590	215,558	117,612	40,398	23,397	2,764,555
	성별의 %	85.6%	7.8%	4.3%	1.5%	.8%	100.0%
여	빈도	2,240,001	131,525	70,892	20,353	11,264	2,474,035
	성별의 %	90.5%	5.3%	2.9%	.8%	.5%	100.0%
전체	빈도	4,607,591	347,083	188,504	60,751	34,661	5,238,590
	성별의 %	88.0%	6.6%	3.6%	1.2%	.7%	100.0%

#### 다) 학교별

〈표 35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0.8%, 전문계 고등학교 0.8%, 인문계 고등학교 0.7%, 초등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일반학생 학교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72,985	57,305	23,890	6,803	4,843	1,265,826
	학교 구분의 %	92.7%	4.5%	1.9%	.5%	.4%	100.0%
중학교	빈도	1,738,692	149,053	78,588	25,523	15,116	2,006,972
	학교 구분의 %	86.6%	7.4%	3.9%	1.3%	.8%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275,294	108,357	64,505	21,159	10,785	1,480,100
	학교 구분의 %	86.2%	7.3%	4.4%	1.4%	.7%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20,622	32,368	21,520	7,265	3,917	485,692
	학교 구분의 %	86.6%	6.7%	4.4%	1.5%	.8%	100.0%
전체	빈도	4,607,593	347,083	188,503	60,750	34,661	5,238,590
	학교 구분의 %	88.0%	6.6%	3.6%	1.2%	.7%	100.0%

라) 학년별

〈표 35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3학년 1.0%, 고등학교 2학년 0.8%, 고등학교 3학년 0.8%, 중학교 2학년 0.7%, 중학교 1학년 0.6%, 고등학교 1학년 0.6%, 초등학교 6학년 0.4%, 초등학교 5학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3〉 일반학생 학년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82,688	22,074	9,753	1,962	2,094	618,571
	학년의 %	94.2%	3.6%	1.6%	.3%	.3%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90,296	35,231	14,138	4,841	2,749	647,255
	학년의 %	91.2%	5.4%	2.2%	.7%	.4%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82,150	45,640	19,140	5,610	4,032	656,572
	학년의 %	88.7%	7.0%	2.9%	.9%	.6%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585,138	50,399	26,965	9,847	4,538	676,887
	학년의 %	86.4%	7.4%	4.0%	1.5%	.7%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571,405	53,014	32,483	10,066	6,545	673,513
	학년의 %	84.8%	7.9%	4.8%	1.5%	1.0%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569,797	54,004	30,404	11,566	4,269	670,040
	학년의 %	85.0%	8.1%	4.5%	1.7%	.6%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568,830	47,541	30,544	8,910	5,591	661,416
	학년의 %	86.0%	7.2%	4.6%	1.3%	.8%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557,287	39,180	25,078	7,949	4,842	634,336
	학년의 %	87.9%	6.2%	4.0%	1.3%	.8%	100.0%
전체	빈도	4,607,591	347,083	188,505	60,751	34,660	5,238,590
	학년의 %	88.0%	6.6%	3.6%	1.2%	.7%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5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4%, ‘매우 잘 사는 편’ 1.9%, ‘어려운 편’ 1.0%, ‘보통이다’ 0.5%, ‘잘 사는 편’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못함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생활 못함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1,482	5,806	4,492	2,338	3,862	87,980
	경제수준의 %	81.2%	6.6%	5.1%	2.7%	4.4%	100.0%
어려운편	빈도	571,443	50,800	31,986	10,171	6,483	670,883
	경제수준의 %	85.2%	7.6%	4.8%	1.5%	1.0%	100.0%
보통	빈도	3,114,514	236,152	124,452	38,995	18,849	3,532,962
	경제수준의 %	88.2%	6.7%	3.5%	1.1%	.5%	100.0%
잘사는편	빈도	746,550	48,195	24,237	7,826	3,202	830,010
	경제수준의 %	89.9%	5.8%	2.9%	.9%	.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3,604	6,129	3,336	1,421	2,265	116,755
	경제수준의 %	88.7%	5.2%	2.9%	1.2%	1.9%	100.0%
전체	빈도	4,607,593	347,082	188,503	60,751	34,661	5,238,590
	경제수준의 %	88.0%	6.6%	3.6%	1.2%	.7%	100.0%

## 마. 음주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5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4%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일반학생 시도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음주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54,529	45,734	31,612	7,148	2,664	941,687
	시도의 %	90.7%	4.9%	3.4%	.8%	.3%	100.0%
부산	빈도	317,377	21,691	11,290	3,139	981	354,478
	시도의 %	89.5%	6.1%	3.2%	.9%	.3%	100.0%
인천	빈도	271,766	15,320	9,524	2,519	1,397	300,526
	시도의 %	90.4%	5.1%	3.2%	.8%	.5%	100.0%
대구	빈도	256,810	15,997	10,808	2,552	872	287,037
	시도의 %	89.5%	5.6%	3.8%	.9%	.3%	100.0%
대전	빈도	151,972	9,564	9,010	2,447	831	173,824
	시도의 %	87.4%	5.5%	5.2%	1.4%	.5%	100.0%
광주	빈도	165,873	9,764	5,226	1,174	579	182,616
	시도의 %	90.8%	5.3%	2.9%	.6%	.3%	100.0%
울산	빈도	124,486	8,145	4,060	1,491	1,012	139,194
	시도의 %	89.4%	5.9%	2.9%	1.1%	.7%	100.0%
강원도	빈도	134,710	10,093	6,486	1,593	901	153,783
	시도의 %	87.6%	6.6%	4.2%	1.0%	.6%	100.0%
경기도	빈도	1,116,777	76,848	45,653	12,721	4,812	1,256,811
	시도의 %	88.9%	6.1%	3.6%	1.0%	.4%	100.0%
경남	빈도	313,378	22,626	13,971	3,456	1,031	354,462
	시도의 %	88.4%	6.4%	3.9%	1.0%	.3%	100.0%
경북	빈도	230,377	15,588	10,570	3,055	1,081	260,671
	시도의 %	88.4%	6.0%	4.1%	1.2%	.4%	100.0%
전남	빈도	177,987	9,847	5,453	1,706	944	195,937
	시도의 %	90.8%	5.0%	2.8%	.9%	.5%	100.0%
전북	빈도	181,365	10,776	7,195	1,805	878	202,019
	시도의 %	89.8%	5.3%	3.6%	.9%	.4%	100.0%
충남	빈도	180,352	13,232	8,592	2,412	923	205,511
	시도의 %	87.8%	6.4%	4.2%	1.2%	.4%	100.0%
충북	빈도	143,513	11,713	7,234	1,823	524	164,807
	시도의 %	87.1%	7.1%	4.4%	1.1%	.3%	100.0%
제주도	빈도	57,907	2,842	3,124	1,015	339	65,227
	시도의 %	88.8%	4.4%	4.8%	1.6%	.5%	100.0%
전체	빈도	4,679,177	299,780	189,808	50,056	19,769	5,238,590
	시도의 %	89.3%	5.7%	3.6%	1.0%	.4%	100.0%

나) 성별

〈표 356〉은 일반학생의 성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5%이며,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6〉 일반학생 성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음주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429,377	170,575	116,261	33,800	14,542	2,764,555
	성별의 %	87.9%	6.2%	4.2%	1.2%	.5%	100.0%
여	빈도	2,249,802	129,205	73,547	16,256	5,225	2,474,035
	성별의 %	90.9%	5.2%	3.0%	.7%	.2%	100.0%
전체	빈도	4,679,179	299,780	189,808	50,056	19,767	5,238,590
	성별의 %	89.3%	5.7%	3.6%	1.0%	.4%	100.0%

다) 학교별

〈표 35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2%, 인문계 고등학교 0.6%, 중학교 0.2%, 초등학교 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일반학생 학교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음주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27,149	29,149	7,942	1,191	395	1,265,826
	학교 구분의 %	96.9%	2.3%	.6%	.1%	.0%	100.0%
중학교	빈도	1,879,248	76,299	38,921	8,334	4170	2,006,972
	학교 구분의 %	93.6%	3.8%	1.9%	.4%	.2%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230,034	133,329	85,935	21,224	9578	1,480,100
	학교 구분의 %	83.1%	9.0%	5.8%	1.4%	.6%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342,749	61,002	57,010	19,306	5625	485,692
	학교 구분의 %	70.6%	12.6%	11.7%	4.0%	1.2%	100.0%
전체	빈도	4,679,180	299,779	189,808	50,055	19768	5,238,590
	학교 구분의 %	89.3%	5.7%	3.6%	1.0%	.4%	100.0%

라) 학년별

〈표 358〉은 반학생의 학년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 경험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3학년 1.0%, 고등학교 2학년 0.8%, 고등학교 1학년 0.6%, 중학교 3학년 0.4%, 중학교 2학년 0.1%, 중학교 1학년 0.1%, 초등학교 5학년 0.0%, 초등학교 6학년 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일반학생 학년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음주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605,142	10,296	2,751	152	230	618,571
5학년	학년의 %	97.8%	1.7%	.4%	.0%	.0%	100.0%
초등학교	빈도	622,007	18,853	5,191	1,040	164	647,255
6학년	학년의 %	96.1%	2.9%	.8%	.2%	.0%	100.0%
중학교	빈도	626,252	20,284	7,840	1,343	853	656,572
1학년	학년의 %	95.4%	3.1%	1.2%	.2%	.1%	100.0%
중학교	빈도	633,916	25,352	13,423	3,246	950	676,887
2학년	학년의 %	93.7%	3.7%	2.0%	.5%	.1%	100.0%
중학교	빈도	619,081	30,663	17,657	3,745	2,367	673,513
3학년	학년의 %	91.9%	4.6%	2.6%	.6%	.4%	100.0%
고등학교	빈도	565,067	55,604	36,782	8,776	3,811	670,040
1학년	학년의 %	84.3%	8.3%	5.5%	1.3%	.6%	100.0%
고등학교	빈도	521,999	68,266	51,623	14,204	5,324	661,416
2학년	학년의 %	78.9%	10.3%	7.8%	2.1%	.8%	100.0%
고등학교	빈도	485,718	70,461	54,540	17,550	6,067	634,336
3학년	학년의 %	76.6%	11.1%	8.6%	2.8%	1.0%	100.0%
전체	빈도	4,679,182	299,779	189,807	50,056	19,766	5,238,590
	학년의 %	89.3%	5.7%	3.6%	1.0%	.4%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5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음주 경험 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4.5%, '매우 잘 사는 편' 1.8%, '어려운 편' 0.4%, '보통이다' 0.3%, '잘 사는 편'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음주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음주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66,103	8,099	7,113	2,720	3,945	87,980
	경제수준의 %	75.1%	9.2%	8.1%	3.1%	4.5%	100.0%
어려운편	빈도	555,395	59,659	42,995	10,168	2,666	670,883
	경제수준의 %	82.8%	8.9%	6.4%	1.5%	.4%	100.0%
보통	빈도	3,180,746	195,703	116,571	30,652	9,290	3,532,962
	경제수준의 %	90.0%	5.5%	3.3%	.9%	.3%	100.0%
잘사는편	빈도	772,155	31,572	19,075	5,412	1,796	830,010
	경제수준의 %	93.0%	3.8%	2.3%	.7%	.2%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4,778	4,747	4,055	1,104	2,071	116,755
	경제수준의 %	89.7%	4.1%	3.5%	.9%	1.8%	100.0%
전체	빈도	4,679,177	299,780	189,809	50,056	19,768	5,238,590
	경제수준의 %	89.3%	5.7%	3.6%	1.0%	.4%	100.0%

## 바. 흡연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6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흡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2.3%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0〉 일반학생 시도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98,088	11,431	10,012	4,427	17,729	941,687
	시도의 %	95.4%	1.2%	1.1%	.5%	1.9%	100.0%
부산	빈도	339,801	4,164	2,609	1,077	6,827	354,478
	시도의 %	95.9%	1.2%	.7%	.3%	1.9%	100.0%
인천	빈도	282,143	3,457	3,485	2,357	9,084	300,526
	시도의 %	93.9%	1.2%	1.2%	.8%	3.0%	100.0%
대구	빈도	273,322	3,090	3,557	1,313	5,755	287,037
	시도의 %	95.2%	1.1%	1.2%	.5%	2.0%	100.0%
대전	빈도	162,942	2,330	1,660	1,248	5,644	173,824
	시도의 %	93.7%	1.3%	1.0%	.7%	3.2%	100.0%
광주	빈도	172,987	2,807	2,168	1,838	2,816	182,616
	시도의 %	94.7%	1.5%	1.2%	1.0%	1.5%	100.0%
울산	빈도	129,561	1,486	2,848	1,142	4,157	139,194
	시도의 %	93.1%	1.1%	2.0%	.8%	3.0%	100.0%
강원도	빈도	142,311	3,253	3,190	1,077	3,952	153,783
	시도의 %	92.5%	2.1%	2.1%	.7%	2.6%	100.0%
경기도	빈도	1,195,706	14,278	11,693	7,517	27,617	1,256,811
	시도의 %	95.1%	1.1%	.9%	.6%	2.2%	100.0%
경남	빈도	336,372	4,396	3,332	1,944	8,418	354,462
	시도의 %	94.9%	1.2%	.9%	.5%	2.4%	100.0%
경북	빈도	246,112	3,542	2,530	1,374	7,113	260,671
	시도의 %	94.4%	1.4%	1.0%	.5%	2.7%	100.0%
전남	빈도	184,862	2,628	2,145	1,169	5,133	195,937
	시도의 %	94.3%	1.3%	1.1%	.6%	2.6%	100.0%
전북	빈도	188,718	3,972	2,254	1,375	5,700	202,019
	시도의 %	93.4%	2.0%	1.1%	.7%	2.8%	100.0%
충남	빈도	193,072	2,881	2,538	1,507	5,513	205,511
	시도의 %	93.9%	1.4%	1.2%	.7%	2.7%	100.0%
충북	빈도	154,572	2,562	1,501	1,204	4,968	164,807
	시도의 %	93.8%	1.6%	.9%	.7%	3.0%	100.0%
제주도	빈도	60,422	1,127	864	523	2,291	65,227
	시도의 %	92.6%	1.7%	1.3%	.8%	3.5%	100.0%
전체	빈도	4,960,991	67,404	56,386	31,092	122,717	5,238,590
	시도의 %	94.7%	1.3%	1.1%	.6%	2.3%	100.0%

#### 나) 성별

〈표 361〉은 일반학생의 성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흡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3.5%이며, 여학생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1〉 일반학생 성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54,796	47,508	40,943	23,782	97,526	2,764,555
	성별의 %	92.4%	1.7%	1.5%	.9%	3.5%	100.0%
여	빈도	2,406,195	19,897	15,443	7,309	25,191	2,474,035
	성별의 %	97.3%	.8%	.6%	.3%	1.0%	100.0%
전체	빈도	4,960,991	67,405	56,386	31,091	122,717	5,238,590
	성별의 %	94.7%	1.3%	1.1%	.6%	2.3%	100.0%

#### 다) 학교별

〈표 36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흡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10.3%, 인문계 고등학교 3.5%, 중학교 0.9%, 초등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2〉 일반학생 학교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51,760	7,420	4,147	1,060	1,439	1,265,826
	학교 구분의 %	98.9%	.6%	.3%	.1%	.1%	100.0%
중학교	빈도	1,935,666	24,360	17,921	10,004	19,021	2,006,972
	학교 구분의 %	96.4%	1.2%	.9%	.5%	.9%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377,725	20,168	18,811	10,946	52,450	1,480,100
	학교 구분의 %	93.1%	1.4%	1.3%	.7%	3.5%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395,841	15,456	15,507	9,081	49,807	485,692
	학교 구분의 %	81.5%	3.2%	3.2%	1.9%	10.3%	100.0%
전체	빈도	4,960,992	67,404	56,386	31,091	122,717	5,238,590
	학교 구분의 %	94.7%	1.3%	1.1%	.6%	2.3%	100.0%

라) 학년별

〈표 36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흡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3학년 6.6%, 고등학교 2학년 5.4%, 고등학교 1학년 3.7%, 중학교 3학년 1.9%, 중학교 2학년 0.6%, 중학교 1학년 0.3%,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3〉 일반학생 학년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613,289	3,099	1,577	133	473	618,571
5학년	학년의 %	99.1%	.5%	.3%	.0%	.1%	100.0%
초등학교	빈도	638,470	4,322	2,570	927	966	647,255
6학년	학년의 %	98.6%	.7%	.4%	.1%	.1%	100.0%
중학교	빈도	641,759	6,441	4,182	1,933	2,257	656,572
1학년	학년의 %	97.7%	1.0%	.6%	.3%	.3%	100.0%
중학교	빈도	654,577	7,747	6,839	3,469	4,255	676,887
2학년	학년의 %	96.7%	1.1%	1.0%	.5%	.6%	100.0%
중학교	빈도	639,331	10,173	6,899	4,602	12,508	673,513
3학년	학년의 %	94.9%	1.5%	1.0%	.7%	1.9%	100.0%
고등학교	빈도	613,638	12,938	12,502	6,093	24,869	670,040
1학년	학년의 %	91.6%	1.9%	1.9%	.9%	3.7%	100.0%
고등학교	빈도	597,118	10,912	10,848	7,002	35,536	661,416
2학년	학년의 %	90.3%	1.6%	1.6%	1.1%	5.4%	100.0%
고등학교	빈도	562,810	11,774	10,968	6,932	41,852	634,336
3학년	학년의 %	88.7%	1.9%	1.7%	1.1%	6.6%	100.0%
전체	빈도	4,960,992	67,406	56,385	31,091	122,716	5,238,590
	학년의 %	94.7%	1.3%	1.1%	.6%	2.3%	100.0%



####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6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인 흡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9.4%, '어려운 편' 4.4%, '매우 잘 사는 편' 2.9%, '보통이다' 2.0%, '잘 사는 편'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흡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흡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1,532	3,345	3,508	1,337	8,258	87,980
	경제수준의 %	81.3%	3.8%	4.0%	1.5%	9.4%	100.0%
어려운편	빈도	611,503	11,668	11,498	6,871	29,341	670,883
	경제수준의 %	91.1%	1.7%	1.7%	1.0%	4.4%	100.0%
보통	빈도	3,365,612	42,354	35,512	17,962	71,522	3,532,962
	경제수준의 %	95.3%	1.2%	1.0%	.5%	2.0%	100.0%
잘사는편	빈도	802,785	7,880	4,712	4,392	10,241	830,010
	경제수준의 %	96.7%	.9%	.6%	.5%	1.2%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9,560	2,157	1,155	529	3,354	116,755
	경제수준의 %	93.8%	1.8%	1.0%	.5%	2.9%	100.0%
전체	빈도	4,960,994	67,404	56,385	31,091	122,716	5,238,590
	경제수준의 %	94.7%	1.3%	1.1%	.6%	2.3%	100.0%

#### 사.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6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일반학생 시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30,604	5,810	2,673	1,078	1,522	941,687
	시도의 %	98.8%	.6%	.3%	.1%	.2%	100.0%
부산	빈도	350,657	2,209	912	289	411	354,478
	시도의 %	98.9%	.6%	.3%	.1%	.1%	100.0%
인천	빈도	295,870	2,541	1,351	381	383	300,526
	시도의 %	98.5%	.8%	.4%	.1%	.1%	100.0%
대구	빈도	284,199	1,172	941	345	380	287,037
	시도의 %	99.0%	.4%	.3%	.1%	.1%	100.0%
대전	빈도	171,930	1,029	512	139	214	173,824
	시도의 %	98.9%	.6%	.3%	.1%	.1%	100.0%
광주	빈도	178,947	1,929	703	408	629	182,616
	시도의 %	98.0%	1.1%	.4%	.2%	.3%	100.0%
울산	빈도	135,987	1,725	520	243	719	139,194
	시도의 %	97.7%	1.2%	.4%	.2%	.5%	100.0%
강원도	빈도	151,277	1,021	724	372	389	153,783
	시도의 %	98.4%	.7%	.5%	.2%	.3%	100.0%
경기도	빈도	1,239,493	8,237	3,929	1,645	3,507	1,256,811
	시도의 %	98.6%	.7%	.3%	.1%	.3%	100.0%
경남	빈도	348,247	2,827	1,843	663	882	354,462
	시도의 %	98.2%	.8%	.5%	.2%	.2%	100.0%
경북	빈도	257,661	1,529	624	465	392	260,671
	시도의 %	98.8%	.6%	.2%	.2%	.2%	100.0%
전남	빈도	192,704	1,696	640	431	466	195,937
	시도의 %	98.3%	.9%	.3%	.2%	.2%	100.0%
전북	빈도	198,293	1,665	1,194	368	499	202,019
	시도의 %	98.2%	.8%	.6%	.2%	.2%	100.0%
충남	빈도	202,519	1,363	784	283	562	205,511
	시도의 %	98.5%	.7%	.4%	.1%	.3%	100.0%
충북	빈도	162,773	999	626	124	285	164,807
	시도의 %	98.8%	.6%	.4%	.1%	.2%	100.0%
제주도	빈도	64,318	390	385	0	134	65,227
	시도의 %	98.6%	.6%	.6%	.0%	.2%	100.0%
전체	빈도	5,165,479	36,142	18,361	7,234	11,374	5,238,590
	시도의 %	98.6%	.7%	.4%	.1%	.2%	100.0%

#### 나) 성별

〈표 366〉은 일반학생의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6〉 일반학생 성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715,207	23,923	12,015	5,169	8,241	2,764,555
	성별의 %	98.2%	.9%	.4%	.2%	.3%	100.0%
여	빈도	2,450,273	12,217	6,345	2,067	3,133	2,474,035
	성별의 %	99.0%	.5%	.3%	.1%	.1%	100.0%
전체	빈도	5,165,480	36,140	18,360	7,236	11,374	5,238,590
	성별의 %	98.6%	.7%	.4%	.1%	.2%	100.0%

#### 다) 학교별

〈표 36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3%, 전문계 고등학교 0.3%, 초등학교 0.2%, 중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7〉 일반학생 학교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31,307	19,689	8,101	4,056	2,673	1,265,826
	학교 구분의 %	97.3%	1.6%	.6%	.3%	.2%	100.0%
중학교	빈도	1,989,843	9,234	3,900	1,469	2,526	2,006,972
	학교 구분의 %	99.1%	.5%	.2%	.1%	.1%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65,298	4,567	4,581	1,060	4,594	1,480,100
	학교 구분의 %	99.0%	.3%	.3%	.1%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79,032	2,650	1,779	650	1,581	485,692
	학교 구분의 %	98.6%	.5%	.4%	.1%	.3%	100.0%
전체	빈도	5,165,480	36,140	18,361	7,235	11,374	5,238,590
	학교 구분의 %	98.6%	.7%	.4%	.1%	.2%	100.0%

라) 학년별

〈표 36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4%, 고등학교 3학년 0.4%, 중학교 3학년 0.2%, 고등학교 1학년 0.2%, 초등학교 5학년 0.2%, 초등학교 6학년 0.2%, 중학교 1학년 0.1%, 중학교 2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일반학생 학년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99,429	10,964	3,872	2,821	1,485	618,571
	학년의 %	96.9%	1.8%	.6%	.5%	.2%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31,876	8,726	4,230	1,235	1,188	647,255
	학년의 %	97.6%	1.3%	.7%	.2%	.2%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49,791	4,176	1,381	463	761	656,572
	학년의 %	99.0%	.6%	.2%	.1%	.1%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72,567	2,581	847	319	573	676,887
	학년의 %	99.4%	.4%	.1%	.0%	.1%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67,485	2,477	1,672	687	1,192	673,513
	학년의 %	99.1%	.4%	.2%	.1%	.2%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64,724	2,088	1,538	490	1,200	670,040
	학년의 %	99.2%	.3%	.2%	.1%	.2%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53,581	2,323	2,350	416	2,746	661,416
	학년의 %	98.8%	.4%	.4%	.1%	.4%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26,027	2,805	2,472	803	2,229	634,336
	학년의 %	98.7%	.4%	.4%	.1%	.4%	100.0%
전체	빈도	5,165,480	36,140	18,362	7,234	11,374	5,238,590
	학년의 %	98.6%	.7%	.4%	.1%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6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3.2%, ‘매우 잘 사는 편’ 1.6%, ‘어려운 편’ 0.2%, ‘보통이다’ 0.1%, ‘잘 사는 편’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빈도 분포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82,306	1,091	1,284	493	2,806	87,980
	경제수준의 %	93.6%	1.2%	1.5%	.6%	3.2%	100.0%
어려운편	빈도	662,772	3,801	2,139	982	1,189	670,883
	경제수준의 %	98.8%	.6%	.3%	.1%	.2%	100.0%
보통	빈도	3,489,816	22,467	11,945	4,107	4,627	3,532,962
	경제수준의 %	98.8%	.6%	.3%	.1%	.1%	100.0%
잘사는편	빈도	818,506	7,453	1,955	1,200	896	830,010
	경제수준의 %	98.6%	.9%	.2%	.1%	.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2,079	1,328	1,038	454	1,856	116,755
	경제수준의 %	96.0%	1.1%	.9%	.4%	1.6%	100.0%
전체	빈도	5,165,479	36,140	18,361	7,236	11,374	5,238,590
	경제수준의 %	98.6%	.7%	.4%	.1%	.2%	100.0%

## 아. 신체 폭행당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7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신체 폭행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6%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0〉 일반학생 시도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96,809	20,915	12,116	4,693	7,154	941,687
	시도의 %	95.2%	2.2%	1.3%	.5%	.8%	100.0%
부산	빈도	335,903	9,626	5,705	1,547	1,697	354,478
	시도의 %	94.8%	2.7%	1.6%	.4%	.5%	100.0%
인천	빈도	288,780	5,951	3,703	731	1,361	300,526
	시도의 %	96.1%	2.0%	1.2%	.2%	.5%	100.0%
대구	빈도	278,844	3,264	2,807	1,267	855	287,037
	시도의 %	97.1%	1.1%	1.0%	.4%	.3%	100.0%
대전	빈도	164,383	4,737	2,153	929	1,622	173,824
	시도의 %	94.6%	2.7%	1.2%	.5%	.9%	100.0%
광주	빈도	172,551	4,319	2,916	1,099	1,731	182,616
	시도의 %	94.5%	2.4%	1.6%	.6%	.9%	100.0%
울산	빈도	129,837	4,327	2,500	922	1,608	139,194
	시도의 %	93.3%	3.1%	1.8%	.7%	1.2%	100.0%
강원도	빈도	145,486	4,401	1,767	999	1,130	153,783
	시도의 %	94.6%	2.9%	1.1%	.6%	.7%	100.0%
경기도	빈도	1,218,413	19,639	10,431	2,803	5,525	1,256,811
	시도의 %	96.9%	1.6%	.8%	.2%	.4%	100.0%
경남	빈도	334,617	9,875	5,383	2,122	2,465	354,462
	시도의 %	94.4%	2.8%	1.5%	.6%	.7%	100.0%
경북	빈도	248,520	6,624	3,082	1,099	1,346	260,671
	시도의 %	95.3%	2.5%	1.2%	.4%	.5%	100.0%
전남	빈도	188,487	3,793	1,819	641	1,197	195,937
	시도의 %	96.2%	1.9%	.9%	.3%	.6%	100.0%
전북	빈도	192,715	4,726	2,311	1,111	1,156	202,019
	시도의 %	95.4%	2.3%	1.1%	.5%	.6%	100.0%
충남	빈도	195,509	4,910	2,958	680	1,454	205,511
	시도의 %	95.1%	2.4%	1.4%	.3%	.7%	100.0%
충북	빈도	157,997	3,351	1,478	978	1,003	164,807
	시도의 %	95.9%	2.0%	.9%	.6%	.6%	100.0%
제주도	빈도	62,394	1,416	813	399	205	65,227
	시도의 %	95.7%	2.2%	1.2%	.6%	.3%	100.0%
전체	빈도	5,011,245	111,874	61,942	22,020	31,509	5,238,590
	시도의 %	95.7%	2.1%	1.2%	.4%	.6%	100.0%

#### 나) 성별

〈표 371〉은 일반학생의 성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신체 폭행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9%이며,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 일반학생 성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80,935	86,136	52,645	19,242	25,597	2,764,555
	성별의 %	93.4%	3.1%	1.9%	.7%	.9%	100.0%
여	빈도	2,430,314	25,736	9,296	2,779	5,910	2,474,035
	성별의 %	98.2%	1.0%	.4%	.1%	.2%	100.0%
전체	빈도	5,011,249	111,872	61,941	22,021	31,507	5,238,590
	성별의 %	95.7%	2.1%	1.2%	.4%	.6%	100.0%

#### 다) 학교별

〈표 37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신체 폭행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0.8%, 인문계 고등학교 0.7%, 중학교 0.6%, 초등학교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2〉 일반학생 학교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18,680	24,681	11,635	4,678	6,152	1,265,826
	학교 구분의 %	96.3%	1.9%	.9%	.4%	.5%	100.0%
중학교	빈도	1,898,813	53,325	31,533	11,302	11,999	2,006,972
	학교 구분의 %	94.6%	2.7%	1.6%	.6%	.6%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30,336	23,402	12,588	4,131	9,643	1,480,100
	학교 구분의 %	96.6%	1.6%	.9%	.3%	.7%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3,417	10,464	6,186	1,911	3,714	485,692
	학교 구분의 %	95.4%	2.2%	1.3%	.4%	.8%	100.0%
전체	빈도	5,011,246	111,872	61,942	22,022	31,508	5,238,590
	학교 구분의 %	95.7%	2.1%	1.2%	.4%	.6%	100.0%

라) 학년별

〈표 37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신체 폭행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8%, 중학교 2학년 0.7%, 고등학교 3학년 0.7%, 중학교 3학년 0.6%, 고등학교 1학년 0.6%, 초등학교 5학년 0.5%, 초등학교 6학년 0.5%, 중학교 1학년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3〉 일반학생 학년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96,646	11,973	4,578	2,432	2,942	618,571
	학년의 %	96.5%	1.9%	.7%	.4%	.5%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22,035	12,709	7,056	2,245	3,210	647,255
	학년의 %	96.1%	2.0%	1.1%	.3%	.5%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16,179	20,419	12,265	4,553	3,156	656,572
	학년의 %	93.8%	3.1%	1.9%	.7%	.5%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40,055	16,846	11,508	3,546	4,932	676,887
	학년의 %	94.6%	2.5%	1.7%	.5%	.7%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42,580	16,060	7,760	3,203	3,910	673,513
	학년의 %	95.4%	2.4%	1.2%	.5%	.6%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44,865	12,932	6,681	1,614	3,948	670,040
	학년의 %	96.2%	1.9%	1.0%	.2%	.6%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36,097	10,978	6,915	2,211	5,215	661,416
	학년의 %	96.2%	1.7%	1.0%	.3%	.8%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12,792	9,956	5,177	2,217	4,194	634,336
	학년의 %	96.6%	1.6%	.8%	.3%	.7%	100.0%
전체	빈도	5,011,249	111,873	61,940	22,021	31,507	5,238,590
	학년의 %	95.7%	2.1%	1.2%	.4%	.6%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7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신체 폭행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5.3%, ‘매우 잘 사는 편’ 2.0%, ‘어려운 편’ 0.8%, ‘잘 사는 편’ 0.5%, ‘보통이다’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신체 폭행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6,724	3,007	2,464	1,165	4,620	87,980
	경제수준의 %	87.2%	3.4%	2.8%	1.3%	5.3%	100.0%
어려운편	빈도	629,555	20,277	11,475	4,492	5,084	670,883
	경제수준의 %	93.8%	3.0%	1.7%	.7%	.8%	100.0%
보통	빈도	3,399,509	69,569	36,418	12,250	15,216	3,532,962
	경제수준의 %	96.2%	2.0%	1.0%	.3%	.4%	100.0%
잘사는편	빈도	795,902	16,982	9,642	3,232	4,252	830,010
	경제수준의 %	95.9%	2.0%	1.2%	.4%	.5%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9,560	2,036	1,941	883	2,335	116,755
	경제수준의 %	93.8%	1.7%	1.7%	.8%	2.0%	100.0%
전체	빈도	5,011,250	111,871	61,940	22,022	31,507	5,238,590
	경제수준의 %	95.7%	2.1%	1.2%	.4%	.6%	100.0%

## 자.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7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8%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78,613	38,472	13,282	3,245	8,075	941,687
	시도의 %	93.3%	4.1%	1.4%	.3%	.9%	100.0%
부산	빈도	332,719	12,727	5,566	1,246	2,220	354,478
	시도의 %	93.9%	3.6%	1.6%	.4%	.6%	100.0%
인천	빈도	283,063	10,467	3,999	762	2,235	300,526
	시도의 %	94.2%	3.5%	1.3%	.3%	.7%	100.0%
대구	빈도	274,510	8,070	2,445	937	1,075	287,037
	시도의 %	95.6%	2.8%	.9%	.3%	.4%	100.0%
대전	빈도	160,450	7,840	3,134	885	1,515	173,824
	시도의 %	92.3%	4.5%	1.8%	.5%	.9%	100.0%
광주	빈도	171,001	6,892	2,008	861	1,854	182,616
	시도의 %	93.6%	3.8%	1.1%	.5%	1.0%	100.0%
울산	빈도	128,088	6,457	2,477	515	1,657	139,194
	시도의 %	92.0%	4.6%	1.8%	.4%	1.2%	100.0%
강원도	빈도	142,525	6,877	2,292	637	1,452	153,783
	시도의 %	92.7%	4.5%	1.5%	.4%	.9%	100.0%
경기도	빈도	1,180,998	45,183	15,690	5,082	9,858	1,256,811
	시도의 %	94.0%	3.6%	1.2%	.4%	.8%	100.0%
경남	빈도	329,915	14,147	5,377	1,906	3,117	354,462
	시도의 %	93.1%	4.0%	1.5%	.5%	.9%	100.0%
경북	빈도	243,326	10,466	4,114	938	1,827	260,671
	시도의 %	93.3%	4.0%	1.6%	.4%	.7%	100.0%
전남	빈도	184,489	5,937	2,950	1,061	1,500	195,937
	시도의 %	94.2%	3.0%	1.5%	.5%	.8%	100.0%
전북	빈도	185,128	10,070	3,966	1,239	1,616	202,019
	시도의 %	91.6%	5.0%	2.0%	.6%	.8%	100.0%
충남	빈도	189,640	10,422	2,971	707	1,771	205,511
	시도의 %	92.3%	5.1%	1.4%	.3%	.9%	100.0%
충북	빈도	153,164	6,423	2,620	1,028	1,572	164,807
	시도의 %	92.9%	3.9%	1.6%	.6%	1.0%	100.0%
제주도	빈도	61,776	1,475	1,128	341	507	65,227
	시도의 %	94.7%	2.3%	1.7%	.5%	.8%	100.0%
전체	빈도	4,899,405	201,925	74,019	21,390	41,851	5,238,590
	시도의 %	93.5%	3.9%	1.4%	.4%	.8%	100.0%

#### 나) 성별

〈표 376〉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8%이며, 여학생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6〉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99,454	88,355	40,395	13,184	23,167	2,764,555
	성별의 %	94.0%	3.2%	1.5%	.5%	.8%	100.0%
여	빈도	2,299,950	113,571	33,623	8,206	18,685	2,474,035
	성별의 %	93.0%	4.6%	1.4%	.3%	.8%	100.0%
전체	빈도	4,899,404	201,926	74,018	21,390	41,852	5,238,590
	성별의 %	93.5%	3.9%	1.4%	.4%	.8%	100.0%

#### 다) 학교별

〈표 37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1.4%, 중학교 0.7%, 인문계 고등학교 0.4%, 전문계 고등학교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22,567	85,111	30,971	9,625	17,552	1,265,826
	학교 구분의 %	88.7%	6.7%	2.4%	.8%	1.4%	100.0%
중학교	빈도	1,875,022	81,847	27,932	7,541	14,630	2,006,972
	학교 구분의 %	93.4%	4.1%	1.4%	.4%	.7%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34,799	25,804	10,232	2,726	6,539	1,480,100
	학교 구분의 %	96.9%	1.7%	.7%	.2%	.4%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7,017	9,164	4,883	1,498	3,130	485,692
	학교 구분의 %	96.2%	1.9%	1.0%	.3%	.6%	100.0%
전체	빈도	4,899,405	201,926	74,018	21,390	41,851	5,238,590
	학교 구분의 %	93.5%	3.9%	1.4%	.4%	.8%	100.0%

라) 학년별

〈표 378〉은 반학생의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5학년 1.4%, 초등학교 6학년 1.4%, 중학교 1학년 1.1%, 중학교 2학년 0.7%, 중학교 3학년 0.5%, 고등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45,640	43,335	16,040	4,882	8,674	618,571
	학년의 %	88.2%	7.0%	2.6%	.8%	1.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76,927	41,775	14,931	4,743	8,879	647,255
	학년의 %	89.1%	6.5%	2.3%	.7%	1.4%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94,885	39,281	12,357	3,097	6,952	656,572
	학년의 %	90.6%	6.0%	1.9%	.5%	1.1%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36,532	24,419	9,063	2,438	4,434	676,886
	학년의 %	94.0%	3.6%	1.3%	.4%	.7%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43,602	18,147	6,513	2,006	3,245	673,513
	학년의 %	95.6%	2.7%	1.0%	.3%	.5%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47,148	12,161	5,771	1,610	3,350	670,040
	학년의 %	96.6%	1.8%	.9%	.2%	.5%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39,293	12,245	5,214	1,160	3,504	661,416
	학년의 %	96.7%	1.9%	.8%	.2%	.5%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15,374	10,562	4,130	1,455	2,815	634,336
	학년의 %	97.0%	1.7%	.7%	.2%	.4%	100.0%
전체	빈도	4,899,402	201,925	74,019	21,391	41,853	5,238,590
	학년의 %	93.5%	3.9%	1.4%	.4%	.8%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7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5.1%, ‘매우 잘 사는 편’ 2.1%, ‘어려운 편’ 1.1%, ‘잘 사는 편’ 0.9%, ‘보통이다’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5,164	3,881	3,227	1,264	4,444	87,980
	경제수준의 %	85.4%	4.4%	3.7%	1.4%	5.1%	100.0%
어려운편	빈도	615,207	31,348	13,543	3,185	7,600	670,883
	경제수준의 %	91.7%	4.7%	2.0%	.5%	1.1%	100.0%
보통	빈도	3,337,367	122,471	40,900	12,000	20,224	3,532,962
	경제수준의 %	94.5%	3.5%	1.2%	.3%	.6%	100.0%
잘사는편	빈도	765,989	38,591	14,234	4,071	7,125	830,010
	경제수준의 %	92.3%	4.6%	1.7%	.5%	.9%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5,678	5,634	2,114	870	2,459	116,755
	경제수준의 %	90.5%	4.8%	1.8%	.7%	2.1%	100.0%
전체	빈도	4,899,405	201,925	74,018	21,390	41,852	5,238,590
	경제수준의 %	93.5%	3.9%	1.4%	.4%	.8%	100.0%

## 차.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8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1.0%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70,956	38,280	15,573	6,365	10,513	941,687
	시도의 %	92.5%	4.1%	1.7%	.7%	1.1%	100.0%
부산	빈도	325,396	15,985	7,134	2,582	3,381	354,478
	시도의 %	91.8%	4.5%	2.0%	.7%	1.0%	100.0%
인천	빈도	279,999	9,817	6,278	1,436	2,996	300,526
	시도의 %	93.2%	3.3%	2.1%	.5%	1.0%	100.0%
대구	빈도	272,656	7,596	3,611	1,640	1,534	287,037
	시도의 %	95.0%	2.6%	1.3%	.6%	.5%	100.0%
대전	빈도	157,808	7,643	4,460	1,568	2,345	173,824
	시도의 %	90.8%	4.4%	2.6%	.9%	1.3%	100.0%
광주	빈도	167,703	8,155	3,204	1,454	2,100	182,616
	시도의 %	91.8%	4.5%	1.8%	.8%	1.1%	100.0%
울산	빈도	125,413	7,118	3,474	1,165	2,024	139,194
	시도의 %	90.1%	5.1%	2.5%	.8%	1.5%	100.0%
강원도	빈도	139,962	7,031	3,355	1,537	1,898	153,783
	시도의 %	91.0%	4.6%	2.2%	1.0%	1.2%	100.0%
경기도	빈도	1,178,420	43,732	17,762	7,751	9,146	1,256,811
	시도의 %	93.8%	3.5%	1.4%	.6%	.7%	100.0%
경남	빈도	322,421	16,993	7,044	3,814	4,190	354,462
	시도의 %	91.0%	4.8%	2.0%	1.1%	1.2%	100.0%
경북	빈도	240,017	10,793	5,732	1,863	2,266	260,671
	시도의 %	92.1%	4.1%	2.2%	.7%	.9%	100.0%
전남	빈도	182,970	6,542	3,281	1,316	1,828	195,937
	시도의 %	93.4%	3.3%	1.7%	.7%	.9%	100.0%
전북	빈도	185,118	9,092	4,386	1,676	1,747	202,019
	시도의 %	91.6%	4.5%	2.2%	.8%	.9%	100.0%
충남	빈도	187,832	10,009	4,489	1,462	1,719	205,511
	시도의 %	91.4%	4.9%	2.2%	.7%	.8%	100.0%
충북	빈도	151,009	7,081	3,143	1,439	2,135	164,807
	시도의 %	91.6%	4.3%	1.9%	.9%	1.3%	100.0%
제주도	빈도	60,282	2,704	1,228	329	684	65,227
	시도의 %	92.4%	4.1%	1.9%	.5%	1.0%	100.0%
전체	빈도	4,847,962	208,571	94,154	37,397	50,506	5,238,590
	시도의 %	92.5%	4.0%	1.8%	.7%	1.0%	100.0%

#### 나) 성별

〈표 381〉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1.2%이며, 여학생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13,519	125,702	63,265	27,654	34,415	2,764,555
	성별의 %	90.9%	4.5%	2.3%	1.0%	1.2%	100.0%
여	빈도	2,334,448	82,866	30,888	9,743	16,090	2,474,035
	성별의 %	94.4%	3.3%	1.2%	.4%	.7%	100.0%
전체	빈도	4,847,967	208,568	94,153	37,397	50,505	5,238,590
	성별의 %	92.5%	4.0%	1.8%	.7%	1.0%	100.0%

#### 다) 학교별

〈표 38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1.3%, 중학교 1.0%, 전문계 고등학교 1.0%, 인문계 고등학교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18,603	81,031	35,878	13,863	16,451	1,265,826
	학교 구분의 %	88.4%	6.4%	2.8%	1.1%	1.3%	100.0%
중학교	빈도	1,847,964	86,458	37,379	15,786	19,385	2,006,972
	학교 구분의 %	92.1%	4.3%	1.9%	.8%	1.0%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21,204	29,622	14,127	5,254	9,893	1,480,100
	학교 구분의 %	96.0%	2.0%	1.0%	.4%	.7%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0,198	11,457	6,768	2,493	4,776	485,692
	학교 구분의 %	94.8%	2.4%	1.4%	.5%	1.0%	100.0%
전체	빈도	4,847,969	208,568	94,152	37,396	50,505	5,238,590
	학교 구분의 %	92.5%	4.0%	1.8%	.7%	1.0%	100.0%

라) 학년별

〈표 38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5학년 1.4%, 초등학교 6학년 1.2%, 중학교 1학년 1.1%, 중학교 2학년 1.0%, 고등학교 2학년 0.8%, 고등학교 3학년 0.8%, 중학교 3학년 0.7%, 고등학교 1학년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44,182	41,043	18,259	6,500	8,587	618,571
	학년의 %	88.0%	6.6%	3.0%	1.1%	1.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74,420	39,989	17,619	7,363	7,864	647,255
	학년의 %	88.7%	6.2%	2.7%	1.1%	1.2%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89,314	38,778	14,666	6,503	7,311	656,572
	학년의 %	89.8%	5.9%	2.2%	1.0%	1.1%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24,323	26,391	13,666	5,428	7,079	676,887
	학년의 %	92.2%	3.9%	2.0%	.8%	1.0%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34,327	21,289	9,047	3,855	4,995	673,513
	학년의 %	94.2%	3.2%	1.3%	.6%	.7%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39,598	16,396	7,529	2,091	4,426	670,040
	학년의 %	95.5%	2.4%	1.1%	.3%	.7%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31,921	13,404	7,894	3,001	5,196	661,416
	학년의 %	95.5%	2.0%	1.2%	.5%	.8%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09,882	11,279	5,473	2,655	5,047	634,336
	학년의 %	96.1%	1.8%	.9%	.4%	.8%	100.0%
전체	빈도	4,847,967	208,569	94,153	37,396	50,505	5,238,590
	학년의 %	92.5%	4.0%	1.8%	.7%	1.0%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8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5.5%, '매우 잘 사는 편' 2.5%, '어려운 편' 1.4%, '잘 사는 편' 0.9%, '보통이다'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4〉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3,485	4,518	3,588	1,585	4,804	87,980
	경제수준의 %	83.5%	5.1%	4.1%	1.8%	5.5%	100.0%
어려운편	빈도	604,780	32,824	17,707	5,921	9,651	670,883
	경제수준의 %	90.1%	4.9%	2.6%	.9%	1.4%	100.0%
보통	빈도	3,306,180	126,661	52,946	21,859	25,316	3,532,962
	경제수준의 %	93.6%	3.6%	1.5%	.6%	.7%	100.0%
잘사는편	빈도	759,313	39,526	16,780	6,532	7,859	830,010
	경제수준의 %	91.5%	4.8%	2.0%	.8%	.9%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4,209	5,040	3,132	1,499	2,875	116,755
	경제수준의 %	89.3%	4.3%	2.7%	1.3%	2.5%	100.0%
전체	빈도	4,847,967	208,569	94,153	37,396	50,505	5,238,590
	경제수준의 %	92.5%	4.0%	1.8%	.7%	1.0%	100.0%

## 카.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8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1.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53,564	45,039	20,681	9,408	12,995	941,687
	시도의 %	90.6%	4.8%	2.2%	1.0%	1.4%	100.0%
부산	빈도	319,463	18,298	8,448	3,600	4,669	354,478
	시도의 %	90.1%	5.2%	2.4%	1.0%	1.3%	100.0%
인천	빈도	277,186	11,312	6,075	2,567	3,386	300,526
	시도의 %	92.2%	3.8%	2.0%	.9%	1.1%	100.0%
대구	빈도	268,968	9,600	4,455	1,798	2,216	287,037
	시도의 %	93.7%	3.3%	1.6%	.6%	.8%	100.0%
대전	빈도	154,543	9,368	5,438	1,592	2,883	173,824
	시도의 %	88.9%	5.4%	3.1%	.9%	1.7%	100.0%
광주	빈도	165,044	9,425	3,756	952	3,439	182,616
	시도의 %	90.4%	5.2%	2.1%	.5%	1.9%	100.0%
울산	빈도	122,521	8,962	4,182	1,480	2,049	139,194
	시도의 %	88.0%	6.4%	3.0%	1.1%	1.5%	100.0%
강원도	빈도	137,368	8,222	4,325	1,611	2,257	153,783
	시도의 %	89.3%	5.3%	2.8%	1.0%	1.5%	100.0%
경기도	빈도	1,158,630	52,763	25,231	8,393	11,794	1,256,811
	시도의 %	92.2%	4.2%	2.0%	.7%	.9%	100.0%
경남	빈도	316,498	19,258	9,736	3,489	5,481	354,462
	시도의 %	89.3%	5.4%	2.7%	1.0%	1.5%	100.0%
경북	빈도	236,706	11,844	6,935	2,016	3,170	260,671
	시도의 %	90.8%	4.5%	2.7%	.8%	1.2%	100.0%
전남	빈도	178,897	8,802	4,704	1,471	2,063	195,937
	시도의 %	91.3%	4.5%	2.4%	.8%	1.1%	100.0%
전북	빈도	180,663	11,158	5,631	1,777	2,790	202,019
	시도의 %	89.4%	5.5%	2.8%	.9%	1.4%	100.0%
충남	빈도	183,091	11,462	5,765	2,311	2,882	205,511
	시도의 %	89.1%	5.6%	2.8%	1.1%	1.4%	100.0%
충북	빈도	149,342	7,828	3,820	1,698	2,119	164,807
	시도의 %	90.6%	4.7%	2.3%	1.0%	1.3%	100.0%
제주도	빈도	58,722	3,433	1,490	526	1,056	65,227
	시도의 %	90.0%	5.3%	2.3%	.8%	1.6%	100.0%
전체	빈도	4,761,206	246,774	120,672	44,689	65,249	5,238,590
	시도의 %	90.9%	4.7%	2.3%	.9%	1.2%	100.0%

#### 나) 성별

〈표 386〉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1.7%이며, 여학생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6〉 일반학생 성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469,455	140,816	77,669	30,984	45,631	2,764,555
	성별의 %	89.3%	5.1%	2.8%	1.1%	1.7%	100.0%
여	빈도	2,291,753	105,959	43,002	13,705	19,616	2,474,035
	성별의 %	92.6%	4.3%	1.7%	.6%	.8%	100.0%
전체	빈도	4,761,208	246,775	120,671	44,689	65,247	5,238,590
	성별의 %	90.9%	4.7%	2.3%	.9%	1.2%	100.0%

#### 다) 학교별

〈표 38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1.4%, 전문계 고등학교 1.3%, 중학교 1.2%, 인문계 고등학교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01,572	85,767	43,497	16,830	18,160	1,265,826
	학교 구분의 %	87.0%	6.8%	3.4%	1.3%	1.4%	100.0%
중학교	빈도	1,818,354	102,588	45,142	17,283	23,605	2,006,972
	학교 구분의 %	90.6%	5.1%	2.2%	.9%	1.2%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389,361	43,717	22,884	7,190	16,948	1,480,100
	학교 구분의 %	93.9%	3.0%	1.5%	.5%	1.1%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51,922	14,703	9,149	3,385	6,533	485,692
	학교 구분의 %	93.0%	3.0%	1.9%	.7%	1.3%	100.0%
전체	빈도	4,761,209	246,775	120,672	44,688	65,246	5,238,590
	학교 구분의 %	90.9%	4.7%	2.3%	.9%	1.2%	100.0%

라) 학년별

〈표 38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5학년 1.6%, 중학교 2학년 1.4%, 고등학교 2학년 1.3%, 초등학교 6학년 1.2%, 중학교 1학년 1.2%, 고등학교 3학년 1.2%, 고등학교 1학년 1.1%, 중학교 3학년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35,064	44,684	20,948	7,799	10,076	618,571
	학년의 %	86.5%	7.2%	3.4%	1.3%	1.6%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66,508	41,083	22,549	9,032	8,083	647,255
	학년의 %	87.5%	6.3%	3.5%	1.4%	1.2%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80,820	43,179	17,609	7,332	7,632	656,572
	학년의 %	88.5%	6.6%	2.7%	1.1%	1.2%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14,391	31,310	16,343	5,472	9,371	676,887
	학년의 %	90.8%	4.6%	2.4%	.8%	1.4%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23,141	28,099	11,191	4,480	6,602	673,513
	학년의 %	92.5%	4.2%	1.7%	.7%	1.0%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27,575	20,861	10,519	3,506	7,579	670,040
	학년의 %	93.7%	3.1%	1.6%	.5%	1.1%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19,110	19,190	10,986	3,734	8,396	661,416
	학년의 %	93.6%	2.9%	1.7%	.6%	1.3%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594,597	18,370	10,528	3,334	7,507	634,336
	학년의 %	93.7%	2.9%	1.7%	.5%	1.2%	100.0%
전체	빈도	4,761,206	246,776	120,673	44,689	65,246	5,238,590
	학년의 %	90.9%	4.7%	2.3%	.9%	1.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8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6.4%, '매우 잘 사는 편' 2.7%, '어려운 편' 2.0%, '잘 사는 편' 1.2%, '보통이다'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1,881	5,129	3,902	1,400	5,668	87,980
	경제수준의 %	81.7%	5.8%	4.4%	1.6%	6.4%	100.0%
어려운편	빈도	590,531	36,470	21,126	9,342	13,414	670,883
	경제수준의 %	88.0%	5.4%	3.1%	1.4%	2.0%	100.0%
보통	빈도	3,248,566	156,393	70,086	24,788	33,129	3,532,962
	경제수준의 %	92.0%	4.4%	2.0%	.7%	.9%	100.0%
잘사는편	빈도	747,551	43,806	21,621	7,116	9,916	830,010
	경제수준의 %	90.1%	5.3%	2.6%	.9%	1.2%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2,681	4,976	3,937	2,042	3,119	116,755
	경제수준의 %	87.9%	4.3%	3.4%	1.7%	2.7%	100.0%
전체	빈도	4,761,210	246,774	120,672	44,688	65,246	5,238,590
	경제수준의 %	90.9%	4.7%	2.3%	.9%	1.2%	100.0%

## 타.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9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4%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76,709	38,316	18,242	4,734	3,686	941,687
	시도의 %	93.1%	4.1%	1.9%	.5%	.4%	100.0%
부산	빈도	331,978	13,505	6,485	1,567	943	354,478
	시도의 %	93.7%	3.8%	1.8%	.4%	.3%	100.0%
인천	빈도	282,337	10,740	5,709	710	1,030	300,526
	시도의 %	93.9%	3.6%	1.9%	.2%	.3%	100.0%
대구	빈도	274,966	7,647	3,106	768	550	287,037
	시도의 %	95.8%	2.7%	1.1%	.3%	.2%	100.0%
대전	빈도	161,345	9,093	2,183	584	619	173,824
	시도의 %	92.8%	5.2%	1.3%	.3%	.4%	100.0%
광주	빈도	169,717	7,866	3,846	610	577	182,616
	시도의 %	92.9%	4.3%	2.1%	.3%	.3%	100.0%
울산	빈도	127,722	6,714	2,793	942	1,023	139,194
	시도의 %	91.8%	4.8%	2.0%	.7%	.7%	100.0%
강원도	빈도	143,932	5,048	3,012	823	968	153,783
	시도의 %	93.6%	3.3%	2.0%	.5%	.6%	100.0%
경기도	빈도	1,182,543	45,191	21,591	2,951	4,535	1,256,811
	시도의 %	94.1%	3.6%	1.7%	.2%	.4%	100.0%
경남	빈도	327,659	15,673	7,696	2,062	1,372	354,462
	시도의 %	92.4%	4.4%	2.2%	.6%	.4%	100.0%
경북	빈도	247,989	7,402	3,874	619	787	260,671
	시도의 %	95.1%	2.8%	1.5%	.2%	.3%	100.0%
전남	빈도	183,381	6,977	3,454	919	1,206	195,937
	시도의 %	93.6%	3.6%	1.8%	.5%	.6%	100.0%
전북	빈도	188,825	7,622	3,461	1,444	667	202,019
	시도의 %	93.5%	3.8%	1.7%	.7%	.3%	100.0%
충남	빈도	192,060	7,594	4,275	814	768	205,511
	시도의 %	93.5%	3.7%	2.1%	.4%	.4%	100.0%
충북	빈도	155,797	5,565	2,386	557	502	164,807
	시도의 %	94.5%	3.4%	1.4%	.3%	.3%	100.0%
제주도	빈도	59,236	4,205	1,214	61	511	65,227
	시도의 %	90.8%	6.4%	1.9%	.1%	.8%	100.0%
전체	빈도	4,906,196	199,158	93,327	20,165	19,744	5,238,590
	시도의 %	93.7%	3.8%	1.8%	.4%	.4%	100.0%

#### 나) 성별

〈표 391〉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5%이며,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1〉 일반학생 성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51,310	123,825	61,032	14,402	13,986	2,764,555
	성별의 %	92.3%	4.5%	2.2%	.5%	.5%	100.0%
여	빈도	2,354,885	75,334	32,294	5,764	5,758	2,474,035
	성별의 %	95.2%	3.0%	1.3%	.2%	.2%	100.0%
전체	빈도	4,906,195	199,159	93,326	20,166	19,744	5,238,590
	성별의 %	93.7%	3.8%	1.8%	.4%	.4%	100.0%

#### 다) 학교별

〈표 39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0.5%, 중학교 0.4%, 초등학교 0.3%, 인문계 고등학교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84,433	52,789	21,008	4,137	3,459	1,265,826
	학교 구분의 %	93.6%	4.2%	1.7%	.3%	.3%	100.0%
중학교	빈도	1,820,760	113,429	52,804	11,164	8,815	2,006,972
	학교 구분의 %	90.7%	5.7%	2.6%	.6%	.4%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38,354	21,337	12,290	2,999	5,120	1,480,100
	학교 구분의 %	97.2%	1.4%	.8%	.2%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2,646	11,604	7,225	1,865	2,352	485,692
	학교 구분의 %	95.3%	2.4%	1.5%	.4%	.5%	100.0%
전체	빈도	4,906,193	199,159	93,327	20,165	19,746	5,238,590
	학교 구분의 %	93.7%	3.8%	1.8%	.4%	.4%	100.0%

#### 라) 학년별

〈표 39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2학년 0.5%, 중학교 3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4%, 고등학교 3학년 0.4%, 초등학교 5학년 0.4%, 중학교 1학년 0.3%, 고등학교 1학년 0.3%, 초등학교 6학년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86,126	20,796	7,473	2,003	2,173	618,571
	학년의 %	94.8%	3.4%	1.2%	.3%	.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98,307	31,993	13,535	2,134	1,286	647,255
	학년의 %	92.4%	4.9%	2.1%	.3%	.2%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85,035	44,778	20,186	4,568	2,005	656,572
	학년의 %	89.1%	6.8%	3.1%	.7%	.3%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09,114	42,035	18,415	3,737	3,586	676,887
	학년의 %	90.0%	6.2%	2.7%	.6%	.5%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26,610	26,616	14,203	2,859	3,225	673,513
	학년의 %	93.0%	4.0%	2.1%	.4%	.5%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40,346	16,065	9,353	2,132	2,144	670,040
	학년의 %	95.6%	2.4%	1.4%	.3%	.3%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41,166	10,445	5,529	1,391	2,885	661,416
	학년의 %	96.9%	1.6%	.8%	.2%	.4%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19,489	6,432	4,632	1,341	2,442	634,336
	학년의 %	97.7%	1.0%	.7%	.2%	.4%	100.0%
전체	빈도	4,906,193	199,160	93,326	20,165	19,746	5,238,590
	학년의 %	93.7%	3.8%	1.8%	.4%	.4%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9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7%, '매우 잘 사는 편' 1.3%, '어려운 편' 0.4%, '잘 사는 편' 0.4%, '보통이다'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5,869	4,597	2,179	1,221	4,114	87,980
	경제수준의 %	86.2%	5.2%	2.5%	1.4%	4.7%	100.0%
어려운편	빈도	622,228	27,280	15,553	2,851	2,971	670,883
	경제수준의 %	92.7%	4.1%	2.3%	.4%	.4%	100.0%
보통	빈도	3,326,918	127,220	58,406	12,222	8,196	3,532,962
	경제수준의 %	94.2%	3.6%	1.7%	.3%	.2%	100.0%
잘사는편	빈도	775,326	34,374	14,281	3,052	2,977	830,010
	경제수준의 %	93.4%	4.1%	1.7%	.4%	.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5,854	5,688	2,907	820	1,486	116,755
	경제수준의 %	90.7%	4.9%	2.5%	.7%	1.3%	100.0%
전체	빈도	4,906,195	199,159	93,326	20,166	19,744	5,238,590
	경제수준의 %	93.7%	3.8%	1.8%	.4%	.4%	100.0%

## 파. 친구 폭행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39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폭행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4%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폭행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84,161	33,797	14,669	4,867	4,193	941,687
	시도의 %	93.9%	3.6%	1.6%	.5%	.4%	100.0%
부산	빈도	327,379	16,291	8,010	1,200	1,598	354,478
	시도의 %	92.4%	4.6%	2.3%	.3%	.5%	100.0%
인천	빈도	283,654	10,891	3,910	1,445	626	300,526
	시도의 %	94.4%	3.6%	1.3%	.5%	.2%	100.0%
대구	빈도	271,836	9,646	3,564	1,078	913	287,037
	시도의 %	94.7%	3.4%	1.2%	.4%	.3%	100.0%
대전	빈도	160,071	8,206	3,691	1,095	761	173,824
	시도의 %	92.1%	4.7%	2.1%	.6%	.4%	100.0%
광주	빈도	167,573	8,235	4,879	847	1,082	182,616
	시도의 %	91.8%	4.5%	2.7%	.5%	.6%	100.0%
울산	빈도	127,667	6,791	3,022	657	1,057	139,194
	시도의 %	91.7%	4.9%	2.2%	.5%	.8%	100.0%
강원도	빈도	143,090	6,669	2,199	797	1,028	153,783
	시도의 %	93.0%	4.3%	1.4%	.5%	.7%	100.0%
경기도	빈도	1,191,139	39,953	15,631	4,755	5,333	1,256,811
	시도의 %	94.8%	3.2%	1.2%	.4%	.4%	100.0%
경남	빈도	328,488	16,515	6,573	1,154	1,732	354,462
	시도의 %	92.7%	4.7%	1.9%	.3%	.5%	100.0%
경북	빈도	244,519	9,933	4,198	1,244	777	260,671
	시도의 %	93.8%	3.8%	1.6%	.5%	.3%	100.0%
전남	빈도	184,924	6,471	3,191	599	752	195,937
	시도의 %	94.4%	3.3%	1.6%	.3%	.4%	100.0%
전북	빈도	188,974	8,579	2,532	939	995	202,019
	시도의 %	93.5%	4.2%	1.3%	.5%	.5%	100.0%
충남	빈도	191,952	8,012	3,757	1,003	787	205,511
	시도의 %	93.4%	3.9%	1.8%	.5%	.4%	100.0%
충북	빈도	154,285	6,758	2,417	783	564	164,807
	시도의 %	93.6%	4.1%	1.5%	.5%	.3%	100.0%
제주도	빈도	60,215	2,750	1,897	216	149	65,227
	시도의 %	92.3%	4.2%	2.9%	.3%	.2%	100.0%
전체	빈도	4,909,927	199,497	84,140	22,679	22,347	5,238,590
	시도의 %	93.7%	3.8%	1.6%	.4%	.4%	100.0%



#### 나) 성별

〈표 396〉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폭행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6%이며, 여학생은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6〉 일반학생 성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폭행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498,973	159,292	69,884	19,070	17,336	2,764,555
	성별의 %	90.4%	5.8%	2.5%	.7%	.6%	100.0%
여	빈도	2,410,955	40,206	14,253	3,609	5,012	2,474,035
	성별의 %	97.5%	1.6%	.6%	.1%	.2%	100.0%
전체	빈도	4,909,928	199,498	84,137	22,679	22,348	5,238,590
	성별의 %	93.7%	3.8%	1.6%	.4%	.4%	100.0%

#### 다) 학교별

〈표 39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폭행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6%, 전문계 고등학교 0.5%, 중학교 0.4%, 초등학교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폭행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88,128	49,448	19,738	5,336	3,176	1,265,826
	학교 구분의 %	93.9%	3.9%	1.6%	.4%	.3%	100.0%
중학교	빈도	1,855,059	94,118	38,475	11,244	8,076	2,006,972
	학교 구분의 %	92.4%	4.7%	1.9%	.6%	.4%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13,905	36,628	16,670	4,328	8,569	1,480,100
	학교 구분의 %	95.5%	2.5%	1.1%	.3%	.6%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52,836	19,304	9,253	1,772	2,527	485,692
	학교 구분의 %	93.2%	4.0%	1.9%	.4%	.5%	100.0%
전체	빈도	4,909,928	199,498	84,136	22,680	22,348	5,238,590
	학교 구분의 %	93.7%	3.8%	1.6%	.4%	.4%	100.0%

라) 학년별

〈표 39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폭행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1학년 0.6%, 고등학교 2학년 0.6%, 고등학교 3학년 0.5%, 중학교 1학년 0.4%, 중학교 2학년 0.4%, 중학교 3학년 0.4%, 초등학교 6학년 0.3%, 초등학교 5학년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폭행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86,916	19,945	8,500	1,769	1,441	618,571
	학년의 %	94.9%	3.2%	1.4%	.3%	.2%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01,211	29,503	11,238	3,567	1,736	647,255
	학년의 %	92.9%	4.6%	1.7%	.6%	.3%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96,151	37,219	16,552	3,828	2,822	656,572
	학년의 %	90.8%	5.7%	2.5%	.6%	.4%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28,238	28,987	12,472	4,513	2,677	676,887
	학년의 %	92.8%	4.3%	1.8%	.7%	.4%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30,673	27,911	9,451	2,902	2,576	673,513
	학년의 %	93.6%	4.1%	1.4%	.4%	.4%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30,327	23,049	10,804	1,937	3,923	670,040
	학년의 %	94.1%	3.4%	1.6%	.3%	.6%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29,842	17,780	7,990	2,100	3,704	661,416
	학년의 %	95.2%	2.7%	1.2%	.3%	.6%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06,572	15,104	7,130	2,062	3,468	634,336
	학년의 %	95.6%	2.4%	1.1%	.3%	.5%	100.0%
전체	빈도	4,909,930	199,498	84,137	22,678	22,347	5,238,590
	학년의 %	93.7%	3.8%	1.6%	.4%	.4%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39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폭행 경험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4%, '매우 잘 사는 편' 1.8%, '잘 사는 편' 0.4%, '어려운 편' 0.5%, '보통이다'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폭행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폭행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5,183	4,211	3,380	1,321	3,885	87,980
	경제수준의 %	85.5%	4.8%	3.8%	1.5%	4.4%	100.0%
어려운편	빈도	623,299	29,058	12,174	3,261	3,091	670,883
	경제수준의 %	92.9%	4.3%	1.8%	.5%	.5%	100.0%
보통	빈도	3,327,804	129,072	52,584	13,339	10,163	3,532,962
	경제수준의 %	94.2%	3.7%	1.5%	.4%	.3%	100.0%
잘사는편	빈도	777,726	32,369	12,693	4,096	3,126	830,010
	경제수준의 %	93.7%	3.9%	1.5%	.5%	.4%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5,916	4,787	3,307	662	2,083	116,755
	경제수준의 %	90.7%	4.1%	2.8%	.6%	1.8%	100.0%
전체	빈도	4,909,928	199,497	84,138	22,679	22,348	5,238,590
	경제수준의 %	93.7%	3.8%	1.6%	.4%	.4%	100.0%

## 하. 친구 따돌린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0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따돌린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5%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따돌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45,018	67,264	19,172	4,402	5,831	941,687
	시도의 %	89.7%	7.1%	2.0%	.5%	.6%	100.0%
부산	빈도	324,203	22,435	5,881	635	1,324	354,478
	시도의 %	91.5%	6.3%	1.7%	.2%	.4%	100.0%
인천	빈도	274,245	19,795	4,952	839	695	300,526
	시도의 %	91.3%	6.6%	1.6%	.3%	.2%	100.0%
대구	빈도	264,386	16,554	3,843	1,473	781	287,037
	시도의 %	92.1%	5.8%	1.3%	.5%	.3%	100.0%
대전	빈도	154,166	13,894	4,103	996	665	173,824
	시도의 %	88.7%	8.0%	2.4%	.6%	.4%	100.0%
광주	빈도	163,235	14,063	3,352	874	1,094	182,616
	시도의 %	89.4%	7.7%	1.8%	.5%	.6%	100.0%
울산	빈도	125,662	9,593	2,194	543	1,202	139,194
	시도의 %	90.3%	6.9%	1.6%	.4%	.9%	100.0%
강원도	빈도	138,733	10,574	2,926	664	886	153,783
	시도의 %	90.2%	6.9%	1.9%	.4%	.6%	100.0%
경기도	빈도	1,133,874	85,708	25,925	4,384	6,920	1,256,811
	시도의 %	90.2%	6.8%	2.1%	.3%	.6%	100.0%
경남	빈도	323,557	22,486	5,977	1,129	1,313	354,462
	시도의 %	91.3%	6.3%	1.7%	.3%	.4%	100.0%
경북	빈도	240,381	14,930	4,220	477	663	260,671
	시도의 %	92.2%	5.7%	1.6%	.2%	.3%	100.0%
전남	빈도	180,728	11,066	2,964	503	676	195,937
	시도의 %	92.2%	5.6%	1.5%	.3%	.3%	100.0%
전북	빈도	182,976	13,106	3,920	1,107	910	202,019
	시도의 %	90.6%	6.5%	1.9%	.5%	.5%	100.0%
충남	빈도	186,341	13,465	3,634	771	1,300	205,511
	시도의 %	90.7%	6.6%	1.8%	.4%	.6%	100.0%
충북	빈도	148,908	11,762	3,017	333	787	164,807
	시도의 %	90.4%	7.1%	1.8%	.2%	.5%	100.0%
제주도	빈도	58,485	4,727	1,375	420	220	65,227
	시도의 %	89.7%	7.2%	2.1%	.6%	.3%	100.0%
전체	빈도	4,744,896	351,422	97,455	19,550	25,267	5,238,590
	시도의 %	90.6%	6.7%	1.9%	.4%	.5%	100.0%

#### 나) 성별

〈표 401〉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따돌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6%이며, 여학생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1〉 일반학생 성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따돌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06,979	175,024	51,917	12,962	17,673	2,764,555
	성별의 %	90.7%	6.3%	1.9%	.5%	.6%	100.0%
여	빈도	2,237,915	176,398	45,538	6,588	7,596	2,474,035
	성별의 %	90.5%	7.1%	1.8%	.3%	.3%	100.0%
전체	빈도	4,744,894	351,422	97,455	19,550	25,269	5,238,590
	성별의 %	90.6%	6.7%	1.9%	.4%	.5%	100.0%

#### 다) 학교별

〈표 40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따돌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0.6%, 인문계 고등학교 0.5%, 전문계 고등학교 0.5%, 중학교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따돌린 경험등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따돌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088,584	129,213	33,720	6,862	7,447	1,265,826
	학교 구분의 %	86.0%	10.2%	2.7%	.5%	.6%	100.0%
중학교	빈도	1,787,505	158,394	44,718	8,502	7,853	2,006,972
	학교 구분의 %	89.1%	7.9%	2.2%	.4%	.4%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07,476	47,796	14,205	2,959	7,664	1,480,100
	학교 구분의 %	95.1%	3.2%	1.0%	.2%	.5%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1,327	16,021	4,812	1,227	2,305	485,692
	학교 구분의 %	95.0%	3.3%	1.0%	.3%	.5%	100.0%
전체	빈도	4,744,892	351,424	97,455	19,550	25,269	5,238,590
	학교 구분의 %	90.6%	6.7%	1.9%	.4%	.5%	100.0%

라) 학년별

〈표 40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따돌린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6학년 0.6%, 중학교 1학년 0.6%, 초등학교 5학년 0.5%, 고등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2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5%, 중학교 2학년 0.4%, 중학교 3학년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따돌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545,834	53,775	12,722	2,950	3,290	618,571
5학년	학년의 %	88.2%	8.7%	2.1%	.5%	.5%	100.0%
초등학교	빈도	542,750	75,438	20,998	3,912	4,157	647,255
6학년	학년의 %	83.9%	11.7%	3.2%	.6%	.6%	100.0%
중학교	빈도	547,398	76,999	23,708	4,715	3,752	656,572
1학년	학년의 %	83.4%	11.7%	3.6%	.7%	.6%	100.0%
중학교	빈도	608,643	50,623	12,845	1,896	2,880	676,887
2학년	학년의 %	89.9%	7.5%	1.9%	.3%	.4%	100.0%
중학교	빈도	631,464	30,772	8,165	1,891	1,221	673,513
3학년	학년의 %	93.8%	4.6%	1.2%	.3%	.2%	100.0%
고등학교	빈도	626,918	29,869	8,417	1,446	3,390	670,040
1학년	학년의 %	93.6%	4.5%	1.3%	.2%	.5%	100.0%
고등학교	빈도	631,324	19,782	5,601	1,494	3,215	661,416
2학년	학년의 %	95.5%	3.0%	.8%	.2%	.5%	100.0%
고등학교	빈도	610,562	14,166	4,999	1,246	3,363	634,336
3학년	학년의 %	96.3%	2.2%	.8%	.2%	.5%	100.0%
전체	빈도	4,744,893	351,424	97,455	19,550	25,268	5,238,590
	학년의 %	90.6%	6.7%	1.9%	.4%	.5%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0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따돌린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따돌린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4%, '매우 잘 사는 편' 2.5%, '잘 사는 편' 0.6%, '어려운 편' 0.4%, '보통이다'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따돌린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따돌린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5,680	4,961	2,773	690	3,876	87,980
	경제수준의 %	86.0%	5.6%	3.2%	.8%	4.4%	100.0%
어려운편	빈도	614,753	40,615	10,028	2,686	2,801	670,883
	경제수준의 %	91.6%	6.1%	1.5%	.4%	.4%	100.0%
보통	빈도	3,225,539	223,576	62,263	11,039	10,545	3,532,962
	경제수준의 %	91.3%	6.3%	1.8%	.3%	.3%	100.0%
잘사는편	빈도	728,411	72,781	19,386	4,359	5,073	830,010
	경제수준의 %	87.8%	8.8%	2.3%	.5%	.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0,511	9,489	3,005	776	2,974	116,755
	경제수준의 %	86.1%	8.1%	2.6%	.7%	2.5%	100.0%
전체	빈도	4,744,894	351,422	97,455	19,550	25,269	5,238,590
	경제수준의 %	90.6%	6.7%	1.9%	.4%	.5%	100.0%

## 가. 친구 괴롭힌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0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괴롭힌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6%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충북(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5〉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괴롭힌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51,638	56,947	19,357	7,894	5,851	941,687
	시도의 %	90.4%	6.0%	2.1%	.8%	.6%	100.0%
부산	빈도	318,856	22,492	9,007	1,936	2,187	354,478
	시도의 %	90.0%	6.3%	2.5%	.5%	.6%	100.0%
인천	빈도	272,876	18,507	6,588	1,435	1,120	300,526
	시도의 %	90.8%	6.2%	2.2%	.5%	.4%	100.0%
대구	빈도	263,704	15,570	4,881	1,641	1,241	287,037
	시도의 %	91.9%	5.4%	1.7%	.6%	.4%	100.0%
대전	빈도	150,191	14,079	6,804	1,312	1,438	173,824
	시도의 %	86.4%	8.1%	3.9%	.8%	.8%	100.0%
광주	빈도	161,266	13,543	5,350	1,570	887	182,616
	시도의 %	88.3%	7.4%	2.9%	.9%	.5%	100.0%
울산	빈도	120,950	11,317	4,358	1,568	1,001	139,194
	시도의 %	86.9%	8.1%	3.1%	1.1%	.7%	100.0%
강원도	빈도	135,453	10,986	4,676	1,489	1,179	153,783
	시도의 %	88.1%	7.1%	3.0%	1.0%	.8%	100.0%
경기도	빈도	1,134,074	82,438	25,263	7,498	7,538	1,256,811
	시도의 %	90.2%	6.6%	2.0%	.6%	.6%	100.0%
경남	빈도	315,269	24,361	9,905	2,548	2,379	354,462
	시도의 %	88.9%	6.9%	2.8%	.7%	.7%	100.0%
경북	빈도	232,218	17,994	7,163	1,967	1,329	260,671
	시도의 %	89.1%	6.9%	2.7%	.8%	.5%	100.0%
전남	빈도	178,976	11,122	4,104	880	855	195,937
	시도의 %	91.3%	5.7%	2.1%	.4%	.4%	100.0%
전북	빈도	181,337	12,969	4,752	1,488	1,473	202,019
	시도의 %	89.8%	6.4%	2.4%	.7%	.7%	100.0%
충남	빈도	181,349	15,538	5,814	1,372	1,438	205,511
	시도의 %	88.2%	7.6%	2.8%	.7%	.7%	100.0%
충북	빈도	146,617	11,010	4,660	1,107	1,413	164,807
	시도의 %	89.0%	6.7%	2.8%	.7%	.9%	100.0%
제주도	빈도	57,842	4,606	1,930	563	286	65,227
	시도의 %	88.7%	7.1%	3.0%	.9%	.4%	100.0%
전체	빈도	4,702,616	343,479	124,612	36,268	31,615	5,238,590
	시도의 %	89.8%	6.6%	2.4%	.7%	.6%	100.0%

#### 나) 성별

〈표 406〉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괴롭힌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9%이며, 여학생은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6〉 일반학생 성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괴롭힌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387,895	230,688	92,045	29,244	24,683	2,764,555
	성별의 %	86.4%	8.3%	3.3%	1.1%	.9%	100.0%
여	빈도	2,314,720	112,791	32,566	7,025	6,933	2,474,035
	성별의 %	93.6%	4.6%	1.3%	.3%	.3%	100.0%
전체	빈도	4,702,615	343,479	124,611	36,269	31,616	5,238,590
	성별의 %	89.8%	6.6%	2.4%	.7%	.6%	100.0%

#### 다) 학교별

〈표 40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괴롭힌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7%, 전문계 고등학교 0.7%, 중학교 0.6%, 초등학교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7〉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괴롭힌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092,123	118,860	37,696	10,186	6,961	1,265,826
	학교 구분의 %	86.3%	9.4%	3.0%	.8%	.5%	100.0%
중학교	빈도	1,769,261	154,481	55,917	15,989	11,324	2,006,972
	학교 구분의 %	88.2%	7.7%	2.8%	.8%	.6%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390,271	51,892	20,967	7,144	9,826	1,480,100
	학교 구분의 %	93.9%	3.5%	1.4%	.5%	.7%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50,959	18,246	10,031	2,950	3,506	485,692
	학교 구분의 %	92.8%	3.8%	2.1%	.6%	.7%	100.0%
전체	빈도	4,702,614	343,479	124,611	36,269	31,617	5,238,590
	학교 구분의 %	89.8%	6.6%	2.4%	.7%	.6%	100.0%

라) 학년별

〈표 40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괴롭힌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초등학교 6학년 0.7%, 중학교 1학년 0.7%, 고등학교 2학년 0.7%, 고등학교 3학년 0.7%, 중학교 2학년 0.6%, 고등학교 1학년 0.6%, 초등학교 5학년 0.4%, 중학교 3학년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8〉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괴롭힌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42,906	52,130	16,430	4,401	2,704	618,571
	학년의 %	87.8%	8.4%	2.7%	.7%	.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49,217	66,730	21,266	5,785	4,257	647,255
	학년의 %	84.9%	10.3%	3.3%	.9%	.7%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51,953	69,415	24,423	6,466	4,315	656,572
	학년의 %	84.1%	10.6%	3.7%	1.0%	.7%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599,109	49,634	18,596	5,451	4,097	676,887
	학년의 %	88.5%	7.3%	2.7%	.8%	.6%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18,201	35,431	12,898	4,072	2,911	673,513
	학년의 %	91.8%	5.3%	1.9%	.6%	.4%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20,072	29,656	12,414	3,654	4,244	670,040
	학년의 %	92.5%	4.4%	1.9%	.5%	.6%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21,406	22,292	9,774	3,191	4,753	661,416
	학년의 %	94.0%	3.4%	1.5%	.5%	.7%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599,751	18,191	8,810	3,249	4,335	634,336
	학년의 %	94.5%	2.9%	1.4%	.5%	.7%	100.0%
전체	빈도	4,702,615	343,479	124,611	36,269	31,616	5,238,590
	학년의 %	89.8%	6.6%	2.4%	.7%	.6%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09〉은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괴롭힌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 괴롭힌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5.2%, '매우 잘 사는 편' 2.3%, '잘 사는 편'0.6%, '어려운 편' 0.5%, '보통이다'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 괴롭힌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 괴롭힌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3,099	5,214	3,613	1,462	4,592	87,980
	경제수준의 %	83.1%	5.9%	4.1%	1.7%	5.2%	100.0%
어려운편	빈도	600,829	42,650	18,283	5,568	3,553	670,883
	경제수준의 %	89.6%	6.4%	2.7%	.8%	.5%	100.0%
보통	빈도	3,197,947	221,422	76,312	21,579	15,702	3,532,962
	경제수준의 %	90.5%	6.3%	2.2%	.6%	.4%	100.0%
잘사는편	빈도	731,363	64,585	22,947	5,972	5,143	830,010
	경제수준의 %	88.1%	7.8%	2.8%	.7%	.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99,376	9,608	3,456	1,688	2,627	116,755
	경제수준의 %	85.1%	8.2%	3.0%	1.4%	2.3%	100.0%
전체	빈도	4,702,614	343,479	124,611	36,269	31,617	5,238,590
	경제수준의 %	89.8%	6.6%	2.4%	.7%	.6%	100.0%

## 나.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1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8%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 울산, 경남, 전남, 제주(1.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일반학생 시도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48,812	54,698	23,301	7,690	7,186	941,687
	시도의 %	90.1%	5.8%	2.5%	.8%	.8%	100.0%
부산	빈도	317,684	22,044	9,031	3,307	2,412	354,478
	시도의 %	89.6%	6.2%	2.5%	.9%	.7%	100.0%
인천	빈도	272,887	16,686	7,002	2,325	1,626	300,526
	시도의 %	90.8%	5.6%	2.3%	.8%	.5%	100.0%
대구	빈도	265,076	13,372	4,840	2,057	1,692	287,037
	시도의 %	92.3%	4.7%	1.7%	.7%	.6%	100.0%
대전	빈도	151,511	13,487	5,506	1,656	1,664	173,824
	시도의 %	87.2%	7.8%	3.2%	1.0%	1.0%	100.0%
광주	빈도	160,000	12,990	5,804	2,184	1,638	182,616
	시도의 %	87.6%	7.1%	3.2%	1.2%	.9%	100.0%
울산	빈도	122,827	9,882	3,966	1,153	1,366	139,194
	시도의 %	88.2%	7.1%	2.8%	.8%	1.0%	100.0%
강원도	빈도	135,285	11,049	4,726	1,353	1,370	153,783
	시도의 %	88.0%	7.2%	3.1%	.9%	.9%	100.0%
경기도	빈도	1,133,219	71,516	32,369	9,010	10,697	1,256,811
	시도의 %	90.2%	5.7%	2.6%	.7%	.9%	100.0%
경남	빈도	312,744	23,796	10,603	3,802	3,517	354,462
	시도의 %	88.2%	6.7%	3.0%	1.1%	1.0%	100.0%
경북	빈도	232,875	16,143	7,345	2,640	1,668	260,671
	시도의 %	89.3%	6.2%	2.8%	1.0%	.6%	100.0%
전남	빈도	177,060	10,656	5,329	1,007	1,885	195,937
	시도의 %	90.4%	5.4%	2.7%	.5%	1.0%	100.0%
전북	빈도	178,293	14,920	5,692	1,225	1,889	202,019
	시도의 %	88.3%	7.4%	2.8%	.6%	.9%	100.0%
충남	빈도	181,263	14,018	6,734	1,657	1,839	205,511
	시도의 %	88.2%	6.8%	3.3%	.8%	.9%	100.0%
충북	빈도	146,280	10,490	5,076	1,535	1,426	164,807
	시도의 %	88.8%	6.4%	3.1%	.9%	.9%	100.0%
제주도	빈도	56,202	4,875	2,981	541	628	65,227
	시도의 %	86.2%	7.5%	4.6%	.8%	1.0%	100.0%
전체	빈도	4,692,018	320,622	140,305	43,142	42,503	5,238,590
	시도의 %	89.6%	6.1%	2.7%	.8%	.8%	100.0%

#### 나) 성별

〈표 411〉은 일반학생의 성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1.2%이며, 여학생은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일반학생 성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390,338	208,592	100,928	32,402	32,295	2,764,555
	성별의 %	86.5%	7.5%	3.7%	1.2%	1.2%	100.0%
여	빈도	2,301,677	112,031	39,378	10,740	10,209	2,474,035
	성별의 %	93.0%	4.5%	1.6%	.4%	.4%	100.0%
전체	빈도	4,692,015	320,623	140,306	43,142	42,504	5,238,590
	성별의 %	89.6%	6.1%	2.7%	.8%	.8%	100.0%

#### 다) 학교별

〈표 41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9%, 중학교 0.8%, 전문계 고등학교 0.8%, 초등학교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일반학생 학교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107,980	97,969	39,135	12,113	8,629	1,265,826
	학교 구분의 %	87.5%	7.7%	3.1%	1.0%	.7%	100.0%
중학교	빈도	1,773,173	141,153	58,564	18,333	15,749	2,006,972
	학교 구분의 %	88.4%	7.0%	2.9%	.9%	.8%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367,179	59,260	30,482	9,178	14,001	1,480,100
	학교 구분의 %	92.4%	4.0%	2.1%	.6%	.9%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43,682	22,241	12,125	3,518	4,126	485,692
	학교 구분의 %	91.4%	4.6%	2.5%	.7%	.8%	100.0%
전체	빈도	4,692,014	320,623	140,306	43,142	42,505	5,238,590
	학교 구분의 %	89.6%	6.1%	2.7%	.8%	.8%	100.0%

라) 학년별

〈표 41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1.0%, 중학교 1학년 0.9%, 고등학교 3학년 0.9%, 고등학교 1학년 0.9%, 중학교 2학년 0.8%, 초등학교 5학년 0.7%, 초등학교 6학년 0.7%, 중학교 3학년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일반학생 학년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50,796	42,845	15,836	4,824	4,270	618,571
	학년의 %	89.0%	6.9%	2.6%	.8%	.7%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557,185	55,123	23,299	7,289	4,359	647,255
	학년의 %	86.1%	8.5%	3.6%	1.1%	.7%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560,897	58,053	23,407	8,018	6,197	656,572
	학년의 %	85.4%	8.8%	3.6%	1.2%	.9%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598,697	46,196	20,024	6,439	5,531	676,887
	학년의 %	88.4%	6.8%	3.0%	1.0%	.8%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13,578	36,905	15,134	3,876	4,020	673,513
	학년의 %	91.1%	5.5%	2.2%	.6%	.6%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10,822	31,988	15,505	5,516	6,209	670,040
	학년의 %	91.2%	4.8%	2.3%	.8%	.9%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10,244	26,820	14,337	3,590	6,425	661,416
	학년의 %	92.3%	4.1%	2.2%	.5%	1.0%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589,796	22,694	12,764	3,590	5,492	634,336
	학년의 %	93.0%	3.6%	2.0%	.6%	.9%	100.0%
전체	빈도	4,692,015	320,624	140,306	43,142	42,503	5,238,590
	학년의 %	89.6%	6.1%	2.7%	.8%	.8%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1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5.7%, '매우 잘 사는 편' 2.9%, '어려운 편' 1.0%, '잘 사는 편' 0.7%, '보통이다'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1,357	5,915	3,918	1,736	5,054	87,980
	경제수준의 %	81.1%	6.7%	4.5%	2.0%	5.7%	100.0%
어려운편	빈도	592,369	43,354	22,621	5,656	6,883	670,883
	경제수준의 %	88.3%	6.5%	3.4%	.8%	1.0%	100.0%
보통	빈도	3,192,256	205,362	88,282	25,316	21,746	3,532,962
	경제수준의 %	90.4%	5.8%	2.5%	.7%	.6%	100.0%
잘사는편	빈도	736,201	57,926	21,566	8,837	5,480	830,010
	경제수준의 %	88.7%	7.0%	2.6%	1.1%	.7%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99,832	8,066	3,919	1,597	3,341	116,755
	경제수준의 %	85.5%	6.9%	3.4%	1.4%	2.9%	100.0%
전체	빈도	4,692,015	320,623	140,306	43,142	42,504	5,238,590
	경제수준의 %	89.6%	6.1%	2.7%	.8%	.8%	100.0%

## 다.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1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과 제주(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90,972	31,274	14,048	3,344	2,049	941,687
	시도의 %	94.6%	3.3%	1.5%	.4%	.2%	100.0%
부산	빈도	338,225	10,415	4,430	745	663	354,478
	시도의 %	95.4%	2.9%	1.2%	.2%	.2%	100.0%
인천	빈도	288,155	7,395	3,893	582	501	300,526
	시도의 %	95.9%	2.5%	1.3%	.2%	.2%	100.0%
대구	빈도	279,230	5,057	1,960	536	254	287,037
	시도의 %	97.3%	1.8%	.7%	.2%	.1%	100.0%
대전	빈도	165,005	6,075	1,778	755	211	173,824
	시도의 %	94.9%	3.5%	1.0%	.4%	.1%	100.0%
광주	빈도	173,642	5,388	2,591	585	410	182,616
	시도의 %	95.1%	3.0%	1.4%	.3%	.2%	100.0%
울산	빈도	130,794	4,482	2,892	281	745	139,194
	시도의 %	94.0%	3.2%	2.1%	.2%	.5%	100.0%
강원도	빈도	146,079	4,790	2,111	378	425	153,783
	시도의 %	95.0%	3.1%	1.4%	.2%	.3%	100.0%
경기도	빈도	1,202,499	33,993	15,297	1,915	3,107	1,256,811
	시도의 %	95.7%	2.7%	1.2%	.2%	.2%	100.0%
경남	빈도	338,678	10,088	3,900	986	810	354,462
	시도의 %	95.5%	2.8%	1.1%	.3%	.2%	100.0%
경북	빈도	250,705	6,396	2,690	478	402	260,671
	시도의 %	96.2%	2.5%	1.0%	.2%	.2%	100.0%
전남	빈도	188,408	5,098	1,724	359	348	195,937
	시도의 %	96.2%	2.6%	.9%	.2%	.2%	100.0%
전북	빈도	194,273	5,042	1,690	491	523	202,019
	시도의 %	96.2%	2.5%	.8%	.2%	.3%	100.0%
충남	빈도	195,770	6,110	2,656	449	526	205,511
	시도의 %	95.3%	3.0%	1.3%	.2%	.3%	100.0%
충북	빈도	157,900	4,697	1,772	253	185	164,807
	시도의 %	95.8%	2.8%	1.1%	.2%	.1%	100.0%
제주도	빈도	61,469	2,052	1,257	136	313	65,227
	시도의 %	94.2%	3.1%	1.9%	.2%	.5%	100.0%
전체	빈도	5,001,804	148,352	64,689	12,273	11,472	5,238,590
	시도의 %	95.5%	2.8%	1.2%	.2%	.2%	100.0%

#### 나) 성별

〈표 416〉은 일반학생의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605,691	100,062	41,938	8,920	7,944	2,764,555
	성별의 %	94.3%	3.6%	1.5%	.3%	.3%	100.0%
여	빈도	2,396,110	48,289	22,753	3,356	3,527	2,474,035
	성별의 %	96.9%	2.0%	.9%	.1%	.1%	100.0%
전체	빈도	5,001,801	148,351	64,691	12,276	11,471	5,238,590
	성별의 %	95.5%	2.8%	1.2%	.2%	.2%	100.0%

#### 다) 학교별

〈표 41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3%, 전문계 고등학교 0.3%, 중학교 0.2%, 초등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18,923	34,835	8,898	2,005	1,165	1,265,826
	학교 구분의 %	96.3%	2.8%	.7%	.2%	.1%	100.0%
중학교	빈도	1,899,610	67,081	30,623	5,779	3,879	2,006,972
	학교 구분의 %	94.7%	3.3%	1.5%	.3%	.2%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20,952	32,674	18,300	3,324	4,850	1,480,100
	학교 구분의 %	96.0%	2.2%	1.2%	.2%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2,319	13,760	6,869	1,168	1,576	485,692
	학교 구분의 %	95.2%	2.8%	1.4%	.2%	.3%	100.0%
전체	빈도	5,001,804	148,350	64,690	12,276	11,470	5,238,590
	학교 구분의 %	95.5%	2.8%	1.2%	.2%	.2%	100.0%

라) 학년별

〈표 41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4%, 고등학교 3학년 0.3%, 고등학교 1학년 0.3%, 중학교 2학년 0.3%, 중학교 1학년 0.2%,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 중학교 3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599,158	13,759	4,109	892	653	618,571
5학년	학년의 %	96.9%	2.2%	.7%	.1%	.1%	100.0%
초등학교	빈도	619,765	21,076	4,789	1,113	512	647,255
6학년	학년의 %	95.8%	3.3%	.7%	.2%	.1%	100.0%
중학교	빈도	619,790	23,764	10,109	1,690	1,219	656,572
1학년	학년의 %	94.4%	3.6%	1.5%	.3%	.2%	100.0%
중학교	빈도	640,030	23,548	9,754	1,766	1,789	676,887
2학년	학년의 %	94.6%	3.5%	1.4%	.3%	.3%	100.0%
중학교	빈도	639,788	19,769	10,760	2,324	872	673,513
3학년	학년의 %	95.0%	2.9%	1.6%	.3%	.1%	100.0%
고등학교	빈도	637,084	19,283	10,602	1,099	1,972	670,040
1학년	학년의 %	95.1%	2.9%	1.6%	.2%	.3%	100.0%
고등학교	빈도	633,486	15,562	8,358	1,590	2,420	661,416
2학년	학년의 %	95.8%	2.4%	1.3%	.2%	.4%	100.0%
고등학교	빈도	612,698	11,590	6,209	1,804	2,035	634,336
3학년	학년의 %	96.6%	1.8%	1.0%	.3%	.3%	100.0%
전체	빈도	5,001,799	148,351	64,690	12,278	11,472	5,238,590
	학년의 %	95.5%	2.8%	1.2%	.2%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1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3.4%, '매우 잘 사는 편' 1.5%, '어려운 편' 0.2%, '잘 사는 편' 0.2%, '보통이다'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8,023	3,616	2,571	773	2,997	87,980
	경제수준의 %	88.7%	4.1%	2.9%	.9%	3.4%	100.0%
어려운편	빈도	632,240	23,017	12,545	2,029	1,052	670,883
	경제수준의 %	94.2%	3.4%	1.9%	.3%	.2%	100.0%
보통	빈도	3,389,939	94,304	37,351	7,364	4,004	3,532,962
	경제수준의 %	96.0%	2.7%	1.1%	.2%	.1%	100.0%
잘사는편	빈도	792,386	24,013	10,544	1,360	1,707	830,010
	경제수준의 %	95.5%	2.9%	1.3%	.2%	.2%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9,216	3,399	1,679	750	1,711	116,755
	경제수준의 %	93.5%	2.9%	1.4%	.6%	1.5%	100.0%
전체	빈도	5,001,804	148,349	64,690	12,276	11,471	5,238,590
	경제수준의 %	95.5%	2.8%	1.2%	.2%	.2%	100.0%

## 라.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2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일반학생 시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17,708	14,542	5,502	1,766	2,169	941,687
	시도의 %	97.5%	1.5%	.6%	.2%	.2%	100.0%
부산	빈도	345,986	5,055	2,342	439	656	354,478
	시도의 %	97.6%	1.4%	.7%	.1%	.2%	100.0%
인천	빈도	292,790	4,758	1,990	562	426	300,526
	시도의 %	97.4%	1.6%	.7%	.2%	.1%	100.0%
대구	빈도	282,832	2,413	995	318	479	287,037
	시도의 %	98.5%	.8%	.3%	.1%	.2%	100.0%
대전	빈도	170,476	1,987	771	262	328	173,824
	시도의 %	98.1%	1.1%	.4%	.2%	.2%	100.0%
광주	빈도	177,146	3,485	1,183	260	542	182,616
	시도의 %	97.0%	1.9%	.6%	.1%	.3%	100.0%
울산	빈도	135,370	1,359	1,325	362	778	139,194
	시도의 %	97.3%	1.0%	1.0%	.3%	.6%	100.0%
강원도	빈도	149,131	2,382	1,231	576	463	153,783
	시도의 %	97.0%	1.5%	.8%	.4%	.3%	100.0%
경기도	빈도	1,230,562	14,603	7,302	1,047	3,297	1,256,811
	시도의 %	97.9%	1.2%	.6%	.1%	.3%	100.0%
경남	빈도	345,558	5,592	1,994	625	693	354,462
	시도의 %	97.5%	1.6%	.6%	.2%	.2%	100.0%
경북	빈도	256,720	2,428	1,203	185	135	260,671
	시도의 %	98.5%	.9%	.5%	.1%	.1%	100.0%
전남	빈도	191,210	2,587	1,248	450	442	195,937
	시도의 %	97.6%	1.3%	.6%	.2%	.2%	100.0%
전북	빈도	196,799	3,208	1,143	355	514	202,019
	시도의 %	97.4%	1.6%	.6%	.2%	.3%	100.0%
충남	빈도	200,790	2,480	1,700	174	367	205,511
	시도의 %	97.7%	1.2%	.8%	.1%	.2%	100.0%
충북	빈도	161,176	2,226	951	189	265	164,807
	시도의 %	97.8%	1.4%	.6%	.1%	.2%	100.0%
제주도	빈도	63,675	948	429	87	88	65,227
	시도의 %	97.6%	1.5%	.7%	.1%	.1%	100.0%
전체	빈도	5,117,929	70,053	31,309	7,657	11,642	5,238,590
	시도의 %	97.7%	1.3%	.6%	.1%	.2%	100.0%

#### 나) 성별

〈표 421〉은 일반학생의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일반학생 성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685,825	44,861	19,250	5,785	8,834	2,764,555
	성별의 %	97.2%	1.6%	.7%	.2%	.3%	100.0%
여	빈도	2,432,111	25,190	12,055	1,871	2,808	2,474,035
	성별의 %	98.3%	1.0%	.5%	.1%	.1%	100.0%
전체	빈도	5,117,936	70,051	31,305	7,656	11,642	5,238,590
	성별의 %	97.7%	1.3%	.6%	.1%	.2%	100.0%

#### 다) 학교별

〈표 42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0.4%, 인문계 고등학교 0.3%, 중학교 0.2%, 초등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일반학생 학교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 학교	빈도	1,245,914	13,345	4,501	1,051	1,015	1,265,826
	학교 구분의 %	98.4%	1.1%	.4%	.1%	.1%	100.0%
중학교	빈도	1,949,488	35,560	14,413	3,688	3,823	2,006,972
	학교 구분의 %	97.1%	1.8%	.7%	.2%	.2%	100.0%
인문계 고등 학교	빈도	1,451,561	13,855	7,805	1,888	4,991	1,480,100
	학교 구분의 %	98.1%	.9%	.5%	.1%	.3%	100.0%
전문계 고등 학교	빈도	470,972	7,292	4,587	1,028	1,813	485,692
	학교 구분의 %	97.0%	1.5%	.9%	.2%	.4%	100.0%
전체	빈도	5,117,935	70,052	31,306	7,655	11,642	5,238,590
	학교 구분의 %	97.7%	1.3%	.6%	.1%	.2%	100.0%

#### 라) 학년별

〈표 42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1학년 0.4%, 고등학교 2학년 0.3%, 고등학교 3학년 0.3%, 중학교 1학년 0.3%, 중학교 3학년 0.2%,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 중학교 2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일반학생 학년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610,948	5,120	1,726	448	329	618,571
	학년의 %	98.8%	.8%	.3%	.1%	.1%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34,967	8,225	2,774	603	686	647,255
	학년의 %	98.1%	1.3%	.4%	.1%	.1%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35,638	13,113	4,753	1,406	1,662	656,572
	학년의 %	96.8%	2.0%	.7%	.2%	.3%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58,379	12,611	3,586	1,303	1,008	676,887
	학년의 %	97.3%	1.9%	.5%	.2%	.1%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55,470	9,836	6,074	980	1,153	673,513
	학년의 %	97.3%	1.5%	.9%	.1%	.2%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52,105	9,617	5,132	824	2,362	670,040
	학년의 %	97.3%	1.4%	.8%	.1%	.4%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48,114	6,274	3,693	1,022	2,313	661,416
	학년의 %	98.0%	.9%	.6%	.2%	.3%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22,314	5,255	3,567	1,071	2,129	634,336
	학년의 %	98.1%	.8%	.6%	.2%	.3%	100.0%
전체	빈도	5,117,935	70,051	31,305	7,657	11,642	5,238,590
	학년의 %	97.7%	1.3%	.6%	.1%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2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3.4%, '매우 잘 사는 편' 1.7%, '어려운 편' 0.2%, '잘 사는 편'0.2%, '보통이다'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80,064	2,254	1,797	831	3,034	87,980
	경제수준의 %	91.0%	2.6%	2.0%	.9%	3.4%	100.0%
어려운편	빈도	653,607	9,781	5,205	1,277	1,013	670,883
	경제수준의 %	97.4%	1.5%	.8%	.2%	.2%	100.0%
보통	빈도	3,462,018	44,346	18,699	3,914	3,985	3,532,962
	경제수준의 %	98.0%	1.3%	.5%	.1%	.1%	100.0%
잘사는편	빈도	811,194	11,665	4,522	994	1,635	830,010
	경제수준의 %	97.7%	1.4%	.5%	.1%	.2%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1,052	2,005	1,082	641	1,975	116,755
	경제수준의 %	95.1%	1.7%	.9%	.5%	1.7%	100.0%
전체	빈도	5,117,935	70,051	31,305	7,657	11,642	5,238,590
	경제수준의 %	97.7%	1.3%	.6%	.1%	.2%	100.0%

## 다. 자살 생각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2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생각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2.0%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3.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667,794	123,922	98,545	30,252	21,174	941,687
	시도의 %	70.9%	13.2%	10.5%	3.2%	2.2%	100.0%
부산	빈도	256,286	51,663	33,330	8,186	5,013	354,478
	시도의 %	72.3%	14.6%	9.4%	2.3%	1.4%	100.0%
인천	빈도	209,832	44,661	30,317	9,384	6,332	300,526
	시도의 %	69.8%	14.9%	10.1%	3.1%	2.1%	100.0%
대구	빈도	215,281	35,166	23,753	7,923	4,914	287,037
	시도의 %	75.0%	12.3%	8.3%	2.8%	1.7%	100.0%
대전	빈도	122,660	24,246	17,194	6,145	3,579	173,824
	시도의 %	70.6%	13.9%	9.9%	3.5%	2.1%	100.0%
광주	빈도	126,063	29,252	18,332	5,116	3,853	182,616
	시도의 %	69.0%	16.0%	10.0%	2.8%	2.1%	100.0%
울산	빈도	99,816	18,620	12,802	4,549	3,407	139,194
	시도의 %	71.7%	13.4%	9.2%	3.3%	2.4%	100.0%
강원도	빈도	106,878	22,738	15,811	4,989	3,367	153,783
	시도의 %	69.5%	14.8%	10.3%	3.2%	2.2%	100.0%
경기도	빈도	894,985	177,792	125,847	36,329	21,858	1,256,811
	시도의 %	71.2%	14.1%	10.0%	2.9%	1.7%	100.0%
경남	빈도	253,872	50,262	34,073	9,359	6,896	354,462
	시도의 %	71.6%	14.2%	9.6%	2.6%	1.9%	100.0%
경북	빈도	187,711	36,629	24,472	7,541	4,318	260,671
	시도의 %	72.0%	14.1%	9.4%	2.9%	1.7%	100.0%
전남	빈도	146,920	24,709	15,356	4,598	4,354	195,937
	시도의 %	75.0%	12.6%	7.8%	2.3%	2.2%	100.0%
전북	빈도	142,464	29,769	19,229	6,116	4,441	202,019
	시도의 %	70.5%	14.7%	9.5%	3.0%	2.2%	100.0%
충남	빈도	140,022	30,776	23,058	6,484	5,171	205,511
	시도의 %	68.1%	15.0%	11.2%	3.2%	2.5%	100.0%
충북	빈도	115,640	24,785	16,710	4,162	3,510	164,807
	시도의 %	70.2%	15.0%	10.1%	2.5%	2.1%	100.0%
제주도	빈도	45,950	8,356	6,471	2,179	2,271	65,227
	시도의 %	70.4%	12.8%	9.9%	3.3%	3.5%	100.0%
전체	빈도	3,732,174	733,346	515,300	153,312	104,458	5,238,590
	시도의 %	71.2%	14.0%	9.8%	2.9%	2.0%	100.0%

#### 나) 성별

〈표 426〉은 일반학생의 성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생각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1.5%이며, 여학생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일반학생 성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140,084	324,518	198,721	58,659	42,573	2,764,555
	성별의 %	77.4%	11.7%	7.2%	2.1%	1.5%	100.0%
여	빈도	1,592,093	408,827	316,578	94,651	61,886	2,474,035
	성별의 %	64.4%	16.5%	12.8%	3.8%	2.5%	100.0%
전체	빈도	3,732,177	733,345	515,299	153,310	104,459	5,238,590
	성별의 %	71.2%	14.0%	9.8%	2.9%	2.0%	100.0%

#### 다) 학교별

〈표 42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생각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2.3%, 전문계 고등학교 2.2%, 인문계 고등학교 1.8%, 초등학교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 학교	빈도	960,302	164,120	92,588	27,943	20,873	1,265,826
	학교 구분의 %	75.9%	13.0%	7.3%	2.2%	1.6%	100.0%
중학교	빈도	1,374,542	302,181	212,054	71,177	47,018	2,006,972
	학교 구분의 %	68.5%	15.1%	10.6%	3.5%	2.3%	100.0%
인문계 고등 학교	빈도	1,047,073	203,324	162,671	41,035	25,997	1,480,100
	학교 구분의 %	70.7%	13.7%	11.0%	2.8%	1.8%	100.0%
전문계 고등 학교	빈도	350,259	63,720	47,986	13,156	10,571	485,692
	학교 구분의 %	72.1%	13.1%	9.9%	2.7%	2.2%	100.0%
전체	빈도	3,732,176	733,345	515,299	153,311	104,459	5,238,590
	학교 구분의 %	71.2%	14.0%	9.8%	2.9%	2.0%	100.0%

라) 학년별

〈표 42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생각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1학년 2.5%, 중학교 2학년 2.5%, 중학교 3학년 2.0%, 고등학교 1학년 2.0%, 고등학교 3학년 2.0%, 초등학교 6학년 1.8%, 고등학교 2학년 1.6%, 초등학교 5학년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487,876	72,778	37,051	11,923	8,943	618,571
	학년의 %	78.9%	11.8%	6.0%	1.9%	1.4%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472,425	91,342	55,537	16,020	11,931	647,255
	학년의 %	73.0%	14.1%	8.6%	2.5%	1.8%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441,729	102,781	71,134	24,499	16,429	656,572
	학년의 %	67.3%	15.7%	10.8%	3.7%	2.5%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462,839	102,261	70,183	24,466	17,138	676,887
	학년의 %	68.4%	15.1%	10.4%	3.6%	2.5%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469,974	97,139	70,737	22,212	13,451	673,513
	학년의 %	69.8%	14.4%	10.5%	3.3%	2.0%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466,814	96,663	73,066	20,256	13,241	670,040
	학년의 %	69.7%	14.4%	10.9%	3.0%	2.0%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471,576	87,631	70,717	18,202	13,290	661,416
	학년의 %	71.3%	13.2%	10.7%	2.8%	2.0%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458,945	82,749	66,873	15,733	10,036	634,336
	학년의 %	72.4%	13.0%	10.5%	2.5%	1.6%	100.0%
전체	빈도	3,732,178	733,344	515,298	153,311	104,459	5,238,590
	학년의 %	71.2%	14.0%	9.8%	2.9%	2.0%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2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생각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생각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10.4%, '어려운 편' 3.8%, '매우 잘 사는 편' 3.6%, '보통이다' 1.6%, '잘 사는 편'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생각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51,374	11,855	10,939	4,652	9,160	87,980
	경제수준의 %	58.4%	13.5%	12.4%	5.3%	10.4%	100.0%
어려운편	빈도	401,858	111,401	99,030	33,359	25,235	670,883
	경제수준의 %	59.9%	16.6%	14.8%	5.0%	3.8%	100.0%
보통	빈도	2,560,446	493,859	333,538	90,128	54,991	3,532,962
	경제수준의 %	72.5%	14.0%	9.4%	2.6%	1.6%	100.0%
잘사는편	빈도	625,780	105,653	65,537	22,157	10,883	830,010
	경제수준의 %	75.4%	12.7%	7.9%	2.7%	1.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92,718	10,577	6,256	3,015	4,189	116,755
	경제수준의 %	79.4%	9.1%	5.4%	2.6%	3.6%	100.0%
전체	빈도	3,732,176	733,345	515,300	153,311	104,458	5,238,590
	경제수준의 %	71.2%	14.0%	9.8%	2.9%	2.0%	100.0%

## 바. 자살 계획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3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계획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9%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계획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46,657	50,582	26,619	9,299	8,530	941,687
	시도의 %	89.9%	5.4%	2.8%	1.0%	.9%	100.0%
부산	빈도	325,148	17,231	7,659	1,915	2,525	354,478
	시도의 %	91.7%	4.9%	2.2%	.5%	.7%	100.0%
인천	빈도	268,482	18,444	7,185	3,145	3,270	300,526
	시도의 %	89.3%	6.1%	2.4%	1.0%	1.1%	100.0%
대구	빈도	264,425	11,695	7,102	2,771	1,044	287,037
	시도의 %	92.1%	4.1%	2.5%	1.0%	.4%	100.0%
대전	빈도	156,432	9,532	4,681	1,390	1,789	173,824
	시도의 %	90.0%	5.5%	2.7%	.8%	1.0%	100.0%
광주	빈도	164,447	10,697	4,821	1,221	1,430	182,616
	시도의 %	90.1%	5.9%	2.6%	.7%	.8%	100.0%
울산	빈도	124,895	6,814	4,878	919	1,688	139,194
	시도의 %	89.7%	4.9%	3.5%	.7%	1.2%	100.0%
강원도	빈도	135,987	10,081	4,502	1,898	1,315	153,783
	시도의 %	88.4%	6.6%	2.9%	1.2%	.9%	100.0%
경기도	빈도	1,145,911	62,306	27,908	9,779	10,907	1,256,811
	시도의 %	91.2%	5.0%	2.2%	.8%	.9%	100.0%
경남	빈도	321,822	18,639	8,485	2,520	2,996	354,462
	시도의 %	90.8%	5.3%	2.4%	.7%	.8%	100.0%
경북	빈도	236,511	13,968	6,264	2,024	1,904	260,671
	시도의 %	90.7%	5.4%	2.4%	.8%	.7%	100.0%
전남	빈도	177,471	10,167	4,787	1,612	1,900	195,937
	시도의 %	90.6%	5.2%	2.4%	.8%	1.0%	100.0%
전북	빈도	180,984	11,303	5,684	1,998	2,050	202,019
	시도의 %	89.6%	5.6%	2.8%	1.0%	1.0%	100.0%
충남	빈도	183,085	12,225	5,759	2,277	2,165	205,511
	시도의 %	89.1%	5.9%	2.8%	1.1%	1.1%	100.0%
충북	빈도	147,798	9,855	4,138	1,483	1,533	164,807
	시도의 %	89.7%	6.0%	2.5%	.9%	.9%	100.0%
제주도	빈도	58,092	3,653	1,631	701	1,150	65,227
	시도의 %	89.1%	5.6%	2.5%	1.1%	1.8%	100.0%
전체	빈도	4,738,147	277,192	132,103	44,952	46,196	5,238,590
	시도의 %	90.4%	5.3%	2.5%	.9%	.9%	100.0%

나) 성별

〈표 431〉은 일반학생의 성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계획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7%이며, 여학생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일반학생 성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계획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568,727	108,408	50,894	16,684	19,842	2,764,555
	성별의 %	92.9%	3.9%	1.8%	.6%	.7%	100.0%
여	빈도	2,169,422	168,783	81,209	28,269	26,352	2,474,035
	성별의 %	87.7%	6.8%	3.3%	1.1%	1.1%	100.0%
전체	빈도	4,738,149	277,191	132,103	44,953	46,194	5,238,590
	성별의 %	90.4%	5.3%	2.5%	.9%	.9%	100.0%

다) 학교별

〈표 43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계획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1.1%, 전문계 고등학교 1.0%, 초등학교 0.7%, 인문계 고등학교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계획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 학교	빈도	1,165,580	58,753	25,719	7,530	8,244	1,265,826
	학교 구분의 %	92.1%	4.6%	2.0%	.6%	.7%	100.0%
중학교	빈도	1,778,797	126,304	58,725	20,922	22,224	2,006,972
	학교 구분의 %	88.6%	6.3%	2.9%	1.0%	1.1%	100.0%
인문계 고등 학교	빈도	1,357,987	65,072	34,845	11,463	10,733	1,480,100
	학교 구분의 %	91.7%	4.4%	2.4%	.8%	.7%	100.0%
전문계 고등 학교	빈도	435,787	27,061	12,814	5,037	4,993	485,692
	학교 구분의 %	89.7%	5.6%	2.6%	1.0%	1.0%	100.0%
전체	빈도	4,738,151	277,190	132,103	44,952	46,194	5,238,590
	학교 구분의 %	90.4%	5.3%	2.5%	.9%	.9%	100.0%

라) 학년별

〈표 43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계획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2학년 1.3%, 중학교 1학년 1.1%, 중학교 3학년 0.9%, 고등학교 1학년 0.9%, 고등학교 2학년 0.8%, 초등학교 6학년 0.7%, 초등학교 5학년 0.6%, 고등학교 3학년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계획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576,862	25,210	10,367	2,483	3,649	618,571
5학년	학년의 %	93.3%	4.1%	1.7%	.4%	.6%	100.0%
초등학교	빈도	588,717	33,543	15,352	5,048	4,595	647,255
6학년	학년의 %	91.0%	5.2%	2.4%	.8%	.7%	100.0%
중학교	빈도	577,689	45,211	19,856	6,426	7,390	656,572
1학년	학년의 %	88.0%	6.9%	3.0%	1.0%	1.1%	100.0%
중학교	빈도	595,894	43,781	20,031	8,167	9,014	676,887
2학년	학년의 %	88.0%	6.5%	3.0%	1.2%	1.3%	100.0%
중학교	빈도	605,214	37,312	18,838	6,329	5,820	673,513
3학년	학년의 %	89.9%	5.5%	2.8%	.9%	.9%	100.0%
고등학교	빈도	606,168	34,228	18,241	5,411	5,992	670,040
1학년	학년의 %	90.5%	5.1%	2.7%	.8%	.9%	100.0%
고등학교	빈도	602,822	30,486	15,726	6,765	5,617	661,416
2학년	학년의 %	91.1%	4.6%	2.4%	1.0%	.8%	100.0%
고등학교	빈도	584,783	27,420	13,692	4,324	4,117	634,336
3학년	학년의 %	92.2%	4.3%	2.2%	.7%	.6%	100.0%
전체	빈도	4,738,149	277,191	132,103	44,953	46,194	5,238,590
	학년의 %	90.4%	5.3%	2.5%	.9%	.9%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3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계획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6.5%, '매우 잘 사는 편' 2.1%, '어려운 편' 1.6%, '보통이다' 0.6%, '잘 사는 편'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계획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계획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68,026	7,649	4,496	2,122	5,687	87,980
	경제수준의 %	77.3%	8.7%	5.1%	2.4%	6.5%	100.0%
어려운편	빈도	572,424	50,821	28,343	8,872	10,423	670,883
	경제수준의 %	85.3%	7.6%	4.2%	1.3%	1.6%	100.0%
보통	빈도	3,231,737	171,514	80,578	26,634	22,499	3,532,962
	경제수준의 %	91.5%	4.9%	2.3%	.8%	.6%	100.0%
잘사는편	빈도	760,262	42,522	16,225	5,913	5,087	830,009
	경제수준의 %	91.6%	5.1%	2.0%	.7%	.6%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5,698	4,685	2,461	1,413	2,498	116,755
	경제수준의 %	90.5%	4.0%	2.1%	1.2%	2.1%	100.0%
전체	빈도	4,738,148	277,191	132,103	44,954	46,194	5,238,590
	경제수준의 %	90.4%	5.3%	2.5%	.9%	.9%	100.0%

## 샤. 자살 시도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3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5%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5〉 일반학생 시도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887,690	32,375	12,492	3,846	5,284	941,687
	시도의 %	94.3%	3.4%	1.3%	.4%	.6%	100.0%
부산	빈도	337,361	10,582	3,904	1,292	1,339	354,478
	시도의 %	95.2%	3.0%	1.1%	.4%	.4%	100.0%
인천	빈도	283,356	8,972	5,040	1,302	1,856	300,526
	시도의 %	94.3%	3.0%	1.7%	.4%	.6%	100.0%
대구	빈도	273,806	9,049	2,958	504	720	287,037
	시도의 %	95.4%	3.2%	1.0%	.2%	.3%	100.0%
대전	빈도	163,827	5,930	2,538	656	873	173,824
	시도의 %	94.2%	3.4%	1.5%	.4%	.5%	100.0%
광주	빈도	172,331	6,198	2,423	651	1,013	182,616
	시도의 %	94.4%	3.4%	1.3%	.4%	.6%	100.0%
울산	빈도	130,543	4,885	2,044	664	1,058	139,194
	시도의 %	93.8%	3.5%	1.5%	.5%	.8%	100.0%
강원도	빈도	143,647	6,138	2,151	967	880	153,783
	시도의 %	93.4%	4.0%	1.4%	.6%	.6%	100.0%
경기도	빈도	1,196,618	33,940	14,481	5,044	6,728	1,256,811
	시도의 %	95.2%	2.7%	1.2%	.4%	.5%	100.0%
경남	빈도	336,690	10,538	4,334	1,607	1,293	354,462
	시도의 %	95.0%	3.0%	1.2%	.5%	.4%	100.0%
경북	빈도	248,008	7,928	3,253	487	995	260,671
	시도의 %	95.1%	3.0%	1.2%	.2%	.4%	100.0%
전남	빈도	185,401	6,615	2,444	543	934	195,937
	시도의 %	94.6%	3.4%	1.2%	.3%	.5%	100.0%
전북	빈도	188,982	7,255	3,133	1,226	1,423	202,019
	시도의 %	93.5%	3.6%	1.6%	.6%	.7%	100.0%
충남	빈도	193,280	7,382	2,390	1,120	1,339	205,511
	시도의 %	94.0%	3.6%	1.2%	.5%	.7%	100.0%
충북	빈도	155,930	5,142	2,295	671	769	164,807
	시도의 %	94.6%	3.1%	1.4%	.4%	.5%	100.0%
제주도	빈도	60,908	3,021	726	183	389	65,227
	시도의 %	93.4%	4.6%	1.1%	.3%	.6%	100.0%
전체	빈도	4,958,378	165,950	66,606	20,763	26,893	5,238,590
	시도의 %	94.7%	3.2%	1.3%	.4%	.5%	100.0%



나) 성별

〈표 436〉은 일반학생의 성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4%이며, 여학생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일반학생 성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663,960	57,550	24,269	7,018	11,758	2,764,555
	성별의 %	96.4%	2.1%	.9%	.3%	.4%	100.0%
여	빈도	2,294,420	108,402	42,335	13,744	15,134	2,474,035
	성별의 %	92.7%	4.4%	1.7%	.6%	.6%	100.0%
전체	빈도	4,958,380	165,952	66,604	20,762	26,892	5,238,590
	성별의 %	94.7%	3.2%	1.3%	.4%	.5%	100.0%

다) 학교별

〈표 43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0.7%, 전문계 고등학교 0.6%, 인문계 고등학교 0.5%, 초등학교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일반학생 학교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17,514	29,982	10,998	3,728	3,604	1,265,826
	학교 구분의 %	96.2%	2.4%	.9%	.3%	.3%	100.0%
중학교	빈도	1,877,569	76,805	30,256	9,165	13,177	2,006,972
	학교 구분의 %	93.6%	3.8%	1.5%	.5%	.7%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10,904	39,143	17,422	5,440	7,191	1,480,100
	학교 구분의 %	95.3%	2.6%	1.2%	.4%	.5%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52,394	20,022	7,929	2,427	2,920	485,692
	학교 구분의 %	93.1%	4.1%	1.6%	.5%	.6%	100.0%
전체	빈도	4,958,381	165,952	66,605	20,760	26,892	5,238,590
	학교 구분의 %	94.7%	3.2%	1.3%	.4%	.5%	100.0%

라) 학년별

〈표 43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중학교 2학년 0.8%, 중학교 1학년 0.6%, 중학교 3학년 0.6%, 고등학교 2학년 0.6%, 고등학교 1학년 0.5%, 고등학교 3학년 0.4%, 초등학교 5학년 0.3%, 초등학교 6학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8〉 일반학생 학년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600,138	12,096	3,824	963	1,550	618,571
	학년의 %	97.0%	2.0%	.6%	.2%	.3%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17,376	17,886	7,174	2,765	2,054	647,255
	학년의 %	95.4%	2.8%	1.1%	.4%	.3%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15,142	25,525	8,284	3,369	4,252	656,572
	학년의 %	93.7%	3.9%	1.3%	.5%	.6%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29,711	27,322	11,043	3,604	5,207	676,887
	학년의 %	93.0%	4.0%	1.6%	.5%	.8%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32,717	23,958	10,929	2,191	3,718	673,513
	학년의 %	93.9%	3.6%	1.6%	.3%	.6%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31,864	21,985	9,624	3,030	3,537	670,040
	학년의 %	94.3%	3.3%	1.4%	.5%	.5%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26,578	19,885	8,288	2,652	4,013	661,416
	학년의 %	94.7%	3.0%	1.3%	.4%	.6%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04,854	17,296	7,438	2,187	2,561	634,336
	학년의 %	95.4%	2.7%	1.2%	.3%	.4%	100.0%
전체	빈도	4,958,380	165,953	66,604	20,761	26,892	5,238,590
	학년의 %	94.7%	3.2%	1.3%	.4%	.5%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3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8%, '매우 잘 사는 편' 1.9%, '어려운 편' 0.7%, '보통이다' 0.4%, '잘 사는 편'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자살 시도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4,943	4,730	3,055	1,066	4,186	87,980
	경제수준의 %	85.2%	5.4%	3.5%	1.2%	4.8%	100.0%
어려운편	빈도	613,786	33,624	14,401	4,656	4,416	670,883
	경제수준의 %	91.5%	5.0%	2.1%	.7%	.7%	100.0%
보통	빈도	3,366,218	101,826	39,994	11,573	13,351	3,532,962
	경제수준의 %	95.3%	2.9%	1.1%	.3%	.4%	100.0%
잘사는편	빈도	794,383	22,985	7,367	2,500	2,775	830,010
	경제수준의 %	95.7%	2.8%	.9%	.3%	.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9,050	2,787	1,788	966	2,164	116,755
	경제수준의 %	93.4%	2.4%	1.5%	.8%	1.9%	100.0%
전체	빈도	4,958,380	165,952	66,605	20,761	26,892	5,238,590
	경제수준의 %	94.7%	3.2%	1.3%	.4%	.5%	100.0%

## 야. 성매매 유혹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4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유혹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4%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일반학생 시도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14,894	14,446	5,892	1,995	4,460	941,687
	시도의 %	97.2%	1.5%	.6%	.2%	.5%	100.0%
부산	빈도	346,682	4,563	1,887	450	896	354,478
	시도의 %	97.8%	1.3%	.5%	.1%	.3%	100.0%
인천	빈도	292,409	3,993	2,055	1,182	887	300,526
	시도의 %	97.3%	1.3%	.7%	.4%	.3%	100.0%
대구	빈도	281,591	3,077	1,553	322	494	287,037
	시도의 %	98.1%	1.1%	.5%	.1%	.2%	100.0%
대전	빈도	168,261	3,088	1,163	432	880	173,824
	시도의 %	96.8%	1.8%	.7%	.2%	.5%	100.0%
광주	빈도	176,835	3,065	1,250	600	866	182,616
	시도의 %	96.8%	1.7%	.7%	.3%	.5%	100.0%
울산	빈도	135,540	1,245	1,056	59	1,294	139,194
	시도의 %	97.4%	.9%	.8%	.0%	.9%	100.0%
강원도	빈도	150,025	1,832	784	645	497	153,783
	시도의 %	97.6%	1.2%	.5%	.4%	.3%	100.0%
경기도	빈도	1,234,264	9,855	6,340	1,464	4,888	1,256,811
	시도의 %	98.2%	.8%	.5%	.1%	.4%	100.0%
경남	빈도	345,154	4,249	2,482	951	1,626	354,462
	시도의 %	97.4%	1.2%	.7%	.3%	.5%	100.0%
경북	빈도	255,887	2,726	965	607	486	260,671
	시도의 %	98.2%	1.0%	.4%	.2%	.2%	100.0%
전남	빈도	192,303	1,724	1,082	359	469	195,937
	시도의 %	98.1%	.9%	.6%	.2%	.2%	100.0%
전북	빈도	197,334	2,339	1,238	372	736	202,019
	시도의 %	97.7%	1.2%	.6%	.2%	.4%	100.0%
충남	빈도	200,207	2,635	1,309	515	845	205,511
	시도의 %	97.4%	1.3%	.6%	.3%	.4%	100.0%
충북	빈도	160,620	1,691	1,305	475	716	164,807
	시도의 %	97.5%	1.0%	.8%	.3%	.4%	100.0%
제주도	빈도	64,102	587	232	52	254	65,227
	시도의 %	98.3%	.9%	.4%	.1%	.4%	100.0%
전체	빈도	5,116,108	61,115	30,593	10,480	20,294	5,238,590
	시도의 %	97.7%	1.2%	.6%	.2%	.4%	100.0%

나) 성별

〈표 441〉은 일반학생의 성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유혹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6%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일반학생 성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662,426	49,487	26,591	8,993	17,058	2,764,555
	성별의 %	96.3%	1.8%	1.0%	.3%	.6%	100.0%
여	빈도	2,453,679	11,632	4,002	1,488	3,234	2,474,035
	성별의 %	99.2%	.5%	.2%	.1%	.1%	100.0%
전체	빈도	5,116,105	61,119	30,593	10,481	20,292	5,238,590
	성별의 %	97.7%	1.2%	.6%	.2%	.4%	100.0%

다) 학교별

〈표 44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유혹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7%, 전문계 고등학교 0.6%, 중학교 0.3%, 초등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일반학생 학교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55,228	6,447	2,328	841	982	1,265,826
	학교 구분의 %	99.2%	.5%	.2%	.1%	.1%	100.0%
중학교	빈도	1,965,455	21,797	10,496	2,930	6,294	2,006,972
	학교 구분의 %	97.9%	1.1%	.5%	.1%	.3%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27,419	24,596	13,347	4,833	9,905	1,480,100
	학교 구분의 %	96.4%	1.7%	.9%	.3%	.7%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68,004	8,278	4,422	1,877	3,111	485,692
	학교 구분의 %	96.4%	1.7%	.9%	.4%	.6%	100.0%
전체	빈도	5,116,106	61,118	30,593	10,481	20,292	5,238,590
	학교 구분의 %	97.7%	1.2%	.6%	.2%	.4%	100.0%

라) 학년별

〈표 44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유혹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1학년 0.7%, 고등학교 2학년 0.7%, 고등학교 3학년 0.6%, 중학교 3학년 0.4%, 중학교 2학년 0.3%, 중학교 1학년 0.3%,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일반학생 학년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614,158	2,512	779	474	648	618,571
	학년의 %	99.3%	.4%	.1%	.1%	.1%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41,071	3,935	1,549	366	334	647,255
	학년의 %	99.0%	.6%	.2%	.1%	.1%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43,694	7,335	2,885	989	1,669	656,572
	학년의 %	98.0%	1.1%	.4%	.2%	.3%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64,877	5,885	3,344	891	1,890	676,887
	학년의 %	98.2%	.9%	.5%	.1%	.3%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56,883	8,577	4,268	1,050	2,735	673,513
	학년의 %	97.5%	1.3%	.6%	.2%	.4%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46,916	11,297	5,215	2,065	4,547	670,040
	학년의 %	96.5%	1.7%	.8%	.3%	.7%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38,691	10,672	5,508	2,186	4,359	661,416
	학년의 %	96.6%	1.6%	.8%	.3%	.7%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09,815	10,906	7,046	2,458	4,111	634,336
	학년의 %	96.1%	1.7%	1.1%	.4%	.6%	100.0%
전체	빈도	5,116,105	61,119	30,594	10,479	20,293	5,238,590
	학년의 %	97.7%	1.2%	.6%	.2%	.4%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4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유혹 경험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유혹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4.5%, '매우 잘 사는 편' 1.8%, '어려운 편' 0.4%, '보통이다' 0.3%, '잘 사는 편'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유혹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8,019	2,411	2,092	1,489	3,969	87,980
	경제수준의 %	88.7%	2.7%	2.4%	1.7%	4.5%	100.0%
어려운편	빈도	646,473	14,015	5,989	1,651	2,755	670,883
	경제수준의 %	96.4%	2.1%	.9%	.2%	.4%	100.0%
보통	빈도	3,465,366	34,870	17,771	5,818	9,137	3,532,962
	경제수준의 %	98.1%	1.0%	.5%	.2%	.3%	100.0%
잘사는편	빈도	815,186	8,423	3,066	995	2,340	830,010
	경제수준의 %	98.2%	1.0%	.4%	.1%	.3%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1,063	1,399	1,675	527	2,091	116,755
	경제수준의 %	95.1%	1.2%	1.4%	.5%	1.8%	100.0%
전체	빈도	5,116,107	61,118	30,593	10,480	20,292	5,238,590
	경제수준의 %	97.7%	1.2%	.6%	.2%	.4%	100.0%

## 자. 성매매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4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일반학생 시도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35,780	2,456	1,088	626	1,737	941,687
	시도의 %	99.4%	.3%	.1%	.1%	.2%	100.0%
부산	빈도	352,756	897	460	55	310	354,478
	시도의 %	99.5%	.3%	.1%	.0%	.1%	100.0%
인천	빈도	297,942	1,123	698	436	327	300,526
	시도의 %	99.1%	.4%	.2%	.1%	.1%	100.0%
대구	빈도	285,988	372	465	0	212	287,037
	시도의 %	99.6%	.1%	.2%	.0%	.1%	100.0%
대전	빈도	172,784	294	261	141	344	173,824
	시도의 %	99.4%	.2%	.2%	.1%	.2%	100.0%
광주	빈도	181,183	348	338	357	390	182,616
	시도의 %	99.2%	.2%	.2%	.2%	.2%	100.0%
울산	빈도	137,130	613	548	33	870	139,194
	시도의 %	98.5%	.4%	.4%	.0%	.6%	100.0%
강원도	빈도	152,540	368	374	131	370	153,783
	시도의 %	99.2%	.2%	.2%	.1%	.2%	100.0%
경기도	빈도	1,249,710	1,547	1,390	832	3,332	1,256,811
	시도의 %	99.4%	.1%	.1%	.1%	.3%	100.0%
경남	빈도	351,867	1,121	679	164	631	354,462
	시도의 %	99.3%	.3%	.2%	.0%	.2%	100.0%
경북	빈도	259,805	334	254	0	278	260,671
	시도의 %	99.7%	.1%	.1%	.0%	.1%	100.0%
전남	빈도	194,306	779	308	181	363	195,937
	시도의 %	99.2%	.4%	.2%	.1%	.2%	100.0%
전북	빈도	200,074	663	501	238	543	202,019
	시도의 %	99.0%	.3%	.2%	.1%	.3%	100.0%
충남	빈도	204,480	227	320	70	414	205,511
	시도의 %	99.5%	.1%	.2%	.0%	.2%	100.0%
충북	빈도	163,405	699	346	180	177	164,807
	시도의 %	99.1%	.4%	.2%	.1%	.1%	100.0%
제주도	빈도	65,070	35	92	0	30	65,227
	시도의 %	99.8%	.1%	.1%	.0%	.0%	100.0%
전체	빈도	5,204,820	11,876	8,122	3,444	10,328	5,238,590
	시도의 %	99.4%	.2%	.2%	.1%	.2%	100.0%

나) 성별

〈표 446〉은 일반학생의 성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일반학생 성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737,455	9,291	6,395	3,102	8,312	2,764,555
	성별의 %	99.0%	.3%	.2%	.1%	.3%	100.0%
여	빈도	2,467,365	2,585	1,726	343	2,016	2,474,035
	성별의 %	99.7%	.1%	.1%	.0%	.1%	100.0%
전체	빈도	5,204,820	11,876	8,121	3,445	10,328	5,238,590
	성별의 %	99.4%	.2%	.2%	.1%	.2%	100.0%

다) 학교별

〈표 44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3%, 전문계 고등학교 0.3%, 중학교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일반학생 학교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62,309	2,100	468	495	454	1,265,826
	학교 구분의 %	99.7%	.2%	.0%	.0%	.0%	100.0%
중학교	빈도	1,997,352	3,053	2,242	911	3,414	2,006,972
	학교 구분의 %	99.5%	.2%	.1%	.0%	.2%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66,172	4,539	3,237	1,290	4,862	1,480,100
	학교 구분의 %	99.1%	.3%	.2%	.1%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78,988	2,184	2,174	748	1,598	485,692
	학교 구분의 %	98.6%	.4%	.4%	.2%	.3%	100.0%
전체	빈도	5,204,821	11,876	8,121	3,444	10,328	5,238,590
	학교 구분의 %	99.4%	.2%	.2%	.1%	.2%	100.0%

라) 학년별

〈표 44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거의 매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4%, 중학교 3학년 0.3%, 고등학교 1학년 0.3%, 고등학교 3학년 0.3%, 중학교 2학년 0.2%, 중학교 1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일반학생 학년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616,859	1,013	222	221	256	618,571
5학년	학년의 %	99.7%	.2%	.0%	.0%	.0%	100.0%
초등학교	빈도	645,450	1,087	246	274	198	647,255
6학년	학년의 %	99.7%	.2%	.0%	.0%	.0%	100.0%
중학교	빈도	654,491	1,021	414	30	616	656,572
1학년	학년의 %	99.7%	.2%	.1%	.0%	.1%	100.0%
중학교	빈도	673,619	1,071	892	234	1,071	676,887
2학년	학년의 %	99.5%	.2%	.1%	.0%	.2%	100.0%
중학교	빈도	669,242	960	936	648	1,727	673,513
3학년	학년의 %	99.4%	.1%	.1%	.1%	.3%	100.0%
고등학교	빈도	664,202	2,298	1,096	523	1,921	670,040
1학년	학년의 %	99.1%	.3%	.2%	.1%	.3%	100.0%
고등학교	빈도	653,868	2,309	1,915	578	2,746	661,416
2학년	학년의 %	98.9%	.3%	.3%	.1%	.4%	100.0%
고등학교	빈도	627,091	2,116	2,399	937	1,793	634,336
3학년	학년의 %	98.9%	.3%	.4%	.1%	.3%	100.0%
전체	빈도	5,204,822	11,875	8,120	3,445	10,328	5,238,590
	학년의 %	99.4%	.2%	.2%	.1%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4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1%, '매우 잘 사는 편' 1.3%, '어려운 편' 0.1%, '보통이다' 0.1%,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매매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81,657	1,002	1,184	561	3,576	87,980
	경제수준의 %	92.8%	1.1%	1.3%	.6%	4.1%	100.0%
어려운편	빈도	666,843	1,889	826	427	898	670,883
	경제수준의 %	99.4%	.3%	.1%	.1%	.1%	100.0%
보통	빈도	3,516,357	6,647	4,773	1,610	3,575	3,532,962
	경제수준의 %	99.5%	.2%	.1%	.0%	.1%	100.0%
잘사는편	빈도	826,908	1,502	648	236	716	830,010
	경제수준의 %	99.6%	.2%	.1%	.0%	.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3,053	836	691	611	1,564	116,755
	경제수준의 %	96.8%	.7%	.6%	.5%	1.3%	100.0%
전체	빈도	5,204,8718	11,876	8,122	3,445	10,329	5,238,590
	경제수준의 %	99.4%	.2%	.2%	.1%	.2%	100.0%

## 차. 성폭력 당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5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32,142	5,734	1,430	689	1,692	941,687
	시도의 %	99.0%	.6%	.2%	.1%	.2%	100.0%
부산	빈도	350,633	2,180	1,362	75	228	354,478
	시도의 %	98.9%	.6%	.4%	.0%	.1%	100.0%
인천	빈도	297,505	1,708	292	261	760	300,526
	시도의 %	99.0%	.6%	.1%	.1%	.3%	100.0%
대구	빈도	285,039	1,066	466	254	212	287,037
	시도의 %	99.3%	.4%	.2%	.1%	.1%	100.0%
대전	빈도	171,225	1,348	419	206	626	173,824
	시도의 %	98.5%	.8%	.2%	.1%	.4%	100.0%
광주	빈도	180,477	643	570	98	828	182,616
	시도의 %	98.8%	.4%	.3%	.1%	.5%	100.0%
울산	빈도	136,474	1,292	506	486	436	139,194
	시도의 %	98.0%	.9%	.4%	.3%	.3%	100.0%
강원도	빈도	151,978	669	423	197	516	153,783
	시도의 %	98.8%	.4%	.3%	.1%	.3%	100.0%
경기도	빈도	1,245,638	6,180	2,007	426	2,560	1,256,811
	시도의 %	99.1%	.5%	.2%	.0%	.2%	100.0%
경남	빈도	350,582	2,290	658	488	444	354,462
	시도의 %	98.9%	.6%	.2%	.1%	.1%	100.0%
경북	빈도	258,862	1,147	518	86	58	260,671
	시도의 %	99.3%	.4%	.2%	.0%	.0%	100.0%
전남	빈도	193,774	1,152	574	110	327	195,937
	시도의 %	98.9%	.6%	.3%	.1%	.2%	100.0%
전북	빈도	199,804	1,234	312	105	564	202,019
	시도의 %	98.9%	.6%	.2%	.1%	.3%	100.0%
충남	빈도	203,425	867	649	117	453	205,511
	시도의 %	99.0%	.4%	.3%	.1%	.2%	100.0%
충북	빈도	162,990	1,059	422	199	137	164,807
	시도의 %	98.9%	.6%	.3%	.1%	.1%	100.0%
제주도	빈도	64,279	618	330	0	0	65,227
	시도의 %	98.5%	.9%	.5%	.0%	.0%	100.0%
전체	빈도	5,184,827	29,187	10,938	3,797	9,841	5,238,590
	시도의 %	99.0%	.6%	.2%	.1%	.2%	100.0%

나) 성별

〈표 451〉은 일반학생의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732,767	14,057	7,185	2,882	7,664	2,764,555
	성별의 %	98.9%	.5%	.3%	.1%	.3%	100.0%
여	빈도	2,452,060	15,129	3,753	915	2,178	2,474,035
	성별의 %	99.1%	.6%	.2%	.0%	.1%	100.0%
전체	빈도	5,184,827	29,186	10,938	3,797	9,842	5,238,590
	성별의 %	99.0%	.6%	.2%	.1%	.2%	100.0%

다) 학교별

〈표 45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3%, 전문계 고등학교 0.3%, 초등학교 0.1%, 중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50,885	10,644	2,598	953	746	1,265,826
	학교 구분의 %	98.8%	.8%	.2%	.1%	.1%	100.0%
중학교	빈도	1,989,013	8,954	4,752	1,665	2,588	2,006,972
	학교 구분의 %	99.1%	.4%	.2%	.1%	.1%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65,492	6,410	2,367	985	4,846	1,480,100
	학교 구분의 %	99.0%	.4%	.2%	.1%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79,436	3,178	1,221	195	1,662	485,692
	학교 구분의 %	98.7%	.7%	.3%	.0%	.3%	100.0%
전체	빈도	5,184,826	29,186	10,938	3,798	9,842	5,238,590
	학교 구분의 %	99.0%	.6%	.2%	.1%	.2%	100.0%

라) 학년별

〈표 45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4%, 고등학교 1학년 0.3%, 고등학교 3학년 0.3%, 중학교 3학년 0.2%, 초등학교 5학년 0.1%, 중학교 1학년 0.1%, 중학교 2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610,376	6,190	1,132	317	556	618,571
5학년	학년의 %	98.7%	1.0%	.2%	.1%	.1%	100.0%
초등학교	빈도	640,510	4,453	1,466	636	190	647,255
6학년	학년의 %	99.0%	.7%	.2%	.1%	.0%	100.0%
중학교	빈도	649,812	3,973	1,996	331	460	656,572
1학년	학년의 %	99.0%	.6%	.3%	.1%	.1%	100.0%
중학교	빈도	671,296	2,805	1227	554	1,005	676,887
2학년	학년의 %	99.2%	.4%	.2%	.1%	.1%	100.0%
중학교	빈도	667,904	2,176	1529	780	1124	673,513
3학년	학년의 %	99.2%	.3%	.2%	.1%	.2%	100.0%
고등학교	빈도	664,246	2,776	1,124	117	1,777	670,040
1학년	학년의 %	99.1%	.4%	.2%	.0%	.3%	100.0%
고등학교	빈도	653,607	3,261	1,170	753	2,625	661,416
2학년	학년의 %	98.8%	.5%	.2%	.1%	.4%	100.0%
고등학교	빈도	627,076	3,551	1,294	310	2,105	634,336
3학년	학년의 %	98.9%	.6%	.2%	.0%	.3%	100.0%
전체	빈도	5,184,827	29,185	10,938	3,798	9,842	5,238,590
	학년의 %	99.0%	.6%	.2%	.1%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5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당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3.3%, '매우 잘 사는 편' 1.7%, '어려운 편' 0.1%, '보통이다' 0.1%,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당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당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81,935	1,884	717	580	2,864	87,980
	경제수준의 %	93.1%	2.1%	.8%	.7%	3.3%	100.0%
어려운편	빈도	663,292	5,003	1,471	443	674	670,883
	경제수준의 %	98.9%	.7%	.2%	.1%	.1%	100.0%
보통	빈도	3,505,143	15,365	6,737	1,855	3,862	3,532,962
	경제수준의 %	99.2%	.4%	.2%	.1%	.1%	100.0%
잘사는편	빈도	821,960	5,200	1,638	711	501	830,010
	경제수준의 %	99.0%	.6%	.2%	.1%	.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2,496	1,734	376	208	1,941	116,755
	경제수준의 %	96.4%	1.5%	.3%	.2%	1.7%	100.0%
전체	빈도	5,184,826	29,186	10,939	3,797	9,842	5,238,590
	경제수준의 %	99.0%	.6%	.2%	.1%	.2%	100.0%

## 타.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5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17,735	16,701	4,399	776	2,076	941,687
	시도의 %	97.5%	1.8%	.5%	.1%	.2%	100.0%
부산	빈도	345,784	6,232	1,837	467	158	354,478
	시도의 %	97.5%	1.8%	.5%	.1%	.0%	100.0%
인천	빈도	293,483	5,210	980	253	600	300,526
	시도의 %	97.7%	1.7%	.3%	.1%	.2%	100.0%
대구	빈도	281,917	3,257	1,285	74	504	287,037
	시도의 %	98.2%	1.1%	.4%	.0%	.2%	100.0%
대전	빈도	169,579	2,693	716	0	836	173,824
	시도의 %	97.6%	1.5%	.4%	.0%	.5%	100.0%
광주	빈도	178,135	2,381	1,128	320	652	182,616
	시도의 %	97.5%	1.3%	.6%	.2%	.4%	100.0%
울산	빈도	134,641	2,562	1,054	389	548	139,194
	시도의 %	96.7%	1.8%	.8%	.3%	.4%	100.0%
강원도	빈도	150,429	1,957	726	69	602	153,783
	시도의 %	97.8%	1.3%	.5%	.0%	.4%	100.0%
경기도	빈도	1,233,855	15,243	4,299	915	2,499	1,256,811
	시도의 %	98.2%	1.2%	.3%	.1%	.2%	100.0%
경남	빈도	346,562	5,424	1,735	297	444	354,462
	시도의 %	97.8%	1.5%	.5%	.1%	.1%	100.0%
경북	빈도	256,794	2,878	753	116	130	260,671
	시도의 %	98.5%	1.1%	.3%	.0%	.0%	100.0%
전남	빈도	192,061	2,490	700	372	314	195,937
	시도의 %	98.0%	1.3%	.4%	.2%	.2%	100.0%
전북	빈도	196,811	3,201	1,173	156	678	202,019
	시도의 %	97.4%	1.6%	.6%	.1%	.3%	100.0%
충남	빈도	201,043	2,918	938	168	444	205,511
	시도의 %	97.8%	1.4%	.5%	.1%	.2%	100.0%
충북	빈도	160,917	2,813	731	165	181	164,807
	시도의 %	97.6%	1.7%	.4%	.1%	.1%	100.0%
제주도	빈도	63,078	1,521	510	26	92	65,227
	시도의 %	96.7%	2.3%	.8%	.0%	.1%	100.0%
전체	빈도	5,122,824	77,481	22,964	4,563	10,758	5,238,590
	시도의 %	97.8%	1.5%	.4%	.1%	.2%	100.0%

#### 나) 성별

〈표 456〉은 일반학생의 성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721,203	23,402	9,095	3,086	7,769	2,764,555
	성별의 %	98.4%	.8%	.3%	.1%	.3%	100.0%
여	빈도	2,401,617	54,080	13,869	1,479	2,990	2,474,035
	성별의 %	97.1%	2.2%	.6%	.1%	.1%	100.0%
전체	빈도	5,122,820	77,482	22,964	4,565	10,759	5,238,590
	성별의 %	97.8%	1.5%	.4%	.1%	.2%	100.0%

#### 다) 학교별

〈표45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3%, 전문계 고등학교 0.3%, 초등학교 0.1%, 중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26,390	29,614	7,157	1,340	1,325	1,265,826
	학교 구분의 %	96.9%	2.3%	.6%	.1%	.1%	100.0%
중학교	빈도	1,969,854	25,262	7,811	1,188	2,857	2,006,972
	학교 구분의 %	98.2%	1.3%	.4%	.1%	.1%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51,530	16,611	5,563	1,439	4,957	1,480,100
	학교 구분의 %	98.1%	1.1%	.4%	.1%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75,046	5,995	2,433	598	1,620	485,692
	학교 구분의 %	97.8%	1.2%	.5%	.1%	.3%	100.0%
전체	빈도	5,122,820	77,482	22,964	4,565	10,759	5,238,590
	학교 구분의 %	97.8%	1.5%	.4%	.1%	.2%	100.0%

라) 학년별

〈표 45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4%, 고등학교 1학년 0.3%, 고등학교 3학년 0.3%, 중학교 2학년 0.2%, 중학교 3학년 0.2%, 초등학교 5학년 0.1%, 초등학교 6학년 0.1%, 중학교 1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597,736	15,739	3,693	622	781	618,571
	학년의 %	96.6%	2.5%	.6%	.1%	.1%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28,655	13,875	3,464	717	544	647,255
	학년의 %	97.1%	2.1%	.5%	.1%	.1%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42,832	10,237	2,723	234	546	656,572
	학년의 %	97.9%	1.6%	.4%	.0%	.1%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65,123	7,899	2,590	239	1,036	676,887
	학년의 %	98.3%	1.2%	.4%	.0%	.2%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61,900	7,126	2,498	714	1,275	673,513
	학년의 %	98.3%	1.1%	.4%	.1%	.2%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56,965	8,457	2,077	728	1,813	670,040
	학년의 %	98.0%	1.3%	.3%	.1%	.3%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47,799	7,103	3,258	579	2,677	661,416
	학년의 %	97.9%	1.1%	.5%	.1%	.4%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21,812	7,046	2,661	730	2,087	634,336
	학년의 %	98.0%	1.1%	.4%	.1%	.3%	100.0%
전체	빈도	5,122,822	77,482	22,964	4,563	10,759	5,238,590
	학년의 %	97.8%	1.5%	.4%	.1%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5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3.7%, ‘매우 잘 사는 편’ 1.2%, ‘어려운 편’ 0.2%, ‘보통이다’ 0.1%,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81,170	2,094	1,036	387	3,293	87,980
	경제수준의 %	92.3%	2.4%	1.2%	.4%	3.7%	100.0%
어려운편	빈도	651,499	12,944	4,630	712	1,098	670,883
	경제수준의 %	97.1%	1.9%	.7%	.1%	.2%	100.0%
보통	빈도	3,467,577	45,113	13,608	2,561	4,103	3,532,962
	경제수준의 %	98.1%	1.3%	.4%	.1%	.1%	100.0%
잘사는편	빈도	811,014	14,630	3,022	496	848	830,010
	경제수준의 %	97.7%	1.8%	.4%	.1%	.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1,563	2,701	667	408	1,416	116,755
	경제수준의 %	95.6%	2.3%	.6%	.3%	1.2%	100.0%
전체	빈도	5,122,823	77,482	22,963	4,564	10,758	5,238,590
	경제수준의 %	97.8%	1.5%	.4%	.1%	.2%	100.0%

## 파.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60〉은 일반학생의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광주, 울산, 강원, 경기(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0〉 일반학생 시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37,202	1,961	688	290	1,546	941,687
	시도의 %	99.5%	.2%	.1%	.0%	.2%	100.0%
부산	빈도	352,837	833	572	110	126	354,478
	시도의 %	99.5%	.2%	.2%	.0%	.0%	100.0%
인천	빈도	299,191	483	417	208	227	300,526
	시도의 %	99.6%	.2%	.1%	.1%	.1%	100.0%
대구	빈도	285,729	641	455	0	212	287,037
	시도의 %	99.5%	.2%	.2%	.0%	.1%	100.0%
대전	빈도	172,539	648	208	81	348	173,824
	시도의 %	99.3%	.4%	.1%	.0%	.2%	100.0%
광주	빈도	181,371	470	254	0	521	182,616
	시도의 %	99.3%	.3%	.1%	.0%	.3%	100.0%
울산	빈도	137,914	413	297	139	431	139,194
	시도의 %	99.1%	.3%	.2%	.1%	.3%	100.0%
강원도	빈도	152,612	439	284	21	429	153,783
	시도의 %	99.2%	.3%	.2%	.0%	.3%	100.0%
경기도	빈도	1,250,371	1,622	1,288	362	3,168	1,256,811
	시도의 %	99.5%	.1%	.1%	.0%	.3%	100.0%
경남	빈도	352,528	959	411	187	377	354,462
	시도의 %	99.5%	.3%	.1%	.1%	.1%	100.0%
경북	빈도	259,950	450	237	34	0	260,671
	시도의 %	99.7%	.2%	.1%	.0%	.0%	100.0%
전남	빈도	194,801	615	147	110	264	195,937
	시도의 %	99.4%	.3%	.1%	.1%	.1%	100.0%
전북	빈도	200,428	475	528	223	365	202,019
	시도의 %	99.2%	.2%	.3%	.1%	.2%	100.0%
충남	빈도	204,430	236	209	187	449	205,511
	시도의 %	99.5%	.1%	.1%	.1%	.2%	100.0%
충북	빈도	164,039	349	202	114	103	164,807
	시도의 %	99.5%	.2%	.1%	.1%	.1%	100.0%
제주도	빈도	65,088	52	87	0	0	65,227
	시도의 %	99.8%	.1%	.1%	.0%	.0%	100.0%
전체	빈도	5,211,028	10,646	6,284	2,066	8,566	5,238,590
	시도의 %	99.5%	.2%	.1%	.0%	.2%	100.0%

나) 성별

〈표 461〉은 일반학생의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2%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1〉 일반학생 성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742,442	8,238	5,308	1,713	6,854	2,764,555
	성별의 %	99.2%	.3%	.2%	.1%	.2%	100.0%
여	빈도	2,468,584	2,410	973	355	1,713	2,474,035
	성별의 %	99.8%	.1%	.0%	.0%	.1%	100.0%
전체	빈도	5,211,026	10,648	6,281	2,068	8,567	5,238,590
	성별의 %	99.5%	.2%	.1%	.0%	.2%	100.0%

다) 학교별

〈표 462〉는 일반학생의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0.3%, 전문계 고등학교 0.2%, 중학교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일반학생 학교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62,662	2,070	583	142	369	1,265,826
	학교 구분의 %	99.8%	.2%	.0%	.0%	.0%	100.0%
중학교	빈도	1,998,609	2,887	2,444	924	2,109	2,006,973
	학교 구분의 %	99.6%	.1%	.1%	.0%	.1%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68,622	4,056	1,986	488	4,948	1,480,100
	학교 구분의 %	99.2%	.3%	.1%	.0%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81,133	1,635	1,269	514	1,141	485,692
	학교 구분의 %	99.1%	.3%	.3%	.1%	.2%	100.0%
전체	빈도	5,211,026	10,648	6,282	2,068	8,567	5,238,591
	학교 구분의 %	99.5%	.2%	.1%	.0%	.2%	100.0%

라) 학년별

〈표 463〉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2학년 0.4%, 고등학교 1학년 0.3%, 고등학교 3학년 0.3%, 중학교 3학년 0.2%, 중학교 1학년 0.1%, 중학교 2학년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일반학생 학년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616,641	1,350	306	52	222	618,571
5학년	학년의 %	99.7%	.2%	.0%	.0%	.0%	100.0%
초등학교	빈도	646,020	721	277	90	147	647,255
6학년	학년의 %	99.8%	.1%	.0%	.0%	.0%	100.0%
중학교	빈도	654,730	881	520	103	338	656,572
1학년	학년의 %	99.7%	.1%	.1%	.0%	.1%	100.0%
중학교	빈도	673,742	1,173	1,037	254	681	676,887
2학년	학년의 %	99.5%	.2%	.2%	.0%	.1%	100.0%
중학교	빈도	670,138	832	887	566	1,090	673,513
3학년	학년의 %	99.5%	.1%	.1%	.1%	.2%	100.0%
고등학교	빈도	665,252	1,912	1,009	174	1,693	670,040
1학년	학년의 %	99.3%	.3%	.2%	.0%	.3%	100.0%
고등학교	빈도	655,726	1,585	1,106	491	2,508	661,416
2학년	학년의 %	99.1%	.2%	.2%	.1%	.4%	100.0%
고등학교	빈도	628,777	2,194	1,139	337	1,889	634,336
3학년	학년의 %	99.1%	.3%	.2%	.1%	.3%	100.0%
전체	빈도	5,211,026	10,648	6,281	2,067	8,568	5,238,590
	학년의 %	99.5%	.2%	.1%	.0%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64〉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3.0%, '매우 잘 사는 편' 1.5%, '어려운 편' 0.1%, '보통이다' 0.1%,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4〉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시도나 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83,530	938	702	184	2,626	87,980
	경제수준의 %	94.9%	1.1%	.8%	.2%	3.0%	100.0%
어려운편	빈도	667,635	1,480	929	198	641	670,883
	경제수준의 %	99.5%	.2%	.1%	.0%	.1%	100.0%
보통	빈도	3,519,276	6,355	3,686	988	2,657	3,532,962
	경제수준의 %	99.6%	.2%	.1%	.0%	.1%	100.0%
잘사는편	빈도	826,924	1,471	561	191	863	830,010
	경제수준의 %	99.6%	.2%	.1%	.0%	.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13,661	404	403	507	1,780	116,755
	경제수준의 %	97.4%	.3%	.3%	.4%	1.5%	100.0%
전체	빈도	5,211,026	10,648	6,281	2,068	8,567	5,238,590
	경제수준의 %	99.5%	.2%	.1%	.0%	.2%	100.0%

## 하. 가출 경험

### 1) 일반학생

#### 가) 시도별

〈표 465〉는 일반학생의 시도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빈도는 전체 0.2%였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시도는 대전(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5〉 일반학생 시도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서울	빈도	903,835	23,015	11,092	1,570	2,175	941,687
	시도의 %	96.0%	2.4%	1.2%	.2%	.2%	100.0%
부산	빈도	341,129	8,925	3,605	359	460	354,478
	시도의 %	96.2%	2.5%	1.0%	.1%	.1%	100.0%
인천	빈도	288,698	7,127	3,398	421	882	300,526
	시도의 %	96.1%	2.4%	1.1%	.1%	.3%	100.0%
대구	빈도	278,619	5,198	2,491	352	377	287,037
	시도의 %	97.1%	1.8%	.9%	.1%	.1%	100.0%
대전	빈도	165,546	5,244	1,878	237	919	173,824
	시도의 %	95.2%	3.0%	1.1%	.1%	.5%	100.0%
광주	빈도	174,601	4,460	2,490	540	525	182,616
	시도의 %	95.6%	2.4%	1.4%	.3%	.3%	100.0%
울산	빈도	132,210	4,160	2,271	24	529	139,194
	시도의 %	95.0%	3.0%	1.6%	.0%	.4%	100.0%
강원도	빈도	146,456	4,640	1,784	262	641	153,783
	시도의 %	95.2%	3.0%	1.2%	.2%	.4%	100.0%
경기도	빈도	1,214,128	28,227	10,829	1,072	2,555	1,256,811
	시도의 %	96.6%	2.2%	.9%	.1%	.2%	100.0%
경남	빈도	340,860	8,861	3,592	636	513	354,462
	시도의 %	96.2%	2.5%	1.0%	.2%	.1%	100.0%
경북	빈도	251,470	6,081	2,609	320	191	260,671
	시도의 %	96.5%	2.3%	1.0%	.1%	.1%	100.0%
전남	빈도	189,200	4,155	1,895	285	402	195,937
	시도의 %	96.6%	2.1%	1.0%	.1%	.2%	100.0%
전북	빈도	194,852	4,226	1,775	525	641	202,019
	시도의 %	96.5%	2.1%	.9%	.3%	.3%	100.0%
충남	빈도	197,098	5,440	1,948	402	623	205,511
	시도의 %	95.9%	2.6%	.9%	.2%	.3%	100.0%
충북	빈도	159,135	3,664	1,503	308	197	164,807
	시도의 %	96.6%	2.2%	.9%	.2%	.1%	100.0%
제주도	빈도	60,892	2,505	1,416	254	160	65,227
	시도의 %	93.4%	3.8%	2.2%	.4%	.2%	100.0%
전체	빈도	5,038,729	125,928	54,576	7,567	11,790	5,238,590
	시도의 %	96.2%	2.4%	1.0%	.1%	.2%	100.0%

나) 성별

〈표 466〉은 일반학생의 성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의 빈도는 0.3%이며, 여학생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6〉 일반학생 성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남	빈도	2,642,438	75,546	33,435	4,723	8,413	2,764,555
	성별의 %	95.6%	2.7%	1.2%	.2%	.3%	100.0%
여	빈도	2,396,287	50,382	21,142	2,845	3,379	2,474,035
	성별의 %	96.9%	2.0%	.9%	.1%	.1%	100.0%
전체	빈도	5,038,725	125,928	54,577	7,568	11,792	5,238,590
	성별의 %	96.2%	2.4%	1.0%	.1%	.2%	100.0%

다) 학교별

〈표467〉은 일반학생의 학교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전문계 고등학교 0.5%, 인문계 고등학교 0.3%, 중학교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7〉 일반학생 학교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빈도	1,226,542	29,075	8,640	1,062	507	1,265,826
	학교 구분의 %	96.9%	2.3%	.7%	.1%	.0%	100.0%
중학교	빈도	1,922,171	52,971	23,978	3,606	4,246	2,006,972
	학교 구분의 %	95.8%	2.6%	1.2%	.2%	.2%	100.0%
인문계 고등학교	빈도	1,432,895	27,860	13,230	1,413	4,702	1,480,100
	학교 구분의 %	96.8%	1.9%	.9%	.1%	.3%	100.0%
전문계 고등학교	빈도	457,118	16,021	8,728	1,488	2,337	485,692
	학교 구분의 %	94.1%	3.3%	1.8%	.3%	.5%	100.0%
전체	빈도	5,038,726	125,927	54,576	7,569	11,792	5,238,590
	학교 구분의 %	96.2%	2.4%	1.0%	.1%	.2%	100.0%

라) 학년별

〈표 468〉은 일반학생의 학년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고등학교 1학년 0.4%, 고등학교 3학년 0.4%, 중학교 3학년 0.3%, 고등학교 2학년 0.3%, 중학교 1학년 0.2%, 중학교 2학년 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8〉 일반학생 학년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초등학교 5학년	빈도	601,758	12,529	3,525	471	288	618,571
	학년의 %	97.3%	2.0%	.6%	.1%	.0%	100.0%
초등학교 6학년	빈도	624,783	16,546	5,116	591	219	647,255
	학년의 %	96.5%	2.6%	.8%	.1%	.0%	100.0%
중학교 1학년	빈도	632,795	15,661	6,351	689	1,076	656,572
	학년의 %	96.4%	2.4%	1.0%	.1%	.2%	100.0%
중학교 2학년	빈도	648,374	17,833	8,185	1063	1,432	676,887
	학년의 %	95.8%	2.6%	1.2%	.2%	.2%	100.0%
중학교 3학년	빈도	641,003	19,477	9,441	1,854	1,738	673,513
	학년의 %	95.2%	2.9%	1.4%	.3%	.3%	100.0%
고등학교 1학년	빈도	639,143	18,791	8,629	938	2,539	670,040
	학년의 %	95.4%	2.8%	1.3%	.1%	.4%	100.0%
고등학교 2학년	빈도	637,079	13,402	7,622	1,046	2,267	661,416
	학년의 %	96.3%	2.0%	1.2%	.2%	.3%	100.0%
고등학교 3학년	빈도	613,792	11,688	5,707	917	2,232	634,336
	학년의 %	96.8%	1.8%	.9%	.1%	.4%	100.0%
전체	빈도	5,038,727	125,927	54,576	7,569	11,791	5,238,590
	학년의 %	96.2%	2.4%	1.0%	.1%	.2%	100.0%

마) 가정경제 수준별

〈표 469〉는 일반학생의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를 제시하였다. 가출 경험이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 4.1%, '매우 잘 사는 편' 1.2%, '어려운 편' 0.2%, '보통이다' 0.1%, '잘 사는 편'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9〉 일반학생 가정경제 수준별 가출 경험 빈도 분포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					전체
		전혀없다	1번	2-3번	주1-2회	거의매일	
매우 어려운편	빈도	77,059	4,034	2,718	561	3,608	87,980
	경제수준의 %	87.6%	4.6%	3.1%	.6%	4.1%	100.0%
어려운편	빈도	633,285	23,397	10,863	1,698	1,640	670,883
	경제수준의 %	94.4%	3.5%	1.6%	.3%	.2%	100.0%
보통	빈도	3,415,878	75,701	32,860	4,277	4,246	3,532,962
	경제수준의 %	96.7%	2.1%	.9%	.1%	.1%	100.0%
잘사는편	빈도	802,694	19,201	6,582	580	953	830,010
	경제수준의 %	96.7%	2.3%	.8%	.1%	.1%	100.0%
매우 잘사는편	빈도	109,811	3,594	1,553	453	1,344	116,755
	경제수준의 %	94.1%	3.1%	1.3%	.4%	1.2%	100.0%
전체	빈도	5,038,727	125,927	54,576	7,569	11,791	5,238,590
	경제수준의 %	96.2%	2.4%	1.0%	.1%	.2%	100.0%

## V. 요약 및 논의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기수준과 그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기실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앵고프 방식(Modified Angoff)의 전문가 합의 방식에 따라 위기요소에 대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과 일반군간의 기준점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전문가 합의에 따라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될 때 위기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 ‘위기결과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함께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를 2가지를 통합하여 고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1수준, 잠재적 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2수준, 일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보이는 3수준, 위기결과는 없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4수준, 위기결과를 보이지 않으나 잠재적 위험군인 5수준, 위기결과도 없고 일반군인 6수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본설계에 근거한 전국 16개 시도와 관련 시군구의 총 89,827명의 일반청소년과 3,776명의 취약위기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가중치적용을 통해 일반학생 전체 5,238,590명과 취약위기청소년 59,683명의 결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수거된 결과를 6수준의 집단분류와 고위험-잠재위험-일반군의 3집단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는 (1) 16개 시도별, (2) 성별, (3) 학교별, (4) 학년별, (5) 거주형태별, (6) 부모출신국별, (7) 지각된 가정경제수준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와 함께 위기수준에 따른 위기결과분포를 (1) 3시간이상의 인터넷사용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2)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음주 경험, (3)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흡연 경험, (4) 지난 한달간 주 1-2회의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5) 지난 1년간 주 1-2회의 친구로부터의 폭행 경험, (6)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따돌림 경험, (7) 지난 1년간 주 1-2회 친구폭행 가해, (8) 지난 1년간 주 1-2회의 절도 경험, (9) 지난 1년간 주 1-2회의 타인 물건 강탈 경험, (10) 지난 1년간 주 1-2회의 자살계획, (11) 지난 1년간 2회 이상의 자살시도 경험, (12)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성매매 경험, (13) 지난 1년간 1회 이상 성폭력 당한 경험, (14) 지난 1년간 1번 이상의 성폭력 가해 경험, (15) 지난 1년간 주 1-2회 이상의 가출경험, (16) 현재 가출상태, (17) 현재 학업중단 상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1. 요약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일반학생의 위기요소(위기환경)에 따른 고위험군은 전체 2.0%, 잠재적 위험군은 13.4%, 일반군은 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조사한 17가지 심각한 위기결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모두 8.5%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를 통합하여 구성한 6수준에 있어 고위험군 이면서 위기결과를 경험한 1수준 청소년들은 1.2%, 잠재적 위험군 이면서 위기결과를 경험한 2수준 청소년은 3.1%, 일반군 이면서 위기결과를 경험한 3수준 청소년은 4.2%였으며, 고위험군이나 위기결과는 경험하지 않은 4수준은 전체 일반학생의 0.8%, 잠재적 위험군 이면서 위기결과는 없는 5수준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10.3%, 위기결과가 없는 일반군 청소년은 8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위기요소(위기환경)에 따른 고위험군이 17.6%, 잠재적 위험군이 22.3%, 일반군 집단이 55.1%로 앞에서 보고한 일반청소년집단에 비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위기결과를 경험한 청소년들 또한 취약·위기 청소년의 50.4%로 절반이상의 청소년들이 이미 위기결과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를 통합하여 볼 때, 1수준(고위험군이며, 위기결과있음) 15.9%, 2수준(잠재적 위험군이며, 위기결과있음) 17.3%, 3수준(일반군이며 위기결과 있음) 17.3%, 4수준(고위험군이나 위기결과없음) 1.7%, 5수준(잠재적 위험군으로 위기결과 없음) 10.0%, 6수준(일반군이며 위기결과없음) 37.8%로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1,2,3 수준의 비율이 매우 높다.

16개 시도별에 따라 위기요소(위기환경), 위기결과, 6가지 위기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일반청소년의 경우 위기요소에 따른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울산이 가장 높은 3.6%를 나타내었고, 그 외에 서울 2.3%, 인천 2.0%, 광주 2.5%, 강원도 2.5%, 전북 2.4%, 충남 2.1%, 충북 2.1%, 제주도 2.7%였으며, 부산, 대구, 대전, 경기도, 경북, 전남의 경우 1.4%-1.9%의 고위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위기결과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가장 높은 10.5%의 위기결과 경험비율을 나타내었고, 대전 10.4%, 울산, 10.3%, 충북 10.1%로 4개 지역에서 10%이상의 위기결과 경험을 나타내었고, 인천 9.3%, 강원도 9.2%, 전북 9.1%, 충남 9.2% 수준, 서울, 광주, 경남, 경북, 전남 등은 8.3%-8.9%수준이었으며, 부산과 대구, 경기도 지역이 7.1% - 7.9%수준으로 가장 낮은 위기결과 경험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를 통합한 6수준의 분포를 살펴볼

때, 1수준은 부산(0.8%), 대구(0.8%), 경북(0.9%)이 가장 낮은 지역이며, 2.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울산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는 대략 1% - 1.5%의 1수준분포를 나타내었다. 시도별 취약·위기청소년 위기결과 분포를 살펴보면, 광주의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74.7%, 서울 취약·위기 청소년의 71.1%, 경기도 취약·위기 청소년의 68.6%가 위기결과를 경험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강원도의 취약·위기 청소년들 중 25.2%, 전북은 30.2%, 경북은 35.0% 수준의 위기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1수준의 비율은 광주가 31.1%로 가장 높았고, 서울(25.9%), 경기도(25.1%), 인천(21.4%)의 취약·위기청소년들이 20%이상의 1수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부산이 5.0%로 가장 낮은 취약·위기 청소년의 1수준 비율을 나타내었고, 전북(5.3%), 강원도(6.1%), 경북(8.4%), 충남(9.9%) 수준의 1수준 비율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지역은 10%-20% 사이의 1수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 위기요소(위기환경)와 위기결과, 위기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2%의 위기요소(위기환경)에 근거한 고위험수준, 남자청소년 13.3%, 여자청소년 13.5%의 잠재위험군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은 10.0%의 위기결과 경험율, 여자청소년들은 6.9%의 위기결과 경험율을 나타내어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위기결과를 나타내었다. 6수준에 근거한 1수준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1.2%의 1수준 비율을 나타내었다. 취약·위기 청소년 집단의 경우, 남자청소년들이 14.9%, 여자청소년들이 22.8%의 고위험비율을 나타내었고,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27.3%의 잠재위험군 비율을 나타내었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위기결과 경험율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54.0%가 위기결과를 경험하였고, 여자청소년의 43.7%가 위기결과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급별 위기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교의 고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아 4.1%로 나타났고, 인문계 고등학교(2.5%), 중학교(2.0%), 초등학교(0.7%) 순으로 고위험군 비율을 나타내었다. 위기결과를 경험한 비율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16.5%, 인문계(8.3%), 중학교(8.0%), 초등학교(6.4%)로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들의 위기결과 경험 비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6수준에 근거하여 1수준 비율을 살펴볼 때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2.5%, 인문계 고등학교 1.5%, 중학교 1.2%, 초등학교 0.4%로 나타났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해서도 1%가량 높은 1수준 비율을 나타내어, 전체

일반청소년 중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의 위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위기요소에 근거한 고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직업훈련기관 청소년들이 51.4%로 가장 높은 고위험율을 나타내었으며, 대안학교(38.8%), 학업중단(30.7%) 청소년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고위험군 비율을 나타내었고, 소년원학교(18.8%), 검정고시학원(18.8%), 전문계 고등학교(13.7%), 직업학교(12.4%)의 고위험군 비율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매우 높은 고위험군 비율을 나타내었다. 위기결과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학업중단, 소년원학교, 직업훈련기관,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직업학교에서 60% -90%에 달하는 높은 위기결과율을 나타내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또한 43.3%의 높은 위기결과 경험율을 나타내어, 초등학교(8.5%), 중학교(31.2%)를 포함한 모든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높은 위기결과 경험율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출신국에 따른 위기요소와 위기결과, 위기수준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전체 일반집단에서 부모 두분이 모두 한국인인 경우 고위험군 수준은 1.9%인데에 비해, 두 분 모두 중국교포인 경우 47.5%, 한분만 새터민인 경우 39.1%, 두분 모두 새터민인 경우 29.4%, 두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16.7%, 한분만 외국인인 경우 5.1%, 한분만 중국교포인 경우 4.4%로 중국교포, 새터민, 외국인 등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위험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결과 경험비율 또한 부모 두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8.4%인 것에 비해, 두분 모두 중국교포 48.5%, 두분 모두 새터민인 경우 47.5%, 한분만 새터민인 경우 38.2%, 두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24.6%, 한분만 중국교포인 경우 13.8%, 한분만 외국인 경우 11.1%로 두분 모두 외국인, 중국교포이거나 두분 중 한분만 새터민일지라도 위기결과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시사된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위기요소, 위기결과, 위기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일반청소년의 경우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고위험군 비율이 15.9%,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고위험군 비율이 4.2%였으며, 보통(1.4%)과 잘 사는편(1.4%)의 청소년들의 고위험군 비율이 낮았으며, 오히려 '매우 잘 사는 편'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고위험군 비율이 3.7%로 보통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기결과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27.4%,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13.4%, '매우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12.4%, '보통'수준 청소년들의 비율이 7.4%,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6.7%의 순서를 나타내어, 가정경제수준이 이들 청소년들의 위기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즉, 가정경제형편이 어려

운 청소년들이 위기가능성이 크고, 혹은 매우 잘시는 경우가 보통수준의 청소년보다도 더 위기도가 높은 가능성이 높다.

위기결과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1) 3시간이상의 인터넷사용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들의 0.9%, 46,455명으로 추정되며, 고위험군 청소년의 11.3%, 혹은 1수준의 18.7%의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를 나타내었다.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3.8%가 이러한 인터넷 사용과 일상생활 장애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일반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1.1%, 여자청소년이 0.7%로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인터넷문제를 나타내었고,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 3.7%, 여자청소년이 4.1%로 여자가 더 높은 인터넷 문제를 나타내었다. 학교별로는 전체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전문계 고등학생이 1.4%로 가장 높은 인터넷 문제를 나타내었고, 취약·위기청소년집단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7.8%, 소년원학교가 5.7%, 검정고시 학원이 4.5%로 높은 인터넷 문제수준을 나타내었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전체 일반청소년 중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보고한 청소년들의 5.0%가 가장 높은 인터넷문제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2.0%로 높았다.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4%로 가장 낮은 인터넷 문제를 나타내었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7.7%로 가장 높아 인터넷 문제에 가정경제적 영향이 큰 것으로 시사된다.

(2)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음주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심각한 음주문제 청소년들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의 0.4% 19,767명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일반청소년 중 1수준에 속한 15.1%, 고위험군에 속한 9.1%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음주문제를 나타내었다. 취약·위기청소년 집단에서도 1수준에 속한 청소년의 21.6%가, 고위험군에 속한 19.5%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음주문제를 나타내었다.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 남자 청소년들이 0.5%가 거의 매일 음주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0.2%가 심각한 음주문제를 나타내었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음주문제 수준은 더욱 높아 남자청소년들의 5.1%, 여자청소년들의 5.4%가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음주경험을 하여 남녀차가 크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전체 일반청소년 중 전문계 고등학생의 1.2%가 거의 매일 음주를 경험하고, 인문계 고등학생은 0.6%, 중학생은 0.2%가 거의 매일 음주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13.3%,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11.5%로 가장 높은 음주 경험을 보고하여 이

들 청소년들은 10%가 넘는 청소년들이 거의 매우 음주를 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전체 일반청소년들의 4.5%, '매우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1.8%가 거의 매일 음주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보통수준보다는 매우 못살거나 잘사는 극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음주문제가 높았다.

(3) 지난 한달간 거의 매일 흡연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들의 2.3% 122,716명으로 추정되며 1수준의 31.7%, 2수준의 29.7%이며 위기요소에 따른 고위험군 중 19.0%가 거의 매일 흡연하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0.8%의 청소년들의 거의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고위험군의 55.8% 청소년들이 심각한 흡연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별에 따르면 전체 일반청소년 중 남자청소년들이 3.5%, 여자청소년들의 1.0%가 거의 매일 흡연을 하고 있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의 34.1%, 여자청소년의 24.5%가 거의 매일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급별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10.3%,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3.5%, 중학생의 0.9%, 초등학생의 0.1%가 거의 매일 흡연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 집단에서는 대안학교 청소년의 57.7%,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53.3%, 직업훈련기관에 속한 청소년들의 58.4%가 거의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경제 수준에 있어서도 전체 일반청소년 중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9.4%, '어려운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4.4%가 매일 흡연을 하는 것으로 보고해, 보통이상의 가정경제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흡연율을 나타내었다.

(4) 지난 한달간 주 1-2회의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했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0.4%로 18,610명으로 추정되며, 고위험군 청소년의 7.9%가 이러한 약물사용을 나타내고 있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 1.7%가 이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위험군 중에서도 7.0%가 심각한 가스, 본드, 마약사용을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도 전체 일반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의 0.5%, 여자청소년의 0.2%가 이들 가스, 본드, 마약 사용을 나타내었으며, 취약·위기청소년에서는 남자청소년의 1.8%, 여자청소년의 1.5%가 이들 문제를 나타냈다.



(5) 지난 1년간 주 1-2회의 친구로부터의 신체폭행을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일반 청소년의 1.0%인 53,528명이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고위험군의 10.5%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취약·아동청소년 중에서는 1.5%가 신체폭행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고위험군 청소년의 7.0%가 심각한 신체폭행경험을 보고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일반군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의 1.6%가, 여자청소년의 0.4%가 신체폭행을 경험하였으며, 취약·위기청소년 중에서는 남자청소년 1.6%, 여자청소년 1.2%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0.9%, 중학생 1.2%,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0.9%,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1.2%로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신체폭행경험 청소년이 가장 높았다. 취약·위기청소년 중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이 6.8%,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2.6%로 가장 높은 신체폭행경험을 나타내었다.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전체 일반청소년 중 '매우 어려운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6.6%가 가장 높은 신체폭행 경험을 하였다.

(6) 지난 1년간 거의 매일 따돌림 당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0.8%로 41,852명으로 추정된다. 고위험군 청소년 중 7.6%가 거의 매일 계속되는 따돌림을 경험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 중에서는 1.1%가 심각한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돌림과 관련된 성별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4%로 가장 높고, 중학교 0.7%, 전문계 고등학교 0.6%, 인문계 고등학교 0.4% 순서였다. 즉, 따돌림의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주요한 문제인 것으로 시사된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초등학생이 2.0%, 소년원학교 청소년들이 1.8%,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1.8%로 거의 매일 따돌림을 경험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5.1%로 가장 높은 따돌림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지난 1년간 주 1-2회 수준의 친구폭행 가해를 나타낸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들의 0.9%인 45,02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위험군청소년들의 12.9%가 이러한 주 1-2회 수준의 친구폭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 3.4%가 친구를 주 1-2회 수준으로 폭행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청소년의 1.3%, 여자청소년의 0.3%가 심각한 폭행을 나타내어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반면,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 3.4%, 여자청소년 3.3%로 유의미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별에 있어서는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약·위기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11.0%,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의 5.3%가 심각한 폭행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전체 일반청소년들 집단의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 중 5.9%가 주 1-2회의 신체폭행 가해경험을 나타내고 있어 가정경제 수준이 역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8) 지난 1년간 주 1-2회 이상의 절도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 중 0.5%에 속하는 23,747명으로 추정되었다.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중 10.2%가 절도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4.0%가 절도경험을 나타내고, 고위험군 중에서는 15.6%의 청소년들이 절도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일반청소년의 남자청소년은 0.6%, 여자청소년은 0.3%로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절도경험을 보고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 4.1%, 여자청소년은 3.8%의 절도경험을 나타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0.3%의 절도경험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0.5% - 0.6%의 유사한 절도경험 비율을 나타내었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의 20.0%, 소년원학교 청소년의 10.0%, 검정고시학원의 7.7%가 절도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이들의 절도관련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시사되었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4.3%가 잦은 절도를 보고하고 있었다.

(9) 지난 1년간 주 1-2회의 타인 물건 강탈한 경험에 있어서도, 전체 일반청소년의 0.4%인 19,298명이 이러한 잦은 강탈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험군의 15.5%에 속하는 청소년이 잦은 강탈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은 3.9%가 잦은 강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 일반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의 0.5%가, 여자청소년의 0.2%가 잦은 강탈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은 3.2%, 여자청소년의 5.2%로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청소년의 강탈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일반청소년집단에서는 초등학생의 0.2%, 중학생의 0.4%, 인문계 고등학생의 0.5%, 전문계 고등학생의 0.6%가 잦은 강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 집단에서는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의 14.2%, 소년원학교의 9.5%, 대안학교 청소년의 7.7%가 잦은 강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하여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일반청소년들의 4.4%가 강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 지난 1년간 주 1-2회 이상의 자살계획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들의 1.7%인

91,146명으로 추정되며, 고위험군 청소년들의 24.5%이 잦은 자살계획을 한 것으로 보고된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잦은 자살계획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4.4%로 추정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의 남자청소년의 1.3%, 여자청소년의 2.2%가 잦은 자살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자살계획은 여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남자청소년들의 2.2%, 여자청소년들의 7.7%가 잦은 자살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별의 경우, 전체일반청소년 중 초등학생은 1.2%, 인문계 고등학생이 1.5%인 것에 비해 중학생이 2.1%, 전문계 고등학생이 2.1%로 잦은 자살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학교 청소년들이 10.9%, 검정고시학원 청소년들이 8.2%,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7.1%로 높은 자살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보통수준의 청소년들이 1.4%의 자살계획을 가졌던 것에 비해 '매우 어려운 편'에 속했던 청소년의 8.9%가 잦은 자살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되어 가정경제수준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11) 지난 1년간 2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했던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2.2%로 114,257명으로 추정된다. 2회 이상의 자살시도는 그 이후의 자살시도의 매우 강력한 예측치임을 고려할 때 이들 청소년의 수치는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29.0%가 2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7.2%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2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별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1.6%, 여자청소년의 2.2%가 높은 자살시도율을 나타내었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남자청소년의 4.2%, 여자청소년의 12.9%가 2회 이상의 자살시도율을 나타내어 매우 심각함을 시사한다. 학교급별로는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초등학생이 1.4%, 인문계 고등학생이 2.0%, 중학생이 2.6%, 전문계 고등학생이 2.7%의 자살시도율을 나타내었고, 취약·위기청소년 중에서는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의 36.8%, 다니지않는 청소년이 12.4%, 소년원학교 청소년이 11.9% 등으로 매우 높은 자살시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자살시도율의 경우,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 청소년의 9.4%, '어려운 편'에 속한 3.5%, '매우 잘사는 편'에 속하는 4.2%가 보통수준에 속한 청소년(1.8%)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나타내었다.

(12)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성매매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들의 0.6%로 33,769명으로 추정되며, 고위험군 청소년 중에서는 15.7%에 속하는 청소년들

이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4.8%가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도 일반청소년들의 남자청소년들의 1.0%, 여자청소년들의 0.3%가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취약·위기청소년들 중 남자청소년의 4.4%, 여자청소년의 5.6%가 성매매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따르면, 전문계 고등학생의 1.4%, 인문계 고등학생의 0.9%, 중학생의 0.5%, 초등학생의 0.3%가 성매매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의 18.0%, 소년원학교 청소년의 13.1%,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의 9.0%,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8.1%, 대안학교 청소년의 7.9%가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7.2%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성매매 경험을 나타내었다.

(13) 지난 1년간 1회 이상 성폭력 당한 경험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의 1.0%에 속하는 53,764명의 청소년이 이를 보고하였으며, 고위험군의 14.7%의 청소년들이 성폭력피해 경험을 보고하였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2.6%의 청소년이 이를 나타내었다. 성별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1.1%, 여자청소년이 0.9%로 남녀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자가 1.3%, 여자가 5.1%로 여자청소년의 성폭력피해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전문계 고등학생 1.3% 다음으로 초등학생 1.2%, 인문계 고등학생 1.0%, 중학생 0.9%로 다른 문제에 비해 초등학생의 피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취약·위기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 청소년의 18.0%, 직업학교청소년의 12.4%, 소년원학교 청소년 6.4%,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 5.5%로 성폭력피해 경험이 추정되었다. 가정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역시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6.9%가 가장 높은 피해경험을 나타내었다.

(14) 지난 1년간 1번 이상의 성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일반청소년의 0.5%인 27,564명이 성폭행 가해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위험군 청소년의 12.0%가 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2.4%의 청소년들이 성폭력 가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의 0.8%, 여자청소년의 0.2%가 성폭력 가해를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2.8%, 여자청소년의 1.7%가 가해경험을 나타내었다. 학교급별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의 0.9%, 인문계 고등학생의 0.8%, 중학생의 0.4%, 초등학생의 0.2%가 성폭력 가해경험을 나타내었고,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직업훈

련기관 청소년의 18.0%, 소년원학교 청소년의 9.6%, 대안학교 청소년의 5.8%가 성폭력 가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 별로는 또한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의 5.1%가 가장 높은 성폭력 가해 경험을 나타내었다.

(15) 지난 1년간 주 1-2회 이상의 잦은 가출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의 0.4%로 19,360명으로 추정되며, 고위험군 중에서는 11%의 청소년이 가출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취약·위기청소년들은 9.5%의 가출경험율을 보고하였으며, 고위험군 중에서는 28.5%의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을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가출경험율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은 0.5%, 여자청소년들은 0.3%로 나타나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이 7.5%, 여자청소년이 13.3%로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가출율을 나타내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0.8%,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0.4%, 중학생의 경우, 0.4%, 초등학교의 경우 0.1%로 나타났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의 경우 19.8%,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19.7%, 소년원 학교 청소년들이 17.3%,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의 14.3%가 지난 1년간 1-2회 이상의 가출경험을 나타내었다. 지각된 가정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일반청소년 중 역시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보고된 청소년들이 4.7%의 가장 높은 가출경험을 나타내었다.

(16) 현재 가출상태인지를 보고하는 문항은 취약·위기 청소년들에게만 조사되었는데, 이들의 13.7%가 가출상태라고 보고하였다. 고위험군 중 46.1%가 현재 가출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자청소년이 9.9%, 여자청소년이 21.1%로 여자청소년들의 가출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29.5%, 직업학교 청소년 26.0%, 직업훈련기관 청소년 23.4%, 대안학교 청소년 20.9%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12.1%,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11.0%,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10.1%가 가출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7) 현재 학업중단 상태에 대해서도 취약·위기 청소년에게만 조사되었는데, 이들 중 24.2%가 학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고위험군 청소년 중 47.8%가 학업중단 상태였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의 24.5%, 여자청소년의 23.5%가 학업중단 상태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39.1%, 그 다음으로 서울시 청소년의 37.9%, 광주 33.2%, 대전 26.7%, 대구 24.3% 등으로 대도시의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기결과의 중복율과 관련하여, 위기결과를 1개 나타낸 청소년이 전체 일반청소년의 5.8%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의 위기결과를 동시에 지닌 청소년이 1.6%, 3개의 위기결과를 지닌 청소년이 0.5%였다. 4개 이상 17개의 위기결과가 중복된 청소년들은 0.4%였다.

## 2. 논의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위기 관련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 (1) 일반청소년 중 고위험군 2%, 잠재위험군 13.4%인 총 15.4%은 위기청소년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

본 조사의 결과 일반청소년의 2.0%가 고위험군이며, 13.4%가 잠재위험군으로 모두 15.4%의 일반청소년들이 위기청소년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일반청소년의 모집단 수를 5,238,590로 추정하였을 때 이중 15.4%인 약 80만명의 청소년에게 개입이 요구된다. 이 중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2.0%, 약 10만명의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인 집중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이들 위기청소년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체계위기청소년 전문가의 양성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 (2) 취약·위기 청소년집단은 높은 위기결과 수준을 나타내어 전문적 개입이 요구됨

양육시설 및 그룹홈, 청소년쉼터, 소년원학교, 대안학교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약·위기 청소년 집단에서 위기결과 발현 수준은 50.4%로 절반이 상이의 청소년들이 위기결과를 지니고 있었다. 위기요소를 기준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수준은 17.6%로 일반청소년 2.0%에 비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잠재위험군의 경우도 2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높은 위기결과 발현율, 높은 고위험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위기수준을 고려할 때 본 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된 시설보호 청소년, 보호관찰 및 소년원 재소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의 약 59,000여명의 청소년들 뿐아니라 대상자 특성으로 인해 본 조사에서 제외된 약 70,000여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한 총 약 13만명(중복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더 적을 수 있음)의 취약 및 위기청소년에게는 필수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3) 높은 위기결과 예측력을 나타내는 고위험군 집단

특히 고위험군 청소년의 경우 전체 2.0% 청소년 중 이미 1.2%가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고위험군 중 6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위기결과를 보이는 예측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잠재적 위험군 집단의 경우에는 전체 13.4% 중 3.1%에 청소년이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잠재위험군의 약 23%가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군 청소년의 경우 84.6% 중 4.2%만이 위기결과를 나타내어 약 5%만이 위기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위기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위기요소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위기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잠재위험군의 경우에도 5명 중 1명의 청소년들이 위기결과를 보일 수 있는 비교적 높은 위험수준을 지닌 집단이다. 그에 비해 위기요소에서 일반군으로 분류된 경우 위기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20명 중의 하나로 그 가능성은 낮아짐을 시사하는 것이다.

### (4) 위기결과와 위기요소를 통합해 구성한 6단계 위기수준에 따른 개입 우선순위

본 연구에서는 위기결과와 위기요소를 통합하여 6단계 위기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즉,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1수준 집단,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2수준 집단, 일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3수준 집단,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4수준 집단,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5수준 집단, 일반군에 속하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6수준 집단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준은 위험수준 혹은 개입필요성정도 관련되는 것으로, 위기요소 수준도 높으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1.2%에 해당하는 약 63,000명의 청소년의 경우 필수적으로 반드시 개입되어야 할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2수준 청소년은 3.1%, 16만명의 청소년도 필수

개입대상으로 보여지며, 3수준 4.2%, 22만명의 청소년의 경우 비록 그들의 위기요소는 일반군으로 위험수준이 낮고 보호요인도 있을 것이지만 위기결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3순위 개입대상일 것이다. 그와 함께 반드시 개입되어야 할 대상으로는 현재 위기결과는 지니고 있지 않으나 위기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4수준 청소년 0.8%, 42,000명도 필수 개입대상자일 것이다. 그 다음 개입순위는 잠재위험군이면서 위기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5수준 청소년 10.3%, 26만명으로 추정된다.

#### (5) 지역에 따른 고위험군 및 위기결과 발현 차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매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 일반청소년들 중 고위험군 비율의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 울산이 가장 높은 3.6%를 나타내었으며, 부산, 대구, 대전, 경기도, 경북, 경남은 1.4%-1.9% 의 고위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위기결과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10.5% 가장 높은 위기결과 발현율을 나타내었고, 대전, 울산, 충북이 모두 10%이상의 위기결과 발현율을 보고하였다. 반면 부산과 대구, 경기도가 가장 낮은 7.0% - 7.9%의 위기결과 발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의 존재여부가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 (6) 경제적 배경에 따른 위기결과 발현 빈도 차

일반청소년의 위기결과 발현 빈도에 있어 지각된 가정경제 수준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시사되며, 대부분의 경우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과 '어려운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위기결과 발현율과 고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거나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위기결과 발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에 비해서는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청소년들의 위기결과 발현율이 높았다. 즉, 가정경제수준은 매우 중요한 개입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위기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가정경제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정부차원의 적절한 개입은 이후의 위기청소년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7) 다문화가정의 높은 위기결과 발현 빈도의 심각성

양부모 혹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중국교포, 새터민 뿐아니라 기타 외국인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결과 발현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고위험도 수준도 높은 것으로 시사된다. 두 분이 모두 중국교포인 경우 47.5%, 한분이 새터민인 경우 39.1%, 두 분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16.7%의 고위험군 수준을 나타내고, 유사한 수준의 위기결과 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수적인가를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 (8)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

일반청소년 중 거의 매일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2.3% 12만 명에 달하며,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0.4%인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음주의 경우 음주 빈도를 더 낮추어 분석하면 습관성 음주를 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더욱 높을 것으로 시사된다.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5.2%가 거의 매일 음주를, 30.8%의 청소년이 거의 매일 흡연을 하고 있어 이러한 음주와 흡연이 매우 심각한 청소년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매일 흡연을 6.5%, 매일 음주율이 0.4%인 것과 비교해볼 때 매일 흡연율에 있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에 있어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포함하고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금연에 대한 강조와 정책이 중고등학생의 흡연에도 영향을 끼쳐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흡연자가 감소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매일 흡연자와 음주자의 수는 매우 높으며, 특히 또 다른 많은 위기결과들이 이러한 흡연이나 음주와 함께 발생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음주와 흡연 문제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9) 일반청소년의 0.9%, 취약청소년의 3.8%에 달하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수준

전체 일반청소년의 0.9%에 속하는 약 5만명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고 매일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으로 추정되었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3.8%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10) 각각 약 1%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신체폭행 피해경험, 심각한 따돌림 경험**

일반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약 1%에 달하는 약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각각 1년간 주 1-2회수준의 신체폭행 피해와 거의 매일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본 조사의 '주 1-2이상의 학교폭력과 따돌림과 유사한 수준인 '셀수없이(6회이상)있다'로 답한 청소년은 1.5%로, 상승적인 신체폭행과 따돌림은 1-1.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체폭행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피해를 경험하였고, 따돌림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다.

**(11) 심각한 폭행가해 0.9%, 심각한 절도경험 0.5%, 심각한 강탈경험 0.4%**

본 조사의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지난 1년간 주 1-2회 수준으로 친구를 폭행·가해한 청소년이 0.9%인 5만명 수준이었으며, 위기청소년의 3.4%가 심각한 폭행가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폭행수준이 훨씬 더 높았으나 취약·위기 집단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차가 크지 않았다. 주 1-2회 수준의 심각한 절도경험도 0.5%에 달하는 25,000명 수준이었으며, 취약·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4%에 달하였다. 또한 주 1-2회에 달하는 타인물건 강탈 경험도 0.4%인 약 2만 명의 청소년들이 심각한 강탈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대검찰청의 2010년 범죄분석에서 18세 이하 소년범의 비율은 34.4%인 38,536명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조사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본 조사에서는 주 1-2회의 상승적 절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절도로 검거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승적이지 않더라도 검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폭행가해, 절도, 강탈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범죄수준에 해당하며 이들 약 10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손실이 감소될 수 있다.

**(12) 1.7%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자살계획, 2.2%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자살 시도 경험자**

일반청소년들의 1.7%에 달하는 주 1-2회수준의 심각한 자살계획을 가졌던 약 9만명

의 청소년과 지난 1년간 2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하였던 약 11만 5천명의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개입과 예방대책은 자살로 인한 청소년 사망률 1,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 비율이 높아 자살계획을 가졌던 청소년이 4.9%, 자살 시도 청소년이 7.2%로 나타나 이들 취약·위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인 자살예방과 개입대책이 요구된다.

### (13) 성매매, 성폭력 피해, 성폭력 가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성매매 경험을 했던 청소년들이 전체 일반청소년의 0.6%인 3만 3,000명으로 추정되며, 취약·위기 청소년의 4.8%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점검 실태조사보고서의 결과, 일반청소년의 0.7%, 취약위기청소년의 6.4%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실제 일반청소년의 0.6% - 0.7%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성매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또한 지난 1년간 1회 이상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은 전체 일반청소년의 1.0%인 5만 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남자청소년 1.1%, 여자청소년 0.9%로 예상과 다르게 남자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도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 초등학생이 1.2%로 매우 높은 피해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도 2.6%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하고 있고, 이 대상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이 1.3%, 여자청소년이 5.1%로 여자청소년의 성폭력피해가 크다. 2008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점검실태조사보고서에서 일반청소년의 2.6%, 취약위기 청소년의 6.3%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본 조사결과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조사는 1년간의 경험을 묻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유해환경점검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이전 경험을 모두 묻는 평생유발율을 나타내고 있어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 가해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일반청소년의 0.5%인 2만 7천여 명의 성폭력 가해경험이 추정되며, 취약·위기청소년 집단에서는 2.4%의 성폭력 가해가 추정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남자청소년들이 더 높은 가해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2008년도 청소년유해환경점검실태조사보고서에서 일반청소년의 0.8%, 취약 청소년의 5.9%가 성폭력 가해 경험을 보고하고 있어 본 조사에서보다는 다소 높은 성

폭력 가해경험을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역시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평생유발율을 조사한 것이라 더 높게 보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 (14) 가출경험 및 현재 가출상태

지난 1년간 주1-2회 이상의 빈번한 가출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일반청소년의 0.4%에 해당하는 약 2만여명의 청소년들이 빈번한 가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약·위기 청소년들은 9.5%의 청소년들이 주 1-2회에 달하는 높은 가출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09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청소년의 42.5%, 취약위기청소년의 61.9%가 지난 1년간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본 조사가 주 1-2회의 빈번한 가출경험을 보고한 것에 비해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1회이상의 단순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심리적 가족해체 현상을 나타내고 가정이라는 1차적 사회적 안정망이 안전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가출청소년 자체를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조사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출상태인 지’ 여부는 취약·위기 청소년에게만 제시되었는데, 이들 중 13.7%가 현재 가출상태라고 보고하였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청소년의 9.9%, 여자청소년의 21.1%로 오히려 여자청소년들이 현재 높은 가출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15) 학업중단 수준

‘현재 학업중단 상태’자체가 취약·위기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약·위기 청소년에게만 제시되어 분석되었는데, 이들 청소년 중 24.2%가 학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조사의 일반군에 해당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된 일반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을 조사할 수 없었는데, 2009년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중학교에서는 1.0%, 고등학교 1.8%로 이중 인문계는 1.1%,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제언

전국 규모의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심각한 청소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인프라 확충 필요,

본 조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위기결과를 지닌 청소년들을 조사하여, 전체 일반청소년의 약 15.4%에 달하는 70만명의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는 매우 심각한 고위험군이며 13.4%는 잠재위험군으로, 고위험군의 60%, 잠재위험군의 23%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위기결과를 경험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집중적인 전문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와 기타 취약위기 청소년의 중복율로인해 정확한 추정은 어려우나 대략 10여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출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비행 청소년 및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 청소년 등 취약·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시사되었다. 그 외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 또한 위기수준이 높아 이들 청소년 또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현재 각각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개입하고 있어, 비행청소년의 경우 법무부, 학업중단 및 학교부적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빈곤 및 양육시설 등의 취약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대상자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이들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나 현재 이들의 규모와 위기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이들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2. 부처간 효율적 연계 체계 구축과 통합적 서비스 지원

각 부처의 주요 정책대상자에 대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들

청소년의 위기문제는 단순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범부처간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기요소(위기환경)가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이나, 빈곤가정이나, 양육시설 등의 취약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위기결과 발현 빈도가 높고 위기가능성이 큰 만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법무부 등의 관련부처간의 연계와 그 산하기관간의 효율적 연계체계만이 제한된 예산과 인프라를 통해 이들 청소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위기수준을 낮추고, 이들이 이후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 3.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입대책의 마련

대표적인 위기청소년의 하나인 가출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현재 나타난 높은 발생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입할 체계적인 담당기관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현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일시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막상 가출이 발생하여 거리를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이들 가출청소년의 규모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부족한 청소년쉼터가 있을 뿐이다. 일반 청소년군 중 가출위험성을 나타내고 가출 초기단계에 집중적으로 개입하여 이후의 만성 가출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개입할 기관과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학업중단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학업중단의 문제는 초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에서 집중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이며, 일단 학업중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는 지역사회기관을 중심으로 이들이 청소년사회안전망 내에 안전하게 존재하도록 개입하면서 적절히 그 청소년에게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커넥션즈 프로그램도 이러한 의미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모두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자인 어드바이저(advisor)가 상주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시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연계체계와 교류, 이들에 대한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 4. 가정경제적 어려움, 양육시설 및 그룹홈 등 취약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중적, 적극적 개입을 통한 위기청소년 예방

빈곤 청소년, 양육시설 거주 등의 취약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은 이들의 양육 환경만으로도 이들 청소년의 위기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고위험 환경 청소년으로 시사되었다.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전문인력 개입에 의한 복지예산의 투자는 실제 이들 청소년들이 이후에 사회적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들 빈곤청소년, 양육시설 등의 취약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에는 미묘한 개인적, 기질적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환경 및 양육환경의 개선,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이후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함으로써 이후의 이들 청소년들이 훌륭한 역할모델로, 혹은 멘토로서 후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게 되는 효과를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이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5. 5만명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개입할 수 있는 체계미련과 인적인프라

본 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일반청소년 중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0.9%에 달하는 약 5만명의 청소년으로 추정되었다.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그 특성상 단기적인 요인의 결과가 아니며 개입에 있어서도 중독과 습관의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이로 인한 이후의 학업중단, 은둔형 등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는 다른 무슨 문제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또한 현재 이 정도의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5만명에 달한다면, 이러한 문제의 전조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의 어려움은 이에 개입하기 위한 현재의 전문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기관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독'을 위한 기숙형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인터넷 중독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전문가와 다양한 방식의 기관 확충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터넷이 삶의 필수영역으로 자리잡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지혜롭게 삶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적 교육의 강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심각한 수준의 자살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및 집중적 개입대책 마련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통계청, 2009)라는 치명적인 청소년자살 수준과 본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주 1-2회의 잦은 자살계획을 가진 청소년이 1.7%, 지난 1년간 2회 이상의 자살시도를 했던 청소년들이 2.2%라는 치명적인 숫자를 고려하면 청소년 자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최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08)에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했던 청소년이 23.7%,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7%와 비교하면 그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2회 이상의 자살시도는 그 이후의 자살시도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측치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들 약 11만 5천명의 청소년들에게는 반드시 집중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마땅히 이들 청소년자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는 기관도 명확치 않고, 이들 청소년자살에 대한 전문가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이들 청소년자살과 관련하여서는 예방대책부터 고위험군 청소년의 집중적 개입, 자살발생 후 학교 내 자살생존자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정신과 전문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관리하고 진행할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자살예방, 고위험군 개입, 자살생존자에 대한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 전문가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성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7. 성매매, 성폭력 피해, 성폭력 가해와 관련된 전문적 개입기관 마련과 인력 확충 시급

전체 일반청소년 중 성매매경험 청소년이 0.6%,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1.0%, 성폭력 가해 청소년 0.5% 등으로 각각 3만명 - 5만 3천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취약·위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경험이 4.4%, 성폭력 피해경험이 2.6%, 성폭력 가해경험이 2.4%임을 고려할 때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이들성과 관련된 문제는 그 문제의 특수성과 심각성으로 인해 이 문제의 발생에 의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더 치명적인 것으로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우울, 불안과 높은 공격비행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특히 가족의 심리적, 현실적 문제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족적 개입은 매우 필수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청소년성장캠프'등의 성매수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해바라기 센터'등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 8. 심각한 신체폭행, 절도, 강탈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개입

신체폭행, 절도, 강탈 등의 문제는 소위 청소년비행 혹은 범죄의 문제로 법무부가 이에 대한 담당 부처이다. 그러나 법적 처벌 수준이 아니거나 혹은 청소년기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담당 부처가 없어 이들의 문제를 만성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사법부, 법무부 뿐아니라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원활한 협조와 합리적인 업무 분담만이 이들 청소년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처벌이 아닌 선도, 교육이라는 점, 이들을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양육환경과 가족에 대한 개입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성인과는 다른 방식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9. 높은 중복위기율과 청소년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위기문제 전문가의 강화와 확충

본 조사 결과 일반청소년에서의 위기결과 출현 빈도는 8.5%이며, 이중 한 가지 위기결과를 가진 청소년은 5.8%, 두 가지 위기결과를 경험한 청소년은 1.6%였으며, 세 가지 이상의 중복 위기결과를 가진 경우 0.9%였다. 본 조사의 위기결과와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고 심각한 경우를 조사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약 2.5%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중복 위기결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좀 더 약한 수준의 위기문제를 지닌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청소년의 위기문제의 중복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시사된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이 위기요소(위기환경)상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 더 높은 위기결과를 지니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위기문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개입하고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동반자라는 위기청소년 문제 개입전문가 880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기 청소년의 수와 이들 위기 청소년의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좀 더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880명이라는 청소년동반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참고문헌

-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분용 외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 김동일, 최수미 (2009). 위기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상담지원서비스 효과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3(2), 279-295.
- 김은경, 홍영오 (2006). 가정·학교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청소년의 심리행동의 특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1), 99-142.
- 대검찰청 (2010). 2010 범죄분석.
- 류진아 (2007). 위기청소년의 문제상황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2), 59-71.
- 박영신, 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아동·청소년백서.
-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교육과학기술부 (2009). 제4차(2008년)청소년건강형태온라인조사 통계.
- 송원영 (2005). 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인 특성.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 방안.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 양돈규 (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 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여성가족부 (2009).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 유성경 (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은희 (2007). 위기청소년 위험요소척도 타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외 (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 윤철경 외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5(2), 335-367.
- 이봉주 외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이성식 (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 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이혜경 (2003). 교사용 청소년 행동문제평가척도의 개발 :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233-262.
- 이혜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5(1), 117-138.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조현진, 박성수 (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55-72.
- 지승희 외 (2006).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청소년위원회 (2005). 청소년 위기상담체제 개발 연구. 서울 : 청소년대화의 광장.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9). 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6(2), 103-114.
- 허남순, 오정수, 홍순혜, 김혜란, 박은미, 정익중 (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학지사.
- Blum, R. (1998). Healthy youth development as a model for youth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5), 368-375.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e, N.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Coie, J. D., & Miller-Johnson, S.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 service needs. Thousand Okas: CA: Sage Publications.
- Connexions (2001). *Introduction to Connexions*: Diploma for Connexions Personal Advisers.
- Cunningham, W., Cohan, Naudea, L. M., S., & McGinnis, L. (2008). *Supporting youth at risk* : A policy toolkit for middle income countries. The World Bank.
- Goldberg, M. E. (1999). Truancy and Dropout among Cambodian Students: Results from a Comprehensive High School. *Social Work in Education, 21(1)*, 49-63.
- Garnezy, N. (1983). *Stressors of Childhood*. In N.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Hagan, J. (1994). *Crime and disrepute*. Thousand Okas: Pine Forge Press.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 Howell, J. C. (2003). *Preventing and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A Comprehensive Framework.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Janus, M. D., Archambault, F. X., Brown, S. W., & Welsh, L. A. (1995). Physical abuse in Canadian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9(4)*, 433-447.
- Johnson, G. M. (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 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 42(1)*, 19-27.
- LeBuffe, P. A., & Naglieri, J. A. (2003). *Devereux early childhood assessment-clinical form*. Lewisville, NC: Kaplan.
- Mayer, S. E. (1997).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Guirk, J. (2001). *Youth at-risk : is technology an answer?* Literacy & Numeracy Studies, 11(1), 53-66.
- McWhiter, J. J., McWhiter, B. T., McWhiter, E. H., & Mcwhiter, R. J. (2007). *At-Risk Youth* : A Comprehensive Response, Brooks/cole.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OECD (1996). *Integrating Services for Children at Risk*.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Paternoster, R., & Brame, R.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 Wilson, W. J. (1994).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Smith, D., & Brame, R. (1994). On the initiation and continuation of delinquency. *Criminology*, 32(4), 607-629.
- Stinson, A. (2009). A review of cultural art programs and outcomes for at risk youth. *Best Practices in Mental Health*, 5(1), 10-25.
- Tyler, K. A., Cauce, A., M., Whitbeck, L. (2004). Family risk factors and prevalence of dissociative symptoms among homeless and runaway youth. *Child Abuse & Neglect*, 28, 355-366.
- Tyler, K. A., Hoyt, D. R., & Whitbeck, L. B. (2000). The effects of early sexual abuse on later sexual victimization among female homeless and runaway yout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3), 235-250.
- Wilkinson. (1974). The broken family and juvenile delinquency: Scientific explanation or ideology. *Social Problems*, 21, 726-739.



## 부 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 전문가 의견 설문지
3. 실태조사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4.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대상 학교
5. 문항가중치 결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 ♠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정책 및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청소년의 생각과 경험을 파악하여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여러분들은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의 개별응답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전체응답은 한꺼번에 통계처리 할 것이며,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답해주시는 이 자료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나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므로, 힘드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드림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의 ( ) 속에 V표시를 해 주세요.

1. 성별 : ① 남자 ( )    ② 여자 ( )

2. 생년월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3. 재학 중인 학교 및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 )                      ② 중학교 ( )
- ③ 인문계 고등학교 ( )              ④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 )
- ⑤ 대안학교 ( )                      ⑥ 검정고시 학원 ( )
- ⑦ 직업학교 ( )                      ⑧ 직업훈련기관 ( )
- ⑨ 소년원 학교 ( )                    ⑩ 학교나 검정고시학원에 다니지 않음 ( )

4. 재학 중인 학년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5학년 ( )              ② 초등학교 6학년 ( )
- ③ 중학교 1학년 ( )              ④ 중학교 2학년 ( )              ⑤ 중학교 3학년 ( )
- ⑥ 고등학교 1학년 ( )              ⑦ 고등학교 2학년 ( )              ⑧ 고등학교 3학년 ( )
- ⑨ 해당 없음 (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서울특별시 ( )              ② 부산광역시 ( )              ③ 인천광역시 ( )
- ④ 대구광역시 ( )              ⑤ 대전광역시 ( )              ⑥ 광주광역시 ( )
- ⑦ 울산광역시 ( )              ⑧ 강원도 ( )                      ⑨ 경기도 ( )
- ⑩ 경상남도 ( )              ⑪ 경상북도 ( )                    ⑫ 전라남도 ( )
- ⑬ 전라북도 ( )              ⑭ 충청남도 ( )                    ⑮ 충청북도 ( )
- ⑯ 제주특별자치도 ( )

6.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 V 하세요)

- ① 친아버지 ( )                      ② 친어머니 ( )
- ③ 새어머니 ( )                      ④ 새아버지 ( )
- ⑤ 할머니나 할아버지 ( )              ⑥ 친척 ( )
- ⑦ 형제자매 ( )                      ⑧ 친구 또는 선후배 ( )
- ⑨ 청소년보호시설(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소년원 등) ( )
- ⑩ 혼자 살고 있다 ( )                      ⑪ 기타(구체적으로 누구와? \_\_\_\_\_)

7. 부모님의 출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두 분 모두 한국인 (        )                      ② 한 분만 외국인 (        )
- ③ 두 분 모두 외국인 (        )                      ④ 두 분 모두 새터민 (        )
- ⑤ 한 분만 새터민 (        )                      ⑥ 두 분 모두 중국교포 (        )
- ⑦ 한 분만 중국교포 (        )                      ⑧ 모르겠다 (        )

8.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매우 어려운 편이다 (        )                      ② 어려운 편이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잘사는 편이다 (        )
- ⑤ 매우 잘사는 편이다 (        )

9. 국가나 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 체크 V 하세요)

- ① 없다 (        )                      ② 기초수급대상자 (        )
- ③ 의료비 지원 (        )                      ④ 급식비 지원 (        )
- ⑤ 긴급복지지원(가장의 사망, 질병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받는 경우) (        )
- ⑥ 기타 (        )

10.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물질적 지원(예-학비, 학원비, 용돈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1. 현재 부모(혹은 조부모, 친척 등)로부터 정서적 지원(예-고민상담, 대화, 관심, 칭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                      ② 부족하다 (        )
- ③ 보통이다 (        )                      ④ 받고 있는 편이다 (        )
- ⑤ 충분히 받고 있다 (        )

12.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                      ② 1명 ( )  
 ③ 2-3명 ( )                      ④ 4명 이상 ( )

13.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

14.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

※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0	1	2	3	4
16.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0	1	2	3	4
17.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0	1	2	3	4
18. 늘 슬프다.	0	1	2	3	4
19. 이유 없이 불안하다.	0	1	2	3	4
20.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0	1	2	3	4
21.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0	1	2	3	4
22.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0	1	2	3	4
23. 자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0	1	2	3	4
24.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0	1	2	3	4
25.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0	1	2	3	4
26.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0	1	2	3	4
27.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0	1	2	3	4
28.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0	1	2	3	4
29.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0	1	2	3	4
31.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0	1	2	3	4
32.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0	1	2	3	4
33.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0	1	2	3	4
34.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0	1	2	3	4
35.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0	1	2	3	4
36.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7.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0	1	2	3	4
38.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39.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0	1	2	3	4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0	1	2	3	4
41. 나는 공부를 못한다.	0	1	2	3	4
42.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43.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0	1	2	3	4
44. 나는 좋아하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다.	0	1	2	3	4
45. 나는 학교가 싫다.	0	1	2	3	4
46.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0	1	2	3	4
47. 부모님이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다.	0	1	2	3	4
48.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0	1	2	3	4
49.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0	1	2	3	4
50.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0	1	2	3	4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다	조금 있다	대부분 이다
51.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0	1	2
52.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0	1	2
53.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0	1	2
54.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0	1	2
55.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0	1	2
56.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0	1	2
57.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0	1	2
58.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0	1	2

※ 다음은 여러분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59.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0	1	2	3	4
60.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0	1	2	3	4
61. <u>지난 한달 동안</u>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0	1	2	3	4
62. <u>지난 한달 동안</u>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0	1	2	3	4
63.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0	1	2	3	4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64.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0	1	2	3	4
65. <u>지난 한달 동안</u> 술을 마신 적이 있다.	0	1	2	3	4
66. <u>지난 한달 동안</u>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0	1	2	3	4
67. <u>지난 한달 동안</u>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68.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69.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0.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1.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72. <u>지난 1년 동안</u>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0	1	2	3	4
73.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0	1	2	3	4
74.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0	1	2	3	4
75.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0	1	2	3	4
76. <u>지난 1년 동안</u>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 한 적이 있다.	0	1	2	3	4
77. <u>지난 1년 동안</u>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78. <u>지난 1년 동안</u>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0	1	2	3	4

문항내용	전혀 없다	1번	2-3번	주1-2 회	거의 매일
79. <u>지난 1년 동안</u>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0	1	2	3	4
80.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0	1	2	3	4
81.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0	1	2	3	4
82.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83.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4.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0	1	2	3	4
85.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0	1	2	3	4
86.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0	1	2	3	4
87. <u>지난 1년 동안</u> 가출 한 경험이 있다.	0	1	2	3	4

※ 다음 문항에 대하여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아니다	그렇다
88.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0	1
89.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유학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은 제외).	0	1

90.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써 주세요)

※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를 하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	1	2	3	4
92.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0	1	2	3	4
93.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0	1	2	3	4
94.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는다.	0	1	2	3	4
9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를 생각해 보고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0	1	2	3	4
96. 부모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0	1	2	3	4
97. 가족들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주려고 한다.	0	1	2	3	4
98.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	0	1	2	3	4
99. 나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	0	1	2	3	4
100. 내 주변에는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	1	2	3	4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전문가 의견 설문지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정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상담과 연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지금까지 150여개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규모의 위기청소년 실태 및 추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종단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방향 예측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래 질문들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문 문항으로써 전국 조사대상 청소년들에게 질문할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살펴보시고 질문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이 값지게 쓰이게 될 것을 약속드리며, 자문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설문 실시 요령>

1. 아래 설문을 다 작성하신 후 **다시 발송(이메일 답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2일(목)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메일 : monicaphj@kyci.or.kr  
FAX : 02-2250-3005(성함과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Tel. 02-2250-3072 박현진, 02-2250-3070 배주미)

● 답례품 받으실 주소 :



※ 다음 설문 내용을 보시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지 √ 해주세요.

문항내용 (○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 하다
우울 , 불안	1.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3.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4. 나는 늘 슬프다.					
	5. 나는 이유없이 두려워진다.					
	6.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하다.					
	7.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8.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9.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공격 성, 충동 성, 부주 의	10. 다른 사람과 치고받으며 잘 싸운다.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1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14.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주의집중을 못한다.					
부모 관계, 학대, 방임	15. 공부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16.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17.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18.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19.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20.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21.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22.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학교 생활	23.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24.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25.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26.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27. 나는 공부를 못한다.					
	28. 선생님들은 나를 싫어한다.					
	29. 나는 학교가 싫다.					
	30.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문항내용 (○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		전혀 타당하 지 않다	타당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하 다
가정 환경	31.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32. 부모님은 서로 폭력을 사용한다.					
지역 사회	33.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34.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35.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문항내용 (○ : 전혀 없다, 1: 1번, 2: 2-3번, 3: 주 1-2회, 4 : 거의 매일)		전혀 타당하 지 않다	타당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타당 하다	매우 타당하 다
학교 생활	36. 나는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37.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인터 넷	38. <u>지난 한달 동안</u>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39. <u>지난 한달 동안</u>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40. <u>지난 한달 동안</u> 거의 매일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한 적이 있다.					
	41.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못한 적이 있다.					
술,담 배 등	42. <u>지난 한달 동안</u> 술을 마신 적이 있다.					
	43. <u>지난 한달 동안</u>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44. <u>지난 한달 동안</u> 나는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적이 있다.					
비행	45.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46.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47.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48.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49. <u>지난 1년 동안</u> 친구에게 신체적 폭행을 한 적이 있다.					
	50.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51.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52. <u>지난 1년 동안</u>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53. <u>지난 1년 동안</u> 타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54. <u>지난 1년 동안</u> 친구 혹은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문항내용 (0 : 전혀 없다, 1: 일년에 1-2번, 2: 한달에 1-2번, 3: 매주 1-2번, 4 : 거의 매일)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자살	55.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56.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57.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성문제	58.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59.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60.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61.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62.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가출	63.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다.					

문항내용 (0 : 전혀 없다, 2: 조금 있다, 4 : 대부분이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반사회적가족	64. 가족 중에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다.					
	65.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66.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67.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반사회적친구	68.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					
	69. 가출한 친구가 있다.					
	70.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71.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문항내용 (0 : 아니다, 4 : 그렇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
가출	72.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학업	73.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문항		의견내용
15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p>▶ 17번 우울, 불안 이외 분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다.</p> <p>▶ 18번 문항에 강한 빈도부사, “늘”을 넣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한다.</p> <p>▶ 20번 신경이 날카로운 것과 불안한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불안에 대해 물을 때 불안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 22번 문항 자체에 빈도부사를 넣은 방식에 대해 조심해야합니다. 선택지에 이미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p>
16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7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8	나는 늘 슬프다.	
19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워진다.	
20	신경이 날카롭고 불안하다.	
21	나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22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23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24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p>▶ 24번 잘 싸운다→ “치고받는 싸움을 자주 한다.” 로 고치기</p> <p>▶ 28번 공부와 놀이는 매우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에도”라는 식으로 수정하기 / 공부와 놀이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활동이므로 어떤 청소년은 이 중 한 쪽만 주의집중을 잘 못할 수 있다.</p> <p>▶ 29번 선택이나 나열을 하기 보다는 “중요한 일”등으로 수정하기 / 공부나 다른 활동 측면을 빼면 좋겠다.</p>
25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26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27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28	공부나 놀이를 할 때 주의집중을 못한다.	
29	공부나 다른 활동을 할 때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30	부모님은 나에게 심하게 욕을 하신다.	<p>▶ 36번 다른 형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로 수정하기</p>
31	부모님은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32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흥기로 위협하신다.	
33	부모님과 나는 말만 하면 싸우게 된다.	
34	부모님과 나는 서로 대화가 없다.	
35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기가 불편하고 긴장된다.	
36	부모님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귀여워하신다.	
37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38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39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40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41	나는 공부를 못한다.	▶ 교사에게 욕설이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지? / 다니는 학교에 학생에게 함부로 욕하고 때리는 교사가 있는지? / 경험을 해보았는지? ⇒ 문항첨가해보기 ▶ 문항 들이 다양한 영역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너무 학업에만 치우침.
42	선생님들은 나를 싫어한다.	
43	나는 학교가 싫다.	
44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45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 두 문항은 의미가 중복되는 유사항목이다. ▶ 46번 한쪽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쓰는 경우는? 대답이 곤란할 듯
46	부모님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신다.	
47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업소가 있다.	
48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	
49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50	가족 중에 범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다.	▶50번 ‘감옥’ → “소년원이나 교도소’라고 수정하기 ▶반사회적 가족전체문항 : 알코올중독가족, 수감가족원이 있다는 것 만으로 반사회적 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51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다	
52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53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람이 있다.	
54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거나 위축되는 경험을 묻는 요인 추가 필요함. ▶ 54~57번 ‘친한 친구 중에’ 라는 말이 앞에 삽입되는 것이 보다 명확해 보임. ▶ 56번 문항 이외에도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간 적이 있는가도 추가하면 좋겠다.
55	가출한 친구가 있다.	
56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57	폭력서클(예: 일진)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58	나는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지각, 조퇴, 잦은 결석 등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측정하는 문항 추가하기 ▶ 58번 “종종” 빈도부사 뺄 것
59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60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62번 ‘거의 매일’과 ‘한 적이 있다’라는 말이 상충된다. ▶63번 ‘친구와의 만남’보다는 ‘모임참석’ 용어를 추천한다. ▶ “인터넷에서 채팅을 얼마나 하는지?” “채팅을 통해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고 사귀게 되는지?” “채팅을 통해 성매매 유혹을 받거나 또 경험이 있는지?” 첨가하면 좋겠다. ▶65번 1번 이상의 경우에는 등교를 못한 경우와 친구와의 만남을 못한 경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등교 또는 지각, 조퇴 등)을 못한 적이 있다로 변경해보면어떨까요?>
61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62	지난 한달 동안 거의 매일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63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 생활(등교, 친구와의 만남 등)을 못한 적이 있다.	

64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66번 ‘흡입’ 보다는 ‘사용’이 더 포괄적이다
65	지난 한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66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흡입해 본 적이 있다.	
67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만한 부재’ 또는 ‘또래사이에서 위축되거나 외톨이로 지내는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소외경험이 심각할 것이다. ▶ 67~70문항은 위기청소년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문장이므로 비행보다는 ‘또래 괴롭힘 피해’에 더 가깝기 때문에 또래관계문제 요인을 생성하여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75~76문항처럼 비행행동(지위비행, 폭행, 범죄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피해와 가해를 나누기 ▶ 친구, 선배와의 관계 점검필요 <뺨을 뜯거나(뜯기거나)학교에 조직을 알고 있는지, 선배들에게 맞거나 돈을 상납한 적이 있는지?>
68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9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70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71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신체적 폭행을 한 적이 있다.	
72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73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74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75	지난 1년 동안 타인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76	지난 1년 동안 친구 혹은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77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가족 중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시도한 가족이 있다.”추가하기(자살의 전염가능성, 자살할만한 환경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변인의 자살경향성을 묻는 문항 포함시켜야함)
78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79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80	지난 1년 동안 성매매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80번 ‘유혹’이라는 말은 타인으로부터 유혹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므로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또는 ’하고 싶다고 느낀)적이 있다’로 수정하기 ▶81번 (내가 자발적으로)성매매를 당한 적이 있다.→ 바꾸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문항을 구분하기
81	지난 1년 동안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82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83	지난 1년 동안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84	지난 1년 동안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85	지난 1년 동안 가출 경험이 있다.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문항 추가하기→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들의 경우 실제로 하기 이전이라도 가출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86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87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 ‘학업을 중단한 상태’는 학문적인 용어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자퇴, 가출, 휴학)등으로 바꿔보기

<b>기타</b>	<p>▶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평가하는 문항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자원’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요인별로 추가하면 좋겠다. (자원은 위기청소년의 개입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고, 설문지 내용이 부정적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방지하며, 설문참여 거부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p> <p>▶ 요인별 문항들에서 더 이상 제외시킬 문항은 없다고 생각. 설문조사지로 진단을 할 수 없을지라도, 위기 청소년의 실태를 요인별로 제시하려면 각 요인이 측정하려는 문제나 증상을 포괄해야 하며 문항 수가 적당히 많아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p> <p>▶ 의식주의 결핍이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요인 또는 문항이 포함되는 것도 좋겠다.</p> <p>▶ 가출, 학업 요인은 문항수가 너무 적다.</p> <p>▶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가 조심스러울 듯합니다. 문항내용 중 청소년의 발달단계상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학생들의 경험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듯합니다.(예 :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나는 이유 없이 두려워진다) 또한 손에 땀이 나고 긴장된다, 공부가 싫다 등은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임→이를 위기라고 할 수 있을지?</p> <p>▶ 위기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히 된 후 문항작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컨대, 발달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는 다른 위기 유형이다.</p> <p>▶ 위기실태를 조사하는 요인을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 친구관계, 인터넷(게임 뿐 아니라 채팅의 피해). 또한 학교변인에서 교사환경 등을 점검해야 아이들이 위기에서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p> <p>▶ 가정에서도 경제적인 부분 - 우리 집은 가난하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정도 등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p> <p>▶ 문항을 묻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가 있는 double check. 영역을 청소년의 사고, 감정(정서), 행동과 같은 intrapersonal한 측면과 intrapersonal한 측면, 그리고 contextual 한 측면 등으로 재 분류해보고 이들 영역 간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생각해 보고 비행이나 위기실태의 측면에서 이전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위험요인이 충분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기</p> <p>▶ 선택지를 줄 때 양 극단만 주는 방식 보다는 각각에 대한 descriptor를 주</p>
-----------	---



기타	<p>는 것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선택지간 간격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0~4점까지 5점 척도를 주면 가운데(3점)에 주로 체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혹시 가능하면 0~5점까지 짝수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듯합니다.</p> <p>▶ 비행요인, 자살요인, 성문제요인 문항 줄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라는 문항들의 경우 “ 지난 1년 동안 몇 번 이상~한 적이 있다” 라고 해야 의미가 분명해 질 것 같다.</p> <p>▶ 가출, 학업을 따로 분류한 이유와 가족, 반사회적 친구도 별도의 요인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p> <p>▶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문항들을 뽑아서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 같다.</p> <p>▶ 행위의 결과만을 묻는 문항들이 많은 듯합니다. 잠재적 성향, 예를 들면 “폭주족 관련 뉴스화면을 보면서 멋있게 느껴졌다” 또는 “나도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같은 문항을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p> <p>▶ 생각과 행동적인 측면 보충하기 (예 : 자주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한다. 상상한다. 꿈을 꾸다. / 타인 또는 환경으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 / 부모가 폭력을 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 선생님이 편애하니까 죽이고 싶다 /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p> <p>▶ 비관으로 인해 자살, 좌절, 자포자기 등의 행동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하기</p> <p>▶ 일탈, 비행, 범죄, 소외, 왕따 경험을 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문항에 관하여 검토하기</p> <p>▶ 반사회적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위기청소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부정하거나 동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p> <p>▶ 가출에 대해서 비행이나 아니나 등의 논란도 많이 있지만 법적으로 소년 법에는 비행이 명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특히 장기적인 가출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마음과 몸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위기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p> <p>▶ 반사회적 행동으로 - 비행, 가출, 학업중단 등을 묶으면 좋을 것 같다.</p> <p>▶ 위기청소년 평가(척도)관련해서 기존 논문들의 문항들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박사학위 논문 중에도 최근 논문이 있다.</p> <p>▶ 술과 담배의 경우에는 수학여행의 경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조사시기에 따라 응답에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p> <p>▶ 친구관계에 대한 것이 누락되었음 -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lt;예 : 친한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p>
----	---

[부록 4] 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대상 학교

<초등학교>

지역	시군구	교육청	학교 명
01-서울	강남구	강남	서울개일초등학교
01-서울	강남구	강남	서울대현초등학교
01-서울	강동구	강동	서울성일초등학교
01-서울	강동구	강동	서울성내초등학교
01-서울	강북구	성북	서울미양초등학교
01-서울	강북구	성북	서울수송초등학교
01-서울	강서구	강서	서울우장초등학교
01-서울	강서구	강서	서울염동초등학교
01-서울	강서구	강서	서울수명초등학교
01-서울	관악구	동작	서울조원초등학교
01-서울	관악구	동작	서울신봉초등학교
01-서울	광진구	성동	서울성자초등학교
01-서울	광진구	성동	서울장안초등학교
01-서울	구로구	남부	서울고원초등학교
01-서울	구로구	남부	서울온수초등학교
01-서울	금천구	남부	서울탑동초등학교
01-서울	노원구	북부	서울온곡초등학교
01-서울	노원구	북부	서울불암초등학교
01-서울	노원구	북부	서울중평초등학교
01-서울	도봉구	북부	서울장일초등학교
01-서울	도봉구	북부	서울백운초등학교
01-서울	동대문구	동부	은석초등학교
01-서울	동대문구	동부	경희초등학교
01-서울	동작구	동작	서울본동초등학교
01-서울	동작구	동작	서울영본초등학교
01-서울	마포구	서부	서울상지초등학교
01-서울	마포구	서부	서울신북초등학교
01-서울	서대문구	서부	경기초등학교
01-서울	서대문구	서부	서울연희초등학교
01-서울	서초구	강남	서울양재초등학교
01-서울	서초구	강남	서울반포초등학교
01-서울	성동구	성동	서울성수초등학교
01-서울	성북구	성북	서울월곡초등학교
01-서울	성북구	성북	서울둔암초등학교
01-서울	송파구	강동	서울송전초등학교
01-서울	송파구	강동	서울신가초등학교
01-서울	송파구	강동	서울가주초등학교
01-서울	양천구	강서	서울양목초등학교
01-서울	양천구	강서	서울강서초등학교
01-서울	양천구	강서	서울목동초등학교

01-서울	영등포구	남부	서울대방초등학교
01-서울	영등포구	남부	서울영신초등학교
01-서울	용산구	중부	서울보광초등학교
01-서울	은평구	서부	서울서신초등학교
01-서울	은평구	서부	서울응암초등학교
01-서울	종로구	중부	서울효제초등학교
01-서울	중구	중부	송의초등학교
01-서울	중랑구	동부	서울중랑초등학교
01-서울	중랑구	동부	서울중화초등학교
02-부산	강서구	북부	대저초등학교
02-부산	금정구	동래	남산초등학교
02-부산	기장군	해운대	대청초등학교
02-부산	남구	남부	동향초등학교
02-부산	동구	남부	초량초등학교
02-부산	동래구	동래	사직초등학교
02-부산	부산진구	남부	연지초등학교
02-부산	부산진구	남부	개림초등학교
02-부산	북구	북부	덕양초등학교
02-부산	북구	북부	금명초등학교
02-부산	사상구	북부	감전초등학교
02-부산	사하구	서부	보림초등학교
02-부산	사하구	서부	응봉초등학교
02-부산	서구	서부	토성초등학교
02-부산	수영구	해운대	배산초등학교
02-부산	연제구	동래	토현초등학교
02-부산	영도구	서부	동삼초등학교
02-부산	중구	서부	광일초등학교
02-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반석초등학교
02-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신도초등학교
03-대구	남구	남부	대구남도초등학교
03-대구	달서구	남부	대구노전초등학교
03-대구	달서구	남부	대구죽전초등학교
03-대구	달서구	남부	대구성산초등학교
03-대구	달성군	달성	대구화원초등학교
03-대구	동구	동부	대구반야월초등학교
03-대구	동구	동부	대구용호초등학교
03-대구	북구	서부	대구서변초등학교
03-대구	북구	서부	대구팔달초등학교
03-대구	북구	서부	대구도남초등학교
03-대구	서구	서부	대구서도초등학교
03-대구	수성구	동부	대구동문초등학교
03-대구	수성구	동부	대구수성초등학교
03-대구	중구	동부	계성초등학교
04-인천	강화군	강화	선원초등학교
04-인천	계양구	서부	인천당산초등학교
04-인천	계양구	서부	인천안산초등학교

04-인천	남구	남부	인천관교초등학교
04-인천	남구	남부	인천문학초등학교
04-인천	남동구	동부	인천도립초등학교
04-인천	남동구	동부	인천약산초등학교
04-인천	동구	남부	인천동명초등학교
04-인천	부평구	북부	인천산곡북초등학교
04-인천	부평구	북부	인천미산초등학교
04-인천	부평구	북부	인천후정초등학교
04-인천	서구	서부	인천왕길초등학교
04-인천	서구	서부	인천석남초등학교
04-인천	연수구	동부	인천동막초등학교
04-인천	연수구	동부	인천합박초등학교
04-인천	옹진군	남부	영흥초등학교
04-인천	중구	남부	인천송월초등학교
05-광주	광산구	서부	도산초등학교
05-광주	광산구	서부	신창초등학교
05-광주	광산구	서부	수문초등학교
05-광주	남구	서부	대성초등학교
05-광주	동구	동부	살레시오초등학교
05-광주	북구	동부	연제초등학교
05-광주	북구	동부	서일초등학교
05-광주	북구	동부	일곡초등학교
05-광주	서구	서부	광주상무초등학교
05-광주	서구	서부	운리초등학교
06-대전	대덕구	동부	대전중원초등학교
06-대전	대덕구	동부	신탄진초등학교
06-대전	동구	동부	대전가양초등학교
06-대전	서구	서부	대전원앙초등학교
06-대전	서구	서부	가수원초등학교
06-대전	서구	서부	대전느리울초등학교
06-대전	유성구	서부	대전하기초등학교
06-대전	유성구	서부	금성초등학교
06-대전	중구	동부	대전선화초등학교
06-대전	중구	동부	대전옥계초등학교
07-울산	남구	강남	울산남부초등학교
07-울산	남구	강남	수암초등학교
07-울산	동구	강북	전하초등학교
07-울산	북구	강북	명촌초등학교
07-울산	울주군	강남	명산초등학교
07-울산	울주군	강남	범서초등학교
07-울산	중구	강북	양사초등학교
08-경기	가평군	가평	청평초등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백양초등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다솜초등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신능초등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지도초등학교

08-경기	과천시	안양	과천초등학교
08-경기	광명시	광명	광일초등학교
08-경기	광명시	광명	연서초등학교
08-경기	광주시	광주·하남	남한산초등학교
08-경기	광주시	광주·하남	도수초등학교
08-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교문초등학교
08-경기	군포시	군포·의왕	당정초등학교
08-경기	군포시	군포·의왕	둔전초등학교
08-경기	김포시	김포	장기초등학교
08-경기	김포시	김포	김포초등학교
08-경기	남양주시	구리·남양주	장승초등학교
08-경기	남양주시	구리·남양주	평내초등학교
08-경기	남양주시	구리·남양주	별내초등학교
08-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양주	생연초등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중동초등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원종초등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도당초등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한솔초등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대하초등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당촌초등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성남중앙초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곡반초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우만초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매현초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영화초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수원신곡초등학교
08-경기	시흥시	시흥	연성초등학교
08-경기	시흥시	시흥	송운초등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안산진흥초등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반월초등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안산중앙초등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안산화정초등학교
08-경기	안성시	안성	안성초등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	안양중앙초등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	삼성초등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	관양초등학교
08-경기	양주시	동두천·양주	상수초등학교
08-경기	양평군	양평	양평초등학교
08-경기	여주군	여주	세종초등학교
08-경기	연천군	연천	연천초등학교
08-경기	오산시	화성·오산	오산초등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왕산초등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연동초등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손곡초등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용인둔전초등학교

08-경기	의왕시	군포·의왕	내손초등학교
08-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초등학교
08-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가능초등학교
08-경기	이천시	이천	장호원초등학교
08-경기	이천시	이천	신하초등학교
08-경기	파주시	파주	탄현초등학교
08-경기	파주시	파주	봉일천초등학교
08-경기	평택시	평택	장당초등학교
08-경기	평택시	평택	덕동초등학교
08-경기	평택시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08-경기	포천시	포천	포천삼정초등학교
08-경기	하남시	광주·하남	신장초등학교
08-경기	화성시	화성·오산	팔탄초등학교
08-경기	화성시	화성·오산	태안초등학교
08-경기	화성시	화성·오산	화성금곡초등학교
09-강원	강릉시	강릉	성덕초등학교
09-강원	강릉시	강릉	중앙초등학교
09-강원	고성군	고성	거진초등학교
09-강원	동해시	동해	청운초등학교
09-강원	삼척시	삼척	삼척초등학교
09-강원	속초시	속초·양양	청대초등학교
09-강원	양구군	양구	양구초등학교
09-강원	양양군	속초·양양	양양초등학교
09-강원	영월군	영월	쌍룡초등학교
09-강원	원주시	원주	홍업초등학교
09-강원	원주시	원주	학성초등학교
09-강원	인제군	인제	인제남초등학교
09-강원	정선군	정선	여량초등학교
09-강원	철원군	철원	철원초등학교
09-강원	춘천시	춘천	중앙초등학교
09-강원	춘천시	춘천	성원초등학교
09-강원	태백시	태백	황지초등학교
09-강원	평창군	평창	대화초등학교
09-강원	홍천군	홍천	울전초등학교
09-강원	화천군	화천	사내초등학교
09-강원	횡성군	횡성	성북초등학교
10-충북	괴산군	괴산	보광초등학교
10-충북	단양군	단양	단양초등학교
10-충북	보은군	보은	보은삼산초등학교
10-충북	영동군	영동	영동초등학교
10-충북	옥천군	옥천	삼양초등학교
10-충북	음성군	음성	용천초등학교
10-충북	제천시	제천	내토초등학교
10-충북	증평군	괴산	증평초등학교
10-충북	진천군	진천	진천상산초등학교
10-충북	청원군	청원	미원초등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덕벌초등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덕성초등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원봉초등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남평초등학교
10-충북	충주시	충주	남한강초등학교
10-충북	충주시	충주	충주성남초등학교
11-충남	계룡시	논산	신도초등학교
11-충남	공주시	공주	공주중동초등학교
11-충남	금산군	금산	추부초등학교
11-충남	논산시	논산	강경중앙초등학교
11-충남	당진군	당진	원당초등학교
11-충남	보령시	보령	대천동대초등학교
11-충남	부여군	부여	부여초등학교
11-충남	서산시	서산	부성초등학교
11-충남	서천군	서천	장항중앙초등학교
11-충남	아산시	아산	온양풍기초등학교
11-충남	아산시	아산	동덕초등학교
11-충남	연기군	연기	금남초등학교
11-충남	예산군	예산	신례원초등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	천안신촌초등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	천안용곡초등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	천안부성초등학교
11-충남	청양군	청양	청양초등학교
11-충남	태안군	태안	태안초등학교
11-충남	홍성군	홍성	대평초등학교
12-전북	고창군	고창	고창초등학교
12-전북	군산시	군산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12-전북	군산시	군산	군산구암초등학교
12-전북	김제시	김제	김제초등학교
12-전북	남원시	남원	남원초등학교
12-전북	무주군	무주	안성초등학교
12-전북	부안군	부안	부안동초등학교
12-전북	순창군	순창	시산초등학교
12-전북	완주군	완주	이서초등학교
12-전북	익산시	익산	익산옥야초등학교
12-전북	익산시	익산	익산초등학교
12-전북	임실군	임실	임실초등학교
12-전북	장수군	장수	장수초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전라초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양지초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삼천남초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용흥초등학교
12-전북	정읍시	정읍	정읍수성초등학교
12-전북	진안군	진안	진안중앙초등학교
13-전남	강진군	강진	강진중앙초등학교
13-전남	고흥군	고흥	백양초등학교

13-전남	곡성군	곡성	곡성중앙초등학교
13-전남	광양시	광양	광양칠성초등학교
13-전남	광양시	광양	광양중진초등학교
13-전남	구례군	구례	구례북초등학교
13-전남	나주시	나주	나주초등학교
13-전남	담양군	담양	담양남초등학교
13-전남	목포시	목포	목포향도초등학교
13-전남	목포시	목포	목포동초등학교
13-전남	무안군	무안	무안초등학교
13-전남	보성군	보성	미력초등학교
13-전남	순천시	순천	낙안초등학교
13-전남	순천시	순천	순천풍덕초등학교
13-전남	순천시	순천	순천이수초등학교
13-전남	신안군	신안	압해초등학교
13-전남	여수시	여수	등백초등학교
13-전남	여수시	여수	여수신월초등학교
13-전남	여수시	여수	여수한려초등학교
13-전남	영광군	영광	홍농초등학교
13-전남	영암군	영암	미암초등학교
13-전남	완도군	완도	완도중앙초등학교
13-전남	장성군	장성	사창초등학교
13-전남	장흥군	장흥	장흥초등학교
13-전남	진도군	진도	진도초등학교
13-전남	함평군	함평	엄다초등학교
13-전남	해남군	해남	해남서초등학교
13-전남	화순군	화순	화순만연초등학교
14-경북	경산시	경산	경산중앙초등학교
14-경북	경산시	경산	금락초등학교
14-경북	경주시	경주	양동초등학교
14-경북	경주시	경주	불국사초등학교
14-경북	고령군	고령	고령초등학교
14-경북	구미시	구미	정수초등학교
14-경북	구미시	구미	금오초등학교
14-경북	구미시	구미	옥계초등학교
14-경북	군위군	군위	고매초등학교
14-경북	김천시	김천	김천동부초등학교
14-경북	문경시	문경	농암초등학교
14-경북	봉화군	봉화	물야초등학교
14-경북	상주시	상주	성동초등학교
14-경북	성주군	성주	성주중앙초등학교
14-경북	안동시	안동	풍천초등학교
14-경북	안동시	안동	안동서부초등학교
14-경북	영덕군	영덕	영해초등학교
14-경북	영양군	영양	영양중앙초등학교
14-경북	영주시	영주	순흥초등학교
14-경북	영천시	영천	북안초등학교



14-경북	예천군	예천	풍양초등학교
14-경북	울릉군	울릉	울릉초등학교
14-경북	울진군	울진	울진초등학교
14-경북	의성군	의성	도리원초등학교
14-경북	청도군	청도	금천초등학교
14-경북	청송군	청송	청송초등학교
14-경북	칠곡군	칠곡	약목초등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	포항남부초등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	청립초등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	홍해초등학교
15-경남	거제시	거제	기성초등학교
15-경남	거제시	거제	거제중앙초등학교
15-경남	거창군	거창	창동초등학교
15-경남	고성군	고성	대성초등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	진영대흥초등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	석봉초등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	김해삼성초등학교
15-경남	남해군	남해	남명초등학교
15-경남	마산시	마산	월영초등학교
15-경남	마산시	마산	산호초등학교
15-경남	밀양시	밀양	밀성초등학교
15-경남	사천시	사천	동성초등학교
15-경남	산청군	산청	단성초등학교
15-경남	양산시	양산	황산초등학교
15-경남	양산시	양산	중부초등학교
15-경남	의령군	의령	의령초등학교
15-경남	진주시	진주	도동초등학교
15-경남	진주시	진주	금성초등학교
15-경남	진해시	진해	동부초등학교
15-경남	창녕군	창녕	유어초등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	신월초등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	사화초등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	용호초등학교
15-경남	통영시	통영	유영초등학교
15-경남	하동군	하동	하동초등학교
15-경남	함안군	함안	칠서초등학교
15-경남	함양군	함양	위성초등학교
15-경남	합천군	합천	합천초등학교
16-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효돈초등학교
16-제주	제주시	제주시	하귀초등학교
16-제주	제주시	제주시	월랑초등학교
16-제주	제주시	제주시	화북초등학교

## 〈중학교〉

지역	시군구	교육청	학교명
01-서울	강남구	강남	신사중학교
01-서울	강남구	강남	언주중학교
01-서울	강동구	강동	고덕중학교
01-서울	강동구	강동	천호중학교
01-서울	강북구	성북	성암여자중학교
01-서울	강서구	강서	염경중학교
01-서울	강서구	강서	화원중학교
01-서울	관악구	동작	관악중학교
01-서울	관악구	동작	삼성중학교
01-서울	광진구	성동	광진중학교
01-서울	광진구	성동	광양중학교
01-서울	구로구	남부	개봉중학교
01-서울	구로구	남부	신도립중학교
01-서울	금천구	남부	문일중학교
01-서울	노원구	북부	월계중학교
01-서울	노원구	북부	온곡중학교
01-서울	노원구	북부	중계중학교
01-서울	도봉구	북부	선덕중학교
01-서울	도봉구	북부	장일중학교
01-서울	동대문구	동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01-서울	동대문구	동부	청광중학교
01-서울	동작구	동작	문창중학교
01-서울	동작구	동작	숭의여자중학교
01-서울	마포구	서부	신수중학교
01-서울	서대문구	서부	정원여자중학교
01-서울	서대문구	서부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중학교
01-서울	서초구	강남	언남중학교
01-서울	서초구	강남	이수중학교
01-서울	성동구	성동	경수중학교
01-서울	성북구	성북	삼선중학교
01-서울	성북구	성북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01-서울	송파구	강동	보성중학교
01-서울	송파구	강동	세륜중학교
01-서울	송파구	강동	오륜중학교
01-서울	양천구	강서	신화중학교
01-서울	양천구	강서	신서중학교
01-서울	양천구	강서	목일중학교
01-서울	영등포구	남부	선유중학교
01-서울	영등포구	남부	당산중학교
01-서울	용산구	중부	선린중학교
01-서울	은평구	서부	선일여자중학교
01-서울	은평구	서부	은평중학교
01-서울	종로구	중부	배화여자중학교

01-서울	중구	중부	금호여자중학교
01-서울	중랑구	동부	송곡여자중학교
01-서울	중랑구	동부	용마중학교
02-부산	강서구	북부	대저중학교
02-부산	금정구	동래	부곡여자중학교
02-부산	기장군	해운대	장안중학교
02-부산	남구	남부	대천중학교
02-부산	동구	남부	경남여자중학교
02-부산	동래구	동래	남일중학교
02-부산	동래구	동래	사직중학교
02-부산	부산진구	남부	부산중앙중학교
02-부산	부산진구	남부	초연중학교
02-부산	북구	북부	화명중학교
02-부산	북구	북부	신덕중학교
02-부산	사상구	북부	주례여자중학교
02-부산	사하구	서부	다선중학교
02-부산	사하구	서부	당리중학교
02-부산	서구	서부	부산대신중학교
02-부산	수영구	해운대	망미중학교
02-부산	연제구	동래	연일중학교
02-부산	영도구	서부	해동중학교
02-부산	중구	서부	덕원중학교
02-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인지중학교
02-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장산중학교
03-대구	남구	남부	심인중학교
03-대구	달서구	남부	영남중학교
03-대구	달서구	남부	와룡중학교
03-대구	달서구	남부	월배중학교
03-대구	달성군	달성	다사중학교
03-대구	동구	동부	강동중학교
03-대구	북구	서부	침산중학교
03-대구	북구	서부	대구일중학교
03-대구	서구	서부	서남중학교
03-대구	수성구	동부	대구동중학교
03-대구	수성구	동부	시지중학교
03-대구	중구	동부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04-인천	강화군	강화	강화여자중학교
04-인천	계양구	서부	양촌중학교
04-인천	계양구	서부	방축중학교
04-인천	남구	남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04-인천	남동구	동부	논곡중학교
04-인천	남동구	동부	상인천중학교
04-인천	동구	남부	인천박문여자중학교
04-인천	부평구	북부	청천중학교
04-인천	부평구	북부	부일여자중학교
04-인천	서구	서부	동인천여자중학교

04-인천	서구	서부	제물포중학교
04-인천	연수구	동부	옥련중학교
04-인천	연수구	동부	선학중학교
04-인천	옹진군	남부	영흥중학교
04-인천	중구	남부	인성여자중학교
05-광주	광산구	서부	월봉중학교
05-광주	광산구	서부	광산중학교
05-광주	남구	서부	광주송원중학교
05-광주	동구	동부	무등중학교
05-광주	북구	동부	신광중학교
05-광주	북구	동부	광주동신중학교
05-광주	서구	서부	유덕중학교
05-광주	서구	서부	광주화정중학교
06-대전	대덕구	동부	경덕중학교
06-대전	동구	동부	동신중학교
06-대전	서구	서부	대전대신중학교
06-대전	서구	서부	대전서중학교
06-대전	서구	서부	대전월평중학교
06-대전	유성구	서부	대전지족중학교
06-대전	중구	동부	대전태평중학교
07-울산	남구	강남	대화중학교
07-울산	남구	강남	삼호중학교
07-울산	동구	강북	화진중학교
07-울산	북구	강북	매곡중학교
07-울산	울주군	강남	남창중학교
07-울산	중구	강북	성안중학교
08-경기	가평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백석중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화정중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백신중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	오마중학교
08-경기	과천시	안양	과천문원중학교
08-경기	광명시	광명	하안중학교
08-경기	광주시	광주·하남	곤지암중학교
08-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교문중학교
08-경기	군포시	군포·의왕	군포중학교
08-경기	김포시	김포	김포여자중학교
08-경기	남양주시	구리·남양주	광동중학교
08-경기	남양주시	구리·남양주	동화중학교
08-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양주	생연중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중흥중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소사중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	성곡중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성남문원중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성남중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매송중학교

08-경기	성남시	성남	야탑중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세류중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동성중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영일중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원	명인중학교
08-경기	시흥시	시흥	서해중학교
08-경기	시흥시	시흥	군서중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선일중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원곡중학교
08-경기	안산시	안산	성안중학교
08-경기	안성시	안성	명륜여자중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	대안중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	근명중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	임곡중학교
08-경기	양주시	동두천·양주	덕계중학교
08-경기	양평군	양평	양평중학교
08-경기	여주군	여주	여주여자중학교
08-경기	연천군	연천	연천중학교
08-경기	오산시	화성·오산	오산중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포곡중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용인신촌중학교
08-경기	용인시	용인	수지중학교
08-경기	의왕시	군포·의왕	의왕부곡중학교
08-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효자중학교
08-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충의중학교
08-경기	이천시	이천	대월중학교
08-경기	파주시	파주	율곡중학교
08-경기	평택시	평택	포승중학교
08-경기	평택시	평택	세교중학교
08-경기	포천시	포천	경북중학교
08-경기	하남시	광주·하남	신장중학교
08-경기	화성시	화성·오산	진안중학교
08-경기	화성시	화성·오산	석우중학교
09-강원	강릉시	강릉	경포중학교
09-강원	고성군	고성	거진중학교
09-강원	동해시	동해	동해광희중학교
09-강원	삼척시	삼척	원덕중학교
09-강원	속초시	속초·양양	속초중학교
09-강원	양구군	양구	양구중학교
09-강원	양양군	속초·양양	양양여자중학교
09-강원	영월군	영월	주천중학교
09-강원	원주시	원주	태강중학교
09-강원	원주시	원주	남원주중학교
09-강원	인제군	인제	상남중학교
09-강원	정선군	정선	정선중학교
09-강원	철원군	철원	철원중학교

09-강원	춘천시	춘천	남춘천여자중학교
09-강원	춘천시	춘천	후평중학교
09-강원	태백시	태백	황지중학교
09-강원	평창군	평창	평창중학교
09-강원	홍천군	홍천	홍천중학교
09-강원	화천군	화천	화천중학교
09-강원	횡성군	횡성	둔내중학교
10-충북	괴산군	괴산	칠성중학교
10-충북	단양군	단양	단양중학교
10-충북	보은군	보은	보은중학교
10-충북	영동군	영동	영동중학교
10-충북	옥천군	옥천	옥천여자중학교
10-충북	음성군	음성	음성중학교
10-충북	제천시	제천	대제중학교
10-충북	증평군	괴산	증평중학교
10-충북	진천군	진천	광혜원중학교
10-충북	청원군	청원	각리중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청주여자중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남성중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	원봉중학교
10-충북	충주시	충주	충주북여자중학교
11-충남	계룡시	논산	금암중학교
11-충남	공주시	공주	봉황중학교
11-충남	금산군	금산	금산중학교
11-충남	논산시	논산	썬별여자중학교
11-충남	당진군	당진	당진중학교
11-충남	보령시	보령	대천여자중학교
11-충남	부여군	부여	부여여자중학교
11-충남	서산시	서산	서산여자중학교
11-충남	서천군	서천	장항중학교
11-충남	아산시	아산	온양용화중학교
11-충남	연기군	연기	조치원중학교
11-충남	예산군	예산	예산중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	천안동중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	계광중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	천안용곡중학교
11-충남	청양군	청양	청양중학교
11-충남	태안군	태안	원이중이원분교장
11-충남	홍성군	홍성	홍성중학교
12-전북	고창군	고창	고창여자중학교
12-전북	군산시	군산	군산진포중학교
12-전북	군산시	군산	군산동원중학교
12-전북	김제시	김제	김제중앙중학교
12-전북	남원시	남원	대강중학교
12-전북	무주군	무주	설천중학교
12-전북	부안군	부안	부안여자중학교

12-전북	순창군	순창	순창중학교
12-전북	완주군	완주	완주중학교
12-전북	익산시	익산	이리북중학교
12-전북	익산시	익산	익산지원중학교
12-전북	임실군	임실	임실동중학교
12-전북	장수군	장수	천천중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동중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서곡중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	전주서중학교
12-전북	정읍시	정읍	정일여자중학교
12-전북	진안군	진안	진안여자중학교
13-전남	강진군	강진	성전중학교
13-전남	고흥군	고흥	고흥중학교
13-전남	곡성군	곡성	옥과중학교
13-전남	광양시	광양	광양중학교
13-전남	구례군	구례	구례여자중학교
13-전남	나주시	나주	나주다시중학교
13-전남	담양군	담양	담양여자중학교
13-전남	목포시	목포	목포덕인중학교
13-전남	목포시	목포	목포향도여자중학교
13-전남	무안군	무안	무안중학교
13-전남	보성군	보성	보성여자중학교
13-전남	순천시	순천	순천신흥중학교
13-전남	순천시	순천	순천이수중학교
13-전남	신안군	신안	임자중학교
13-전남	여수시	여수	율촌중학교
13-전남	여수시	여수	여수종고중학교
13-전남	영광군	영광	영광중학교
13-전남	영암군	영암	영암여자중학교
13-전남	완도군	완도	완도여자중학교
13-전남	장성군	장성	장성중학교
13-전남	장흥군	장흥	장흥장평중학교
13-전남	진도군	진도	진도중학교
13-전남	함평군	함평	함평중학교
13-전남	해남군	해남	현산중학교
13-전남	화순군	화순	화순중학교
14-경북	경산시	경산	장산중학교
14-경북	경주시	경주	불국중학교
14-경북	경주시	경주	안강중학교
14-경북	고령군	고령	성산중학교
14-경북	구미시	구미	송정여자중학교
14-경북	구미시	구미	선주중학교
14-경북	군위군	군위	효령중학교
14-경북	김천시	김천	지례중학교
14-경북	문경시	문경	접촌중학교
14-경북	봉화군	봉화	소천중학교

14-경북	상주시	상주	상주중학교
14-경북	성주군	성주	성주여자중학교
14-경북	안동시	안동	경안여자중학교
14-경북	영덕군	영덕	강구중학교
14-경북	영양군	영양	영양중학교
14-경북	영주시	영주	영광중학교
14-경북	영천시	영천	영천여자중학교
14-경북	예천군	예천	예천여자중학교
14-경북	울릉군	울릉	울릉중학교
14-경북	울진군	울진	울진중학교
14-경북	의성군	의성	금성중학교
14-경북	청도군	청도	모계중학교
14-경북	청송군	청송	진성중학교
14-경북	칠곡군	칠곡	석전중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	오천중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	포항여자중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	포항제철중학교
15-경남	거제시	거제	옥포중학교
15-경남	거창군	거창	거창여자중학교
15-경남	고성군	고성	고성여자중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	구산중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	월산중학교
15-경남	남해군	남해	상주중학교
15-경남	마산시	마산	마산중학교
15-경남	마산시	마산	호계중학교
15-경남	밀양시	밀양	세종중학교
15-경남	사천시	사천	삼천포제일중학교
15-경남	산청군	산청	단성중학교
15-경남	양산시	양산	개운중학교
15-경남	의령군	의령	지정중학교
15-경남	진주시	진주	대아중학교
15-경남	진주시	진주	진주여자중학교
15-경남	진해시	진해	동진중학교
15-경남	창녕군	창녕	창녕옥야중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	사파중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	반송중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	남산중학교
15-경남	통영시	통영	충렬여자중학교
15-경남	하동군	하동	하동중앙중학교
15-경남	함안군	함안	법수중학교
15-경남	함양군	함양	함양여자중학교
15-경남	합천군	합천	합천중학교
16-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16-제주	제주시	제주시	아라중학교
16-제주	제주시	제주시	제주중앙여자중학교



### <고등학교-인문계>

지역	시군구	학교명
01-서울	강남구	국악고등학교
01-서울	강남구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01-서울	강동구	상일여자고등학교
01-서울	강동구	동북고등학교
01-서울	강북구	신일고등학교
01-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
01-서울	강서구	영일고등학교
01-서울	관악구	삼성고등학교
01-서울	관악구	남강고등학교
01-서울	광진구	자양고등학교
01-서울	광진구	대원여자고등학교
01-서울	구로구	우신고등학교
01-서울	금천구	문일고등학교
01-서울	노원구	상명고등학교
01-서울	노원구	청원고등학교
01-서울	도봉구	효문고등학교
01-서울	동대문구	대광고등학교
01-서울	동작구	승의여자고등학교
01-서울	마포구	경성고등학교
01-서울	서대문구	이대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01-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01-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
01-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
01-서울	성북구	용문고등학교
01-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01-서울	송파구	창덕여자고등학교
01-서울	양천구	광영고등학교
01-서울	양천구	양정고등학교
01-서울	영등포구	영신고등학교
01-서울	용산구	성심여자고등학교
01-서울	은평구	동명여자고등학교
01-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
01-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01-서울	중구	성동고등학교
01-서울	중랑구	신현고등학교
02-부산	강서구	부산강서고등학교
02-부산	금정구	브니엘여자고등학교
02-부산	기장군	부산장안고등학교
02-부산	남구	동천고등학교
02-부산	동구	부산고등학교
02-부산	동래구	용인고등학교
02-부산	동래구	사직고등학교
02-부산	부산진구	부산진여자고등학교

02-부산	부산진구	가야고등학교
02-부산	북구	화명고등학교
02-부산	사상구	대덕여자고등학교
02-부산	사하구	삼성여자고등학교
02-부산	서구	경남고등학교
02-부산	수영구	부산동여자고등학교
02-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
02-부산	영도구	영도여자고등학교
02-부산	중구	남성여자고등학교
02-부산	해운대구	양운고등학교
03-대구	남구	십인고등학교
03-대구	달서구	대진고등학교
03-대구	달서구	성서고등학교
03-대구	달성군	화원고등학교
03-대구	동구	정동고등학교
03-대구	북구	성광고등학교
03-대구	북구	학남고등학교
03-대구	서구	달성고등학교
03-대구	수성구	대륜고등학교
03-대구	수성구	덕원고등학교
03-대구	중구	계성고등학교
04-인천	강화군	강화고등학교
04-인천	계양구	계양고등학교
04-인천	남구	인화여자고등학교
04-인천	남동구	석정여자고등학교
04-인천	남동구	송덕여자고등학교
04-인천	동구	동산고등학교
04-인천	부평구	인천진산고등학교
04-인천	부평구	세일고등학교
04-인천	서구	가좌고등학교
04-인천	연수구	송도고등학교
04-인천	옹진군	덕적고등학교
04-인천	중구	광성고등학교
05-광주	광산구	정광고등학교
05-광주	남구	대광여자고등학교
05-광주	남구	대성여자고등학교
05-광주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
05-광주	북구	고려고등학교
05-광주	북구	광주송일고등학교
05-광주	서구	광덕고등학교
06-대전	대덕구	신탄진고등학교
06-대전	동구	명석고등학교
06-대전	서구	대전외국어고등학교
06-대전	서구	대전구봉고등학교
06-대전	유성구	유성고등학교
06-대전	중구	대전고등학교

07-울산	남구	성광여자고등학교
07-울산	남구	학성고등학교
07-울산	동구	현대청운고등학교
07-울산	북구	효정고등학교
07-울산	울주군	남창고등학교
07-울산	중구	학성여자고등학교
08-경기	가평군	청십국제고등학교
08-경기	고양시	백양고등학교
08-경기	고양시	고양외국어고등학교
08-경기	고양시	정발고등학교
08-경기	과천시	과천중앙고등학교
08-경기	광명시	광명고등학교
08-경기	광주시	광주고등학교
08-경기	구리시	인창고등학교
08-경기	군포시	용호고등학교
08-경기	김포시	풍무고등학교
08-경기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
08-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08-경기	부천시	소명여자고등학교
08-경기	부천시	소사고등학교
08-경기	부천시	부천고등학교
08-경기	성남시	분당중앙고등학교
08-경기	성남시	불곡고등학교
08-경기	성남시	서현고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조원고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수성고등학교
08-경기	수원시	청명고등학교
08-경기	수원시	태장고등학교
08-경기	시흥시	군서고등학교
08-경기	안산시	초지고등학교
08-경기	안산시	송호고등학교
08-경기	안성시	안법고등학교
08-경기	안양시	신성고등학교
08-경기	안양시	안양고등학교
08-경기	양주시	덕정고등학교
08-경기	양평군	청운고등학교
08-경기	여주군	대신고등학교
08-경기	오산시	운천고등학교
08-경기	용인시	대지고등학교
08-경기	용인시	서원고등학교
08-경기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08-경기	의정부시	경민고등학교
08-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고등학교
08-경기	이천시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08-경기	파주시	울곡고등학교
08-경기	평택시	평택고등학교

08-경기	포천시	포천고등학교
08-경기	하남시	남한고등학교
08-경기	화성시	안화고등학교
09-강원	강릉시	강릉명륜고등학교
09-강원	고성군	고성고등학교
09-강원	동해시	북평여자고등학교
09-강원	삼척시	삼척고등학교
09-강원	속초시	속초고등학교
09-강원	양양군	양양고등학교
09-강원	영월군	영월고등학교
09-강원	원주시	대성고등학교
09-강원	인제군	원통고등학교
09-강원	정선군	임계고등학교
09-강원	철원군	철원고등학교
09-강원	춘천시	춘천여자고등학교
09-강원	태백시	장성여자고등학교
09-강원	평창군	평창고등학교
09-강원	홍천군	홍천여자고등학교
09-강원	화천군	사내고등학교
09-강원	횡성군	민족사관고등학교
10-충북	괴산군	괴산고등학교
10-충북	단양군	단양고등학교
10-충북	보은군	보은고등학교
10-충북	영동군	황간고등학교
10-충북	옥천군	옥천고등학교
10-충북	음성군	음성고등학교
10-충북	제천시	세명고등학교
10-충북	증평군	형석고등학교
10-충북	진천군	진천고등학교
10-충북	청원군	청원고등학교
10-충북	청주시	충북여자고등학교
10-충북	청주시	청주신흥고등학교
10-충북	충주시	충주고등학교
11-충남	계룡시	용남고등학교
11-충남	공주시	공주영명고등학교
11-충남	금산군	금산고등학교
11-충남	논산시	연무고등학교
11-충남	당진군	신평고등학교
11-충남	보령시	웅천고등학교
11-충남	부여군	부여고등학교
11-충남	서산시	서일고등학교
11-충남	서천군	서천고등학교
11-충남	아산시	온양고등학교
11-충남	연기군	조치원고등학교
11-충남	예산군	예산여자고등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신당고등학교

11-충남	천안시	천안쌍용고등학교
11-충남	청양군	청양정산고등학교
11-충남	태안군	태안고등학교
11-충남	홍성군	광천고등학교
12-전북	고창군	고창고등학교
12-전북	군산시	군산여자고등학교
12-전북	김제시	덕암고등학교
12-전북	남원시	성원고등학교
12-전북	무주군	무풍고등학교
12-전북	부안군	백산고등학교
12-전북	순창군	순창고등학교
12-전북	완주군	한별고등학교
12-전북	익산시	원광고등학교
12-전북	장수군	한국마사고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일고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12-전북	정읍시	호남고등학교
12-전북	진안군	마령고등학교
13-전남	강진군	성전고등학교
13-전남	고흥군	녹동고등학교
13-전남	곡성군	곡성고등학교
13-전남	광양시	중마고등학교
13-전남	구례군	구례고등학교
13-전남	나주시	광남고등학교
13-전남	담양군	담양고등학교
13-전남	목포시	목포덕인고등학교
13-전남	무안군	백제고등학교
13-전남	보성군	별교고등학교
13-전남	순천시	순천효천고등학교
13-전남	신안군	도초고등학교
13-전남	여수시	여수고등학교
13-전남	영광군	영산성지고등학교
13-전남	영암군	영암여자고등학교
13-전남	완도군	완도고등학교
13-전남	장성군	장성고등학교
13-전남	장흥군	장흥고등학교
13-전남	진도군	진도고등학교
13-전남	함평군	나산고등학교
13-전남	해남군	해남고등학교
13-전남	화순군	화순고등학교
14-경북	경산시	경산여자고등학교
14-경북	경주시	경주여자고등학교
14-경북	고령군	대가야고등학교
14-경북	구미시	현일고등학교
14-경북	구미시	선주고등학교
14-경북	군위군	효령고등학교

14-경북	김천시	한일여자고등학교
14-경북	문경시	문경여자고등학교
14-경북	봉화군	봉화고등학교
14-경북	상주시	합창고등학교
14-경북	성주군	가천고등학교
14-경북	안동시	성창여자고등학교
14-경북	영덕군	영덕여자고등학교
14-경북	영양군	영양여자고등학교
14-경북	영주시	영주여자고등학교
14-경북	영천시	영천고등학교
14-경북	예천군	예천여자고등학교
14-경북	울진군	울진고등학교
14-경북	의성군	의성고등학교
14-경북	청도군	이서고등학교
14-경북	청송군	청송고등학교
14-경북	칠곡군	약목고등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예술고등학교
14-경북	포항시	포항영신고등학교
15-경남	거제시	거제중앙고등학교
15-경남	거창군	거창중앙고등학교
15-경남	고성군	고성중앙고등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경원고등학교
15-경남	김해시	김해여자고등학교
15-경남	남해군	남해제일고등학교
15-경남	마산시	성지여자고등학교
15-경남	마산시	마산고등학교
15-경남	밀양시	삼랑진고등학교
15-경남	사천시	삼천포고등학교
15-경남	산청군	덕산고등학교
15-경남	양산시	양산남부고등학교
15-경남	의령군	의령여자고등학교
15-경남	진주시	진주중앙고등학교
15-경남	진주시	대아고등학교
15-경남	진해시	진해제일고등학교
15-경남	창녕군	남지고등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사파고등학교
15-경남	창원시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
15-경남	통영시	통영고등학교
15-경남	하동군	하동여자고등학교
15-경남	함안군	칠원고등학교
15-경남	함양군	함양고등학교
15-경남	합천군	합천고등학교
16-제주	서귀포시	남주고등학교
16-제주	제주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고등학교-전문계>

지역	시군구	구분	학교명
01-서울	강남구	공업고등학교	서울로봇고등학교
01-서울	강동구	상업고등학교	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
01-서울	강북구	상업고등학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01-서울	강서구	상업고등학교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01-서울	관악구	상업고등학교	광신정보산업고등학교
01-서울	구로구	공업고등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
01-서울	금천구	상업고등학교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01-서울	노원구	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01-서울	도봉구	실업고등학교	신경여자실업고등학교
01-서울	동대문구	공업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
01-서울	동작구	공업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01-서울	마포구	공업고등학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01-서울	서초구	공업고등학교	서울전자고등학교
01-서울	성동구	공업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
01-서울	성북구	공업고등학교	서울북공업고등학교
01-서울	송파구	상업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01-서울	양천구	상업고등학교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01-서울	영등포구	공업고등학교	한강미디어고등학교
01-서울	용산구	공업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
01-서울	은평구	상업고등학교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01-서울	종로구	상업고등학교	대동세무고등학교
01-서울	중구	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01-서울	중랑구	상업고등학교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02-부산	강서구	공업고등학교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02-부산	금정구	상업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02-부산	남구	공업고등학교	부산공업고등학교
02-부산	동구	공업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02-부산	동래구	공업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02-부산	부산진구	공업고등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02-부산	북구	종합고등학교	삼정고등학교
02-부산	사상구	공업고등학교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02-부산	사하구	공업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02-부산	서구	상업고등학교	부산관광고등학교
02-부산	수영구	상업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02-부산	연제구	상업고등학교	계성정보고등학교
02-부산	영도구	해양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02-부산	중구	공업고등학교	부산디지털고등학교
02-부산	해운대구	상업고등학교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03-대구	남구	상업고등학교	대구여자상업정보고등학교
03-대구	달서구	공업고등학교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03-대구	달성군	공업고등학교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03-대구	동구	가사고등학교	대구관광고등학교
03-대구	서구	공업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03-대구	수성구	농림업고등학교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03-대구	중구	공업고등학교	경북공업고등학교
04-인천	강화군	실업고등학교	강남고등학교
04-인천	계양구	공업고등학교	계산공업고등학교
04-인천	남구	공업고등학교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
04-인천	남동구	상업고등학교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04-인천	동구	상업고등학교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04-인천	부평구	공업고등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04-인천	서구	공업고등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04-인천	연수구	해양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04-인천	옹진군	종합고등학교	백령종합고등학교
04-인천	중구	상업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05-광주	광산구	실업고등학교	광주정보고등학교
05-광주	남구	상업고등학교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05-광주	북구	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06-대전	대덕구	공업고등학교	경덕공업고등학교
06-대전	동구	공업고등학교	계룡공업고등학교
06-대전	유성구	공업고등학교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06-대전	중구	공업고등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07-울산	남구	상업고등학교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07-울산	동구	공업고등학교	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
07-울산	북구	공업고등학교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
07-울산	울주군	상업고등학교	울산정보산업고등학교
07-울산	중구	공업고등학교	울산에니원고등학교
08-경기	가평군	종합고등학교	가평고등학교
08-경기	고양시	상업고등학교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
08-경기	광명시	상업고등학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08-경기	광주시	종합고등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08-경기	군포시	상업고등학교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08-경기	김포시	종합고등학교	김포제일고등학교
08-경기	남양주시	종합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08-경기	동두천시	종합고등학교	동두천중앙고등학교
08-경기	부천시	공업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08-경기	성남시	상업고등학교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08-경기	수원시	공업고등학교	수원하이텍고등학교
08-경기	시흥시	실업고등학교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08-경기	안산시	공업고등학교	안산공업고등학교
08-경기	안성시	종합고등학교	가온고등학교
08-경기	안양시	상업고등학교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08-경기	양주시	종합고등학교	남문고등학교
08-경기	양평군	종합고등학교	지평고등학교
08-경기	여주군	종합고등학교	여주제일고등학교
08-경기	연천군	종합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
08-경기	오산시	상업고등학교	오산정보고등학교
08-경기	용인시	상업고등학교	용인정보고등학교
08-경기	의정부시	공업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



08-경기	이천시	실업고등학교	한국도예고등학교
08-경기	과주시	종합고등학교	문산여자고등학교
08-경기	평택시	공업고등학교	동일공업고등학교
08-경기	포천시	종합고등학교	포천일고등학교
08-경기	하남시	상업고등학교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08-경기	화성시	종합고등학교	비봉고등학교
09-강원	강릉시	종합고등학교	강릉문성고등학교
09-강원	고성군	실업고등학교	동광농공고등학교
09-강원	동해시	종합고등학교	동해광희고등학교
09-강원	삼척시	종합고등학교	도계고등학교
09-강원	속초시	종합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09-강원	양구군	종합고등학교	양구고등학교
09-강원	양양군	종합고등학교	양양여자고등학교
09-강원	영월군	종합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
09-강원	원주시	공업고등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
09-강원	인제군	종합고등학교	인제고등학교
09-강원	정선군	종합고등학교	사북고등학교
09-강원	철원군	공업고등학교	김화공업고등학교
09-강원	춘천시	종합고등학교	성수여자고등학교
09-강원	태백시	공업고등학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09-강원	평창군	종합고등학교	진부고등학교
09-강원	홍천군	농림업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09-강원	화천군	실업고등학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09-강원	횡성군	종합고등학교	횡성여자고등학교
10-충북	단양군	공업고등학교	단양공업고등학교
10-충북	보은군	실업고등학교	보은정보고등학교
10-충북	영동군	상업고등학교	영동인터넷고등학교
10-충북	옥천군	상업고등학교	옥천상업고등학교
10-충북	음성군	공업고등학교	충북반도체고등학교
10-충북	제천시	종합고등학교	제천제일고등학교
10-충북	증평군	상업고등학교	증평정보고등학교
10-충북	진천군	상업고등학교	진천상업고등학교
10-충북	청원군	상업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10-충북	청주시	공업고등학교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10-충북	충주시	공업고등학교	충주공업고등학교
11-충남	공주시	농림업고등학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11-충남	금산군	공업고등학교	진산공업고등학교
11-충남	논산시	상업고등학교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11-충남	당진군	실업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11-충남	보령시	상업고등학교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11-충남	부여군	공업고등학교	부여전자고등학교
11-충남	서산시	농림업고등학교	서산중앙고등학교
11-충남	서천군	상업고등학교	충남에니메이션고등학교
11-충남	아산시	종합고등학교	온양한울고등학교
11-충남	예산군	상업고등학교	예산정보미디어고등학교
11-충남	천안시	농림업고등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

11-충남	청양군	실업고등학교	청양고등학교
11-충남	태안군	종합고등학교	태안여자고등학교
11-충남	홍성군	상업고등학교	광천제일고등학교
12-전북	고창군	종합고등학교	고창여자고등학교
12-전북	군산시	상업고등학교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12-전북	김제시	상업고등학교	덕암정보고등학교
12-전북	남원시	상업고등학교	남원제일고등학교
12-전북	무주군	종합고등학교	안성고등학교
12-전북	부안군	공업고등학교	출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12-전북	순창군	종합고등학교	순창제일고등학교
12-전북	완주군	공업고등학교	삼례공업고등학교
12-전북	익산시	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12-전북	임실군	종합고등학교	임실서고등학교
12-전북	장수군	종합고등학교	장수고등학교
12-전북	전주시	상업고등학교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2-전북	정읍시	실업고등학교	정읍제일고등학교
12-전북	진안군	공업고등학교	진안공업고등학교
13-전남	강진군	종합고등학교	성요셉여자고등학교
13-전남	고흥군	실업고등학교	고흥실업고등학교
13-전남	곡성군	실업고등학교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13-전남	광양시	실업고등학교	광양실업고등학교
13-전남	구례군	농림업고등학교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
13-전남	나주시	공업고등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
13-전남	담양군	공업고등학교	담양공업고등학교
13-전남	목포시	공업고등학교	목포공업고등학교
13-전남	무안군	공업고등학교	무안고등학교
13-전남	보성군	실업고등학교	보성실업고등학교
13-전남	순천시	공업고등학교	순천공업고등학교
13-전남	신안군	종합고등학교	압해고등학교
13-전남	여수시	실업고등학교	진성여자고등학교
13-전남	영광군	실업고등학교	영광실업고등학교
13-전남	영암군	공업고등학교	구림공업고등학교
13-전남	완도군	수산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13-전남	장성군	실업고등학교	장성실업고등학교
13-전남	장흥군	실업고등학교	장흥실업고등학교
13-전남	진도군	실업고등학교	진도실업고등학교
13-전남	함평군	종합고등학교	전남보건고등학교
13-전남	해남군	실업고등학교	황산실업고등학교
13-전남	화순군	실업고등학교	화순실업고등학교
14-경북	경산시	공업고등학교	경북자동차고등학교
14-경북	경주시	종합고등학교	태화고등학교
14-경북	고령군	종합고등학교	고령여자종합고등학교
14-경북	구미시	상업고등학교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
14-경북	군위군	상업고등학교	군위정보고등학교
14-경북	김천시	실업고등학교	김천농공고등학교
14-경북	문경시	상업고등학교	문경관광고등학교

14-경북	봉화군	상업고등학교	경북인터넷고등학교
14-경북	상주시	상업고등학교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
14-경북	성주군	종합고등학교	성주여자고등학교
14-경북	안동시	공업고등학교	안동공업고등학교
14-경북	영덕군	종합고등학교	영덕고등학교
14-경북	영주시	실업고등학교	영주동산고등학교
14-경북	영천시	종합고등학교	영천성남여자고등학교
14-경북	울릉군	종합고등학교	울릉종합고등학교
14-경북	울진군	종합고등학교	죽변고등학교
14-경북	의성군	공업고등학교	의성공업고등학교
14-경북	청도군	공업고등학교	청도전자고등학교
14-경북	청송군	종합고등학교	청송여자종합고등학교
14-경북	포항시	상업고등학교	동지여자고등학교
15-경남	거제시	상업고등학교	거제여자고등학교
15-경남	거창군	실업고등학교	아림고등학교
15-경남	고성군	종합고등학교	고성고등학교
15-경남	김해시	공업고등학교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15-경남	남해군	수산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15-경남	마산시	공업고등학교	한일전산여자고등학교
15-경남	밀양시	상업고등학교	밀성제일고등학교
15-경남	사천시	농림업고등학교	경남자연고등학교
15-경남	산청군	종합고등학교	단성고등학교
15-경남	양산시	종합고등학교	양산여자고등학교
15-경남	의령군	종합고등학교	의령고등학교
15-경남	진주시	공업고등학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15-경남	진해시	종합고등학교	진해중앙고등학교
15-경남	창녕군	종합고등학교	창녕여자고등학교
15-경남	창원시	상업고등학교	경남관광고등학교
15-경남	통영시	종합고등학교	통영제일고등학교
15-경남	하동군	종합고등학교	하동고등학교
15-경남	함안군	종합고등학교	함안고등학교
15-경남	함양군	실업고등학교	함양제일고등학교
15-경남	합천군	종합고등학교	합천여자고등학교
16-제주	서귀포시	종합고등학교	표선고등학교
16-제주	제주시	종합고등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

## [부록 5] 문항가중치 결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정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상담과 연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정책연구로써 전국 규모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구는 실태조사 척도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문항의 가중치 결정을 위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들이 위기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아래 설문문항들을 보시고 이 문항들이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이 값지게 쓰이게 될 것을 약속드리며, 자문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설문 실시 요령>

1. 아래 설문을 다 작성하신 후 **다시 발송(이메일 답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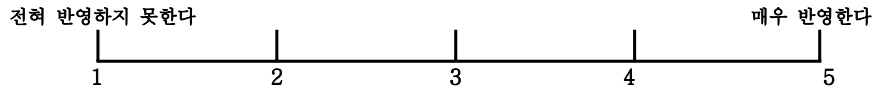
6월 17일(목)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메일 : monicaphj@kyci.or.kr  
FAX : 02-2250-3005(성함과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Tel. 02-2250-3072 박현진, 02-2250-3070 배주미)

● **답례품 받으실 주소 :**

※ 설문 문항의 가중치 결정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설문 내용을 보시고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번호에 밑줄을 그어 주세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매우 반영한다				
1.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1	2	3	4	5	1	2	3	4	5
2.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1	2	3	4	5	1	2	3	4	5
3.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1	2	3	4	5
4. 늘 슬프다.	1	2	3	4	5	1	2	3	4	5
5. 이유 없이 불안하다.	1	2	3	4	5	1	2	3	4	5
6.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1	2	3	4	5	1	2	3	4	5
7.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1	2	3	4	5	1	2	3	4	5
8.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더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	1	2	3	4	5	1	2	3	4	5
9. 자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1	2	3	4	5	1	2	3	4	5
10.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1	2	3	4	5	1	2	3	4	5
11.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1	2	3	4	5	1	2	3	4	5
12.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1	2	3	4	5	1	2	3	4	5
13.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1	2	3	4	5	1	2	3	4	5
14.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1	2	3	4	5	1	2	3	4	5
15.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1	2	3	4	5	1	2	3	4	5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매우 반영한다
31. 나는 학교가 싫다.	1	2	3	4	5
32.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1	2	3	4	5
33. 부모님이 싸우실 때 폭력을 사용한 다.	1	2	3	4	5
34. 집이나 학교 근처에 술집 등 유흥 업소가 있다.	1	2	3	4	5
35. 우리 동네에는 범죄가 자주 일어난 다.	1	2	3	4	5
36.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1	2	3	4	5
37. 가족 중에 범죄로 소년원이나 교도 소에 갔던 사람이 있다.	1	2	3	4	5
38.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있 다.	1	2	3	4	5
39. 비행을 저지르는 형제가 있다.	1	2	3	4	5
40. 가족 중 가출했던 혹은 가출한 사 람이 있다.	1	2	3	4	5
41.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42.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1	2	3	4	5
43.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 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1	2	3	4	5
44.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예: 일진) 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1	2	3	4	5
45. 종종 수업을 빼먹는다.	1	2	3	4	5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매우 반영한다
46.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5
47. <u>지난 한달 동안</u>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1	2	3	4	5
48. <u>지난 한달 동안</u>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49.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0. <u>지난 한달 동안</u>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1	2	3	4	5
51. <u>지난 한달 동안</u>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	3	4	5
52. <u>지난 한달 동안</u>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	2	3	4	5
53. <u>지난 한달 동안</u>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54.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55.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56.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57. <u>지난 1년 동안</u>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58. <u>지난 1년 동안</u>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1	2	3	4	5
59.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1	2	3	4	5
60.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1	2	3	4	5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매우 반영한다
61. <u>지난 1년 동안</u>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1	2	3	4	5
62. <u>지난 1년 동안</u> 친구에게 심한 언어 폭력 한 적이 있다.	1	2	3	4	5
63. <u>지난 1년 동안</u>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1	2	3	4	5
64. <u>지난 1년 동안</u>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1	2	3	4	5
65. <u>지난 1년 동안</u>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1	2	3	4	5
66.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67. <u>지난 1년 동안</u>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1	2	3	4	5
68.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69. <u>지난 1년 동안</u>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0.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71.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1	2	3	4	5
72. <u>지난 1년 동안</u> 성폭력을 시도하거나 한 적이 있다.	1	2	3	4	5
73. <u>지난 1년 동안</u> 가출 한 경험이 있다.	1	2	3	4	5
74. 지금 가출한 상태이다.	1	2	3	4	5
75. 지금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1	2	3	4	5

♠ 감사합니다!



# 2010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condition of youth risk behaviors and compare the condition among adolescents at different areas in order to devise area-specific approach for the youth at risk. Based on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in 2006 and a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in 2009, we implement pilot survey, and professional consulting.

First, in order to make survey items on youth risk behaviors, we extensive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and consult the professionals. We make a pilot survey of 268 youths from 5th grade to 11th grade. After the pilot survey and professional discussion, we finalize 100 survey items of risk factors and risk results. The risk factors are composed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environmental factors related to family, school, peers. The risk results are made up of their results of adolescents' risk type and risk levels associated with internet overuse, physical abuse, runaway attempts, dropout thoughts, expulsion from school, school violence, drug abuse, drinking and smoking, stealing, sexual abuse, tempting to sex trafficking, suicidal plan or attempts.

For a nation-wide survey of 5,200,000 adolescents, researchers of Youth Counseling and Support Cent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were trained regarding the survey and coding process. We made a decision regarding the cut-off points between High-Risk Group and Potential-Risk Group, and between Potential-Risk Group and Normal Group using the Angoff method along with the panel discussion.

In this study, High-risk Group, Potential-risk Group, and Normal Group are classified by risk factors, and level 1 through level 6 are classified by risk results and risk factors. Integrated with risk factors and risk results, the High-risk Group

and risk result presence Group are categorized as the level 1 group, the Potential-risk Group and risk result presence group the level 2 group, the Normal Group and risk presence group as the level 3 group, the High-risk group and risk absence group as the level 4 group, the Potential-risk group and risk absence group as the level 5 group, and the Normal group and risk absence group as the level 6 group.

The 89,827 adolescents of school sample and 3,776 adolescents of disadvantaged sample are analyzed as the final sample.

This study shows that the high risk group is around 2%, the potential risk group 13.4%, and the normal group 84.6%.

We can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the high risk group need more professionals and social infrastructure. Second, we need to set up and manage the supporting system of integrative services for the youth at risk. Third, we are in need of the integrative and systematic supporting system for the runaway youth or school drop-outs. Fourth, the intensive and active support for the youth in low S.E.S., the residential care, group-home, and for youth from the multi-culture family are also needed. Fifth, we also need to systemize the education process for the professionals with the internet overuse. Sixth, taking the preventive and intensive countermeasure for high risk suicidal adolescent are also emphasized. Seventh, Providing and expand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sexual abused youths, sex trafficking youths, and sexual aggressive youths are pressing. Eighth, the expansion of the experts for the youth at risk are in need because the youth at risk, in most cases, have multiple problems, so the professionals from several areas need to collaborate at the same time.